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독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서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이,
내 무덤가 무성한 풀섶으로 때론 와서
괴로웠을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썩썩 바람 불어라……

천상병, <나의 가난은>

(나)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간이라도 걸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금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를 알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걸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
자니 응? 우린 부자야?”

㉢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먹살을 잡고 질질 끌
어다가 골통을 벽에다 퐁퐁 부딪쳐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
레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폐
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
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
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연 겪지 않고, 헌신
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달
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 이후 상훈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
지 않다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사실 자신이 부자였다고 밝힌다.]

“아버진 만족하고 계서,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
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장난이 유행할 거란
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
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낯새를 타가지고 네 얘
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
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썽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기자
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
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들어간 남자가 나었던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
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
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
산해. 이걸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기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
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
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릴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
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
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중에서

1-1. <보기>의 ㉠의 입장에서 (가)의 시를 비평할 때, (가)가 가
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순수 예술의 옹호자들은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영
역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 참여 예술의 옹호자들
은 현실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순수 예술을 현실 도피
라고 비판한다. 예술가도 시대의 아들이고 예술도 시대의 소
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예술
은 참여인 것이다.

1-2. ㉢에서 ‘나’와 ‘그’가 서로 대립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1-3. ㉠과 ㉡에서 나타난 가난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를 비교
하여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2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표준 이론에 따르면, 두 행위의 선택지가 있을 때 기대이익이 더 높은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선택지의 기대이익은 '그 행위를 선택할 경우 특정 결과를 얻게 될 확률'에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곱한 값을 합해서 구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의 앞면에 돈을 걸어 500원을 얻게 될 확률이 0.3이고 100원을 잃게 될 확률이 0.7이라면 앞면에 돈을 거는 것의 기대이익은 80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준 이론은 '예언자의 역설'이라 불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나에게 투명 상자와 불투명 상자가 제시되고 ㉠ 불투명 상자만 취할지 아니면 두 상자를 모두 취할지의 선택이 주어진다. 투명 상자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불투명 상자에 돈이 들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 나의 행위를 0.99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내가 불투명 상자만 취할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했다면 불투명 상자에 1억 원을 넣어 두었고, 내가 두 상자 모두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표준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나는 불투명 상자만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불투명 상자만 취하는 경우 그 상자에 1억 원이 들어 있을 확률은 0.99이므로 불투명 상자만 취하는 것의 기대이익은 9,900만 원인 반면,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의 기대이익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직관적으로 옳지 않다. 예언자가 사전에 어떤 예측을 했건 간에 1억 원은 이미 불투명 상자에 들어 있거나 들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든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다.

(나) '행위를 선택했을 경우 특정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내가 특정 행위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참일 확률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나의 행위가 특정 사건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이 둘이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령, 내가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내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참일 확률은 꽤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임이 분명하다. 전자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증거가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표준 이론의 실수는 바로 증거관계와 인과 관계를 혼동한 데에 있다. 내가 불투명 상자만 취하는 것은 그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 아닌 인과 관계에 대한 확률로 계산할 경우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나의 행동이 미칠 인과적 영향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기도 하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이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 이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인지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두 상자를 모

두 취하려고 함을 알게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미 불투명 상자에 1억 원이 들어 있지 않음을 거의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편이 더 이익일 것이다. 또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불투명 상자만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자. 그 경우에도 역시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편이 더 이익일 것이다. 결국 표준 이론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예언자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

2-1. <보기>의 사례에서 ㉠, ㉡에 대응하는 것을 각각 쓰시오. (50자 이내) [20점]

<보기>

'예언자의 역설'은 나의 행동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암을 야기하지 않지만, A를 즐겨 먹는 사람은 어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낮다고 하자. 이 사람이 눈앞에 놓인 A를 먹는 것의 기대이익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의 기대이익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A를 먹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일 수 있다.

2-2. <보기>의 판단이 옳다는 가정하에 (나)의 견해가 왜 이를 설명할 수 없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내 앞에 '범죄 없는 세상'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나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잠재적 범죄자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자. 나는 이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잠재적 범죄자가 없는 지구에서 사는 것을 잠재적 범죄자가 있는 지구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 나는 내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또 그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나 할 법한 일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나는 물론 내 자신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잠재적 범죄자가 있는 지구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우 당연히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2-3. <보기>는 (가)~(다)를 읽은 한 공학자의 반응이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가)~(다)에 나온 단어를 활용하여 쓰시오. (35자 이내) [20점]

<보기>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려는 공학자의 입장에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과 관계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로봇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로봇에 (㉢)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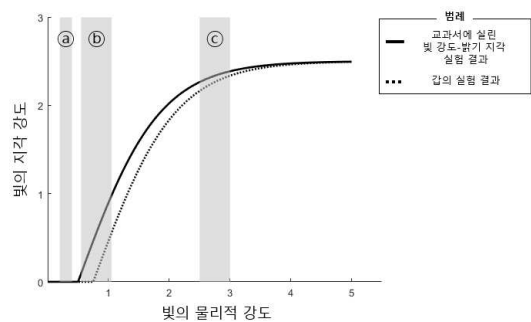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부 심리학자들은 정신물리학적 기법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연구했다. 정신물리학은 외부 환경의 자극과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기법으로 자극의 물리적 속성이 심리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초기 정신물리학 실험에서 정신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자극의 속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하며 각각의 자극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기록했다. 자극의 물리적 강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제시할 때 관찰된 정신적 변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신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 간의 수치화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물리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 간의 수치화된 관계를 나타낸 함수를 정신물리학 함수 또는 심리측정 함수라 한다. 한 초기 정신물리학 실험에서, 실험자는 작은 직경의 빛 자극을 여러 시행에 걸쳐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했는데, 시행마다 빛 자극의 밝기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빛에 대해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빛 자극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또는, 현재 제시된 빛 자극이 이전 빛 자극에 비해 더 밝는지 여부 등의 지각적 변화를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러한 주관적인 밝기 평정을 수치화하여 실험자들은 빛의 물리적 강도 변화와 지각과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했다. 이러한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을 통해, 초기 정신물리학자들은 빛 지각의 몇 가지 주요 원리들을 확립할 수 있었다. 첫째, 빛 강도의 물리적 변화가 반드시 밝기 지각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음을 관찰했다. 빛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밝기 지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빛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밝기 지각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 빛 강도의 물리적 변화와 밝기 지각은 비선형적 관계를 맺음을 관찰했다. 물리적 강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빛 자극의 지각적 밝기를 보고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빛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빛 강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빛 자극이 더 밝아졌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빛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빛 강도를 많이 증가시켜도 참가자들은 빛 자극 밝기가 조금 밝아졌다고 보고했다. 셋째, 사람에 따라 심리측정 함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관찰했다. 밝기에 예민한 사람은 작은 물리적 변화에도 밝기 지각의 변화를 보고하지만, 밝기에 둔감한 사람은 같은 양의 물리적 변화, 또는 그보다 큰 변화에도 밝기 지각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정신물리학 연구는 사람의 지각이 물리적 변화를 단순히 표상하고 처리하는 것 이상임을 보였다.

(나) 정교하고 엄격하게 실시된 정신물리학 실험 결과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과학적인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정신물리학 또한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된 정신물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외부 자극과 주관적 경험 간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즉, 물리적 자극의 체계적 변화가 초래하는 직접적인 지각적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물리적 자극의 체계적 변화 이외의 요인이 지각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험참가자의 집중도 또는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저조할 경우, 같은 강도의 물리적 자극은 일관되지 않은 지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한 실험참가자가 실험에 잘 집중할 때 지각 경험을 유도했던 특정 강도의 물리적 자극은, 같은

실험참가자의 주의가 산만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 경험을 유도하지 못한다. 이러한 실험참가자의 내적 상태는 실험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지만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실험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요인이 아니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또는 변인을 오염변인이라 하는데, 정신물리학 실험에서는 오염변인을 잘 통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정신물리학에서 측정하는 주관적 경험은 다양한 오염변인에 매우 취약하므로 오염변인이 잘 통제되지 않는 경우 실험의 결과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은 심리학 수업 시간에 배운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 결과를 재현해보기로 했다. 따로 실험 대상자를 모으기 어려워서 같은 막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에게 실험 대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친구들은 시험으로 피곤한 상태였지만 갑과 평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해주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교과서에 실린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 결과와 달랐고,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차 범위를 넘었다. 이에 갑은 교과서의 실험 결과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3-1. (다)의 교과서에 실린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 결과에서 ㉠~㉢ 영역이 의미하는 바를 (가)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각각 50자 이내) [25점]

3-2. (다)에서 갑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지 (나)를 근거로 평가하시오. (100자 이내) [25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인식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원은 인식주체의 감각이다. 세계에 대한 진리는 체계적 관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는 중립적 절차를 엄격히 지킴으로서 극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종종 사회적으로 성차별적인 연구결과가 생산될까? 바로 사회적 편견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개별 연구자의 이성을 흐리기 때문이다. 이 편견은 미신, 무지, 혹은 그릇된 교육에 따른 적대적 태도와 잘못된 신념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관습으로 고착된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연구과정 중 과학적 문제를 식별하고 규정짓는 단계에서 주로 개입되지만, 연구계획과 자료 수집 및 해석 단계에서 역시 나타난다. '여성과학자'라는 말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만큼 남성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기존의 지식 생산과 인증절차는 남성 경험을 보편화했다. 그러나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연구자가 여성이라면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가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서 과학 연구 규범을 엄수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산출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쁜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영역에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타파하여 여성에게도 교육, 취업, 교수직 채용의 관문을 확대해야 한다. 유능한 여성과학자가 늘어나면 과학인력 전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더 나은 과학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나) 모든 진리는 근본적으로 인식주체를 통해 매개된 것이다. 특정 시기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된 개인의 위치성과 지식생산은 분리되기 어렵다. 전통 과학이 말하는 객관성은 모든 사회적인 가치들을 제거함으로써 획득된다고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시선을 담으면서도 특권적 위치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한 객관성'이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주관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상 그 자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며, 그 결과 자신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입장들을 제거하는 오류를 범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피지배집단의 삶과 지배집단의 삶에서 출발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진리로 승인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관계가 내장된 사회에서 지배자의 관점은 편파적이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경험에 무지할 뿐 아니라,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을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지배자가 놓인 사회구조적 위치에서 세상을 보면 덜 편파적이고 더 비판적인 해석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지닌다. 피억압자, 소수자의 입장에서 서면 지배적인 틀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사회 체계의 여러 면을 볼 수 있고, 현실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객관성'을 지닌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삶의 관점은 남성의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별문제 없어 보이는 가설과 관행을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위계적 사회에서 강한 객관성을 위한 조건이 된다.

(다) ㉠ 근대과학 실천의 핵심은 가치중립적 관찰로부터 얻어지는 객관성이다. 이 객관성은 근대과학의 성공, 즉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인간 이성의 성공을 이끈 가장 주요한 동력이다. 이

러한 객관성에 기초해 형성된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과 대별되며, 이러한 틀에서는 '진리'로 여겨지는 것이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군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보편적 지식 개념에 저항하여 인식자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위치를 강조하는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에 기초한 '부분적 시각'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의 부분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종종 상대주의로 오해되기도 한다. 즉 타자의 시각에 공감할 수 없고 무관심해도 된다는 관점을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례로 상대주의자이자 자신을 백인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이 "나는 유색인 여성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 없고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백인', '남성'과 같은 정체성은 본질적 범주가 아니며 타자로서 '유색인', '여성'과 같은 범주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 주장의 상대주의적 부분성에서는 '백인 남성', '유색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소통 불가능한 관계로 설정된다. 이러한 부분성과는 달리 상황적 지식에 기초한 페미니스트적 부분성은 자신과 타자의 관점 모두의 부분성을 인지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상호연결성을 중시한다. 즉 우리 모두가 특정한 위치에서 세계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부분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부분성 자체의 혼종성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다른 부분적 시각들을 인지, 공감하고 상호의존성을 밝히고자 하는 인식론적 태도다.

4-1. <보기>의 ㉠에 대해서 (나)와 (다)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근대과학은 인식주체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갈릴레오는 ㉠ "누구나 내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까지 독점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들도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한다면 천상계에 대한 기존 이론과 자신들의 실제 관찰 내용이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학은 역사적, 문화적인 것과는 무관하며,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4-2. ㉡ 주장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가)와 (나)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와 관련지어 비교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4-3. (다)의 관점에서 ㉢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0자 이내) [20점]

<보기>

2020년 ○○ 여자대학 신입생으로 합격한 트랜스젠더 A씨는 학내 반대여론에 떠밀려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 출생 시 지정성별과 젠더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여성(Male to Female)은 생물학적으로 '진짜 여성'이 아니며, 여성만의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혐오는 이들이 화장과 옷차림을 통해 관습적인 여성성을 과장하여 여성을 '연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 차별을 강화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정노동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 직업 활동에서 관리자에 의해 감정이 관리되고 관리된 감정을 전시해야 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감정노동의 대상은 고객인 경우가 많지만 상급자의 일명 ‘갑질’도 감정노동이 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내면의 감정을 수정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을 수정하는 표면적 행위, 그리고 내면 감정도 함께 수정하여 표현하는 심층적 행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사가 내면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표면적 행위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은 공감적인 표현도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고객의 부당한 불만 제기에 속으로 화나더라도 공감 어린 태도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라고 해야 한다. 이는 내면 감정의 교정까지 요구받는 것 이기에 감정 소모가 크다. 그러나 직무에서 재량과 권한이 거의 없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내면 감정까지 수정할 동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정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만 유효할 뿐 소진과 우울 등을 유발한다.

(나) 직무 수행에서 요구받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직무의 ㉠ 요구-권한 모형은 업무의 요구량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 부여된 권한도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업무량에 의해 노동자가 느끼는 심리적 요구 수준, 업무수행에 부여된 권한과 재량 조합에 따라 직무 특성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업무량과 권한이 비례하여 높은 직업을 ‘활동적 직업’이라고 한다. 이들의 업무량이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이들은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권한은 낮고 심리적 요구수준이 높은 직업이 있는데, 이를 ‘고 긴장 직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긴장 직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성 수준이 높은 편이다.

(다) 우리는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직장 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관리를 위해, 혹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기 위하여 이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이 취해진다. 예를 들어 성과관리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는 직원 상대평가는 개별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상대평가를 통해 차등적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누군가는 불가피하게 저성과자가 된다.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보다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경쟁한다. 또한 개별 노동자들의 업무를 최소단위로 쪼개어 서로 협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헤드셋이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혼자 일하며, 각자의 할당량(콜 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 직무환경일 때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1. <보기>에서 A, B가 경험한 감정노동의 유형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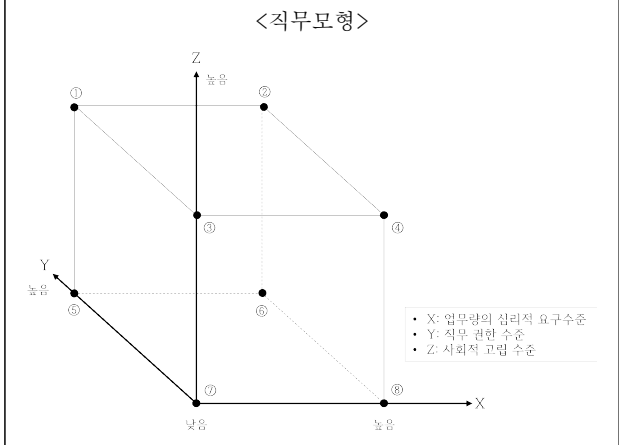
- 택배 기사 A는 자신만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물류가 배치되고 있어 부당함을 느껴 항의하러 관리자를 찾아 갔으나, 관리자는 “앞으로 일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났지만, 그는 꼭 참고 관리자에게 웃으며 나왔다.
- 소아청소년과 의사 B는 최근 “친절한 병원” 캠페인 때문에 환자들을 상담할 때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와 달리 마음이 쓰여 오랜 시간 상담할 때가 있다.

5-2. 콜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과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5-3. <보기>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는 직무모형 내 ㉠~㉨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찾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중략)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윤리적 기준은 서로 다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윤리에 대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리 상대주의는 행위의 옳음과 그름은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는 윤리적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과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후자와 관련된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한 개인이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옳은가는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에 좌우되며 따라서 도덕의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다양성 논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은 사회마다 다르며,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의존성 논제**: 모든 도덕 원리들은 문화에 결부되어 있으며 문화로부터 그 타당성이 도출된다.

다양성 논제는 도덕 규칙들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문화인류학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 베네딕트(R. Benedict)에 따르면 문화적 패턴은 각각의 문명이 선택한 기술이나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인간의 삶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습과 도덕적 규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양성 논제는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 원리가 혹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표준들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단일한 참된 도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의존성 논제는 도덕이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문화에 의존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 사회의 목적, 신념, 역사, 문화와 같은 맥락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섬너(W. G. Sumner)에 따르면 우리가 걷고 듣고 호흡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덕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우리는 이미 전통, 관습과 결부되어 있는 도덕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존성 논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결정된 존재이며, 도덕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주의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문화 우월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많은 서구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여성 할례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여성의 자율성과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더 잘 알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문화 우월주의에 불과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매우 유사한 도덕적 규칙들이 존재한다. 윌슨(E. O. Wilson)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사형 집행이나 전쟁에서 죽임과 같은 정당한 살인 행위

와 그렇지 않은 부당한 살인 행위를 구분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거짓말 금지, 호혜주의,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의무와 같은 개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개념들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2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다. 도덕 원리는 인간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인간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도덕 원리는 그 자체가 문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덕 원리의 적용이 문화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덕 원리들은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역사, 전통,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덕 원리들은 문화적 요소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기형아로 태어난 유아를 강의 신인 하마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유아를 강에 던져 버린다. 그들은 기형아가 하마의 소유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와 관련된 찬반 논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도덕 원리를 존중하지만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낙태에 대해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6-1. ㉠과 ㉡에 대한 윗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6-2. ㉢에 대해 <보기>와 같이 비판할 때 ㉢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가 다른 문화의 윤리에 대해 관용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기본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6-3. <보기>에서 ㉣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어떤 사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노예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노예제를 오래된 전통이자 문화로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소수의 도덕적 개혁자들은 그러한 노예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 개혁을 시도하는 그 사회의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다른 시민들의 윤리적 견해를 반박하면서 이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 사회 내부에서의 개혁적 시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4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문제 1]

1. 예시 답안

1-1. (가)의 시는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지만(반영하지만) 가난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1-2. ㉠에서 ‘나’는 남을 도우려고는 하면서도 자신의 가난한 처지 때문에 화를 내지만(괴로워하지만), 사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웃을 수 있었다.

1-3. ㉡의 ‘나’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보아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의 ‘나’는 가난을 절실한 삶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의의로 현실을 반영한다는 설명과 한계로 참여 예술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변화 혹은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의의와 한계가 모두 포함되어 기술된 경우 20점. • 의의나 한계만 정확하게 답안에 포함된 경우 10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심리 상태와 ‘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20점. • ‘나’의 경제적 상황과 ‘그’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15점. • ‘나’와 ‘그’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10점. • ‘그’가 돈을 모두 주었다는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 0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담긴 상징적인 표현과 ㉢에서 나타나는 ‘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20점. • ㉠에서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혹은 뒤흔히게 여긴다고 기술한 경우 15점. • ㉢에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한다고 기술한 경우 15점. • 위의 두 경우처럼 ㉠과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10점. • ㉠과 ㉢ 중 하나만 다소 부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5점. 	20

[문제 2]

1. 예시 답안

2-1. ㉠ A를 먹지 않는 것 ㉡ A를 먹지 않는 경우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

2-2.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나)의 견해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사전에 인지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가)에 주어진 예언자의 역설 사례를 적절히 이해하고, 그것과 <보기>에서 주어진 사례에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에 대응하는 것 각각을 정확히 쓴 경우 (20점) - ㉠은 정확히 썼으나, ㉡의 경우 ('A를 먹지 않는 경우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아닌) 'A를 즐겨 먹지 않는 경우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지 않을 확률'로 쓴 경우 (15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2	<p>▶ (나)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비판을 적절히 구성했는지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의 사례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이 (나)에 대한 비판이 됨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20점) -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증거관계가 있느냐가 핵심 논점이라는 것은 파악했으나, 이로부터 (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10점) -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증거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 논점이라는 것은 파악했으나, 인과관계와 증거관계를 반대로 파악하는 등, 둘의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5점) - 위의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3	<p>▶ (다)가 표준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요소가 자신의 행동을 내성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적절히 파악했느냐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여다봄', '인지', '알' 등의 인식적 용어를 사용하여 답안을 적절히 쓴 경우 (20점) - '들여다봄', '인지' 및 이와 유사한 인식적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0점 처리 - 위의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문제 3]

1. 예시 답안

3-1. ㉠ 빛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밝기 지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빛 강도가 낮은 경우), 빛이 물리적으로 조금만 증가해도 밝기 지각은 크게 변화한다.
 ㉢ (빛 강도가 높은 경우), 빛이 물리적으로 많이 증가해도 밝기 지각은 작게 변화한다/변화하지 않는다.

3-2. 실험 결과의 차이는 친구들이 피곤한 상태로 실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주의를 산만 하거나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빛 자극에 대해 밝기 지각을 보고하지 못했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의 물리적 강도 변화와 밝기 지각이 비선형적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각 문항, ㉠~㉢에 대해 빛의 물리적 강도 변화 또는 밝기 지각 변화에 대한 서술이 한 부분만 옳을 경우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각 4점). 	25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와 갑의 실험 결과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갑의 실험 결과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기술한 경우 (5점) - 실험 결과의 차이의 원인 또는 오염변인이 친구들의 피곤한 상태 때문이라고 기술한 경우 (5점) - 친구들의 피곤한 상태가 주의 산만 또는 충분하지 못한 주의를 야기했음을 기술한 경우 (10점) - (위의 이유로) 같은 강도의 빛 자극에 대해 밝기 지각을 하지 못했음을 기술한 경우 (5점) 	25

[문제 4]

1. 예시 답안

4-1. 누구나 망원경을 통해서 똑같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며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 (가)는 ㉠ 주장에 동의하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자가 이를 엄격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나쁜 과학이 생산된다고 믿고, (나)는 ㉠을 약한 객관성일 뿐이라 비판하며 피지배자의 구조적 위치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강한 객관성을 지닌다고 본다.

4-3. ㉡는 여성을 규정함에 있어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만을 진리로 여겨 스스로의 부분성을 인지하지 않으며 트랜스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여성 정체성과 시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지식에 기초한 부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성과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다) 관점의 유사성과 <보기> 주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나), (다) 모두 <보기>의 주장과는 다르게 망원경을 통해 모두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며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 만점. - 아무런 설명 없이 (나), (다) 모두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라고만 쓴 경우, 0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를 근대과학에서의 '가치중립적 객관성'과 갖는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차이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서술해야 함. - ㉠ 주장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논지 중 하나만 맞게 파악했을 경우, 10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부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거나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적 지식들에 기초한 부분성을 옹호하는 (다)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를 '여성' 범주에서 배제하는 <보기> 주장의 인식론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다)의 관점에서 볼 경우, <보기>의 주장은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성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편적 진리로 내세워 '여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다른 관점들을 부정하고, 자신의 지식이 특정한 위치에서 생성된 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 만점. - <보기>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다) 제시문의 내용을 군데군데 가져와 쓰면 감점. - (다)의 관점을 단지 포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지식 생산에서의 맥락성과 생산된 지식의 부분성과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감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문제 5]

1. 예시 답안

5-1. A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을 수정하였기에 감정노동 중 표면적 행위에 해당하며, B는 내면 감정까지 수정하였기에 감정노동 중 심층적 행위에 해당한다.

5-2.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요구 수준은 높지만 이들에게 직무 수행에서 부여된 권한과 재량은 낮은 고긴장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3. <보기>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는 4에 해당한다. 이들은 업무의 심리적 요구 수준은 높고 권한은 낮은 고긴장 직업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가 표면적 행위이고 B는 심층적 행위이며 각각의 이유를 정확하게 기술하면 각 10점 둘 중 하나만 맞게 쓰면 10점 둘 다 감정노동이라고 기술하거나 둘 중 하나를 감정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 0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심리적 요구수준이 높고, ②부여된 권한과 재량이 낮은, ③고긴장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기술하면 20점 ①, ②만 썼거나, 혹은 ③만 썼을 경우 5점 감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번호를 4로 정확하게 고르고, 그 이유로 ②고긴장 직업과 ③높은 사회적 고립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20점 ①번호를 잘못 골랐지만, ②와 ③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10점 감점 ①번호를 제대로 골랐지만, ②와 ③의 의미를 다르게 썼을 경우 10점 감점 ①번호만 쓰고, 그 이유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15점 감점 	20

[문제 6]

1. 예시 답안

6-1.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다양성 논제와 의존성 논제는 타당하지 않다.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서 기인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도덕 원리는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6-2.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윤리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관용의 윤리가 불관용의 윤리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은 관용의 윤리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 입장과 어긋난다.

6-3.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윤리의 기준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노예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되는데, 그 사회의 개혁가들은 노예제가 그러하다고 주장하기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에 대한 제시문의 입장을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다양성 논제를 비판하면서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의존성 논제를 비판하면서 도덕 원리 자체가 문화에 의존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도덕 원리가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해 <보기>의 ㉡와 같이 비판할 때 그 이유를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윤리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관용의 윤리가 불관용의 윤리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윤리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서술한 경우(10점) - ㉠은 관용의 윤리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 즉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에서 ㉢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윤리의 기준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노예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그 사회에 속한 개혁가들은 노예제가 그러하다고 주장하기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독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서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이,
내 무덤가 무성한 풀섶으로 때론 와서
괴로웠을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썩썩 바람 불어라……

천상병, <나의 가난은>

(나)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간이라도 걸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금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를 알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걸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
자니 응? 우린 부자야?”

㉢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먹살을 잡고 질질 끌
어다가 골통을 벽에다 퐁퐁 부딪쳐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
레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
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
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
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연 겪지 않고, 헌신
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
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 이후 상훈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
지 않다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사실 자신이 부자였다고 밝힌다.]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
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장난이 유행할 거란
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
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낯새를 타가지고 네 얘
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
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썽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기자
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
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들어간 남자가 나었던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
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
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
산해. 이걸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기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
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
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릴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
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
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중에서

1-1. <보기>의 ㉠의 입장에서 (가)의 시를 비평할 때, (가)가 가
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순수 예술의 옹호자들은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영
역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 참여 예술의 옹호자들
은 현실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순수 예술을 현실 도피
라고 비판한다. 예술가도 시대의 아들이고 예술도 시대의 소
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예술
은 참여인 것이다.

1-2. ㉢에서 ‘나’와 ‘그’가 서로 대립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1-3. ㉠과 ㉡에서 나타난 가난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를 비교
하여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2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표준 이론에 따르면, 두 행위의 선택지가 있을 때 기대이익이 더 높은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선택지의 기대이익은 '그 행위를 선택할 경우 특정 결과를 얻게 될 확률'에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곱한 값을 합해서 구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의 앞면에 돈을 걸어 500원을 얻게 될 확률이 0.3이고 100원을 잃게 될 확률이 0.7이라면 앞면에 돈을 거는 것의 기대이익은 80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준 이론은 '예언자의 역설'이라 불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나에게 투명 상자와 불투명 상자가 제시되고 ㉠ 불투명 상자만 취할지 아니면 두 상자를 모두 취할지의 선택이 주어진다. 투명 상자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불투명 상자에 돈이 들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 나의 행위를 0.99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내가 불투명 상자만 취할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했다면 불투명 상자에 1억 원을 넣어 두었고, 내가 두 상자 모두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표준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나는 불투명 상자만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불투명 상자만 취하는 경우 그 상자에 1억 원이 들어 있을 확률은 0.99이므로 불투명 상자만 취하는 것의 기대이익은 9,900만 원인 반면,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의 기대이익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직관적으로 옳지 않다. 예언자가 사전에 어떤 예측을 했건 간에 1억 원은 이미 불투명 상자에 들어 있거나 들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든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다.

(나) '행위를 선택했을 경우 특정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내가 특정 행위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참일 확률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나의 행위가 특정 사건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이 둘이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령, 내가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내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참일 확률은 꽤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 분명하다. 전자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증거가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표준 이론의 실수는 바로 증거관계와 인과 관계를 혼동한 데에 있다. 내가 불투명 상자만 취하는 것은 그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 아닌 인과 관계에 대한 확률로 계산할 경우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나의 행동이 미칠 인과적 영향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기도 하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이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 이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인지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두 상자를 모

두 취하려고 함을 알게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미 불투명 상자에 1억 원이 들어 있지 않음을 거의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편이 더 이익일 것이다. 또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불투명 상자만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자. 그 경우에도 역시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편이 더 이익일 것이다. 결국 표준 이론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예언자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

2-1. <보기>의 사례에서 ㉠, ㉡에 대응하는 것을 각각 쓰시오. (50자 이내) [20점]

<보기>

'예언자의 역설'은 나의 행동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암을 야기하지 않지만, A를 즐겨 먹는 사람은 어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낮다고 하자. 이 사람이 눈앞에 놓인 A를 먹는 것의 기대이익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의 기대이익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A를 먹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일 수 있다.

2-2. <보기>의 판단이 옳다는 가정하에 (나)의 견해가 왜 이를 설명할 수 없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내 앞에 '범죄 없는 세상'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나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잠재적 범죄자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자. 나는 이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잠재적 범죄자가 없는 지구에서 사는 것을 잠재적 범죄자가 있는 지구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 나는 내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또 그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나 할 법한 일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나는 물론 내 자신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잠재적 범죄자가 있는 지구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우 당연히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2-3. <보기>는 (가)~(다)를 읽은 한 공학자의 반응이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가)~(다)에 나온 단어를 활용하여 쓰시오. (35자 이내) [20점]

<보기>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려는 공학자의 입장에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과 관계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로봇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로봇에 (㉢)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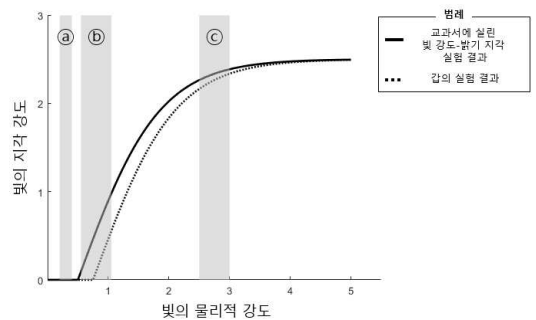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부 심리학자들은 정신물리학적 기법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연구했다. 정신물리학은 외부 환경의 자극과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기법으로 자극의 물리적 속성이 심리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초기 정신물리학 실험에서 정신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자극의 속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하며 각각의 자극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기록했다. 자극의 물리적 강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제시할 때 관찰된 정신적 변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신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 간의 수치화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물리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 간의 수치화된 관계를 나타낸 함수를 정신물리학 함수 또는 심리측정 함수라 한다. 한 초기 정신물리학 실험에서, 실험자는 작은 직경의 빛 자극을 여러 시행에 걸쳐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했는데, 시행마다 빛 자극의 밝기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빛에 대해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빛 자극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또는, 현재 제시된 빛 자극이 이전 빛 자극에 비해 더 밝는지 여부 등의 지각적 변화를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러한 주관적인 밝기 평정을 수치화하여 실험자들은 빛의 물리적 강도 변화와 지각과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했다. 이러한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을 통해, 초기 정신물리학자들은 빛 지각의 몇 가지 주요 원리들을 확립할 수 있었다. 첫째, 빛 강도의 물리적 변화가 반드시 밝기 지각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음을 관찰했다. 빛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밝기 지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빛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밝기 지각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 빛 강도의 물리적 변화와 밝기 지각은 비선형적 관계를 맺음을 관찰했다. 물리적 강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빛 자극의 지각적 밝기를 보고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빛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빛 강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빛 자극이 더 밝아졌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빛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빛 강도를 많이 증가시켜도 참가자들은 빛 자극 밝기가 조금 밝아졌다고 보고했다. 셋째, 사람에 따라 심리측정 함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관찰했다. 밝기에 예민한 사람은 작은 물리적 변화에도 밝기 지각의 변화를 보고하지만, 밝기에 둔감한 사람은 같은 양의 물리적 변화, 또는 그보다 큰 변화에도 밝기 지각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정신물리학 연구는 사람의 지각이 물리적 변화를 단순히 표상하고 처리하는 것 이상임을 보였다.

(나) 정교하고 엄격하게 실시된 정신물리학 실험 결과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과학적인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정신물리학 또한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된 정신물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외부 자극과 주관적 경험 간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즉, 물리적 자극의 체계적 변화가 초래하는 직접적인 지각적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물리적 자극의 체계적 변화 이외의 요인이 지각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험참가자의 집중도 또는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저조할 경우, 같은 강도의 물리적 자극은 일관되지 않은 지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한 실험참가자가 실험에 잘 집중할 때 지각 경험을 유도했던 특정 강도의 물리적 자극은, 같은

실험참가자의 주의가 산만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 경험을 유도하지 못한다. 이러한 실험참가자의 내적 상태는 실험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지만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실험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요인이 아니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또는 변인을 오염변인이라 하는데, 정신물리학 실험에서는 오염변인을 잘 통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정신물리학에서 측정하는 주관적 경험은 다양한 오염변인에 매우 취약하므로 오염변인이 잘 통제되지 않는 경우 실험의 결과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은 심리학 수업 시간에 배운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 결과를 재현해보기로 했다. 따로 실험 대상자를 모으기 어려워서 같은 막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에게 실험 대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친구들은 시험으로 피곤한 상태였지만 갑과 평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해주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교과서에 실린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 결과와 달랐고,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차 범위를 넘었다. 이에 갑은 교과서의 실험 결과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3-1. (다)의 교과서에 실린 빛 강도-밝기 지각 실험 결과에서 ㉠~㉢ 영역이 의미하는 바를 (가)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각각 50자 이내) [25점]

3-2. (다)에서 갑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지 (나)를 근거로 평가하시오. (100자 이내) [25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인식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원은 인식주체의 감각이다. 세계에 대한 진리는 체계적 관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는 중립적 절차를 엄격히 지킴으로서 극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종종 사회적으로 성차별적인 연구결과가 생산될까? 바로 사회적 편견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개별 연구자의 이성을 흐리기 때문이다. 이 편견은 미신, 무지, 혹은 그릇된 교육에 따른 적대적 태도와 잘못된 신념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관습으로 고착된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연구과정 중 과학적 문제를 식별하고 규정짓는 단계에서 주로 개입되지만, 연구계획과 자료 수집 및 해석 단계에서 역시 나타난다. '여성과학자'라는 말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만큼 남성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기존의 지식 생산과 인증절차는 남성 경험을 보편화했다. 그러나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연구자가 여성이라면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가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서 과학 연구 규범을 엄수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산출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쁜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영역에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타파하여 여성에게도 교육, 취업, 교수직 채용의 관문을 확대해야 한다. 유능한 여성과학자가 늘어나면 과학인력 전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더 나은 과학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나) 모든 진리는 근본적으로 인식주체를 통해 매개된 것이다. 특정 시기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된 개인의 위치성과 지식생산은 분리되기 어렵다. 전통 과학이 말하는 객관성은 모든 사회적인 가치들을 제거함으로써 획득된다고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시선을 담으면서도 특권적 위치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한 객관성'이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주관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상 그 자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며, 그 결과 자신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입장들을 제거하는 오류를 범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피지배집단의 삶과 지배집단의 삶에서 출발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진리로 승인받는다. 그러나 권력관계가 내장된 사회에서 지배자의 관점은 편파적이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경험에 무지할 뿐 아니라,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을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지배자가 놓인 사회구조적 위치에서 세상을 보면 덜 편파적이고 더 비판적인 해석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지닌다. 피억압자, 소수자의 입장에서 서면 지배적인 틀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사회 체계의 여러 면을 볼 수 있고, 현실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객관성'을 지닌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삶의 관점은 남성의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별문제 없어 보이는 가설과 관행을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위계적 사회에서 강한 객관성을 위한 조건이 된다.

(다) ㉠ 근대과학 실천의 핵심은 가치중립적 관찰로부터 얻어지는 객관성이다. 이 객관성은 근대과학의 성공, 즉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인간 이성의 성공을 이끈 가장 주요한 동력이다. 이

러한 객관성에 기초해 형성된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과 대별되며, 이러한 틀에서는 '진리'로 여겨지는 것이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군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보편적 지식 개념에 저항하여 인식자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위치를 강조하는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에 기초한 '부분적 시각'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의 부분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종종 상대주의로 오해되기도 한다. 즉 타자의 시각에 공감할 수 없고 무관심해도 된다는 관점을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례로 상대주의자이자 자신을 백인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이 "나는 유색인 여성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 없고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백인', '남성'과 같은 정체성은 본질적 범주가 아니며 타자로서 '유색인', '여성'과 같은 범주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 주장의 상대주의적 부분성에서는 '백인 남성', '유색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소통 불가능한 관계로 설정된다. 이러한 부분성과는 달리 상황적 지식에 기초한 페미니스트적 부분성은 자신과 타자의 관점 모두의 부분성을 인지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상호연결성을 중시한다. 즉 우리 모두가 특정한 위치에서 세계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부분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부분성 자체의 혼종성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다른 부분적 시각들을 인지, 공감하고 상호의존성을 밝히고자 하는 인식론적 태도다.

4-1. <보기>의 ㉠에 대해서 (나)와 (다)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근대과학은 인식주체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갈릴레오는 ㉠ "누구나 내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까지 독점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들도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한다면 천상계에 대한 기존 이론과 자신들의 실제 관찰 내용이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학은 역사적, 문화적인 것과는 무관하며,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4-2. ㉡ 주장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가)와 (나)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와 관련지어 비교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4-3. (다)의 관점에서 ㉢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0자 이내) [20점]

<보기>

2020년 ○○ 여자대학 신입생으로 합격한 트랜스젠더 A씨는 학내 반대여론에 떠밀려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 출생 시 지정성별과 젠더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여성(Male to Female)은 생물학적으로 '진짜 여성'이 아니며, 여성만의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혐오는 이들이 화장과 옷차림을 통해 관습적인 여성성을 과장하여 여성을 '연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 차별을 강화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정노동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 직업 활동에서 관리자에 의해 감정이 관리되고 관리된 감정을 전시해야 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감정노동의 대상은 고객인 경우가 많지만 상급자의 일명 ‘갑질’도 감정노동이 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내면의 감정을 수정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을 수정하는 표면적 행위, 그리고 내면 감정도 함께 수정하여 표현하는 심층적 행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사가 내면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표면적 행위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은 공감적인 표현도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고객의 부당한 불만 제기에 속으로 화나더라도 공감 어린 태도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라고 해야 한다. 이는 내면 감정의 교정까지 요구받는 것 이기에 감정 소모가 크다. 그러나 직무에서 재량과 권한이 거의 없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내면 감정까지 수정할 동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정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만 유효할 뿐 소진과 우울 등을 유발한다.

(나) 직무 수행에서 요구받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직무의 ㉠ 요구-권한 모형은 업무의 요구량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 부여된 권한도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업무량에 의해 노동자가 느끼는 심리적 요구 수준, 업무수행에 부여된 권한과 재량 조합에 따라 직무 특성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업무량과 권한이 비례하여 높은 직업을 ‘활동적 직업’이라고 한다. 이들의 업무량이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이들은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권한은 낮고 심리적 요구수준이 높은 직업이 있는데, 이를 ‘고 긴장 직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긴장 직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성 수준이 높은 편이다.

(다) 우리는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직장 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관리를 위해, 혹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기 위하여 이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이 취해진다. 예를 들어 성과관리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는 직원 상대평가는 개별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상대평가를 통해 차등적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누군가는 불가피하게 저성과자가 된다.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보다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경쟁한다. 또한 개별 노동자들의 업무를 최소단위로 쪼개어 서로 협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헤드셋이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혼자 일하며, 각자의 할당량(콜 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 직무환경일 때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1. <보기>에서 A, B가 경험한 감정노동의 유형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 택배 기사 A는 자신만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물류가 배치되고 있어 부당함을 느껴 항의하러 관리자를 찾아 갔으나, 관리자는 “앞으로 일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났지만, 그는 꼭 참고 관리자에게 웃으며 나왔다.
- 소아청소년과 의사 B는 최근 “친절한 병원” 캠페인 때문에 환자들을 상담할 때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와 달리 마음이 쓰여 오랜 시간 상담할 때가 있다.

5-2. 콜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과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5-3. <보기>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는 직무모형 내 ㉠~㉨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찾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중략)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직무모형>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윤리적 기준은 서로 다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윤리에 대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리 상대주의는 행위의 옳음과 그름은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는 윤리적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과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후자와 관련된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한 개인이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옳은가는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에 좌우되며 따라서 도덕의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다양성 논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은 사회마다 다르며,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의존성 논제**: 모든 도덕 원리들은 문화에 결부되어 있으며 문화로부터 그 타당성이 도출된다.

다양성 논제는 도덕 규칙들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문화인류학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 베네딕트(R. Benedict)에 따르면 문화적 패턴은 각각의 문명이 선택한 기술이나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인간의 삶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습과 도덕적 규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양성 논제는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 원리가 혹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표준들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단일한 참된 도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의존성 논제는 도덕이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문화에 의존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 사회의 목적, 신념, 역사, 문화와 같은 맥락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섬너(W. G. Sumner)에 따르면 우리가 걷고 듣고 호흡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덕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우리는 이미 전통, 관습과 결부되어 있는 도덕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존성 논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결정된 존재이며, 도덕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주의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문화 우월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많은 서구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여성 할례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여성의 자율성과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더 잘 알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문화 우월주의에 불과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매우 유사한 도덕적 규칙들이 존재한다. 윌슨(E. O. Wilson)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사형 집행이나 전쟁에서 죽임과 같은 정당한 살인 행위

와 그렇지 않은 부당한 살인 행위를 구분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거짓말 금지, 호혜주의,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의무와 같은 개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개념들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2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다. 도덕 원리는 인간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인간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도덕 원리는 그 자체가 문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덕 원리의 적용이 문화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덕 원리들은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역사, 전통,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덕 원리들은 문화적 요소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기형아로 태어난 유아를 강의 신인 하마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유아를 강에 던져 버린다. 그들은 기형아가 하마의 소유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와 관련된 찬반 논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도덕 원리를 존중하지만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낙태에 대해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6-1. ㉠과 ㉡에 대한 윗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6-2. ㉡에 대해 <보기>와 같이 비판할 때 ㉢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가 다른 문화의 윤리에 대해 관용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기본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6-3. <보기>에서 ㉢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어떤 사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노예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노예제를 오래된 전통이자 문화로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소수의 도덕적 개혁자들은 그러한 노예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 개혁을 시도하는 그 사회의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다른 시민들의 윤리적 견해를 반박하면서 이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 사회 내부에서의 개혁적 시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4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문제 1]

1. 예시 답안

1-1. (가)의 시는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지만(반영하지만) 가난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1-2. ㉠에서 ‘나’는 남을 도우려고는 하면서도 자신의 가난한 처지 때문에 화를 내지만(괴로워하지만), 사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웃을 수 있었다.

1-3. ㉡의 ‘나’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보아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의 ‘나’는 가난을 절실한 삶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의의로 현실을 반영한다는 설명과 한계로 참여 예술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변화 혹은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의의와 한계가 모두 포함되어 기술된 경우 20점. • 의의나 한계만 정확하게 답안에 포함된 경우 10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심리 상태와 ‘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20점. • ‘나’의 경제적 상황과 ‘그’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15점. • ‘나’와 ‘그’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10점. • ‘그’가 돈을 모두 주었다는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 0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담긴 상징적인 표현과 ㉢에서 나타나는 ‘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20점. • ㉠에서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혹은 뒤흔히게 여긴다고 기술한 경우 15점. • ㉢에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한다고 기술한 경우 15점. • 위의 두 경우처럼 ㉠과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10점. • ㉠과 ㉢ 중 하나만 다소 부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5점. 	20

[문제 2]

1. 예시 답안

2-1. ㉠ A를 먹지 않는 것 ㉡ A를 먹지 않는 경우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

2-2.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나)의 견해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사전에 인지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가)에 주어진 예언자의 역설 사례를 적절히 이해하고, 그것과 <보기>에서 주어진 사례에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에 대응하는 것 각각을 정확히 쓴 경우 (20점) - ㉠은 정확히 썼으나, ㉡의 경우 ('A를 먹지 않는 경우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아닌) 'A를 즐겨 먹지 않는 경우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지 않을 확률'로 쓴 경우 (15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2	<p>▶ (나)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비판을 적절히 구성했는지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의 사례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이 (나)에 대한 비판이 됨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20점) -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증거관계가 있느냐가 핵심 논점이라는 것은 파악했으나, 이로부터 (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10점) - 버튼을 누르는 것과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증거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 논점이라는 것은 파악했으나, 인과관계와 증거관계를 반대로 파악하는 등, 둘의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5점) - 위의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3	<p>▶ (다)가 표준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요소가 자신의 행동을 내성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적절히 파악했느냐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여다봄', '인지', '알' 등의 인식적 용어를 사용하여 답안을 적절히 쓴 경우 (20점) - '들여다봄', '인지' 및 이와 유사한 인식적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0점 처리 - 위의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문제 3]

1. 예시 답안

- 3-1. ㉠ 빛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밝기 지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빛 강도가 낮은 경우), 빛이 물리적으로 조금만 증가해도 밝기 지각은 크게 변화한다.
 ㉢ (빛 강도가 높은 경우), 빛이 물리적으로 많이 증가해도 밝기 지각은 작게 변화한다/변화하지 않는다.

3-2. 실험 결과의 차이는 친구들이 피곤한 상태로 실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주의를 산만 하거나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빛 자극에 대해 밝기 지각을 보고하지 못했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의 물리적 강도 변화와 밝기 지각이 비선형적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각 문항, ㉠~㉢에 대해 빛의 물리적 강도 변화 또는 밝기 지각 변화에 대한 서술이 한 부분만 옳을 경우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각 4점). 	25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와 갑의 실험 결과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갑의 실험 결과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기술한 경우 (5점) - 실험 결과의 차이의 원인 또는 오염변인이 친구들의 피곤한 상태 때문이라고 기술한 경우 (5점) - 친구들의 피곤한 상태가 주의 산만 또는 충분하지 못한 주의를 야기했음을 기술한 경우 (10점) - (위의 이유로) 같은 강도의 빛 자극에 대해 밝기 지각을 하지 못했음을 기술한 경우 (5점) 	25

[문제 4]

1. 예시 답안

4-1. 누구나 망원경을 통해서 똑같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며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 (가)는 ㉠ 주장에 동의하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자가 이를 엄격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나쁜 과학이 생산된다고 믿고, (나)는 ㉠을 약한 객관성일 뿐이라 비판하며 피지배자의 구조적 위치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강한 객관성을 지닌다고 본다.

4-3. ㉡는 여성을 규정함에 있어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만을 진리로 여겨 스스로의 부분성을 인지하지 않으며 트랜스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여성 정체성과 시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지식에 기초한 부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성과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다) 관점의 유사성과 <보기> 주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나), (다) 모두 <보기>의 주장과는 다르게 망원경을 통해 모두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며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 만점. - 아무런 설명 없이 (나), (다) 모두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라고만 쓴 경우, 0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를 근대과학에서의 '가치중립적 객관성'과 갖는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차이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서술해야 함. - ㉠ 주장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논지 중 하나만 맞게 파악했을 경우, 10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부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거나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적 지식들에 기초한 부분성을 옹호하는 (다)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를 '여성' 범주에서 배제하는 <보기> 주장의 인식론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다)의 관점에서 볼 경우, <보기>의 주장은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성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편적 진리로 내세워 '여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다른 관점들을 부정하고, 자신의 지식이 특정한 위치에서 생성된 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 만점. - <보기>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다) 제시문의 내용을 군데군데 가져와 쓰면 감점. - (다)의 관점을 단지 포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지식 생산에서의 맥락성과 생산된 지식의 부분성과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감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문제 5]

1. 예시 답안

5-1. A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을 수정하였기에 감정노동 중 표면적 행위에 해당하며, B는 내면 감정까지 수정하였기에 감정노동 중 심층적 행위에 해당한다.

5-2.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요구 수준은 높지만 이들에게 직무 수행에서 부여된 권한과 재량은 낮은 고긴장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3. <보기>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는 4에 해당한다. 이들은 업무의 심리적 요구 수준은 높고 권한은 낮은 고긴장 직업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가 표면적 행위이고 B는 심층적 행위이며 각각의 이유를 정확하게 기술하면 각 10점 둘 중 하나만 맞게 쓰면 10점 둘 다 감정노동이라고 기술하거나 둘 중 하나를 감정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 0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심리적 요구수준이 높고, ②부여된 권한과 재량이 낮은, ③고긴장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기술하면 20점 ①, ②만 썼거나, 혹은 ③만 썼을 경우 5점 감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번호를 4로 정확하게 고르고, 그 이유로 ②고긴장 직업과 ③높은 사회적 고립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20점 ①번호를 잘못 골랐지만, ②와 ③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10점 감점 ①번호를 제대로 골랐지만, ②와 ③의 의미를 다르게 썼을 경우 10점 감점 ①번호만 쓰고, 그 이유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15점 감점 	20

[문제 6]

1. 예시 답안

6-1.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다양성 논제와 의존성 논제는 타당하지 않다.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서 기인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도덕 원리는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6-2.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윤리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관용의 윤리가 불관용의 윤리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은 관용의 윤리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 입장과 어긋난다.

6-3.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윤리의 기준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노예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되는데, 그 사회의 개혁가들은 노예제가 그르다고 주장하기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에 대한 제시문의 입장을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다양성 논제를 비판하면서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의존성 논제를 비판하면서 도덕 원리 자체가 문화에 의존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도덕 원리가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해 <보기>의 ㉡와 같이 비판할 때 그 이유를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윤리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관용의 윤리가 불관용의 윤리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윤리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서술한 경우(10점) - ㉠은 관용의 윤리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의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 즉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에서 ㉢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윤리의 기준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노예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그 사회에 속한 개혁가들은 노예제가 그르다고 주장하기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 </tr> </table>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감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덕목으로 많이 강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의 일치 혹은 타인의 경험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공감의 문제는 규범적으로만 읽히거나 아름다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공감은 동정으로 둔갑하거나 위선이나 감상주의에 머물기도 한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다는 무관심, 자신의 특권에 대한 무의식 등 공감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많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억압에 대한 타자의 감정적 반응까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설픈 감정이입이나 동일시만을 무조건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렵고 왜 불완전한가를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감의 덕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타자가 겪는 억압과 차별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신이 지닌 특권과 안전함이 그러한 억압과 차별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는 과정은 공감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

테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
꽃에서도 테두리를 보고
달에서도 테두리를 보는 사람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모든 ㉠ 테두리는 슬프겠지

슬퍼하는 상처가 있어야
위로의 노래도 사람에게로 내려올
㉡ 통로를 알겠지

박형준, <테두리> 중에서

(다) [앞부분 줄거리] 그와 아내는 새로 마련한 집을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옥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 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그러나 곧 그는 임 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옥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임 씨가 일을 꼼꼼히 하자 비로소 안심하지만, 이번에는 임 씨가 수리비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임 씨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임 씨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임 씨는 서비스로 옥상 공사까지 해주고 견적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청구하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한다.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 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공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팔십만 원이요, 팔십만 원. 제기랄, 쉐타 공장 하던 농한테 일년 내 연탄을 대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뭐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껴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암. 받아야 하구말구.”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 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 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쥐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찍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 본다. 뻥뻥뻥한 상판에 배는 푹 볼거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아파, 일년 삼백육십오 일 비 오는 날은 썩고 썩는디 머시 그리 걱정이당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 씨를 돌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그는 임 씨의 핏발 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공리를 거둬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버리는 느낌이었다. (중략)

“어떤 놈은 몇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뽕품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꺼덕거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 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숫고 왜 이런당가요, 참으시오. 임 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 갔다. 임 씨는 탁자에 고개를 처박고서 연신 ‘죽여’를 되뇌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중에서

1-1. ㉠이 ㉡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가)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1-2. ㉢은 공감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애를 판정하는 오랜 방식 중 하나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기능 손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가 장애인이며, 장애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복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어느 정도의 시력 손상이 장애인지, 그리고 그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할 것이다. 그렇기에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장애 범주와 진단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나) 1976년 영국의 장애인 단체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은 “손상을 입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손상이 아니라 사회”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영향을 받아 세계보건 기구는 2001년 장애 개념을 손상 중심 접근에서 사회적 어려움과 불이익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바꾸었다. 이는 나아가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국제적인 장애분류체계에 사회적 불이익의 수준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음성 발화 기능의 손상 수준에 따라 장애를 판단하였지만, 이후 실제로 개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의 정도를 중심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나라가 늘게 되었다. 예컨대 아랍어만 사용하는 시리아 난민이 스웨덴에 이주할 경우, 이들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관점은 실제로도 장애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비로소 장애인은 삶을 가로막는 모든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TV를 볼 때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청각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업이 없는 장애인 역시 사회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는 물론 적절한 교육 훈련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만 기인한다는 믿음은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통해 완전한 장애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턱을 모두 없애고 모든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이동환경을 개선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오롯이 사회환경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을 위해 도로의 턱을 없애면 시각장애인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 차도에 들어갈 위험이 증가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점자 블록을 만들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요철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이렇듯 손상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장벽은 다를 수 있다. 그나마 일명 ‘무장애 환경’은 도시에서만 구현할 수 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자연을 한없이 훼손하며 도시를 만들 수도 없다. 또한 손상 그 자체도 고통을 유발한다. 장기간 휠체어 생활을 하는 지체장애

인의 척추 뒤틀림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다른 손상으로 이어진다. 즉, 장애인의 어려움은 사회적 조건에만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손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다. 게다가 손상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도 않다. 장애 문제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조건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발생하는 것이며, 손상 그 자체 역시 사회적 장벽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2-1.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20점]

<보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비슷한 건설직 종사자 갑과 사무직 종사자 을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갑은 한쪽 다리, 을은 양쪽 다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다. 목발을 사용하게 된 갑은 건설 일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을은 복직하여 이전처럼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에 따르면 두 사람 중 (㉠)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나)에 따르면 두 사람 중 (㉢)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2-2. <보기>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나)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와 택시를 타고 싶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장애인의 외침은 새해에도 이어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2022년 1월 3일 오후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 100여 명은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하라”,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K씨는 “우리는 지하철을 잠깐 멈춰서라도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며 “지하철은 잠깐 연착됐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아예 멈춰 섰다.”라고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년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장애인들의 승차차 시위로 열차가 멈춘 시간은 평균 1분 20초 남짓이었다.

2-3. (다)를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비행기와 잘 갖춰진 활주로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날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듯, 걸을 수 없는 장애인 역시 휠체어와 잘 갖춰진 도로 환경만 마련되면 보행 기능 손상은 사회 참여에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 각지의 맑고 따뜻한 바다 연안에는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분포하고 있다. 산호초는 수백만 개의 산호충들이 군체를 이루어 만들어진 암초를 말한다. 산호충은 사실 말미잘과 같은 촉수를 가진 무척추 해양 동물이다. 산호충들은 촉수를 통해 해양 플랑크톤과 공생조류를 섭취하거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데, 산호의 아름다운 빛깔은 바로 산호충들이 흡입한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산호초를 배경으로 전 세계 약 25%의 해양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호초가 건강한 빛깔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전체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산호초의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충들이 공생조류를 이전처럼 충분히 품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로써 산호초가 점차 빛깔을 잃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 만큼 해양으로 녹아드는 양도 증가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것도 산호초가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써 다양했던 주변 생물들의 수가 서서히 줄어 임계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전체 생태환경이 붕괴에 이르게 된다. 산호초가 색을 잃어버린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호의 생태환경이 지닌 유기적 연결성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떠나버린 곳에 남겨진 산호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을 경우 산호초의 백화현상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는 표면의 평균 온도가 겨우 영하 18°C밖에 되지 않는 차가운 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기체들이 지구를 감싸 안으며 마치 온실처럼 열을 가두어 지표의 기온을 올리게 된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는 이러한 온실효과에 잘 적응한 결과물이다. 문제는 온실효과 자체가 아니라, 온실의 성능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기체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이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른 주요 온실기체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 이산화탄소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대기의 반응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약 2°C 이상 높아질 경우 대기의 균형이 깨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기온 상태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 각국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C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C로도 파국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그 상한을 1.5°C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온실기체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40년 이전에 지구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시스템의 붕괴가 단지 대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특히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종 중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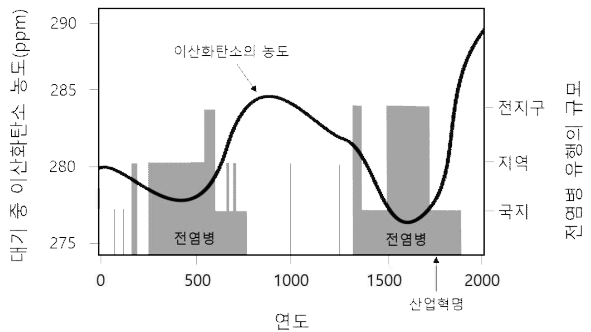
겪고 있거나 이미 멸종된 것들이 존재한다. 생물종의 생존 환경은 각기 다른 한계치를 가지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보다 취약한 것들이 낮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멸종에 이르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가 먹이 사슬과 공생 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부 생물종의 멸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생태계가 순식간에 견딜 수 없는 불균형에 놓이고 결국 대멸종의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운석 충돌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지구 생태계는 이미 ㉡ 다섯 번의 생물 대멸종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지층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지금처럼 지구 기온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뒤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로써 끝내 ㉢ 6차 대멸종이 초래된다면 지구의 역사는 이를 인간이 던진 ㉣ 부메랑으로 기록할 것이다.

3-1. 밑글에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시오. (각 6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종종 프랙탈 구조를 관찰하게 된다. '프랙탈(fractal)'이란 현상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닳은꼴 모양을 말한다. 이처럼 프랙탈은 ㉠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전체의 모양을 닮는 구조를 가지며, ㉡ 현상이 변화하는 방식에서도 일부와 전체 간의 유사성을 보인다.

3-2. 다음 그림에서 ㉢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찾아 설명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3-3. ㉢의 의미를 고려하여 ㉣과 ㉤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베버 등 서구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아시아가 동양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없거나 발전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는 동양에 없는 서양의 문화적 특성이 서양의 발전과 동양의 정체라는 차이를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 사고방식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본래 '동양학'이나 '동양 취향' 정도의 뜻이었는데, 이후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과 편견', 나아가 '식민주의적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힘을 지니는 이유는, 그 왜곡과 편견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며, 거기서 벗어난 표현이나 사고를 제어해가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무엇보다도 동양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여 현실을 왜곡시킨다. 이에 의해 동양적인 것이 동양 속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가지는 특성처럼, 그리고 변함이 없이 유지된 강체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동양적 특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명명이라면, 이러한 명명 행위는 동양을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처럼 오인하게 한다. 게다가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적인 것을 서구의 대응물과 대칭 관계에 있지만 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이는 동양 스스로 발전할 힘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동양의 고유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동양을 열등하고 정체된 존재로 오인하게끔 한다.

(나) 서구의 침략에 즈음하여 시작된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 규범의 수용을 통해 진행된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맨땅 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벼농사의 생산양식에 따라 협업 조직과 위계 구조를 발전시켜온 농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벼농사 체제가 남긴 유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수천 년을 이어온 논바닥의 협력적 노동 과정에 배태되어 있었던 셈이다.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가 남긴 주요한 유산으로 우선 긴밀한 협업 아래 진행되는 '기술 튜닝'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마을 공동체 조직은 세대 간 기술 이전과 세대 내 기술 공유를 통해 고도로 표준화된 농업기술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는 서로 다른 농법과 기술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자본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새로 착안하거나 도입한 농업기술은 이런 세대 간, 세대 내 네트워크 안에서 검증되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마을 전체의 진전된 표준 농법으로 공인되어갔다. 두레와 품앗이는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공인된 농법이 최종 확인되는 자리였다. 동아시아 마을 공동체의 '기술 튜닝'을 통한 표준화에 대한 집착은 현대의 자본주의 기업으로 이어졌다. 가령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완벽에 가까운 장인(일본) 혹은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자동화(한국) 시스템을 통해 규칙과 실행 방식을 표준화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불량률과 재고율을 자랑하는 '조율된' 작업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기반이 되었다.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의 또 다른 주요 유산으로 나이에 따른 연공 문화와 이를 기업에 이식시킨 연공제 위주의 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시기의 새로운 기업들은 숙련도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서 보상 규정의 수립에 곤란을 겪었다. 이 부재의 공간을 채운 것이 벼농사 체제의 연공 문화였다. 이에 의해서 거의 모든 기업은 나이가 들수록 윗자리를 차지하는 직급 체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보상 규정을 채택했다. 오래 버틴 자가 더 일을 잘할 것이고, 따라서 오래 버틴 자에게 더 많이 보상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규칙이 세워진 것이다. 어른을 우대하며 그들에게 농사를 배워온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 연공제의 원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몸과 정신에 새겨져 있었던 농촌의 공동노동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설계되고, 이것이 급속한 산업화의 기틀을 이룬 것이다.

4-1. (나)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가)에 언급된 오리엔탈리즘을 부정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230자 이내) [40점]

<보기>

- 18, 19세기에 쓰인 기록들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한 마을 안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했음이 확인된다. 가령 기름진 땅은 간격을 벌려서 심고, 메마른 땅은 촘촘하게 심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같은 작업조차 때로 호미를 쓰고 때로는 고무래로 대신했다. 같은 마을이라도 다양하기 마련인 경작지 환경이나 연도별, 개인별 차이를 꼼꼼히 구별한 결과였다. 특정 기술이 일반적으로 우월할 수는 있다. 그러나 농사란 저마다의 땅에서 자연환경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그 기술이 자신의 농토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일반적 우위는 쉽게 부정될 수 있었다.
- 기계화 이전 한국 벼농사의 공동노동 원리는 일반적으로 두레를 통해서 설명된다. 두레는 영좌나 좌상이라 불리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농민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 이들은 대개 나이 많은 농민이지만 꼭 최고령자인 것은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두레의 일꾼들은 각자 공동노동에 참여한 시간을 엄격히 계산해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을 배분받았다. 간혹 영좌나 좌상에게 능력이나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서 한 몫을 더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시간 외에 나이 등 다른 기준으로 수입 배분에 차등을 두는 일은 없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인과 관계를 두 사건 사이의 ‘필연적 연결’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 안에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내밀한 힘’ 같은 것이 있어서 원인이 결과가 발생하도록 필연적으로 ‘추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는 그런 신비로운 힘 같은 것은 보지 못하겠다. 인과 관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는 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사건이 뒤이어 발생한다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이 정지해 있는 다른 공과 부딪쳐 두 번째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저 공 하나가 굴러와서 다른 공과 접촉한 뒤 두 번째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의 관념은 필연적 연결의 관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과 관계를 필연적 연결이 아닌 규칙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건 A가 사건 B를 야기한다는 것은 A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B와 유사한 사건이 그것을 뒤따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흡연을 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폐암에 걸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규칙성의 존재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과 관계는 어떻게 분석되어야 할까? 사건 A가 다른 사건 B를 야기했다는 것은 “만약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런 조건문은 실제로는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불리는데,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은 이를 ‘가능 세계’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만약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인지 보기 위해서, A의 발생 시점 직전까지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지만 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현실 세계와 달라지는 가능 세계를 상정한다. 이 가능 세계가 자연법칙에 따라 흘러갈 때 B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위의 반사실적 조건문은 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면 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것이다.”는,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다르지만, 자연법칙이나 계단의 위치 등 다른 모든 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능 세계에서 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과 을은 돌맹이를 던져 앞에 있는 빈 병을 깨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다. 누구든 돌맹이를 던져 먼저 빈 병을 깨뜨리는 사람이 승자이다. 두 사람은 앞다퉀 땅바닥에서 돌맹이를 집어 들어 병을 향해 던진다. 갑이 던진 돌맹이가 먼저 빈 병에 도달하여 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을이 던진 돌맹이가 0.5초 후에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병은 이미 깨진 상태였다. 이 경우 당연히 갑이 돌맹이를 던진 것이 병이 깨진 것의 원인이다. 그러나 ㉠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을 따를 경우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귀결에 이르게 된다. 갑이 그 순간 돌맹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5초 뒤에 을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병이 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는 것은 인과 관계가 있음의 (⊖)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반사실적 조건

문에 의한 인과 분석은 인과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이 될 수 없다. 규칙성 이론의 경우에도 사정이 낮지 않다. 을이 돌맹이를 던진 것과 병이 깨진 것 사이에 규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규칙성의 존재가 인과 관계가 있음의 (⊖)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인과 관계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발생시키는 ‘필연적 연결’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5-1. <보기>의 ㉠와 ㉡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와 (나)는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두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삼의 공통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온도계의 눈금이 0°C 밑을 가리킨 직후에 항상 얼음이 어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냉동실에 얼음이 언 것도 냉동실에 달린 온도계의 눈금이 0°C 밑을 가리킨 탓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로 ㉠ 냉동실의 온도계 눈금과 ㉡ 냉동실에 얼음이 어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으며, 둘 모두 냉동실의 실제 온도가 낮은 것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다.

5-2. <보기>의 관점에서 ㉢을 반박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내일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내가 살해한다고 하자.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죽었을 것이니까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루 뒤에 어차피 죽을 것이었으나, 나로 인해 맞이하게 된 죽음은 그것과는 다른 죽음이다.

5-3. <보기>를 참조하여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보기>

- X가 성립하면 Y가 성립할 때, X는 Y의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 X가 성립하지 않으면 Y가 성립하지 않을 때, X는 Y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에서 가능한 분배 상태는 <표>와 같이 최초의 평등한 분배 상태(A)와 일련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B~G)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때 모든 사람이 최초의 평등한 상태보다 처지가 더 나아진다면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그러한 불평등한 분배보다는 최초의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

<표> 분배 상태별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의 이익

분배 상태	A	B	C	D	E	F	G
최대 수혜자	10	20	30	40	50	60	70
최소 수혜자	10	18	24	28	30	26	14

그런데 최초의 평등한 분배 상태와 비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한 분배 상태는 여럿이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가? '효율성의 원칙'은 효율적인 상태를 최적이라고 본다. 효율적인 상태란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할 때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하여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분배 상태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데 효율적인 분배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어서 그것들 간의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노예 제도가 효율적일 수 있다. ㉠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노예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의 노예 제도는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정의의 원칙은 불평등의 정당성을 판단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절하다. 차등의 원칙은 선천적 재능, 타고난 계층, 가정환경 등에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보호 무역을 폐지하고 자유 무역을 시행할 경우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은 손해를 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익을 얻는다면 자유 무역은 정당한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을 통해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며,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과도하게 불평등한 상태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바람직한 분배가 아니라고 여긴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분배 상태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지면 이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여러 분배 상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회 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된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

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증가하게 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감소하게 되는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아직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된 것은 아니다. 셋째, '정의롭지 못한 체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여 불평등이 심한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시기심에 의거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평등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이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즉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두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6-1.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에 대해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진술 중 윗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점]

- <보기>
- ①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G에서 F로의 변화는 허용된다.
 - ②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표>의 E보다 D를 더 좋아한다.
 - ③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분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

6-3.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 지닌 문제점을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 <보기>
-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총 이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총 이익이 증가하면 좋은 것으로 그것이 감소하면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므로 공리주의는 분배 이론으로서 바람직하다.

3 문항카드(인문·사회계열)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국어,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공감, 타자 이해, 공동체, 문학의 가치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감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덕목으로 많이 강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의 일치 혹은 타인의 경험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공감의 문제는 규범적으로만 읽히거나 아름다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공감은 동정으로 둔갑하거나 위선이나 감상주의에 머물기도 한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다는 무관심, 자신의 특권에 대한 무의식 등 공감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많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억압에 대한 타자의 감정적 반응까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설픈 감정이입이나 동일시만을 무조건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이 열마나 실천하기 어렵고 왜 불안전하기를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감의 덕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타자가 겪는 억압과 차별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신이 지닌 특권과 안전함이 그러한 억압과 차별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는 과정은 공감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

테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
 꽃에서도 테두리를 보고
 달에서도 테두리를 보는 사람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모든 ㉠ 테두리는 슬프겠지

슬퍼하는 상처가 있어야
위로의 노래도 사람에게로 내려올
㉠ 통로를 알겠지

박형준, 〈테두리〉 중에서

(다) [앞부분 줄거리] 그와 아내는 새로 마련한 집을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 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그러나 곧 그는 임 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임 씨가 일을 꼼꼼히 하자 비로소 안심하지만, 이번에는 임 씨가 수리비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임 씨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임 씨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임 씨는 서비스로 욕실 공사까지 해주고 견적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청구하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한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 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들렸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쏙 빠집니다요. 자 그마치 팔십만 원이오, 팔십만 원. 제기랄, 쉐타 공장 하던 놈한테 일 년 내 연탄을 대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뭐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껴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암. 받아야 하구말구.”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 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 씨의 기세 좋은 입만 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쥐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오.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 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매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척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 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불거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일 년 삼백육십오 일 비 오는 날은 싸고 썼는디 머시 그리 걱정이당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 씨를 놀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그는 임 씨의 핏발 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버리는 느낌이었다.

(중략)

“어떤 놈은 몇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 용 타고 다니며 꺼덕거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 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숫고 왜 이런당가요, 참으시오. 임 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 갔다. 임 씨는 탁자에 고개를 처박고서 연신 ‘죽여’를 되뇌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중에서

1-1. ㉠이 ㉡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가)를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100자 이내) [20점]

1-2. ㉡은 공감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서술하십시오. (135자 이내) [30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공감을 사회적 실천의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을 주목하고, 문학작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과정은 타인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이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공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공감이 정서적 합일이나 무조건적인 동일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억압을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함께 제거하려는 사회적 실천의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문학이 지닌 실천적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이며, 공감이 우리 사회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문학	
	과목명: 언어와 매체	
	성취기준 1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성취기준 2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기준 2	[10국05-05]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관련		제시문(가), (나) 문제1-1, 1-2
관련		제시문(가), (다) 문제1-1, 1-2
관련		제시문(가), (나) 문제 1-2
관련		제시문(가), (나) 문제 1-1, 1-2

3. 사회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나) 문제 1-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40~41	제시문(다)	○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53~64	제시문(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살림	2011	137~171	제시문(다)	○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박형준	창비	2020	134~135	제시문(나)	○
공감, 정체성,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	김미덕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317~354	제시문(가)	○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류동규	국어교육연구 71	2019	237~272	문제 1-2	○
공감(empathy)의 시학	황치복	서정시학 25권 3호	2015	245~258	문제 1-1	○

5. 문항 해설

【1-1】 (나)는 박형준 시인의 <테두리>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테두리를 가장자리와 한계, 그들과 연결하며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슬프다고 하였다. 즉 ‘테두리’는 슬픔이나 상처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상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가)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억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테두리는 슬픈 상처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1-2】 (다)는 양귀자 소설가의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이다.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중 한 편으로, 소설 속 화자인 ‘그’가 원미동 연립 주택으로 이사 온 후,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만난 ‘임 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인용된 부분은 임 씨가 평소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부분인데, 같이 술을 마시며 임 씨의 처지를 이해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임 씨와의 괴리감을 느끼고 그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는 장면이다. (가)는 공감의 의미를 감정이입이나 동일시로 보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공감이 왜 어려운가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감을 사회적 실천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공감의 과정이 타인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사회 문제 해결을 위

[문항카드 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불평등, 사회적 약자, 장애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애를 판정하는 오랜 방식 중 하나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기능 손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가 장애인이며, 장애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복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어느 정도의 시력 손상이 장애인지, 그리고 그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할 것이다. 그렇기에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장애 범주와 진단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나) 1976년 영국의 장애인 단체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은 “손상을 입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손상이 아니라 사회”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영향을 받아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장애 개념을 손상 중심 접근에서 사회적 어려움과 불이익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바꾸었다. 이는 나아가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국제적인 장애분류체계에 사회적 불이익의 수준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음성 발화 기능의 손상 수준에 따라 장애를 판단하였지만, 이후 실제로 개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의 정도로 중심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나라가 늘게 되었다. 예컨대 아랍어만 사용하는 시리아 난민이 스웨덴에 이주할 경우, 이들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관점은 실제로도 장애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비로소 장애인은 삶을 가로막는 모든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TV를 볼 때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청각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업이 없는 장애인 역시 사회적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는 물론 적절한 교육 훈련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만 기인한다는 믿음은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통해 완전한 장애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턱을 모두 없애고 모든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이동환경을 개선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사회환경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을 위

해 도로의 턱을 없애면 시각장애인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 차도에 들어갈 위험이 증가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점자 블록을 만들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요철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이렇듯 손상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장벽은 다를 수 있다. 그나마 일명 ‘무장애 환경’은 도시에서만 구현할 수 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자연을 한없이 훼손하며 도시를 만들 수도 없다. 또한 손상 그 자체도 고통을 유발한다. 장기간 휠체어 생활을 하는 지체장애인의 척추 뒤틀림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다른 손상으로 이어진다. 즉, 장애인의 어려움은 사회적 조건에만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손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다. 게다가 손상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도 않다. 장애 문제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조건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발생하는 것이며, 손상 그 자체 역시 사회적 장벽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2-1]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20점]

<보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비슷한 건설직 종사자 갑과 사무직 종사자 을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갑은 한쪽 다리, 을은 양쪽 다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다. 목발을 사용하게 된 갑은 건설 일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을은 복직하여 이전처럼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에 따르면 두 사람 중 (㉠)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나)에 따르면 두 사람 중 (㉢)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2-2] <보기>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나)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와 택시를 타고 싶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장애인의 외침은 새해에도 이어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2022년 1월 3일 오후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 100여 명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하라.”,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K씨는 “우리는 지하철을 잠깐 멈춰서라도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며 “지하철은 잠깐 연착됐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아예 멈춰 섰다.”라고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년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장애인들의 승하차 시위로 열차가 멈춘 시간은 평균 1분 20초 남짓이었다.

[2-3] (다)를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비행기와 잘 갖춰진 활주로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날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듯, 걸을 수 없는 장애인 역시 휠체어와 잘 갖춰진 도로 환경만 마련되면 보행 기능 손상은 사회 참여에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의료모델, 사회모델, 비판관점 등에 따라 손상과 사회적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독해를 통해 이해하고, 그 관점을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리적 추론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사회적 약자, 불평등 등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며,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시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을 탐색한다. [12사탐05-0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툼 셰익스피어	학지사	2013	28~58	(나), (다) 2-3 <보기>	○
신문기사		경향신문	2022		2-2 <보기>	○

5. 문항 해설

[2-1] 가) 제시문은 개인의 손상 수준에 따라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복지 재원을 분배할 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료모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개인의 손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참여의 장벽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장애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사회모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의 입장을 각각 이해하고, <보기>에서 손상 수준이 각각 다르고, 동시에 갑과 을의 직업상황(사회적 조건)이 달라 발생한 사회적 불리가 서로 다를 때 (가)와 (나)의 관점에서 장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2-2] <보기>는 실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였던 장애인단체 이동권 관련 시위 관련 신문기사를 일부 재구성한 내용이다. (나)의 입장은 개인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장애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나)의 입장을 독해를 통해 이해하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

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2-3] (다)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모델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모든 사회적 장벽을 철폐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손상 그 자체도 장애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장애 사회모델의 입장에 선 대표적 장애학자인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의 주장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인 것처럼, 휠체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일 뿐이다.”에 대하여 톰 셰익스피어(Tom Shakespeare)가 실제 비판한 바 있기도 하다. ‘날지 못함’과 ‘걷지 못함’, ‘비행기와 활주로’, ‘휠체어와 도로환경’을 각각 대비하며 손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도로 마이클 올리버는 말했지만, 사실 ‘날지 못함’은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걷지 못함’과 다르다. (다)의 입장을 토대로 (1)현실에서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2)손상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였는지 묻는 문제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을, ㉡(신체적) 기능 손상(수준), ㉢값, ㉣사회적 어려움(불리) - ㉠, ㉢를 모두 값, 혹은 모두 위로 썼을 경우: -10점 - ㉡, ㉣를 모두 기능 손상, 혹은 모두 사회적 어려움(불리)라고 썼을 경우: -10 - ㉡를 손상, 피해 등이라고 썼을 경우 3점 감점 - ㉣를 사회적 장벽이라고 썼을 경우 2점 감점 - 오답 예: ㉡개인의 심한 정도	20
2-2	① 신체기능 손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10점 ② 장애인의 사회참여 장벽 요소가 기술되어 있으면 10점 - ①, ②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작성되면 만점 부여. - ②에서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의 내용일 경우 3점 감점 - 각 평가 요소 별로 내용 구성 완성수준 등을 고려해 1~3점 감점.	20
2-3	① 사회환경이 개선되더라도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 / 혹은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기능 손상과 사회적 조건의 조합에 의하여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 둘 중 하나가 기술되어 있으면 10점 인정. (점수인정 예시) - 장애인은 자신의 걷지 못하는 능력의 제한과 사회적 장벽이라는 조건의 조합에 의해 이동제한을 겪으나, 사람이 날지 못하는 것은 손상과 무관하다. (점수 인정) - 장애인은 자신의 걷지 못하는 능력의 제한과 사회적 장벽이라는 조건의 조합에 의해 이동제한을 겪으나, 사람이 날지 못하는 것은 손상과 무관하며, 사회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점수 인정) (감점 예) - 자연을 훼손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5점 감점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혹은 불가능에 가깝다). : 3점 감점 - 도시에서만 무장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3점 감점 ② 사회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손상 그 자체가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10점 인정 - 단순히 “장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나)의 지문을 그대로 옮겨 썼을 경우 5점 감점. *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20점 만점. 각 항목별로 의미가 부족할 경우 2~3점 감점. * 각 평가요소 별로 일부 문장을 (나)에서 그대로 옮겨 쓰면 각 요소 별로 5점 감점.	20

	(감점 예) - 보기의 주장은 장애 문제가 개인 손상과 사회적 조건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5점)	
--	---	--

7. 예시 답안

【2-1】

㉠을, ㉢(신체적) 기능 손상(수준), ㉡감, ㉣사회적 어려움(불리)

【2-2】

시위 참여 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기능 손상 때문이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권 미보장 등과 같은 사회 참여 장벽이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78자)

【2-3】

아무리 사회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손상 그 자체 역시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7자)

[문항카드 3]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지구온난화, 산호, 생태계, 인간 활동, 대멸종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세계 각지의 맑고 따뜻한 바다 연안에는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분포하고 있다. 산호초는 수백만 개의 산호충들이 군체를 이루어 만들어진 암초를 말한다. 산호충은 사실 말미잘과 같은 촉수를 가진 무척추 해양 동물이다. 산호충들은 촉수를 통해 해양 플랑크톤과 공생조류를 섭취하거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데, 산호의 아름다운 빛깔은 바로 산호충들이 흡입한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산호초를 배경으로 전 세계 약 25%의 해양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호초가 건강한 빛깔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전체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산호초의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충들이 공생조류를 이전처럼 충분히 품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로써 산호초가 점차 빛깔을 잃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 만큼 해양으로 녹아드는 양도 증가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것도 산호초가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써 다양했던 주변 생물들의 수가 서서히 줄어 임계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전체 생태환경이 붕괴에 이르게 된다. 산호초가 색을 잃어버린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호의 생태환경이 지닌 유기적 연결성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떠나버린 곳에 남겨진 산호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을 경우 산호초의 백화현상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는 표면의 평균 온도가 겨우 영하 18℃밖에 되지 않는 차가운 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기체들이 지구를 감싸 안으며 마치 온실처럼 열을 가두어 지표의 기온을 올리게 된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는 이러한 온실효과에 잘 적응한 결과물이다. 문제는 온실효과 자체가 아니라, 온실의 성능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기체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이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른 주요 온실기체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① 이산화탄소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대기의 반응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약 2℃ 이상 높아질 경우 대기의 균형이 깨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기온 상태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 각국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지구 평균기온

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C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C로도 파국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그 상한을 1.5°C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온실 기체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40년 이전에 지구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시스템의 붕괴가 단지 대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특히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종 중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거나 이미 멸종된 것들이 존재한다. 생물종의 생존 환경은 각기 다른 한계치를 가지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보다 취약한 것들이 낮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멸종에 이르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가 먹이 사슬과 공생 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부 생물종의 멸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생태계가 순식간에 견잡을 수 없는 불균형에 놓이고 결국 대멸종의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운석 충돌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지구 생태계는 이미 ④ 다섯 번의 생물 대멸종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지층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지금처럼 지구 기온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뒤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로써 끝내 ⑥차 대멸종이 초래된다면 지구의 역사는 이를 인간이 던진 ③ 부메랑으로 기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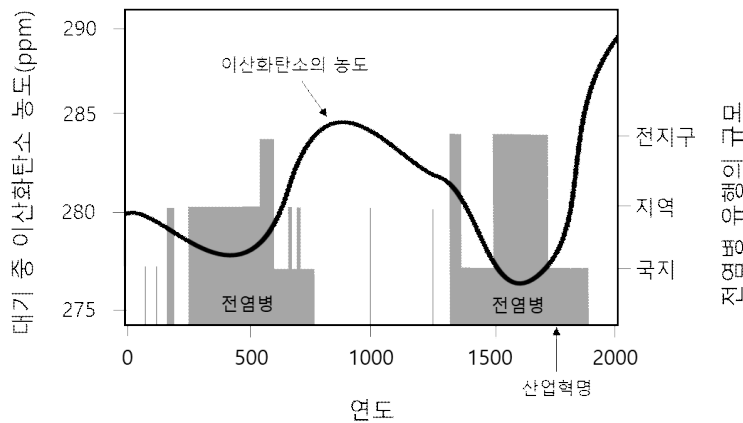
.....

[3-1] 윗글에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시오. (각 6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종종 프랙탈 구조를 관찰하게 된다. '프랙탈(fractal)'이란 현상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닳은꼴 모양을 말한다. 이처럼 프랙탈은 ㉠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전체의 모양을 닮는 구조를 가지며, ㉡ 현상이 변화하는 방식에서도 일부와 전체 간의 유사성을 보인다.

[3-2] 다음 그림에서 ㉠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찾아 설명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3-3] ㉠의 의미를 고려하여 ㉡과 ㉢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변화가 자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가)는 산호의 생태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백화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제시문 (나)는 전 지구 생태환경의 위기를 설명하며 여기에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 3-1은 산호의 생태환경과 전 지구 생태환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닮았으며 변화의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지 묻는다. 3-2에서는 과거 기후분석결과와 역사기록으로 부터 인간의 활동과 이산화탄소의 증감이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3-3에서는 궁극적인 기후위기에 할 수 있는 6차 대멸종과 관련하여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의 내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멸종과 다른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본 문항은 기후위기에 있어 인간 활동의 본질을 다루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3-1 3-2 3-3
	성취기준 2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3-3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기준 1	[12세지02-01] 기후 요인과 기후 요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열대 기후의 주요 특징과 요인을 분석한다.	3-1 3-2
	성취기준 2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3-2 3-3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기준 1	[12세사04-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3-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3-2 3-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	배수경	자음과모음	2016	168	제시문	○
'바다의 정글 산호초	한정기 박흥식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2015	152	제시문	○
THE ANTHROPOGENIC GREENHOUSE ERA BEGAN THOUSANDS OF YEARS AGO	WILLIAM F. RUDDIMAN	Climatic Change	2003	61권 261-293	제시문	○
확 당겨진 온난화 마지노선 '1.5도'...이런 기후 재앙 훨씬 찾아진다	정중훈	중앙일보	2021		제시문	○

5. 문항 해설

[3-1] 이 문항은 기후변화의 과정에 내재된 자연현상의 구조와 변화방식을 추론하도록 한다. 산호초가 다양한 생물종으로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는 동시에 산호초의 생태환경은 전 지구 생태환경을 이루는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닮은꼴 모양이 나타나는 프랙탈(fractal) 구조가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이며, 일부의 기능이 손상됨에도 전체가 붕괴되는 산호의 백화현상은 전 지구 생태계의 붕괴 과정과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3-2] 이 문항은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기체들 중 이산화탄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후분석을 통해 밝혀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프는 전염병 확산의 규모가 컸던 시기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해 나타났으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염병의 확산이 둔화된 데다 활발한 산업 활동이 겹치면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3] 이 문항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위기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향후 닥칠지도 모를 6차 대멸종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처럼 생물종들의 멸종이 임계값을 넘어설 때 전체 생태계가 붕괴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과거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운석 충돌과 같은 외부요인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면, 6차 대멸종은 지구생태계 내부요인인 인간 활동의 결과로부터 그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부메랑으로 비유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단어(두꺼운 글씨체)를 기준으로 문맥 이해 여부를 평가함 ㉠: 산호초(산호의 생태환경)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면서도 (5점) 지구 생태계처럼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5점) - '유기적 구성', '먹이사슬', '공생관계' 등도 '다양한 생물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 ㉡: 생물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부 생물종의 감소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5점) 급속히 전체가 붕괴된다. (5점) -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등도 '임계점에 도달할 때'를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 	20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단어(두꺼운 글씨체)를 기준으로 문맥 이해 여부를 평가함 전염병으로 (5점) 인간 활동의 감소(인구 감소)가 있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감소가 있었으며 (5점) 산업혁명 이후 (5점) 활발한 산업활동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은 (5점) 인간의 활동이 이산화탄소의 증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단어(두꺼운 글씨체)를 기준으로 문맥 이해 여부를 평가함 ㉢은 외부요인이 (5점) 일방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5점) ㉣은 내부요인(또는 인간)에 따른 것으로 (5점)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 (5점) -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도 '와 달리 ~은 되돌려 받는다.'의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일방적으로'를 언급한 것으로 인정 	20

7. 예시 답안

【3-1】

- ㉠: 산호초(산호의 생태환경)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면서도 지구 생태계처럼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44자)
 ㉡: 생물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부 생물종의 감소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급속히 전체가 붕괴된다. (55자)

【3-2】 전염병으로 인간 활동의 감소(인구 감소)가 있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감소가 있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활발한 산업활동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은 인간의 활동이 이산화탄소의 증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22자)

【3-3】 ㉢은 외부요인이 일방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은 내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 (80자)

[문항카드 4]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4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사회,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오리엔탈리즘, 동아시아, 발전, 벵농사, 마을(공동체), 농업기술, 표준화, 두레, 연공제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베버 등 서구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아시아가 동양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없거나 발전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는 동양에 없는 서양의 문화적 특성이 서양의 발전과 동양의 정체라는 차이를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 사고방식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본래 ‘동양학’이나 ‘동양 취향’ 정도의 뜻이었는데, 이후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과 편견’, 나아가 ‘식민주의적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힘을 지니는 이유는, 그 왜곡과 편견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며, 거기서 벗어난 표현이나 사고를 제어해가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무엇보다도 동양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여 현실을 왜곡시킨다. 이에 의해 동양적인 것이 동양 속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가지는 특성처럼, 그리고 변함이 없이 유지된 강제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동양적 특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명명이라면, 이러한 명명 행위는 동양을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처럼 오인하게 한다. 게다가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적인 것을 서구의 대응물과 대칭 관계에 있지만 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이는 동양 스스로 발전할 힘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동양의 고유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동양을 열등하고 정체된 존재로 오인하게끔 한다.

(나) 서구의 침략에 즈음하여 시작된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 규범의 수용을 통해 진행된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맨땅 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벵농사의 생산양식에 따라 협업 조직과 위계 구조를 발전시켜온 농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벵농사 체제가 남긴 유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수천 년을 이어온 논바닥의 협력적 노동 과정에 배태되어 있었던 셈이다.

동아시아 벵농사 체제가 남긴 주요한 유산으로 우선 긴밀한 협업 아래 진행되는 ‘기술 튜닝’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마을 공동체 조직은 세대 간 기술 이전과 세대 내 기술 공유를 통해 고도로 표준화된 농업기술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는 서로 다른 농법과 기술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자본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새로 착안하거나 도입한 농업기술은 이런 세대 간, 세대 내 네트워크 안에서 검증되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마을 전체의 진전된 표준 농법으로 공인되어갔다. 두레와 품앗이는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공인된 농법이 최종 확인되는 자리였다. 동아시아 마을 공동체의 ‘기술 튜닝’을 통한 표준화에 대한 집착은 현대의 자본주의 기업으로 이어졌다. 가령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완벽에 가까운 장인(일본) 혹은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자동화(한국) 시스템을 통해 규칙과 실행 방식을 표준화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불량률과 재고율을 자랑하는 ‘조율된’ 작업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기반이 되었다.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의 또 다른 주요 유산으로 나이에 따른 연공 문화와 이를 기업에 이식시킨 연공제 위주의 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시기의 새로운 기업들은 숙련도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서 보상 규정의 수립에 곤란을 겪었다. 이 부재의 공간을 채운 것이 벼농사 체제의 연공 문화였다. 이에 의해서 거의 모든 기업은 나이가 들수록 위치를 차지하는 직급 체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보상 규정을 채택했다. 오래 버틴 자가 더 일을 잘할 것이고, 따라서 오래 버틴 자에게 더 많이 보상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규칙이 세워진 것이다. 어른을 우대하며 그들에게 농사를 배워온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 연공제의 원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몸과 정신에 새겨져 있었던 농촌의 공동노동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설계되고, 이것이 급속한 산업화의 기틀을 이룬 것이다.

.....
[4-1] (나)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가)에 언급된 오리엔탈리즘을 부정할 수 있는지 서술하십시오. (100자 이내) [20점]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230자 이내) [40점]

<보기>

- 18, 19세기에 쓰인 기록들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한 마을 안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했음이 확인된다. 가령 기름진 땅은 간격을 벌려서 심고, 메마른 땅은 촘촘하게 심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같은 작업조차 때로 호미를 쓰고 때로는 고무래로 대신했다. 같은 마을이라도 다양하기 마련인 경작지 환경이나 연도별, 개인별 차이를 꼼꼼히 구별한 결과였다. 특정 기술이 일반적으로 우월할 수는 있다. 그러나 농사란 저마다의 땅에서 자연환경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그 기술이 자신의 농토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일반적 우위는 쉽게 부정될 수 있었다.
- 기계화 이전 한국 벼농사의 공동노동 원리는 일반적으로 두레를 통해서 설명된다. 두레는 영좌나 좌상이라 불리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농민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 이들은 대개 나이 많은 농민이지만 꼭 최고령자인 것은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두레의 일꾼들은 각자 공동노동에 참여한 시간을 엄격히 계산해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을 배분받았다. 간혹 영좌나 좌상에게 능력이나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서 한 몫을 더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시간 외에 나이 등 다른 기준으로 수입 배분에 차등을 두는 일은 없었다.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전근대·근대·현대의 사회조직과 사회변동, 그리고 동양-서양 간 및 전통-현대 간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정도 및 응용적인 적용 능력을 함께 측정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및 근현대의 한국사, 전통 및 현대의 사회·문화, 근대 및 현대의 경제와 사회조직 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는 능력, 실증적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한 이론적 주장을 비판하는 능력 등, 대학 학업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염두에 둔 점은, 수험생들이 익숙한 (상태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개념들을 새로운 역사적 혹은 이론적 배경에서 조명했을 때 새로운 학술적 혹은 실천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수험생과 공유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제시문에서 삭제해도 무방했던 ‘베버’를 글머리에 남겨둔 것은, 교과서 (및 근대적인 사회사상) 전체를 통틀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베버의 논점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던 의심하던 이 사고는 실증적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현실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의 출제를 통해, 도그마와 같은 인식에 갇혀서 암기하는 사회문화의 학습이 아니라, 도그마적인 인식을 부수며 활발히 응용하는 사회문화의 학습 능력이 바로 우리 대학이 요구하고 또 양성하려는 인재의 자질이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사회, 통합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나) 4-1, 4-2
	성취기준 2	[9사(지리)04-01]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해 보고,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의 자연환경, 경제·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제시문 (가) (나) 4-1, 4-2
	성취기준 3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제시문 (가) (나) 4-1, 4-2
	성취기준 4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시문 (가) (나) 4-1, 4-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교보문고	1991	127-128	제시문 (가)	○
쌀, 재난, 국가: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이철승	문학과지성사	2021	32-35, 47-69, 149-152, 159-163, 289-290, 342	제시문 (나)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먼저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고, 이어서 그것이 현실과 다른 것을 현실인 것처럼 왜곡할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생각을 통제하게 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하나는 동아시아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처럼 왜곡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고유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제시문 (나)는 동아시아가 서구에 없는 벼농사 체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를 가능하게끔 만든 벼농사 체제의 유산으로 기술 표준화

(혹은 '기술 튜닝') 시스템과 연공제 문화를 거론한다. 전자는 마을 단위로 표준화된 농업이 공동노동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나이가 들수록 뒷자리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연공 문화가 벼농사 체제 공동노동의 원리였고 동아시아의 기업은 이를 받아들여 기업조직의 원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4-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에 적시된 오리엔탈리즘의 두 가지 문제점(현실을 왜곡한 점) 중 어떤 것이 제시문 (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지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서구에 없었던 벼농사 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회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중 첫 번째 측면, 즉 동아시아에는 고유한 발전 가능성이 없었다는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이 제시문 (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4-2】 이 문항은 우선 <보기>에 적힌 마을 내 농업기술의 다양성과 공동노동의 운영방식에 대한 사실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어떤 점에서 사실의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는지 서술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과 연결함으로써, 간단하지만 이론적인 명제를 진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제시문 (나)가 어떤 측면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성공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인식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적으면 각기 10점을 부여한다. • 첫 번째 구성요소는 동아시아에 고유한 발전 경로 또는 방식이 있었다는 점(혹은 벼농사 체제에 바탕을 두고 동아시아가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적는 것이다. • 두 번째 구성요소는 그에 의해 부정되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의 내용, 즉 동아시아(혹은 동양)의 고유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에 관한 서술 자체가 부족하거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부적절한 서술 혹은 비문 등이 포함된 경우, 출제자가 제시한 세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자가 적절히 감점한다.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첫째와 둘째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적으면 각 10점씩, 세 번째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적으면 20점을 부여한다. • 첫 번째 구성요소는 한 마을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할 수 있었으므로 기술 표준화에 관한 제시문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두 번째 구성요소는 두레에 나이에 따른 지휘구조나 보상체계가 없으므로 벼농사 공동노동(혹은 연공 문화, 혹은 연공제의 기원)에 관한 제시문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세 번째 구성요소는 ①동아시아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취급하고, ②잘못된 인식을 마치 현실처럼 인식하는 점에서, 제시문 (나)도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세 번째 구성요소에서 ①과 ② 중 어느 하나만을 적는 경우를 포함하여,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에 관한 서술 자체가 부족하거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부적절한 서술 혹은 비문 등이 포함된 경우, 출제자가 제시한 세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자가 적절히 감점한다. 	40

7. 예시 답안

【4-1】

동아시아는 서구에 없는 벼농사 체제의 유산을 토대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동양에 고유한 발전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오리엔탈리즘의 사고가 (나)에 의해 부정된다.

【4-2】

(나)는 마을을 단위로 기술이 표준화된다고 했지만 같은 마을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했다. 또 벼농사 공동노동이 연공제의 기원이라고 했지만 두레에는 나이에 따른 지휘구조나 보상체계가 없었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벼농사 체제라고 명명하고, 현실과 다른 그 명명이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점에서 (나)는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을 드러낸다.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인과관계, 규칙성, 반사실적 조건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사람들은 인과 관계를 두 사건 사이의 ‘필연적 연결’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 안에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내밀한 힘’ 같은 것이 있어서 원인이 결과가 발생하도록 필연적으로 ‘추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는 그런 신비로운 힘 같은 것은 보지 못하겠다. 인과 관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는 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사건이 뒤이어 발생한다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이 정지해 있는 다른 공과 부딪쳐 두 번째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저 공 하나가 굴러와서 다른 공과 접촉한 뒤 두 번째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의 관념은 필연적 연결의 관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과 관계를 필연적 연결이 아닌 규칙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건 A가 사건 B를 야기한다는 것은 A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B와 유사한 사건이 그것을 뒤따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흡연을 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폐암에 걸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규칙성의 존재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과 관계는 어떻게 분석되어야 할까? 사건 A가 다른 사건 B를 야기했다는 것은 “만약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런 조건문은 실제로는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불리는데,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은 이를 ‘가능 세계’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만약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인지 보기 위해서, A의 발생 시점 직전까지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지만 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현실 세계와 달라지는 가능 세계를 상정한다. 이 가능 세계가 자연법칙에 따라 흘러갔을 때 B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위의 반사실적 조건문은 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면 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것이다.”는,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다르지만, 자연법칙이나 계단의 위치 등 다른 모든 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능 세계에서 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과 을은 돌멩이를 던져 앞에 있는 빈 병을 깨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다. 누구든 돌멩이를 던져 먼저 빈 병을 깨뜨리는 사람이 승자이다.

두 사람은 앞다퉀 땅바닥에서 돌맹이를 집어 들어 병을 향해 던진다. 갑이 던진 돌맹이가 먼저 빈 병에 도달하여 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을이 던진 돌맹이가 0.5초 후에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병은 이미 깨진 상태였다. 이 경우 당연히 갑이 돌맹이를 던진 것이 병이 깨진 것의 원인이다. 그러나 ㉠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을 따를 경우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귀결에 이르게 된다. 갑이 그 순간 돌맹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5초 뒤에 을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병이 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는 것은 인과 관계가 있음의 (㉡)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은 인과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이 될 수 없다. 규칙성 이론의 경우에도 사정이 낫지 않다. 을이 돌맹이를 던진 것과 병이 깨진 것 사이에 규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규칙성의 존재가 인과 관계가 있음의 (㉢)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인과 관계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발생시키는 '필연적 연결'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5-1] <보기>의 ㉠와 ㉢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와 (나)는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두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삼의 공통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킨 직후에 항상 얼음이 어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냉동실에 얼음이 언 것도 냉동실에 달린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킨 탓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로 ㉠ 냉동실의 온도계 눈금과 ㉢ 냉동실에 얼음이 어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으며, 둘 모두 냉동실의 실제 온도가 낮은 것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다.

[5-2] <보기>의 관점에서 ㉠을 반박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내일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내가 살해한다고 하자.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죽었을 것이니까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루 뒤에 어차피 죽을 것이었으나, 나로 인해 맞이하게 된 죽음은 그것과는 다른 죽음이다.

[5-3] <보기>를 참조하여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보기>

- X가 성립하면 Y가 성립할 때, X는 Y의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 X가 성립하지 않으면 Y가 성립하지 않을 때, X는 Y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3. 출제 의도

인과관계는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사회, 국어 등 여러 맥락에서 등장한다. 본 문항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간략히 소개된 인과관계에 대한 견해를

소재로 삼아 학생들이 추상적인 주제에 대한 글을 분석적 읽고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은 인과관계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반례를 통해 비판하고, 반례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는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의 유명한 인과관계에 대한 지문인데, 흄은 인과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인과관계는 규칙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흄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인과관계는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앞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뒤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는 이 견해에 대한 반례를 들어 이 견해를 비판하면서 상식적 견해를 옹호한다.

각 문항은 인과관계에 대한 일상적인 지식 외에 어떠한 지식도 요구하지 않지만, 단순히 읽은 것을 수동적으로 이해해서는 풀 수 없고 적극적으로 분석적인 자세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1은 제시문에서 제시된 추상적인 견해를 일상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2는 단서를 주고서 이 단서로부터 제시문에 나오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3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학습했으면 알고 있을 '충분조건' 및 '필요조건'의 개념을 이용해 제시문의 논리를 적절히 파악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5-1 5-2 5-3
성취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5-1 5-2 5-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i>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i>	David Hume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9~30	제시문(가)	0
인과	김동현 외	서광사	2020	55~79	제시문(나), (다)	0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9	132	제시문(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9	138	제시문(가)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가)는 <윤리와 사상>에 언급된 18세기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인과관에 대한 글이다. 경험론자였던 흄은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발생시키는 ‘내밀한 힘’ 같은 것은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과는 단순히 ‘규칙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반례를 들어 이 견해를 비판한다. 흡연과 폐암 사이에 규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규칙성 견해에 반례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인과관계를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분석하는 견해를 제안한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했다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는 다시 이 견해를 반례를 들어 비판한다.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두 사건이 거의 같은 시간에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만이 원인이 되는 경우, 실제 원인이 된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의해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문 견해는 이런 사례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이다.

문항 5-1은 (가)와 (나)에 제시된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사례는 얼핏 보기에 두 사건(온도계의 눈금과 얼음이 아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둘의 공통 원인(온도가 낮은 것)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온도계의 눈금이 0°C 밑을 가리키는 것과 얼음이 어는 것 사이에 규칙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것이다. 반면 (나)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정할 텐데, 온도계의 눈금이 (모종의 이유로) 0°C 밑을 가리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온도는 여전히 낮았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은 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둘 사이에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항 5-2는 <보기>에 나타는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에서 제시된 (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을 구성하는 문항이다. <보기>는 다른 사건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만약에 갑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을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서 병이 깨지는 했을 테지만, 이는 0.5초 후에 일어날 사건이므로 (<보기>의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갑의 돌멩이에 의해서 병이 깨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따라서 갑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갑의 돌멩이에 의해 병이 깨지는 바로 그 시간에 병이 깨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며 따라서 (나)의 견해는 이 사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문항 5-3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의 개념을 가지고 제시문에 제시된 논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의 경우,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례이므로, 이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음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의 경우는 반대로 규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는 없는 사례이므로, 이는 규칙성이 있음이 인과관계가 있음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p>▶ 채점기준: 각각에 대해서, (i) 올바른 근거에 기반해서, (ii) 맞는 답을 내리고, (3) 적절히 서술했느냐에 따라서 채점</p> <p>▶ (5-1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사이에 규칙성이 있음을 근거로 (가)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 15점 - 규칙성 대신에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의 다른 사항을 근거로 삼은 경우, 10점 감점 - 규칙성은 언급했으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로 잘못 파악하거나 판단을 적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5점 감점. <p>▶ (5-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실제 온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이 얼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나)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 15점 - 추가적인 설명 없이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음이 얼었을 것이다”라는 것만 근거로 삼았을 경우, 5점 감점 -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 세계만 언급하는 등의 부적절한 근거를 댈 경우 10점 감점 - 근거는 제대로 지적했으나, 답을 틀리게 내린 경우, 10점 감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5점 감점 	30 (각15점)
5-2	<p>▶ (i) 갑에 의한 병 깨짐과 을에 의한 병 깨짐이 다른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임을 이해했는지와, (ii) 이것이 인과 관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기술했느냐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의 시간 차 때문에 다른 사건이라는 것만 지적한 경우, 10점 감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5점 감점 	20
5-3	▶ 부분 점수 없이 두 가지를 모두 바르게 파악했느냐에 따라 채점	10

7. 예시 답안

【5-1】

둘 사이에 규칙성이 있으므로 (가)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실제 온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이 얼었을 것이므로, (나)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5-2】

갑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병이 깨진 시간에 병이 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0.5초 후에 을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 병이 깨지는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5-3】

㉠: 필요조건, ㉡: 충분조건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분배적 정의, 차등의 원칙, 불평등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에서 가능한 분배 상태는 <표>와 같이 최초의 평등한 분배 상태(A)와 일련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B~G)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때 모든 사람이 최초의 평등한 상태보다 처지가 더 나아진다면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그러한 불평등한 분배보다는 최초의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

<표> 분배 상태별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의 이익

분배 상태	A	B	C	D	E	F	G
최대 수혜자	10	20	30	40	50	60	70
최소 수혜자	10	18	24	28	30	26	14

그런데 최초의 평등한 분배 상태와 비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한 분배 상태는 여럿이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가? ‘효율성의 원칙’은 효율적인 상태를 최적이라고 본다. 효율적인 상태란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할 때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하여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분배 상태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데 효율적인 분배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어서 그것들 간의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노예 제도가 효율적일 수 있다. ㉠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노예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의 노예 제도는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정의의 원칙은 불평등의 정당성을 판단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절하다. 차등의 원칙은 선천적 재능, 타고난 계층, 가정환경 등에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보호 무역을 폐지하고 자유 무역을 시행할 경우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은 손해를 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익을 얻는다면 자유 무역은 정당한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을 통해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며,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과도하게 불평등한 상태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바람직한 분배가 아니라고 여긴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분배 상태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지면 이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여러 분배 상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회 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된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증가하게 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감소하게 되는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아직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된 것은 아니다. 셋째, '정의롭지 못한 체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여 불평등이 심한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시기심에 의거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평등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이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즉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두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6-1]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에 대해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진술 중 윗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 ①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G에서 F로의 변화는 허용된다.
- ②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표>의 E보다 D를 더 좋아한다.
- ③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

[6-3]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 지닌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보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총 이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총 이익이 증가하면 좋은 것으로 그것이 감소하면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므로 공리주의는 분배 이론으로서 바람직하다.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롤스(J. Rawls)의 ‘차등의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 계층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하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그런데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능력주의나 평등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분배 방식을 비판하면서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을 주장한다.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한 분배도 허용한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하여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불평등이 과도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분배 상태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생활과 윤리>를 비롯한 중등교육과정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윤리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문항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주장을 제시문으로 소개한 후에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해 능력, 특정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및 문항 6-1, 6-2, 6-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90-93	제시문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20	91-94	제시문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0	94-97	제시문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앤	2020	90-93	제시문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0	91-94	제시문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의론	롤스(황경식 역)	이학사	2006	111-128	제시문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효율성의 원칙’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항 6-1은 차등의 원칙이 노예 해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서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문항 6-2는 제시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라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항 6-3은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6-1] 이 문항은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노예 해방에 대해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본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는 노예 해방을 통해 비록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노예의 이익은 증가하므로 그러한 노예 해방은 정의로운 것이다.

[6-2] 이 문항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언급한 차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시기심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면 된다.

①의 진술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G에서 F로의 변화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표>의 G에서 F로 변화하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14에서 26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변화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한다.

②의 진술은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표>의 E보다 D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시기심을 지닌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평등한 상태를 추구한다. <표>에서 E와 D의 분배 상태를 비교하면, 최소 수혜자는 이익이 30(E)에서 28(D)로 감소하여 손해를 보지만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 즉 불평등은 20(E)에서 12(D)로 줄어들어 좀 더 평등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E보다 D를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한다.

③의 진술은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불평등)가 커지는 것을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한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양자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의 진술은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효율성의 원칙’은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할 때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을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E, F, G이다. E, F, G 각각의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나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각각의 분배 상태는 효율적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E이다. E 분배 상태에서 최소 수혜자는 최대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E이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⑤의 진술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분배 상태 C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증가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분배 상태 C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 반면에 분배 상태 F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감소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분배 상태 F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이며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라는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6-3] 이 문항은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에 나타난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므로 공리주의는 분배 이론으로서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가를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의 총 이익의 증가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대 수혜자의 이익만 증가하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공리주의가 분배 이론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서술함.</p> <p>〈답안〉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노예의 이익은 증가하므로 노예 해방은 정의로운 것이다.”(20점)</p> <p>-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노예(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증가한다.”는 내용(이유)을 서술한 경우(10점)</p> <p>- “노예 해방은 정의롭다(정당하다).”는 내용(평가)을 서술한 경우(10점)</p> <p>-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2	<p>▶ 〈보기〉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선택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③, ④, ⑤ (20점)</p> <p>- 정답 개수에서 오답 개수를 뺀 합산 개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정답 개수 - 오답 개수 = 합산 개수) 합산 개수: 0개 (0점), 1개 (5점), 2개 (10점), 3개 (20점)</p> <p>(예) ①, ④, ⑤ --> 합산 개수 1개 (5점) ②, ③, ④, ⑤ --> 합산 개수 2개 (10점) ①, ②, ③, ④ --> 합산 개수 0개 (0점)</p>	20
6-3	<p>▶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 ㉡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거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는 문제가 있다.”(20점)</p> <p>-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10점)</p> <p>-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10점)</p> <p>-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7. 예시 답안

[6-1]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노예의 이익은 증가하므로 노예 해방은 정의로운 것이다.

[6-2] ③, ④, ⑤

[6-3]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거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는 문제가 있다.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디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때늦은 봄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카펫이 깔린 이태리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것이 내가 알던 곳과는 다른 세계임을 알았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과 촛대가 놓였고, 부유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사람들이 양식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나누는 나직한 대화가 실내 공기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창가의 예약석으로 안내되었다. 웨이터가 아버지의 고급 바바리코트와 함께 군데군데 솜이 문친 내 남은 파카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중략)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날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나는 왜 태어난 걸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걸음이 뒤쳐질 때마다 아버지는 잠깐씩 멈춰 서서 기다려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듯이 내 몸집이 둔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오해는 나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만날 날에는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항상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아버지는 특히 내가 뚱뚱한 아이라는 걸 가장 못마땅했을 것만 같았다. 순진하고 영민한 아이와 함께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심술궂거나 아둔해 보이는 뚱뚱한 아이는 자신의 실수와 한때의 어리석음을 환기시켜주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중략)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또 한 번 나를 불러내 고급 식당에 데려갔지만 대학생 때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내가 커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하는 말이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내가 성인이 됨으로써,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모양이었다. (중략)

그 전화는 일주일 전 어머니가 교회에 간 오전 시간에 걸려왔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국밥집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며 내가 그 집 아들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이름을 댔고 병원과 병실 호수를 알려주었다. (중략)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생일을 기념할 겸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마치 그 말을 동면을 앞둔 곰한테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소년들의 프로그램이 끝나자 텔레비전 앞에서 물러나 앉으며 어머니가 물었다. 몇 킬로나 뺄 거니? 내가 20킬로그램이라고 대답하자 또 한 번 고개를 가우뚱했다. 누구한테 선보일 일이라도 있나? 방으로 들어가는 내 등 뒤에 대고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중략)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은 몸속에 장착된 수백만 년이나 된 생존 본능 시스템과 싸워야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철저히 지방을 모아 저장하는 돌도끼 시대의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미와 건강의 기준은 몸속의 지방을 남김없이 태워 없애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원시적인 육체와 현재적 문화 사이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나는 내 몸속 타자를 원시인이라고 이름 붙였다. 살아남으려는 동물적인 본능과 거기에 집착하는 내 몸의 시스템에 점점적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중략)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였다. 숫자를 누르는 손길이 약간 서두르고 있었다. 2차 수술은 실패했다. 변함없이 친절하던 목소리의 간호사가 그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연락해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기의

숫자를 눌렀다. 내일이 발인이었다. (중략) 빈소에 들어가 볼 수가 나지 않았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앳된 청년이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나는 하는 수없이 그의 안내를 받아 복적거리러는 식당으로 들어가야 했다. 내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에게 호기심을 느낄 장소가 아니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눈에 띌 만큼 뚱뚱하지 않은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중략) 나는 늘 아버지 세계의 사람들을 상상하곤 했다. 어른들은 모두 품위 있고 다정하며 아이들은 순진하고 영민할 것이다. 그러나 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내가 흔히 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세월의 주름에 희비를 담고 있었으며 사는 데 치저 보이기도 했고 작은 일에 위안을 얻거나 허세를 부리는, 보통의 삶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뚱뚱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상관없는 일이었다. (중략)

내 손에 손가락까지 쥐어주는 남자의 허물없는 강요를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 나는 마침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알은 달게 씹혀 목구멍 안으로 부드럽게 넘어갔다. 내 몸이 미칠 듯이 환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위장이 춤추듯 꿈틀거렸으며 뱃속이 흐뭇할 만큼 따뜻해졌다. 자, 내가 그토록 원하는 탄수화물이다. 손가락질이 점점 빨라졌다. 나는 ㉠ 이상한 감동으로 국밥을 퍼먹고 있었다.

1-1. 제시문에 나타난 내적 갈등의 원인에 근거하여 <보기> ㉠의 구체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보기>

한국의 백자 달항아리를 보자. 이 항아리는 쓸모 있는 도구였다는 점 이외에도 ㉠ 중요한 미덕을 지닌 최상의 작품이다. 항아리는 표면에 작은 흠들을 남겨 둔 채로 불안정한 유약을 머금어 변형된 색을 가득 품고, 이상적인 타원형에서 벗어난 윤곽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마 속으로 뜻하지 않게 불순물이 들어가 표면 전체에 얼룩이 무작위로 퍼졌다. 그럼에도 이 항아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 그 결함들은 항아리가 신분 상승을 향한 노력에 무관심하다고 시인할 뿐이다. 항아리는 궁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존재에 만족할 뿐이다. 세속의 지위 때문에 오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또는 이런저런 집단에서 인정받고자 안달하는 사람에게 이런 항아리를 보는 경험은 용기는 물론 강렬한 감동을 줄 수 있다.

1-2. ㉠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기>의 ㉡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100자 이내) [30점]

<보기>

혐오의 생성은 단순히 다른 대상에 대한 잘못된 편향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된 이상적인 자아상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상적인 것과 동일시하려는 욕망은 그와 반대되는 것을 끊임없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대체로 ㉡ 혐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망상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중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가리킨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머리카락의 굵기가 70마이크로미터 정도이니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입자가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입자가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가 폐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가지고 있던 폐 질환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혈액으로 침투하여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시거리가 줄어드는데 이는 관광, 항공 등 여러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 미세먼지는 그 화학적 조성에 따라 강이나 호수를 산성화시키고 지력을 소진시켜 농작물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한다. 여러 경로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이 1g당 24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건축 공사, 도로 통행, 음식 조리 등 사실상 대부분의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연기관의 연료 연소 과정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10km를 갈 때 평균적으로 1g의 미세먼지를 연소를 통해 발생시키는 데 반해 전기 자동차는 동력 발생에서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전기 자동차 또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를 생산하려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보급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반되는 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에너지원부터 자동차의 동력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 연료 속에 있는 화학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동력을 처음 만드는 엔진에서의 손실과 토크 컨버터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손실 등을 감안하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20% 정도만 운동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기 자동차의 경우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80%에 이른다. 하지만 이것이 전기 자동차의 효율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4배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화석 연료를 직접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 자동차는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공급 받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때와 송배전을 통해 공급할 때 손실이 생기는데, 최종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공급받을 때에는 최초 에너지의 50% 정도가 저장된다고 한다.

전기가 모두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되는데 전기 생산 원천의 비율을 에너지 믹스라고 한다. 현재 에너지 믹스를 보면 원자력이 40%, 화력이 50%, 신재생 에너지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이점은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화력발전이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같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10km당 (○)원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의 문제점으로 전기 자동차의 높은 가격을 지적하는데 실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2배가량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국가 보조금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높은 가격은 전기 자동차 보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 보급은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1. ㉠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0점]

2-2. <보기1>과 <보기2>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1>

민간기업에서는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검토할 때 생산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이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사업은 대부분 금전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윤을 타당성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유무형의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해당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2>

A.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성 실험 도중 원자로가 제어불능의 핵분열을 시작했다. 원자로를 곧 폭발하였고 방사능을 띤 증기와 감속재로 쓰였던 흑연이 격납 건물 밖으로 분출되었다. 9일 동안 핵분열의 부산물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소련을 넘어 서유럽까지 오염시켰다. 이 사고로 인해 두 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인원 중 28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입원하였다. 방사능 피폭자들 사이에서는 암 발생이 다수 보고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넓은 땅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사고의 수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B. 산업혁명 이후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1850년 대비 현재의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은 1°C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인위적인 온실기체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온실기체 중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모든 연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표면 기온의 상승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이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겠지만, 더불어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물 순환 변화,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부대 현상들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1) <보기1>의 관점에서 ㉠ 주장을 평가할 때 ㉡, ㉢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20점]

(2) <보기1>의 관점에서 ㉠ 주장을 평가할 때 <보기2>의 A, B가 ㉠ 주장의 타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 사회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대가를 치르고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흔히 품팔이라 불리는 임금노동과 품앗이라 불리는 교환노동이 있다. 노동력 동원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임금노동에는 하루 단위의 일고(날품), 한 달 단위의 월고(달품), 1년 단위의 연고가 있고, 소위 머슴살이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품값을 미리 받고 나중에 일로 갚는 고지(자리품)도 있었다. 교환노동은 두 사람이 1:1로 맞바꿔 일하는 것이 기본이고, 한국 농촌에서는 이를 품앗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기본형을 바탕으로 여럿이 얹혀들어 일을 쪼개고 나누면서 복잡하게 일손을 교환하기도 하고, 아예 집단의 공동노동으로 하는 품앗이도 있었다. 또한 소와 사람의 노동을 바꾸거나, 각자 가진 소를 짝지어서 서로 일을 해주기도 했다.

언뜻 생각하면 상품교환의 일부인 (㉠)노동은 근대적 형태이고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노동은 전근대적인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선 후기에도 이미 (㉠)노동이 확산되고 있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근대는 물론 현대의 농촌에서도 (㉡)노동이 없이는 아예 농사가 성립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임금노동과 교환노동이 결합되는 방식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이 서로를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점은 기억해둘 만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임금노동이든 교환노동이든 모두가 개별노동, 즉 개인이 특정 시간에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하는 노동력의 단위 가치에 대한 분명한 계산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전통적 촌락공동체의 농업 노동이 온통 공동노동의 세계에 매몰되어 개별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 인식이 없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든 공동체는 개별 기여분의 계산과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차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는 존속하기 어렵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져 한국 전통사회에서 '공동노동으로 하는 품앗이'를 대표하는 노동조직인 두레는 이 점을 이해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두레는 전통 촌락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두레가 사회적 협력과 보호의 장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촌락사회에는 집단의 협력이 불가피하거나 집단으로 해야 훨씬 유리한 일이 있었기에, (㉡)노동의 존재가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동등한 참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동노동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실제로 똑같이 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로 차이가 나는 (㉢)노동의 참여 몫에 대한 동등한 대가 정산의 방식이 요구되었다. 조선 후기에도 두레는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두레 일꾼의 참여 몫 차이에 대해 품값을 철저히 챙겨줌으로써 이를 정산했다.

한편 이렇게 엄격한 계산과 규율로 일하는 과정에서, 두레는 남편이나 아들을 잃어 두레에 참가하지 못하는 과부나 노인의 농사도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함께 처리하기도 하였다. 촌락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사회적 보호 장치 역할도 한 셈이다. 그리고 공동노동 수입의 일부로 국가가 마을마다 정해진 공동납 부과액을 분담하면서, 두레는 국가 재정에도 기여했다. 공동체란 때로 엄격한 규율을 부과함으로써, 마치 감옥처럼 사람을 불편하고 갑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회가 만인이 만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글과도 같다면, 최악의 감옥조차 정글보다 낫다고 보면서 인위적으로 공동체 결성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물론 이 노력이 성공하려면, 그 최악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추가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협력과 보호를 위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점은, 전통사회 촌락공동체의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 준다. 흔히 생각되는 것과 달리 공동체들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면서, 때로 국가적 지배에 복무하는 장치의 역할도 해온 것이다. 두레가 하나의 공동체라면, 그것은 촌락사회의 내적 본질에 따른 자연 발생물일 수만은 없었고, 내적·외적 요인에 대응하느라 나타난 인위적 기획의 산물이기도 했다. 국가적 지배의 장치가 발달한 사회는 사람들을 공동체에 묶어두고, 납세, 국방, 부역 등 국가 시스템이나 지배 집단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항상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잘만 되면 공동체는 국가를 유지하는 최적화된 수단일 수 있었다. 19세기 들어 두레가 우후죽순처럼 확산한 현상은 공동납 부과라는 국가적 강제의 영향을 빼놓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는 이처럼 때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만들고 또 지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1. ㉠, ㉡,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제시문에서 골라 쓰시오. [20점]

3-2. 일제 강점 이전 시기의 두레의 특징과 관련하여 제시문과 <보기> 사이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5점]

<보기>

두레가 발생 초기부터 1945년까지 변천해 온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중 제3단계는 일제 강점기의 두레인데, 마을에도 화폐경제가 침투하여 그 지배 아래 놓이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심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변질된 단계이다. 일제 강점기에 화폐경제가 농촌에 깊이 침투하기 이전까지는 과부와 병자의 농민 가족은 물론이요, 두레꾼 상호 간에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 오직 지주와 대농으로부터만 경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반대급부를 산출하여 공동노동의 보수를 받아내었다. 일제 강점기에 변질된 유형의 두레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특징의 하나는 두레의 수입을 모두 두레의 공동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먼저 두레 성원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분배하고 남은 수입 부분만을 호미씻이*의 비용과 농약의 유지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것은 두레의 수입 전부를 호미씻이와 농약 등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수입을 두레 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하지 않던 전통적 유형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었다.

*호미씻이: 농촌에서 논매기, 즉 논이 제조작업을 마친 후, 음력 7월에 날을 받아서 여럿이 함께 하루를 즐기며 노는 일.

3-3. 전통적 촌락공동체의 특징과 관련하여 제시문과 <보기> 사이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15점]

<보기>

공동 사회(공동체)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의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가족이나 친족, 전통적인 촌락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친밀하고 정서적인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정부의 폐지가 아니라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더 나은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다. 모든 일을 다수가 마음대로 좌우하는 정부는 정의로운 정부가 아니다.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그런 정부는 없는가? 시민은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나의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예 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그러한 부정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불의의 법을 그저 준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법이 당신으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야 한다. 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에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 따라서 불의에 저항하여 세금 납부 거부와 같은 평화적 방식의 불복종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이러한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정당화된다. 누구든지 자신이 이웃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여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따라서 불의의 법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복종을 선택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에 따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

(나) 시민 불복종은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이지만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가끔 일어나는 사회에서 행해진다. 대체로 정의로운 국가에서 특정한 법이나 정책이 부정의할 때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진다. 시민 불복종은 폭력이나 전제가 행해지는 부정의한 국가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것은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과도 구분된다.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대체로 정의로운 국가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난다. 다수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에 따라야 할 의무와 부정의한 법에 반대해야 할 의무가 상충할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불법적 행위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제도가 부정의하다고 믿는 양심에 따르는 행위로서 공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 그것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을 청원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비밀리에 행해진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법적 처벌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 비폭력적으로 행위한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제도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정당화된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감에 의거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적 정의관이 있으며, 소수자들은 이러한 공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다수자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복종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인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 불법적인 행진, 연좌 등을 통해 소극적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댐 건설을 막기 위해 여러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댐 건설 진입로를 봉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다수에게 호소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폭력으로 다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폭력 사용은 폭력에 대한 감각 둔화와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행위하고 법적 처벌을 수용함으로써 항의의 진지성,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표명한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역압의 심화와 같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전체에 손실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온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다.

4-1.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4-2. <보기>의 저항 운동이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20점]

<보기>

심각한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겪고 있는 A 집단은 이러한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의회에 청원을 하여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하였지만 다수자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는 이를 무시하였으며, 언론에 대한 호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여 효과가 없었다. 독재 정권에 의한 협박, 투옥, 학살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자 말살 위기에 처한 A 집단은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 게릴라 투쟁, 수감자 구출과 같은 불법적인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4-3.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가)의 입장의 문제점을 (나), (다)의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160자 이내) [2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건기가 되면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한 연무가 주변지역으로 퍼지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외교적 마찰을 겪곤 했다. 이는 주로 엘니뇨 시기에 나타난다. 엘니뇨 시기가 되면 열대 강우역이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건조한 기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2015년에 엘니뇨가 장기화하면서 산불이 급증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인접해 있는 수마트라 섬의 리아우 주(州)는 인공위성 판독결과 167개의 열점이 관측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항공기를 이용해 수마트라, 칼리만탄 섬 등에 확산하고 있는 산불과 연무에 대처하고자 인공강우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 중동지역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물이 부족해지면서 북부지역에서는 2007년 130만 명이 흉작을 겪었고 가축의 85%를 잃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의 인구는 급증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최빈층으로 전락하면서 생존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기존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위에 나섰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종파 갈등으로 옮겨갔으며 테러단체들의 활동을 자극하게 되었다. 분쟁 상황에서 위험한 환경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지역을 떠나면서 2015년에는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난민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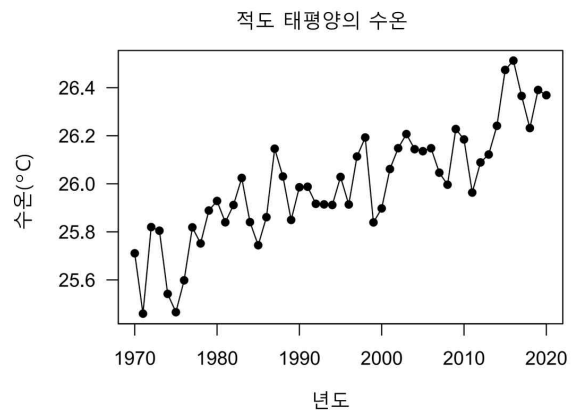
(나) 기후는 넓은 의미로 기후시스템의 통계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기후시스템은 공기, 물, 얼음, 돌, 생물로 이루어진 5개의 권역으로 구분되며, 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다. 물리적으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힘이라고 본다면 기후시스템 안으로 새로운 힘이 유입되지 않는 한 기후시스템 안에서 서로에게 밀치거나 밀린 힘들을 모두 더할 경우 0이 된다. 이로써, 기후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진동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진동을 기후변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전 지구 기후시스템을 약 2년에서 7년 주기로 반복하여 흔들어주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 대표적인 기후변동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엘니뇨 시기에는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높게 관측되는데, 이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니냐 시기에는 그 반대가 된다.

한편, 기후시스템은 종종 새로운 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힘은 기후시스템에 유입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화산의 폭발이 있을 때 기후시스템은 생각지 않은 에너지를 떠안게 될 수 있다. 느리지만 아주 긴 시간을 통해 변화하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궤도도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후변동이 그네의 진동이라면 기후변화는 마치 그네의 위치를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네를 타는 사람이 놓인 위치만을 본다면 이는 진동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이러한 원인들 중 하나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온실기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기체들은 기후시스템이 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온실기체들은 인간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품

부해진다. 역사상 인간 사회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에너지가 급격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기후시스템에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연적인 원인들이 완만하거나 간헐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과 달리, 인위적인 기후변화는 내재된 산업화의 특성을 보여주리라도 하듯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5-1. (가)에 언급된 인도네시아와 중동지역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적으시오. (50자 이내) [20점]

5-2. (나)를 바탕으로 아래 그래프에 나타난 적도 태평양 수온의 기후적 특성을 <보기>의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엘니뇨, 라니냐, 기후변동, 기후변화

5-3. ㉠과 같은 현상의 기후적 특성을 (나)에 나타난 기후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득은 주거, 교통, 음식 등과 같은 소비 행동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수준을 변화시킨다. 소득이 높은 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좋은 식생활과 적당한 신체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주거환경, 나쁜 식생활 등으로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며, 수명이 짧은 편이다. 고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지만,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참는다. 최근 한국건강행태성향학회는 T지역 시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1.7세, 건강수명은 66.0세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사망 시점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 지역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기대수명 격차는 6.8년이었고, 건강수명 격차는 12.7년이었다. T 지역 내 각 구와 군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역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즉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가 확인되었다.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는 T 지역 내 8개 구군에서 최소 5.8년에서 최대 9.2년이 확인되었고, 건강수명은 최소 8.6년에서 14.1년이 확인되었다. 달리 말하면 T 지역에서 건강수명 격차가 가장 큰 곳의 상위 20% 고소득 계층은 하위 20% 저소득 계층에 비해 14.1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인류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 중 하나인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완전히 없앤다고 가정할 때, 연구자들은 통계적으로 기대수명이 약 4년 연장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듯 14.1년의 건강수명 격차, 9.2년의 기대수명 격차는 사실 매우 큰 것이다.

(나) 사회역학* 연구자들은 “불평등은 피부를 투과한다.”고 말한다. 『불평등의 대가(代價)』의 저자 스티글리츠는 소득 양극화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침식하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는 사회의 결속,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내 50개 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이 평등한 주일수록 시민들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국가가 점차 부유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소득 수준과 기대수명 간의 관계가 점차 약해진다. 1인당 연간 GDP가 약 3~5천 달러를 넘어서면 소득 수준과 기대수명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1인당 GDP가 약 7만 6천 달러가량 되는 미국은 기대수명이 약 77년이지만 스웨덴은 1인당 소득이 약 5만 8천 달러이고, 기대수명은 80년가량이다. 연구자들은 스웨덴처럼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대수명이 길고, 상대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은 미국의 기대수명이 낮은 이유로 불평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절대빈곤에서 벗어난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과 기대수명의 관계를 분석하면 유의미한 역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평등할수록 기대수명이 높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부유층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범죄와 폭력, 혐오감 등과 같은 ‘빈곤의 병리’에 좀 더 많이 노출된다. 불평등이 말 그대로 어떻게 피부를 뚫고 면역체계나 심혈관계,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시민은 평등한 사회의 시민보다 건강 수준이 낮은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사회역학(社會疫學, social epidemiology): 인구집단의 질병 분포와 현상을 연구하는 보건학의 한 분야로 사회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나 제도, 관계 등을 연구하는 학문영역

**연령표준화사망률(age-adjusted death rate):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즉, 고령인구가 많은 집단일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정한 사망률로 집단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주로 활용됨.

6-1. 제시문 (가)와 (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6-2. <보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암 예방수칙의 일부이다. 위의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아래 수칙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보기>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6-3.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2023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1. 예시 답안

【1-1】

다른 이의 인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다.

【1-2】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뚱뚱한 신체 때문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생각은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뚱뚱한 신체에 대한 혐오는 아버지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망상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다른 이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내용이 모두 있어야 함,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5점 •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한다는 답안은 오답 처리 • 제시문의 내용으로 @의 의미를 서술한 경우 10점 감점 • 문장이 어색하거나 어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2점~5점 감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혐오의 원인(아버지 세계의 이상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이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30점 • 혐오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뚱뚱한 신체에 대한 혐오가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었음을 깨달아서' 등등 10점 • 혐오와 관련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 문장이 어색하거나 어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2점~5점 감점 • 불분명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내용이 불분명해진 경우 5점~10점 감점 	30

[문항카드 2]

1. 예시 답안

【2-1】

18

【2-2】

- (1) ㉠는 사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액수이고 ㉡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총액이다.
- (2) 원자력 발전의 사고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타당성이 약화될 것이다. 화석 연료 사용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타당성이 강화될 것이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을 적으면 10점이고 부분 점수 없음. 	10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액수의 의미”를 완전히 담으면 10점이고 의미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등 1-5점 감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총액”의 의미를 완전히 담으면 10점이고 의미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등 1-5점 감점 사회적 비용의 절감 액수가 아닌 단순히 미세먼지 절감으로만 표현하면 5점 감점 예시 답안과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뜻이면 포괄적으로 정답으로 인정 답을 썼으나 틀린 내용과 함께 쓴 경우 1-5점 감점 	20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발전 사고 위험성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주장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르게 적으면 30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A, B 각각에 대해 5점 감점 두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맞으면 10점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틀리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적었을 때 1- 5점 감점 표현과 논리에 문제가 있을 때 1-5점 감점 	30

[문항카드 3]

1. 예시 답안

【3-1】

㉠ 임금 ㉡ 교환 ㉢ 공동 ㉣ 개별

【3-2】

제시문은 (일제 강점기 이전) 전통사회의 두레가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개별노동의 대가를 계산하는 공동노동이었다고 보는 반면, <보기>는 개별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오직 공동 비용의 마련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공동노동이라고 본다.

【3-3】

<보기>는 전통사회의 촌락공동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친밀하고 정서적인 관계로 결합된 집단이라고 보지만, 제시문은 엄격한 규율과 계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협력과 보호의 장치, 그리고 국가적 지배 장치의 역할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본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구별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제 자리에 적어내는지를 평가함(각 5점) - 교환 대신 품앗이를, 임금 대신 품팔이를 적는 경우, 각 2점씩 감점함. 	20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의 정산과 관련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10점 감점 차이에 대한 적절한 서술과 함께 부적절한 서술이 포함된 경우 내용에 따라 3~5점 감점 	25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이에 대한 서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1~3점 감점 차이에 대한 적절한 서술과 함께 부적절한 서술이 포함된 경우 내용에 따라 3~5점 감점 	15

[문항카드 4]

1. 예시 답안

【4-1】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다수에게 호소하여 그들을 설득시킴으로써 (비폭력적인 민주적 방식으로) 부정의한 법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2】

A 집단은 체제 전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 등 적극적 저항(혁명)을 시도하기에 이는 소극적 저항인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4-3】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나)는 공유된 정의감(공적 정의관, 정의의 원칙), (다)는 공리의 원칙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는 개인의 양심(신념)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시민 불복종이 남발되어 법 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에게 호소하여 그들을 설득시키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인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의 저항 운동이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보기〉의 저항 운동이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경우(10점) - 〈보기〉의 저항 운동이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나), (다)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했는지에 대해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나), (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제대로 서술한 경우(10점) - (가) 입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서술한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문항카드 5]

1. 예시 답안

【5-1】

건조한 기후가 결과적으로 국가들 간의 마찰과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5-2】

적도 태평양의 수온은 엘니뇨와 라니냐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기후변동의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긴 시간에 걸쳐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5-3】

산업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기후시스템에 새로운 에너지가 추가된다. 산업화가 급격하고 지속적인데 따라 인위적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현상도 극심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기후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한 기후’를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10점) - 단순히 ‘가뭄’ 또는 ‘물 부족’을 원인으로 적을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 - 단순히 ‘기후’를 원인으로 적을 경우 감점(-5점) • ‘국가간 외교적 갈등’을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10점). 	20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에서 반복되는 수온의 상승하강을 엘니뇨와 라니냐를 기후변동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10점) • 장기적인 수온의 상승을 기후변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10점) 	20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활동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의 추가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10점) • 산업화의 특성에 따라 급격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기후변화의 특성임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함(10점) 	20

[문항카드 6]

1. 예시 답안

【6-1】

(가)와 (나)는 건강수준 및 수명의 결정요인으로 사회환경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는 소득수준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2】

건강수준은 개인의 행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

【6-3】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낮추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① (가)와 (나)는 사회환경적 측면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공통점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고, ② (가)는 소득수준, ③ (나)는 불평등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3가지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으면 20점 인정</p> <p>- ① (공통점)을 누락했을 경우 10점 감점 - ②와 ③은 각각 5점씩 감점. - ①에서 사회환경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 환경적 차원 등의 개념이 포함되면 인정함. 단, 소득수준과 불평등 수준의 상위개념을 기술하지 않고 둘 다 쓰거나 둘 중 하나만 썼을 경우에는 0점 처리. - ②에서 소득수준 이외에 빈곤은 인정. 소득격차나 불평등은 0점. - ③에서 (소득)격차, 상대적 빈곤은 인정. 단, 사회적 신뢰 등은 0점. - 각 요소별 문장 완성도, 내용 구성 등에 따라 2~3점 감점.</p>	20
6-2	<p>① 건강수준이 개인 행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② 사회환경적 요소(소득격차, 소득수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등)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 하였다는 2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될 때 20점 인정.</p> <p>- ① 개인행동 이외에도 개인적 요인, 개인적 차원, 개인의 습관 등과 같이 '개인'을 설명하는 개념이 포함되면 인정함. - ② 사회환경적 요소 이외에도 지문에서 제시된 4가지 요소(소득격차, 소득수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등)를 나열하더라도 인정함. 상위개념만을 쓰고 4가지 요소 예시를 누락하더라도 인정. 단, 상위개념을 쓰지 않고 4가지 요소를 기술할 경우 2개 이상이면 점수 인정. - 각 구성요소 별로 문장 완성도, 내용 구성 등에 따라 2~3점 감점.</p>	20
6-3	<p>① 소득불평등 → ②사회적 신뢰(혹은 사회적 관계) → ③건강 등의 3가지 인과요소가 정확하게 나열되었고, 이를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하면 20점 인정함.</p> <p>- 인과성의 순서가 틀린 경우 0점. - ①을 소득, GDP 등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5점. - ②를 누락한 경우 0점 처리 (예: "소득불평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이미 있는 내용임) - 전체 문장 완성도에 따라 5점 이내 감점.</p>	20

2022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험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성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으로 국어 순화는 언어 사용자들이 깊은 사고력과 고운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어 순화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바꾸고,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바른말로 고치는 것이다. 초창기의 국어 순화는 우리 말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35년 동안의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자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고 국어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국어 순화 운동이 벌어졌다. 1960년대에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고 한글 전용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는 생활 용어, 언론 용어, 학술 용어, 법률 용어, 건축 용어, 스포츠 용어, 종교 용어까지 국어 순화의 범위를 넓혔다. 더불어 비속어를 고운 말로 다듬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일본어 투의 용어가 이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일본식 어휘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국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나) 국어 순화는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가려 쓰는 운동이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것이 '고운말'이라면 표준어를 쓰는 것이 '바른말'이고, 소통이 어려운 말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쓰는 것이 '쉬운말'이다. 이 가운데 쉬운말을 가려 쓰자는 운동은 오늘날 특히 중요해졌다. 쉬운말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표현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를 포용해야 한다거나 순화를 문장 표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선상에 있다. 사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유어 외에 한자어, 외래어도 순화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어 순화 운동의 초창기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국어 순화의 목표는 언어의 순수성 회복이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쉬운말 찾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순화 대상어 선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단어의 정착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어의 정착도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 계층이 널리 쓸수록 정착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는 정착도가 높은 단어보다 정착도가 낮은 단어를 선정해야 한다. 정착도가 낮은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한다.

(다) 언어 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 그들은 국어의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됨을 걱정하고, 국어 문체가 번역 문투에 감염되어 있음을 걱정한다.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혼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어의 혼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단성에 이상향을 세우고 쇄국의 빗장을 지르지 않는 한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 순결주의자들은 우리말 어휘가 외래어

에 감염되었다고 개탄한다. 특히 그들은 일본제 한자어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말 한자 어휘의 상당수는 그 원산지가 일본이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 어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서양말의 개념을 옮겨 만든 한자어가 19세기 말 이래 수입된 것이다. 펜을 집어던지고 입을 꼭 다문 채 살기로 작심하지 않는 한, 그 일본제 한자어를 우리말에서 솟아낼 수는 없다.

1-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나) 주장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법률 용어 정비의 주요 내용은 어문 규범을 지키는 것, 문법적으로나 문장 구조 면에서나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것,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거나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 용어 정비의 결과 '사위(詐僞)'를 '속임수'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교체하고, 일본어 투인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 용어 순화 작업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법률 용어는 학계의 연구나 판례를 통해 축적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지하다'를 '가지다'로 정비할 경우, '가지다'의 의미에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하다'와 '소유하다'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오늘날 <보기>의 ㉠가 순화 대상어라는 의견에 대해 (가), (나), (다)가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작가 이상은 조선식 한자어 대신에 일본식 한자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1936년 도쿄로 건너간 후에 썼다가 나중에 《문장》에 유고로 발표된 <실화>에서 일본식 한자 어휘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왜 그러세요. 이 방이 ㉠ 기분 나쁘세요?(기분? 기분이란 말은 필시 조선말이 아니리라). 더 놀다 가세요. 아직 주무실 시간도 멀었는데 가서 뭐 하세요? 네? 얘기나 하세요.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치적 규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 주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국가와 같은 배출권의 권위적 할당 기구는 자신에게 허용된 배출 총량을 각 기업에게 적절하게 할당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허용량 내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겨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한다. 즉 각 기업은 기술 개발 역량이나 여건에 따라서 각자의 할당량보다 많게 또는 적게 배출하면서 전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간단한 경제 원리, 즉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싸다면 사는 것을 선택하고, 남에게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것이 더 싸다면 만드는 것을 선택한다는 원리에 근거해서 작동한다. 기업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만약 (㉠),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나) 기록적인 폭염, 산불, 태풍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학술 영역에서뿐 아니라 정책적, 일상적으로도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 사회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에 기반한다. 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은 생태 보존과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태 보존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GDP의 1.5~2%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성패를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환경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적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환경적, 분배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생태복지국가는 기후변화 방지, 에너지체계 전환,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정책, 지속가능한 농림축수산업 진흥, 폐기물제조자 책임제, 도시재생, 조세개편, 대규모 공공투자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경제성장과 복지, 친환경을 모두 달성하고자 한다.

(다)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이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혜택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적은 자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서 친환경적 성장을 이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상품 생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마치 "두 배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다이어트약 광고와 같다.

자원 사용량을 계속 줄여가면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다.

미국 등 일부 고소득 국가들의 국내 자원 사용량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 투입이 세계화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량을 수입품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자원 사용량은 GDP와 보조를 맞춰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원이 더 저렴해지면서,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기 마련이다. 기술 개발이나 보존 조치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생태친화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자원 효율성이 더 높은 경제체제는 물질 사용량이 더 많은 경제체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성장에 뒤따르는 생태적인 비용을 회계장부에서 지움으로써 그 사실을 은폐하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가하는 위해를 시야에서 없애버린다.

전 지구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가와 기업, 개인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생태변화의 부담과 위험은 적게 감내하고 있다. 확대되는 불평등과 심화되는 생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정치적 보수도, 진보도 성장의 속도를 낮추기보다는 파이를 키우려고만 했다. 그러나 세계 정치경제체제의 근본 원리와 권력 관계의 변화 없이도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희망일 뿐이다. 지구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하며,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파이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야만 한다.

2-1. (가), (나), (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때,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각 30자 이내) [20점]

현재 생태위기의 해결 방향에 대해 (가)와 (나)는 (다)와 달리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을/를 중시한다.

2-2.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50자 이내) [20점]

2-3. (다)의 입장에서 <보기>의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탄소 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유기농 표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 표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탄소 상쇄 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 몇몇 항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 상쇄 비용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빈국의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라고 홍보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국의 의사 존 스노(John Snow)는 근대 역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콜레라가 오염된 지하수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9세기에는 콜레라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콜레라가 도시의 악취나 나쁜 공기를 통해 퍼져 나간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생활 쓰레기나 아무 곳이나 처리했던 인분 등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나온 독기가 사람에게 전파된 결과가 콜레라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 ㉠ 콜레라는 독기, 즉 오염된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보았다.

*역학: 전염병의 전파 양상과 경로를 연구하는 학문

(나) 19세기 영국에서 콜레라는 여러 차례 유행했다. 1831년 최초 발병 당시(1차 유행)에는 6,53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콜레라 발병이라고 평가받는 1848년(2차 유행)에는 14,137명이 사망했다. 1854년(3차 유행)에는 스노 자신이 살던 런던의 강북 소호 지역에 콜레라가 퍼졌다. 1854년 8월에 시작된 3차 유행의 초기 2~3주 사이에 소호지역에서만 약 600여 명이 사망했다. 영국 전체에서는 10,738명이 사망했다. 스노가 콜레라의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소호지역에서 지하수를 길는데 사용하고 있던 '브로드가 펌프'였다. 185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소호지역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83명의 거주지는 브로드가 펌프 주변에 몰려 있었다. 소호지역의 다른 곳에도 펌프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지만 산발적이었다. 한편 당시 브로드가 펌프와 인접한 곳에 도시의 빈곤층을 수용하는 구빈원*도 있었다. 533명의 구빈원 수용자는 비좁은 공간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콜레라 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구빈원에는 독립된 상수도관과 우물이 있어 수용자가 브로드가 펌프의 물을 마실 일은 없었다.

*구빈원: 고아나 빈민에게 일과 음식,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

(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도시 곳곳에서는 기업 소유 수도관이 놓여 수도물이 공급되었다. 수도물이 각 가구까지 공급되기도 하였고 집 근처 물탱크까지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중반 당시 런던에 물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램베스'(Lambeth Co.)와 '사우스윅 앤 북스홀'(Southwark and Vauxhall Co., 이하 S&V)이었다. 두 회사의 고객은 런던 지역에만 총 48만 명이였다. 당시 런던에서는 두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각자의 수도관을 설치하고 경쟁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48만 명의 고객 중 30만 명은 두 회사의 수도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1848년 2차 유행 당시 두 회사는 모두 템스강 하류의 물을 사용했다. 당시 강 하류의 오염 상황은 심각했다. 런던의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하류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런던 곳곳에 콜레라 사망자가 속출했다. 1852년 램베스는 취수원을 더 깨끗한 강 상류로 이전했지만, S&V의 취수원은 그대로 있었다. 2차 유행(1848년)과 3차 유행(1854년) 당시 런던 지역의 콜레라 사망자 수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고, 존 스노는 ㉡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표> 콜레라 사망자 수(인구 만 명당)

	1848년 (2차 유행)	1854년 (3차 유행)
A 지역 (S&V가 단독으로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2개 지역)	135명	147명
B 지역 (S&V와 램베스가 동시에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6개 지역)	130명	85명

3-1. (나)를 이용하여 ㉠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3-2. (다)를 바탕으로 존 스노가 ㉡을 확신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20점]

3-3. (다)의 내용에서 <보기>의 ㉢, ㉣, ㉤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20점]

<보기>

실험법은 실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험법에서는 연구 대상을, 처치*를 한 '실험 집단'과 처치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금연 정책의 도입이나 신약의 제공과 같은 처치로 인해 발생한 집단 간 결과의 차이를 관찰한다. 그 대표적 예가 임상시험이다. 아래는 신약의 효과와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의 주요 원칙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임상시험에는 신약을 처방받는 ㉢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 통제 집단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자신에게 ㉤ 신약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성, 연령, 병력 등 기초상태의 특성이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한다.

*처치: 실험에서 연구 대상에 가해지는 일정한 조작(자극, 변화)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마도 한 사람의 죽음은 그와 영원히 이별하게 될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쁜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죽음은 죽는 사람 자신에게는 더더욱 나쁜 일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로 여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 왜 나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죽음이 '비존재',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에 있다. 만약 내가 내일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쁜 것이 분명하다. 내가 내일 고통이라는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일 수 있겠는가? '박탈 이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은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죽음이 죽는 사람에게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더 살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죽음은 나에게 ㉠ '적극적 악', 즉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악', 즉 좋은 것이 없어서 나쁜 것에 해당한다. 내일 소풍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었다면, '소풍이 없음'이라는 비존재는 나에게 나쁜 것이다. 소풍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소풍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오랫동안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십 년 동안 누렸을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죽음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좋은 것이 많을수록 죽음은 더 나쁘다. 우리가 젊은 사람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죽음이 비존재임을 생각할 때 이것 외에 죽음이 당사자에게 나쁜 이유는 생각할 수 없다.

(나) 죽음이 왜 나쁜지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만한 합리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내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쉬움이나 유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 이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 그것도 가장 끔찍한 종류의 공포로 맞이하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탈 이론에서는 죽음을 소극적 악으로 보기 때문에 ㉡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소된 소풍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절대로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풍이 없음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일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 비존재이고 비존재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이는 박탈 이론이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죽음을 어딘가에 홀로 단절되어 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야, 이런 공포를 갖는 것은 정당화될 길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죽음을 소극적 악으로만 보는 박탈 이론은 옳은 이론이 될 수 없다.

(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나 자신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내 장례식 장면을 상상하려 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에 나는 내가 그 장면의 한구석에 자리하여 구경꾼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아무도 그 기저에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각각은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어떤 종류의 변형 과정을 거쳐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4-1. (가)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출산 과정에서 산모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아기와 산모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생존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평균적인 삶을 살 것이 기대된다. 죽음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나쁜지만을 고려할 때, 산모의 죽음이 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임에 틀림 없다. 아기에 비해 산모가 살아온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두려움이나 분노 따위의 감정들은 어떤 경우에는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류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가 자신을 해치지 못함을 분명히 인지해도 새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지속된다 고 한다.

4-3. (다)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의 가능성이 열린다. 왜 그러한지 ㉠의 개념을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2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존경스러운 개미들은 개미집에서 시작해서 분명히 개미집으로 끝날 텐데. 이것이 그들의 꾸준함과 긍정적 태도에 큰 영예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인간은 경솔하고도 흥물스러운 존재여서 아마도 체스 기사처럼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하나만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장담할 순 없긴 해도). 인류가 지향하는 지상에서의 모든 목표의 의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 달리 말해 삶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2 \times 2 = 4$ 라는 공식으로만 나타나는 목표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실 $2 \times 2 = 4$ 는, 여러분, 이미 삶이 아니고 죽음의 시작이지 않겠는가. 적어도 인간은 이 $2 \times 2 = 4$ 라는 것을 웬지 항상 두려워했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도 두렵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듯 $2 \times 2 = 4$ 와 같은 것을 찾기 위해 대양을 건너기도 하고 그 탐색의 과정에서 삶을 희생하는 것이라 해도, 인간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어쩐지 두려워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후엔 찾으려 다닐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꾼들이라면 일을 마치고 적어도 돈을 받아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엔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등, 이런 식으로 1주일 치 할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와 유사한 식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인간의 내면에는 적어도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이 관찰되어 왔다. 달성 자체는 좋아하지만, 달성을 해냈다는 사실에는 딱히 그런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걸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희극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말장난이나 마찬가지로 말이지 아니 말이다.

하지만 $2 \times 2 = 4$ 는 어쩔거나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놀이다. $2 \times 2 = 4$ 는 내 생각으로 오로지 뻔뻔스러움에 불과하다. $2 \times 2 = 4$ 는 거드름 피우는 태도로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는 양손을 허리에 댄 채 침을 뱉는다. $2 \times 2 = 4$ 가 대단한 것이라는 점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이왕 모든 걸 다 칭찬할 거라면 $2 \times 2 = 5$ 도 가끔은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 도스토예프스키, <지하로부터의 수기> 중에서

(나) 내가 등 뒤에 수호천사가 있음을 느꼈을 때 나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소네트*를 음미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아름다움과 사상의 깊이에 있어 보기 드문 작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처음 4행은 이렇다.

2×2는 영원한 애인
정열로 영원히 결합되어 4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2×2... } ㉠

남은 부분도 모조리 구구단의 현명하고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이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불가피하게 콜럼버스이다.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메리카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인물은 오로지 콜럼버스뿐이었다. 구구단은 R-13 이전에도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숫자의 원시림에서 새로운 엘도라도를 발견한 인물은 R-13뿐이다. 사실, 이 기적 같은 세계의 행복보다 더 현명하고 티 없는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강철은 녹이 쉽다. 고대의 신은 고대의 인간, 즉 실수를 범하는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이 신의 실수였다. 구구단은 고대의 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절대적이다. 그것은 절대로, 알겠는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구구단의 엄격하고 영원한 법칙을 따라서 사는 번호보다 더 행복한 번호는 없다. 망설일 것도 오해할 것도 없다. 진리는 하나, 진리의 길도 하나니까. 진리는 2×2 , 진리의 길은 4. 만일 이 행복하고 이상적으로 곱셈이 된 그들이 그 무슨 ㉠자유에 대해, 즉 명백한 실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부조리하지 않겠는가?

- 자마틴, <우리들> 중에서

*소네트: 1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짧은 시 형식

5-1. (나)의 ㉠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5-2. (가)와 (나) 모두에서 " $2 \times 2 = 4$ "는 <보기>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유토피아에 대한 (가), (나)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유토피아는 언제나 더 좋은 사회를 희망하는 인류의 욕망을 반영한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했던 사회의 종착역이다.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력에 기대서 인간 사회는 진보해 왔다. 이곳은 완벽한 무결점의 사회이며 개인들은 어떠한 결핍도 느끼지 않는다.

5-3. <보기>의 예술관에 근거하여 (나)의 ㉠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예술은 기존 예술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다. 예술가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조롱하고 부정하며 뛰어넘고자 한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아름다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도전받지 못할 아름다움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구할 때도 인간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의 인간'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령 아름다운 인간 속의 고약한 인간을, 영원한 진리 속의 부조리를, 혹은 그 반대들을 진정한 예술가들은 다룬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분배적 정의는 권력, 부, 명예, 성직, 의료, 생필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플라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로운 분배 체제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단일한 분배 방식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다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 명예, 부,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통해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이해는 다양한 정치 공동체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의로운 분배 방식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정치 공동체들이 지닌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 타당한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이상적 계약론이나 담론 이론은 분배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고유한 자율적인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종교의 영역에서 성직을 분배할 때 신앙심이 적절하며 돈은 부적절하다. 만약 돈이 성직의 분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의 영역에서는 신앙심이 주요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분배 방식에서는 가치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침범이 종종 발생한다.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가치들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지배'가 발생하며 그 가치는 '지배적 가치'가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면 이때의 분배를 '전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통치 능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정치 권력을 부, 명예와 같은 다른 가치들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전제가 된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평등하게 공유하는 '단순 평등' 체제를 추구하는 입장도 있다. 이 체제에서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특정한 가치를 독차지하는 '독점'은 금지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지배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단순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는 부가 지배적 가치이더라도 불평등이 사라진다. 부가 평등하게 소유된다면 다른 가치 영역에서도 독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 결국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한 소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점의 허파나 제한이 아니라 지배의 축소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회를 '복합 평등' 체제라고 한다.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어떤 가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다른 가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즉 가치들 사이의 지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그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 등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 평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분배 방식은 (㉠)이며, 그 이유는 (㉡)이다.

물론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가치들을 독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모든 분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합 평등 체제는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독점을 허용하지만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6-1. 윗글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65자 이내) [20점]

6-2.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분배한다고 할 때, 윗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0점]

- <보기>
- ① 한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 ②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독점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④ 사회적 가치 X나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은 정치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 ⑤ 사회적 가치 X의 분배는 평등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 ⑥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회적 가치 X에 대한 독점도 허용해야 한다.

6-3. 복합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보기>
- 특정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면 그 계급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법, 정치, 사상, 종교와 같은 다른 삶의 영역도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지배 계급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생산 수단의 독점을 폐지하고 공동 소유 제도를 확립하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3 문항카드(인문·사회계열)

[경북대학교 문항정보: 논술]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국어 순화, 사회적 의사소통, 국어의 혼탁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전통적으로 국어 순화는 언어 사용자들이 깊은 사고력과 고운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어 순화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바꾸고,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바른말로 고치는 것이다. 초창기의 국어 순화는 우리말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35년 동안의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자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고 국어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국어 순화 운동이 벌어졌다. 1960년대에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고 한글 전용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는 생활 용어, 언론 용어, 학술 용어, 법률 용어, 건축 용어, 스포츠 용어, 종교 용어까지 국어 순화의 범위를 넓혔다. 더불어 비속어를 고운 말로 다듬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일본어 투의 용어가 이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일본식 어휘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국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나) 국어 순화는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가려 쓰는 운동이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것이 ‘고운말’이라면 표준어를 쓰는 것이 ‘바른말’이고, 소통이 어려운 말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쓰는 것이 ‘쉬운말’이다. 이 가운데 쉬운말을 가려 쓰자는 운동은 오늘날 특히 중요해졌다. 쉬운말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표현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를 포용해야 한다거나 순화를 문장 표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선상에 있다. 사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유어 외에 한자어, 외래어도 순화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어 순화 운동의 초창기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국어 순화의 목표는 언어의 순수성 회복이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쉬운말 찾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순화 대상어 선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단어의 정착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어의 정착도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 계층이 널리 쓸수록 정착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는 정착도가 높은 단어보다 정착도가 낮은 단어를 선정해야 한다. 정착도가 낮은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한다.

(다) 언어 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 그들은 국어의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됨을 걱정하고, 국어 문체가 번역 문투에 감염되어 있음을 걱정한다.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혼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어의 혼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딴섬에 이상향을 세우고 쇄국의 빗장을 지르지 않는 한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 순결주의자들은 우리말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되었다고 개탄한다. 특히 그들은 일본제 한자어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말 한자 어휘의 상당수는 그 원산지가 일본이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 어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서양말의 개념을 옮겨 만든 한자어가 19세기 말 이래 수입된 것이다. 펜을 집어던지고 입을 꼭 다문 채 살기로 작심하지 않는 한, 그 일본제 한자어들을 우리말에서 속아낼 수는 없다.

1-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나) 주장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법률 용어 정비의 주요 내용은 어문 규범을 지키는 것, 문법적으로나 문장 구조 면에서나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것,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거나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 용어 정비의 결과 ‘사위(詐僞)’를 ‘속임수’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교체하고, 일본어 투인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 용어 순화 작업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법률 용어는 학계의 연구나 판례를 통해 축적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지하다’를 ‘가지다’로 정비할 경우, ‘가지다’의 의미에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하다’와 ‘소유하다’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오늘날 <보기>의 ㉠가 순화 대상어라는 의견에 대해 (가), (나), (다)가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작가 이상은 조선식 한자어 대신에 일본식 한자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1936년 도쿄로 건너간 후에 썼다가 나중에 《문장》에 유고로 발표된 <실화>에서 일본식 한자 어휘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왜 그러세요. 이 방이 ㉠ 기분 나쁘세요?(기분? 기분이란 말은 필시 조선말이 아니리라). 더 놀다 가세요. 아직 주무실 시간도 멀었는데 가서 뭐 하세요? 네? 애기나 하세요.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국어 순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순화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각각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문제이다. 국어 순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적 의식을 바탕으로 언어의 순수성을 통해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국어 순화의 원동력이었던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명분은 시효를 잃었다. 오늘날 국어 순화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의 모색 혹은 폐기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한다. 국어 순화의 효용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언어를 순화하려는 시도 자체의 무용성을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어느 언어에나 외래어와 외국어는 섞여 있기 마련이며 이것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시각을 드러낸다. 한편 언어 생활에서 일부 언종의 소외를 막고 사회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국어 순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 입장에서는 국가 주도의 국어 순화에서 대중 참여로의 전환을 제안하거나 공공 영역 중심의 국어 순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본 문항이 현재의 시점에서 국어 순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나아가 언어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4-05]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 시 문 (가),(나)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다) 1-1, 1-2
	성취기준 3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1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를 ‘모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유재원	국립국어원	2005	7-17	제시문 (가)	○
국어 순화 정책의 의미와 공공성	정희창	인문과학	2020	5-32	제시문 (나)	○
감염된 언어	고종석	개마고원	2006	296	제시문 (다)	○
일본식 한자어의 정체	김재용	국립국어원	2015	146-153	1-2	○

5. 문항 해설

1-1.

본 문항은 현재 시점에서 국어 순화의 중요한 목표인 ‘쉬운말’ 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이 보이는 한계를 법률 용어 정비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문제이다. 2000년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령 문장의 용어와 표현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2005년까지 일괄적으로 법령을 한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쉽게 사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화하다 보면 전문용어로서의 정확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쉬운말’ 이라는 국어 순화의 목표가 ‘정확한 말’ 이라는 또 다른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면 정답이다.

1-2.

본 문항은 이미 우리말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를 국어 순화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문물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한자 어휘를 가리킨다. 한중일 삼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서구의 문물을 수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가 주를 이루었고, 이것이 조선과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 문제의 취지가 (가), (나), (다)의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는 데에 있으므로 각각의 주장을 적용하였을 때에 논리적으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말을 전문분야까지 확장하여 적용한다'라는 조건과 '이 경우에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답안에 포함된 경우에 5점. • '쉬운말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을 용어를 쉽게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10점) • "쉬운말"이라는 개념이 누락된 채로 "법을 용어"와 "원활한 의사소통" 간의 관계만을 논리적으로 적절히 설명한 경우에 10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다) 각각의 판단과 이유를 정확히 기술하면 각 10점. •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순화를 한다', '순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면 0점. • (가)의 경우에 '언어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기분'을 순화해야 한다'라고 기술하면 10점. • (나)의 경우에 '정착도'를 논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하면 정답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분'이 정착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순화하지 않고 낮다고 판단되면 순화한다(10점) - '기분'이 정착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순화의 대상이 아니다 (10점) - '기분'이 정착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순화의 대상이다 (10점) • (나)의 경우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기 때문에 순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술하면 5점. • (나)의 경우에 '외래어가 순화어가 될 수 있으므로 순화의 대상이다(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술하면 0점. 	30

7. 예시 답안

1-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말을 전문분야까지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적절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워져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1-2.

- '기분'은 (가)의 입장에서 일체의 잔재이므로 순화 대상이다. (나)의 입장에서 정착도가 낮다면 순화 대상이지만 높다면 순화 대상이 아니다. (다)의 입장에서 국어의 혼탁(감염)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순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 '기분'은 (가)의 입장에서 일체의 잔재이므로 순화 대상이다. (나)의 입장에서 정착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순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의 입장에서 국어의 혼탁(감염)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 '기분'은 (가)의 입장에서 일체의 잔재에 해당하므로 순화의 대상이다. (나)의 입장에서 정착도가 낮다고 판단하면 순화 대상이다. (다)의 입장에서 국어의 혼탁(감염)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순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이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혜택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적은 자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서 친환경적 성장을 이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상품 생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마치 “두 배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 라는 다이어트약 광고와 같다.

자원 사용량을 계속 줄여가면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다. 미국 등 일부 고소득 국가들의 국내 자원 사용량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 투입이 세계화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량을 수입품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자원 사용량은 GDP와 보조를 맞춰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원이 더 저렴해지면서,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기 마련이다. 기술 개발이나 보존 조치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생태친화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중국적으로 자원 효율성이 더 높은 경제체제는 물질 사용량이 더 많은 경제체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성장에 뒤따르는 생태적인 비용을 회계장부에서 지움으로써 그 사실을 은폐하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가하는 위해를 시야에서 없애버린다.

전 지구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가와 기업, 개인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생태변화의 부담과 위험은 적게 감내하고 있다. 확대되는 불평등과 심화되는 생태위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정치적 보수도, 진보도 성장의 속도를 낮추기보다는 파이를 키우려고만 했다. 그러나 세계 정치경제체제의 근본 원리와 권력 관계의 변화 없이도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희망일 뿐이다. 지구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하며,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파이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야만 한다.

2-1. (가), (나), (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때,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각 30자 이내) [20점]

현재 생태위기의 해결 방향에 대해 (가)와 (나)는 (다)와 달리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을/를 중시한다.

2-2.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50자 이내) [20점]

2-3. (다)의 입장에서 <보기>의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탄소 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유기농 표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 표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탄소 상쇄 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 몇몇 항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 상쇄 비용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빈국의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라고 홍보한다.

3. 출제 의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미디어를 통해 들리는 우려만이 아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로 체감하는 기후변화, 숨쉬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미세먼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라는 신종 감염병의 기저에 생태변화가 있음을 떠올려보면 환경 파괴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생존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의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등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인정하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생태위기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취지와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식, 즉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기업이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자신의 배출량을 조절하게끔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산업주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고등학교 교과 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과 복지,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생태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는 경제성장과 생태위기 극복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목적으로 사고하는 (가), (나) 제시문들의 입장과는 달리, 이러한 성장주의적 사고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며, 더 적은 생산과 소비, 더 많은 공유, 더 공정한 분배만이 생태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본 문항은 각 제시문들의 논리와 주장을 파악하고, 제시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은 사회과 내 거의 모든 교과에서 다루지고 <생활과 윤리>와 같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필수 이수 단위를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본 문항은 제시문과 각각의 세부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의 개념 이해 능력과 독해 능력,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보기>가 있는 문항을 통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의 사례를 제시문과 연결시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기준 1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성취기준 2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성취기준 3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과목명: 세계지리	
	성취기준 1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과목명: 경제	
	성취기준 1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성취기준 3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기준 1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디그로쓰(Degrowth)	요리고스 칼리스, 수전 폴슨, 자코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아	산현재	2021[2020]	48-51, 161-166	제시문 (다), 문항 2-1, 2-3	○
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김인춘, 최정원	OUGHTOPIA	2013	2(2), 73-108	제시문 (나), 문항 2-1	○
전환 정치의 이정표 그리기: 생태적 현대화와 탈성장	홍덕화	환경사회학 연구 ECO	2021	25(1), 131-168	제시문 (나), (다)	○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구준모	플랫폼c	2021	37-39	문항 2-3 <보기>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	2021. 1. 1. 1.01. 접속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제시문 (가), 문항 2-2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20	60-65	제시문 (가), (나), (다), 문항 2-3 <보기>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56-61	제시문 (가), (나), (다), 문항 2-3 <보기>	○
생활과 윤리	서범석 외	천재교과서	2020	144-147	제시문 (가), (나), (다)	○
세계지리	박철웅 외	미래엔	2021	192-195	제시문 (가), (나), 문항 2-3 <보기>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20	185-186	제시문 (다)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1	16-18, 26-28	제시문 (가)	○

5. 문항 해설

2-1.

이 문항은 텍스트 분석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탈성장을 주장하는 (다)의 입장과 비

교했을 때 (가)와 (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생태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생태복지국가의 개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2.

이 문항은 (가)에 제시된 경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원리를 탄소 배출권 시장에 적용해 볼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특정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탄소 배출권 가격)보다 해당 기업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낮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2-3.

<보기>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탄소 상쇄 시장을 소개하고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다)는 아무리 친 환경을 지향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자원 사용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더 적은 생산, 더 적은 소비, 즉 파이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기>의 탄소 상쇄 시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사용량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환경친화적인 변화인 것처럼 내세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 ㉡ (각각 10점씩) ㉠: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생태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10점) ㉡: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 (생태복지)국가의 역할/개입, 국가의 (공적 관리자로서의) 역할, 등 모두 정답</p> <p>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함.</p>	20
2-2	<p>(가)에 제시된 경제 원리를 탄소 배출권 시장에 적용했을 때, 특정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함. 한 측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탄소 배출권 가격)으로 하고 다른 한 측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되어야 함. 이를 조합하여 예시 답안처럼 쓸 경우, 20점 만점.</p> <p>부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을 경우, 적절히 감점함.</p>	20
2-3	<p>탈성장을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탄소 상쇄 시장의 성장이라는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보기>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다) 제시문에서 군데군데 표현을 가져와서 쓰면 대폭 감점.</p> <p>(다)의 입장: 경제성장을 하려면 자원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 (다)의 입장에서 볼 때, <보기>의 탄소 상쇄 시장은 더 적은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자원의 사용량을 늘리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서술되어 있으면 20점 만점.</p> <p>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함.</p>	20

7. 예시 답안

2-1.

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생태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㉕: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 생태복지국가의 역할/개입, 국가의 (공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책임 등 (한 개 선택)

2-2.

-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탄소 배출권 가격)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낮다면

-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탄소 배출권 가격)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높다면

-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탄소 배출권 가격)이 더 높다면

-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탄소 배출권 가격)보다 더 낮다면

2-3.

- 더 적은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자원의 사용량을 늘리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문항카드 3]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사회탐구방법
	핵심개념 및 용어	실험법,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콜레라, 역학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영국의 의사 존 스노(John Snow)는 근대 역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콜레라가 오염된 지하수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9세기에는 콜레라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콜레라가 도시의 악취나 나쁜 공기를 통해 퍼져 나간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생활 쓰레기나 아무 곳이나 처리했던 인분 등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나온 독기가 사람에게 전파된 결과가 콜레라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 ㉠ 콜레라는 독기, 즉 오염된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보았다.

*역학: 전염병의 전파 양상과 경로를 연구하는 학문

(나) 19세기 영국에서 콜레라는 여러 차례 유행했다. 1831년 최초 발병 당시(1차 유행)에는 6,53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콜레라 발병이라고 평가받는 1848년(2차 유행)에는 14,137명이 사망했다. 1854년(3차 유행)에는 스노 자신이 살던 런던의 강북 소호지역에 콜레라가 퍼졌다. 1854년 8월에 시작된 3차 유행의 초기 2~3주 사이에 소호지역에서만 약 600여 명이 사망했다. 영국 전체에서는 10,738명이 사망했다. 스노가 콜레라의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소호지역에서 지하수를 끄는 데 사용하고 있던 ‘브로드가 펌프’였다. 185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소호지역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83명의 거주지는 브로드가 펌프 주변에 몰려 있었다. 소호지역의 다른 곳에도 펌프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지만 산발적이었다. 한편 당시 브로드가 펌프와 인접한 곳에 도시의 빈곤층을 수용하는 구빈원*도 있었다. 533명의 구빈원 수용자는 비좁은 공간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콜레라 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구빈원에는 독립된 상수와 우물이 있어 수용자가 브로드가 펌프의 물을 마실 일은 없었다.

*구빈원: 고아나 빈민에게 일과 음식,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

(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도시 곳곳에서는 기업 소유 수도관이 놓여 수도물이 공급되었다. 수도물이 각 가구까지 공급되기도 하였고 집 근처 물탱크까지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중반 당시 런던에 물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램베스’ (Lambeth Co.)와 ‘사우스워크 앤 북스홀’ (Southwark and Vauxhall Co., 이하 S&V)이었다. 두 회사의 고객은 런던 지역에만 총 48만 명이었다. 당시 런던에서는 두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각자의 수도관을 설치하고 경쟁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48만 명의 고객 중 30만 명은 두 회사의 수도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1848년 2차 유행 당시 두 회사는 모두 템스강 하류의 물을 사용했다. 당시 강 하류의 오염 상황은

심각했다. 런던의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하류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런던 곳곳에 콜레라 사망자가 속출했다. 1852년 램베스는 취수원을 더 깨끗한 강 상류로 이전했지만, S&V의 취수원은 그대로 있었다. 2차 유행(1848년)과 3차 유행(1854년) 당시 런던 지역의 콜레라 사망자 수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고, 존 스노는 ㉠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표> 콜레라 사망자 수(인구 만 명당)

	1848년 (2차 유행)	1854년 (3차 유행)
A 지역 (S&V가 단독으로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2개 지역)	135명	147명
B 지역 (S&V와 램베스가 동시에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6개 지역)	130명	85명

3-1. (나)를 이용하여 ㉠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3-2. (다)를 바탕으로 존 스노가 ㉠을 확신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20점]

3-3. (다)의 내용에서 <보기>의 ㉡, ㉢, ㉣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20점]

<보기>

실험법은 실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험법에서는 연구 대상을, 처치*를 한 ‘실험 집단’과 처치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금연 정책의 도입이나 신약의 제공과 같은 처치로 인해 발생한 집단 간 결과의 차이를 관찰한다. 그 대표적 예가 임상시험이다. 아래는 신약의 효과와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의 주요 원칙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임상시험에는 신약을 처방받는 ㉡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 통제 집단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자신에게 ㉣ 신약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성, 연령, 병력 등 기초상태의 특성이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한다.

*처치: 실험에서 연구 대상에 가해지는 일정한 조작(자극, 변화)

3. 출제 의도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밝혀낸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문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독해 능력, 자료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제시문과 문항의 내용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근거하고 있으나,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교과목에서 다뤄진 지식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학생들의 관련 교과목의 수강 여부가 답안 작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충분히 제시문과 보기에 담고, 더 나아가 최대한 전문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일상어로 서술하였다. 즉, 제시문과 본문에 선행 지식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의 정의와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12사문01-02]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절차를 파악하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 [12사방02-02] 각 연구 방법의 주요 절차와 특징적인 연구 기법을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각 연구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29	(다)	○
사회· 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28	(다)	○
사회· 문화	신형민 외	비상	2018	30	(다)	○
사회탐구방법	전제철 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39	(다)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를 ‘모두’ 작성함.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감염지도	스티븐 존슨	김영사	2008	129-130	(가) (나) (다)	○

5. 문항 해설

(가)는 문제에 대한 배경 정보로서 19세기 당시 콜레라의 전파경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던 학설인 독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브로드가 펌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존 스노가 이를 어떻게 독기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서술이다.

(다)는 콜레라 2차 유행(1848년)과 3차 유행 (1854년) 기간 동안 런던의 두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사망자 수의 변화와 취수원의 변경 사실에 대한 정보이다.

3-1.

학생들이 제시문에서 주어진 19세기 런던의 소호 지역 브로드가 펌프 주변에서 발생했던 콜레라 환자 사망 사건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당시 콜레라의 전파경로에 관한 다수 견해인 독기설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3-2.

학생들이 제시문에서 주어진 콜레라 2차 유행(1848년)과 3차 유행 (1854년) 기간 동안 런던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의 사망자 수와 취수원의 변경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콜레라의 전파 경로가 오염된 물이라는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3-3.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 사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실험법의 핵심 개념인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처치’의 의미를 <보기>를 통해 제시한 후, 학생들이 이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여 실제의 사례에 적용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나)의 사실과 콜레라가 독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가설(‘독기설’)이 어느 지점에서 모순되는가를 분명히 서술해주어야 함.</p> <p>즉 콜레라가 독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하면 사망자가 집중된 <u>브로드가 펌프와 인접하여 독기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빈원에서</u>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서술해야 함. 즉 <u>브로드가 펌프와 거리적으로 가까운 장소</u>에서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서술해야 함.</p> <p>3-1에서 요구한 것은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님. 즉 초점은 물이 아니라 공기(따라서 거리)에 맞추어져야 함. 따라서 단순히 펌프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빈원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한 것은 오답임.</p>	20

3-2	<p>예시 답안에 기술된 3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서술되어야 함. 답은 아래의 2가지 중 어느 방식으로 적어도 무방함.</p> <p>먼저 ① 2차 유행 당시 실험 집단(B 지역)과 통제 집단 (A 지역) 사이의 사망자 수는 유사 ② 2차 유행 직후 취수원의 변화로 인해 실험 집단 (B 지역)은 덜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음 ③ 3차 유행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사망자 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p> <p>혹은 ① 2차 유행과 3차 유행 동안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공급받은 통제 집단(A 지역)에서는 사망자 수 (약간) 증가, ② 취수원의 변화로 인해 덜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은 실험 집단 (B 지역) 존재 ③ 2차 유행과 3차 유행 사이에 새로이 덜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은 실험 집단 (B 지역)에서 사망자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p> <p>어느 방식으로 적든 상관없으나, 단순히 ③ 만 적는 경우는 감점. 반드시 통제 집단에 대한 언급과 취수원의 이전으로 덜 오염된 물이 공급되게 바뀌었다는 언급을 해주어야 함.</p>	20
3-3	<p>'연구 대상에 가해진 변화라는 보기에 주어진 처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할 경우 본 제시문에서 처치란 취수원의 변화에 따라 덜 오염된 물(혹은 더 깨끗한 물)이 공급된 것이라는 점을 <u>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적어 주어야 함.</u></p> <p>이러한 정의를 이용하면 실험 집단은 1852년 이후 덜 오염된 식수를 공급 받는 B 지역이고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공급받은 A 지역은 통제 집단임. 따라서 B 지역을 통제 집단으로 A 지역을 실험 집단으로 서술하는 것은 오답</p>	20

7. 예시 답안

3-1.

브로드가 펌프와 인접한 구빈원 수용자 중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펌프 주변의 공기 때문에 콜레라가 전파된 것이 아니다.

3-2.

- 두 지역 모두에 오염된 하류의 물이 공급되었던 2차 유행 당시에는 어느 회사의 물을 먹는지에 따라 사망자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S&V는 여전히 하류의 물을 공급하고 램베스의 취수원이 깨끗한 상류로 이동한 뒤인 3차 유행에서는, 램베스의 물이 공급된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줄었다.

- S&V가 단독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의 사망자 수는 2차 유행과 3차 유행 사이에 12명이 증가했다. 반면 S&V와 램베스가 동시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사망자 수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램베스가 1852년 취수원을 깨끗한 상류의 물로 바꾼 뒤 발생했다.

3-3.

①

- B 지역
- S&V와 램베스가 동시에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6개 지역 (의 가구, 의 주민)
- 1852년 이후 깨끗한 강물을 먹은 집단 (가구, 주민)

①

- A 지역
- S&V가 물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런던의 12개 지역 (의 가구, 의 주민)
- 계속해서 오염된 강물을 먹은 집단 (가구, 주민)

②

- (1852년 이후) 물이 바뀌었다는 사실
- 더 깨끗한 식수의 공급
- 덜 오염된 식수의 공급

[문항카드 4]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4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죽음, 비존재, 박탈 이론, 적극적 악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아마도 한 사람의 죽음은 그와 영원히 이별하게 될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쁜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죽음은 죽는 사람 자신에게는 더더욱 나쁜 일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로 여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 왜 나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죽음이 ‘비존재’,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에 있다. 만약 내가 내일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쁜 것이 분명하다. 내가 내일 고통이라는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일 수 있겠는가? ‘박탈 이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은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죽음이 죽는 사람에게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더 살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죽음은 나에게 ㉠ ‘적극적 악’, 즉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악’, 즉 좋은 것이 없어서 나쁜 것에 해당한다. 내일 소풍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었다면, ‘소풍이 없음’이라는 비존재는 나에게 나쁜 것이다. 소풍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소풍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오랫동안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십 년 동안 누렸을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죽음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좋은 것이 많을수록 죽음은 더 나쁘다. 우리가 젊은 사람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죽음이 비존재임을 생각할 때 이것 외에 죽음이 당사자에게 나쁜 이유는 생각할 수 없다.

(나) 죽음이 왜 나쁜지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만한 합리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내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쉬움이나 유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 이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 그것도 가장 끔찍한 종류의 공포로 맞이하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탈 이론에서는 죽음을 소극적 악으로 보기 때문에 ㉡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소된 소풍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절대로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풍이 없음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일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 비존재이고 비존재에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이는 박탈 이론이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죽음을 어딘가에 홀로 단절되어 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공포를 갖는 것은 정당화될 길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죽음을 소극적 악으로만 보는 박탈 이론은 옳은 이론이 될 수 없다.

(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나 자신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내 장례식 장면을 상상하려 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에 나는 내가 그 장면의 한구석에 자리하여 구경꾼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아무도 그 기저에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각각은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어떤 종류의 변형 과정을 거쳐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4-1. (가)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출산 과정에서 산모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아기와 산모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생존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평균적인 삶을 살 것이 기대된다. 죽음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나쁜지만을 고려할 때, 산모의 죽음이 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임에 틀림 없다. 아기에 비해 산모가 살아온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논지를 비판하십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두려움이나 분노 따위의 감정들은 어떤 경우에는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류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가 자신을 해치지 못함을 분명히 인지해도 새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지속된다고 한다.

4-3. (다)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의 가능성이 열린다. 왜 그러한지 ㉡의 개념을 사용하여 서술하십시오. (135자 이내) [20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어지는 죽음을 소재로 삼아, 추상적인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고대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도 중요한 함축을 갖는 주제이고 또 실존적, 윤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죽음의 나쁨에 대한 근거와 그 정도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서양윤리사상에서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박탈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죽음이 죽음의 당사자에게 나쁜 유일한 이유는 죽음이 그 당사자로부터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제시문은 이 박탈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 제시문은 박탈 이론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연결시키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공포와 두려움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 가능성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생각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시킨다.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과 ‘비존재’, ‘적극적 악’, ‘합리적 감정’ 등의 추상적 개념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문항들은 단순히 제시문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 <th>관련</th> </tr> </thead> <tbody> <tr> <td>성취기준 1</td> <td>[12생윤02-01]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td> <td>제시문 (가), (나), (다) 문항 4-1, 4-2, 4-3</td> </tr> </tbody> </table>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2-01]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 문항 4-1, 4-2, 4-3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2-01]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 문항 4-1, 4-2, 4-3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과목명: 독서</th> <th>관련</th> </tr> </thead> <tbody> <tr> <td>성취기준 2</td> <td>[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td> <td>문항 4-1, 4-2, 4-3</td> </tr> </tbody> </table>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항 4-1, 4-2, 4-3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항 4-1, 4-2, 4-3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과목명: 독서</th> <th>관련</th> </tr> </thead> <tbody> <tr> <td>성취기준 3</td> <td>[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 <td>제시문 (가), (나), (다) 문항 4-1, 4-2, 4-3</td> </tr> </tbody> </table>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3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문항 4-1, 4-2, 4-3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3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문항 4-1, 4-2, 4-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47-48	제시문 (가), (나),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8	51-52	제시문 (가), (나),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47	제시문 (가), (나), (다)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8	47	제시문 (가), (나), (다)	○
생활과 윤리	정택준 외	지학사	2018	49-50	제시문 (가), (나), (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i>What Does It All Mean?</i>	Thomas Nagel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87-94	제시문 (가), (나),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죽음에 대한 ‘박탈 이론’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는 죽음이 죽는 당사자에게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한 ‘박탈 이론’을 소개한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특별히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요인은 죽음이 ‘비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박탈 이론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죽음은 안 좋은 것이 있어 나쁜 ‘적극적 악’이 아니라 좋은 것이 없어 나쁜 ‘소극적 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죽음이 당사자에게 나쁜 유일한 이유는 죽음이 박탈하는 삶의 기회라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박탈 이론이 옳다면, 죽음은 비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합리적 태도는 아쉬움이나 유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 역시 갖는다. (나)는 박탈 이론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런 공포는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박탈 이론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가), (나)와는 약간 다른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어떤 식으로 계속 살 것이라고 믿는다는 주장이다. 내가 죽은 것을 상상하려고 하면, 그 장면 안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4-1.

제시문 (가)의 입장을 토대로 <보기>에 주어진 사례와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보기>는 산모가 과거에 더 오랜 기간의 삶을 누렸다는 점을 들어 산모의 죽음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따르면, 죽음이 당사자에게 나쁜 유일한 이유는 죽음이 박탈하는 삶의 기회이며, 따라서 과거에 얼마나 오랜 사람을 살았는지는 죽음의 나쁨을 판단하는 데 무관하다. 따라서 (가)는 더 많은 삶을 박탈당하는 아기의 죽음이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4-2.

<보기>에 제시된 생각을 바탕으로, (나)에서 제시된 논증에 대한 반론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나)는 박탈 이론이, 우리 대부분이 가진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보기>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가진 감정들 중 일부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런 종류의 공포일 가능성이 생겨 (나)에 대한 비판이 된다.

4-3.

이 문항은 우리가 죽음을 비존재라고 믿지 않는다는 (다)의 주장을 바탕으로 (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 반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가)에 소개된 “적극적 악”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사유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죽음은 비존재이며 따라서 소극적 악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죽음을 비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죽음이 적극적 악일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 <보기>에서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가)가 갖는 함축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구성했는지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박탈 이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죽음의 나쁨에 무관하다는 것, (ii) 아기가 죽음으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아기의 죽음이 더 나쁘다는 것, 두 가지 사항을 포함시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 - (i)의 요소를 누락하고, (ii)만 적절히 적은 경우 (15점) - (i)만 포함시켜, <보기>가 이미 살아온 기간이라는 잘못된 근거로 죽음의 나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음만 지적한 경우 (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2	<p>▶ (나)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리고 <보기>에 주어진 생각을 토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구성했는지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나)의 논지가, 박탈 이론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 	20

	<p>임 지적한다는 점, (ii) 죽음에 대한 공포가 비합리적인 공포일 가능성이 이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점,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의 요소를 누락하고, (ii)만 포함시킨 경우 (15점) -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합리적이지 않다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류공포증에 비유하는 정도로 그친 경우 (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4-3	<p>▶ (다)의 견해를 받아들였을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나)의 주장이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이 비판을 '적극적 악'의 개념을 가지고 적절히 구성했느냐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다)를 받아들였을 경우, 우리는 죽음을 비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점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 (ii) 이 때문에 죽음을 적극적 악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점, (iii) 적극적 악에 대해서는 공포의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 - 위의 요소를 만족시키지만, (ii)에서 (다)를 받아들였을 경우 죽음은 적극적 악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려 답안을 작성한 경우 (15점) - "적극적 악"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는 경우 (15점) - 위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으로 답을 한 경우 (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7. 예시 답안

4-1.
 박탈 이론에 따르면 죽음의 나쁨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죽음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판단된다. 따라서 더 오랜 기간의 삶을 박탈당할 아기의 죽음이 산모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

4-2.
 (나)는 박탈 이론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진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틀렸다고 주장하지만, <보기>에서 지적하듯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포일 수도 있다.

4-3.
 죽은 뒤에도 내가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나는 죽음을 비존재로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 악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적극적 악은 공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유토피아, 법칙, 자유 의지, 예술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존경스러운 개미들은 개미집에서 시작해서 분명히 개미집으로 끝날 텐데. 이것이 그들의 꾸준함과 긍정적 태도에 큰 영예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인간은 경솔하고도 흉물스러운 존재여서 아마도 체스 기사처럼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하나만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장담할 순 없긴 해도). 인류가 지향하는 지상에서의 모든 목표의 의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 달리 말해 삶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2 \times 2 = 4$ 라는 공식으로만 나타나는 목표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실 $2 \times 2 = 4$ 는, 여러분, 이미 삶이 아니고 죽음의 시작이지 않겠는가. 적어도 인간은 이 $2 \times 2 = 4$ 라는 것을 웬지 항상 두려워했는데, 나는 그것도 지금도 두렵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듯 $2 \times 2 = 4$ 와 같은 것을 찾기 위해 대양을 건너기도 하고 그 탐색의 과정에서 삶을 희생하는 것이라 해도, 인간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어쩐지 두려워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후엔 찾으러 다닐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꾼들이라면 일을 마치고 적어도 돈을 받아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엔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등, 이런 식으로 1주일 치 할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와 유사한 식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인간의 내면에는 적어도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이 관찰되어 왔다. 달성 자체는 좋아하지만, 달성을 해냈다는 사실에는 딱히 그런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건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희극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말장난이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2 \times 2 = 4$ 는 어쨌거나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놈이다. $2 \times 2 = 4$ 는 내 생각으론 오로지 뻔뻔스러움에 불과하다. $2 \times 2 = 4$ 는 거드름 피우는 태도로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는 양손을 허리에 댄 채 침을 뱉는다. $2 \times 2 = 4$ 가 대단한 것이라는 점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이왕 모든 걸 다 칭찬할 거라면 $2 \times 2 = 5$ 도 가끔은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 도스토예프스키, <지하로부터의 수기> 중에서

(나) 내가 등 뒤에 수호천사가 있음을 느꼈을 때 나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소네트*를 읊미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아름다움과 사상의 깊이에 있어 보기 드문 작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처음 4행은 이렇다.

2×2는 영원한 애인
 정열로 영원히 결합되어 4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2×2... } ㉠

남은 부분도 모조리 구구단의 현명하고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이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불가피하게 콜럼버스이다.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메리카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인물은 오로지 콜럼버스뿐이었다. 구구단은 R-13 이전에도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숫자의 원시림에서 새로운 엘도라도를 발견한 인물은 R-13뿐이다. 사실, 이 기적 같은 세계의 행복보다 더 현명하고 티 없는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강철은 녹이 쓴다. 고대의 신은 고대의 인간, 즉 실수를 범하는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이 신의 실수였다. 구구단은 고대의 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절대적이다. 그것은 절대로, 알겠는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구구단의 엄격하고 영원한 법칙을 따라서 사는 번호보다 더 행복한 번호는 없다. 망설일 것도 오해할 것도 없다. 진리는 하나, 진리의 길도 하나니까. 진리는 2×2, 진리의 길은 4. 만일 이 행복하고 이상적으로 곱셈이 된 그들이 그 무슨 ㉠ 자유에 대해, 즉 명백한 실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부조리하지 않겠는가?

- 자마틴, <우리들> 중에서

* 소네트: 1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짧은 시 형식

5-1. (나)의 ㉠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5-2. (가)와 (나) 모두에서 “2×2=4” 는 <보기>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유토피아에 대한 (가), (나)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유토피아는 언제나 더 좋은 사회를 희망하는 인류의 욕망을 반영한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했던 사회의 종착역이다.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력에 기대서 인간 사회는 진보해 왔다. 이곳은 완벽한 무결점의 사회이며 개인들은 어떠한 결핍도 느끼지 않는다.

5-3. <보기>의 예술관에 근거하여 (나)의 ㉠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예술은 기존 예술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다. 예술가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조롱하고 부정하며 뛰어넘고자 한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아름다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도전받지 못할 아름다움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구할 때도 인간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의 인간’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령 아름다운 인간 속의 고약한 인간을, 영원한 진리 속의 부조리를, 혹은 그 반대들을 진정한 예술가들은 다룬다.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유토피아 문학 작품에서 인간의 의지와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예술가들은 유토피아를 어떻게 대하고 인식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살고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사회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회인지는 따져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인간 각자가 가지는 자유 의지가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하도록 하였다.
- “ $2 \times 2 = 4$ ” 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법칙은 유토피아를 이루는 원리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태도를 (가)와 (나)를 통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진정한 예술은 무엇을 예술의 탐구 대상으로 삼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을 예술은 어떻게 인식하며 표현하는지, 그리고 예술은 유토피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5-1 5-2 5-3
	성취기준 2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5-2 5-3
성취기준 3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5-2 5-3	

2.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가) (나) 5-1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를 ‘모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지하로부터의 수기	도스토예프스키 (역자: 백준현)	작가와 비평	2017	62-63	제시문(가)	○
우리들	자마틴 (역자: 석영중)	중앙일보사	1990	66-67	제시문 (나)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와 예브게니 자마틴의 <우리들>의 일부이다. 각 제시문에는 유토피아에 대한 주인공-화자의 입장이 명확히 들어있어, 학생들이 유토피아에 대한 각기 다른 두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 유토피아라는 이념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원리로 제시된다. 반면 (나)에서 유토피아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의심의 여지없이 칭송되고 찬양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작품에서 주인공-화자들이 “ $2 \times 2 = 4$ ” 라는 표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드러난다.

5-1.

이어지는 문장에서 자유란 인간의 “명백한 실수”를 의미하며, 이는 앞의 문장에서 2×2 는 4의 해가 도출되지 않는 실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의 표현은 “ $2 \times 2 = 5$ ”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5-2.

“ $2 \times 2 = 4$ ”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원리를 의미하며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는 <보기>의 유토피아에 해당한다. 이는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에서는 유토피아를 적대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다. 인간은 $2 \times 2 = 4$ 로 상징되는 엄밀한 법칙에 의해 자유 의지가 말살당하고, 예측할 없는 미래의 가능성이 빼앗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나)에서는 “ $2 \times 2 = 4$ ”를 찬양한다. 이 원리로 이루어진 세계인 유토피아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5-3.

<보기>에서는 도전과 의심을 예술의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예술과 기존 진리에 대한 의심은 그 자체로 예술의 원리이며 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진화시킨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맥락에서 ㉠의 시는 진리라고 생각되는 “ $2 \times 2 = 4$ ”가 그저 찬양할 뿐 이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은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 “ $2 \times 2 = 5$ ”만 정답으로 인정 (10점)	10
5-2	▶ (가)의 태도를 명확히 밝히면 15점 - 반 유토피아적, 뻔뻔스러움, 참을 수 없는 것, 인간의 삶을 가로 막는 것, 불편한 것, 유토피아의 완성보다 과정을 중시 등의 표현 ▶ (나)의 태도를 명확히 밝히면 15점 - 적극적으로 옹호, 엄격하고 티없이 행복한 세계로 인식, 망설이거나 오해하지 않고 찬양, 행복하고 이상적 등의 표현 ▷ (가)와 (나) 모두에서 “ $2 \times 2 = 4$ ”가 공통적으로 유토피아를 상징한다는 서술은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와 (나) 각각의 표현으로 서술해야 각 15점 - 어느 하나의 제시문의 표현을 활용하여 (가)와 (나)와 태도를 서술하면 태도별로 감점(각각 -7점 이내)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7점 이내)	30
5-3	▶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 10점 ▶ 진정한 예술이 아닌 이유를 명확히 밝히면 10점 - 진리와 아름다움을 찬양만 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에 대해 조롱하고 부정하거나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다, 기존의 아름다움에 도전하지 않는다, 진리 속의 부조리를 다루지 않는다 등의 표현 ▷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기>의 예술관만을 반복하거나 요약한 답안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7점 이내)	20

7. 예시 답안

5-1.

2x2=5

5-2.

(가)는 유토피아를 참을 수 없어하고 뻔뻔스러운 것, 인간에게 뭔가 불편한 감정을 남기며 인간이 삶을 가로막는 것으로 여기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반면 (나)는 유토피아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엄격하고 영원한 법칙으로 받아들이며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고 옹호하며 찬양한다. (154자)

5-3.

㉠에서는 영원한 진리와 아름다움이 찬미될 뿐이며 그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예술이라 할 수 없다. (61자)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6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복합 평등, 분배적 정의, 알쳐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분배적 정의는 권력, 부, 명예, 성직, 의료, 생필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플라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로운 분배 체제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단일한 분배 방식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다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 명예, 부,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통해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이해는 다양한 정치 공동체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의로운 분배 방식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정치 공동체들이 지닌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 타당한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이상적 계약론이나 담론 이론은 분배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고유한 자율적인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종교의 영역에서 성직을 분배할 때 신앙심이 적절하며 돈은 부적절하다. 만약 돈이 성직의 분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의 영역에서는 신앙심이 주요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분배 방식에서는 가치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침범이 종종 발생한다.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가치들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지배’가 발생하며 그 가치는 ‘지배적 가치’가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면 이때의 분배를 ‘전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통치 능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정치 권력을 부, 명예와 같은 다른 가치들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전제가 된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평등하게 공유하는 ‘단순 평등’ 체제를 추구하는 입장도 있다. 이 체제에서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특정한 가치를 독차지하는 ‘독점’은 금지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지배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단순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는 부가 지배적 가치이더라도 불평등이 사라진다. 부가 평등하게 소유된다면 다른 가치 영역에서도 독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

결국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한 소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점의 혁파나 제한이 아니라 지배의 축소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회를 ‘복합 평등’ 체제라고 한다.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어떤 가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다른 가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즉 가치들 사이의 지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그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 등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 평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분배 방식은 (㉠) 이며, 그 이유는 (㉡) 이다.

물론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가치들을 독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모든 분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관념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합 평등 체제는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독점을 허용하지만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1. 윗글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65자 이내) [20점]

6-2.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분배한다고 할 때, 윗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0점]

<보기>

- ① 한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 ②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독점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④ 사회적 가치 X나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은 정치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 ⑤ 사회적 가치 X의 분배는 평등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 ⑥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회적 가치 X에 대한 독점도 허용해야 한다.

6-3. 복합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특정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면 그 계급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법, 정치, 사상, 종교와 같은 다른 삶의 영역도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지배 계급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생산 수단의 독점을 폐지하고 공동 소유 제도를 확립하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왈처(M. Walzer)의 ‘복합 평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의 양극화, 권력의 남용, 계층의 대물림 등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 부, 명예, 공직, 의료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해야 하는가?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사회적 가치들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해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해야 하는가? 이처럼 어떤 분배 방식이 정의로운지와 관련하여 능력주의, 평등주의, 공리주의, 차등의 원칙 등 여러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왈처는 이러한 입장들을 비판하면서 ‘복합 평등(complex equality)’을 주장한다. 그는 권력, 부, 명예, 공직, 의료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단일한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 사회에서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과 부를 분배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권력이나 부를 분배하는 방식은 정치 공동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일한 분배 방식을 거부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을 옹호한다.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가치 영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원적인 분배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은 그 가치를 가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그 가치를 더 많이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가져가는 ‘독점’은 허용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적 가치도 가져가는 ‘지배’는 반대한다. 독점이 허용되면 각각의 영역에서 불평등은 발생하지만 지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치의 독점과 지배가 모두 허용되면 그러한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아주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회적 가치 영역을 침범하여 가치 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왈처는 복합적 평등 체제에서는 부분적인 불평등은 발생하지만 사회 전반의 심각한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복합 평등이 실현되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생활과 윤리>를 비롯한 중등교육과정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윤리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문항은 왈처의 복합 평등 이론을 제시문으로 소개한 후에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이해 능력,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용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능력, 어떤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관련
	성취기준 1	(3) 사회와 윤리 직업, 사회 정의, 국가와 시민의 윤리적 문제들을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번영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및 문항 6-1, 6-2, 6-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90-93	제시문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20	91-94	제시문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0	94-97	제시문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90-93	제시문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0	91-95	제시문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왈쩌(정원섭 외 역)	철학과현실사	1999	15-72	제시문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왈쩌(M. Walzer)의 『정의와 평등』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왈쩌가 주장한 복합 평등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단순 평등, 전제 등 다른 분배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항 6-1은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작성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용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문항 6-2는 분배 방식과 관련하여 제시문으로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라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항 6-3은 제시문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6-1.

이 문항은 제시문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은 정의로운 분배 방식으로 가치의 지배는 반대하되 가치의 독점은 허용하는 ‘복합 평등’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독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회적 가치까지 소유하는 지배는 반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권력까지 갖는 것은 반대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 가치를 가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분배된다. 즉,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그 가치를 더 많이 분배받는다. 그래서 복합 평등이 실현되면 부분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된다. 이러한 복합 평등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 방식은 ‘전제’이다. 전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독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지배도 이루어지므로 거기서는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점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전제 체제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며, 이는 결국 소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까지 독차지하는 사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전혀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 평등’ 체제에서는 지배는 허용되지만 독점은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받게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사람이 다른 가치들까지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로 이어져 획일적 평등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분배를 받는다. 따라서 복합 평등의 입장에서 볼 때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전혀 분배받지 못하는 전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 방식이 된다.

6-2.

이 문항은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분배할 때 제시문으로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제시문은 단일한 보편적 분배 방식을 비판하면서 다원적인 분배 방식인 ‘복합 평등’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배 방식은 정치 공동체 따라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가치의 ‘지배’는 금지된다. 이러한 제시문의 입장을 기준으로 <보기> 선지들의 주장에 대해 평가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①은 “한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은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로서 서로 다른 분배 영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분배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따르면 한 사람이 몇몇 분야에서 뛰어나다면 그 분야들에서 사회적 가치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독점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 Y도 독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 안 된다.” 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치들 사이의 ‘지배’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제시문의 복합 평등의 입장과 부합한다.

④는 “사회적 가치 X나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은 정치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 공동체에 따라 분배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단일한 보편적인 분배 방식을 반대하고 정치 공동체에 따른 다양한 분배 방식을 옹호하는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한다.

⑤는 “사회적 가치 X의 분배는 평등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독점과 지배를 모두 금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은 독점은 허용하되 지배는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 주장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⑥은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회적 가치 X에 대한 독점도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독점과 지배를 모두 허용하는 것, 즉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옹호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제시문은 독점은 허용하되 지배는 금지해야 한다고 보면서 ‘전제’를 비판한다. 따라서 그 주장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6-3.

이 문항은 복합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다른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되 경제에서 생산 수단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합 평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단순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가치의 지배를 허용하고 가치의 독점을 금지하여 가치 영역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영역에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으로 확산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의 용어를 활용하여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에 “전제”를 쓴 경우(10점) - ㉡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여 불평등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를 쓴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정답인 ①, ②, ⑤, ⑥를 선택한 경우에 한 개당 5점씩 부여함. - 오답인 ③, ④를 선택한 경우에 한 개당 5점씩 감점함. 	20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제대로 비판했는지를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보기>가 “단순 평등, 즉 지배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한다.” 또는 “단순 평등, 즉 가치의 지배를 허용하고 독점을 금지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10점) - <보기>가 “가치 영역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또는 “장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다른 가치들의 	20

불평등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

7. 예시 답안

6-1.

㉠ 전제

㉡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여 불평등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6-2.

①, ②, ⑤, ⑥

6-3.

<보기>의 주장은 단순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가치의 지배를 허용하고 독점을 금지함으로써 가치 영역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또는 장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으로 확산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2022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①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3.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4.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5.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의 일차적 기능이 의사소통에 있다고 할 때,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도 일어난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정의할 때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호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언어는 생성, 변화, 소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 언어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어 구조의 변화,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소멸, 사회적 금기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데 때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 오늘날 인터넷은 다양한 언어의 힘들이 역동적으로 부딪히는 격전장이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에 존재하는 언어라도 현실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의 언어가 사회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의 권력 주체들은 가능한 한 인터넷 언어를 자신의 손안에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작게는 개인의 발화부터 크게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이질적인 힘들이 투쟁한다. 인터넷에서 익명의 다수가 뿜어내는 공격성은 흔히 폭력적인 언어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언어의 부정적 측면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개인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요소인 신체와 이름으로부터 벗어난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폭력적인 언어 행위를 쉽게 범하곤 한다.

오늘날 인터넷의 특정한 커뮤니티는 사회의 약자집단을 찍어 비방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게 모욕과 혐오의 발언을 일삼으며 극단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견해를 전파한다. 특정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인식과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희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나 세월호 추모 현장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는 행위를 하나의 놀이로 정당화하는 식이다. 이들이 모욕과 혐오를 생산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언어의 전복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라는 어휘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한다. 즉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시켰던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민주화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재정의한다. 이들의 행위는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가지는 관념과 가치를 조롱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의 언어 사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갖는 의의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표현의 자유의 틀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법적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의 실천에 관한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자행한 나치는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언어 규칙을 만들었다. 이 언어 규칙이란 “학살”이나 “유대인의 이송”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법을 만들어 대신 사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살은 “최종 해결책”, “완전 소개”, “특별 취급”으로, 유대인의 이송작업은 “재정착”, “동부지역 노동” 등으로 불렀다. 말은 우리를 현

실과 연결시켜준다. 나치가 언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러한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언어 표현들은 부정적 현실을 은폐하고 위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규칙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나치의 전범들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폴란드 수용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세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 과정을 직접 관찰한 유대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 말하기의 무능을 낳았고 말하기의 무능이 행동의 무능을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인간은 언제나 언어를 매개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없다. 언어는 현실의 거울이고 언어와 현실이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더 이상 현실을 전달할 수 없을 때 개인은 현실의 힘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언어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가 상실됨으로써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1-1. ㉠이 (나)와 (다)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30점]

1-2. ㉡과 ㉢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동일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거나 동일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 즉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수익이란 어떤 선택을 하였을 때 이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득의 금전적 가치이다.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명시적 비용이 있다. 이는 선택을 위해 실제로 금전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또 다른 고려 비용은 암묵적 비용이다. 이는 어떠한 선택을 위해 포기한 여러 대안들의 가치 중 최댓값이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둘을 합한 것을 경제적 비용 혹은 ㉠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보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사람에게 대학 진학과 취업의 두 가지 길만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 경우 대학 진학의 비용은 정확히 얼마일까? 명시적 비용은 등록금이나 기숙사비처럼 대학에 다니는 동안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반면에 암묵적 비용은 진학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선택의 금전적 가치이다. 즉 대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었다면 받았을 급여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명시적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익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익을 계산할 때에는 기댓값의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기댓값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결과값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한 후 이를 합한 수치이다. 예를 들어 1%의 확률로 100,000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9% 확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복권 A가 있다고 하자. 기댓값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한 복권 A의 수익, 즉 기대수익은 $100,000원 \times 0.01 + 0원 \times 0.99$, 즉 1,000원이다. 반면에 5%의 확률로 100,000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5% 확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복권 B가 있다고 하자. 복권 B의 기대수익은 $100,000원 \times 0.05 + 0원 \times 0.95$, 즉 5,000원이다. 만약 복권 A와 B의 비용, 즉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기대수익이 높은 복권 B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수익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들이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거나 오히려 이를 반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싫어한다. 예컨대 현금 1,000원과 복권 A 중 무엇을 갖겠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 1,000원을 선택한다. 복권 A의 기대수익도 1,000원이지만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금 1,000원의 경우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이 1,000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사람들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권 A의 가치를 그 기대수익인 1,000원보다 낮게 평가한다. 복권 A의 가치를 1,000원보다 어느 정도 저평가하는가는 개인

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어느 정도 싫어하는가에 의존한다.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면 할수록 복권 A의 가치는 그 기댓값인 1,000원보다 더 낮게 평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비용이 동일하다면 기대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면 할수록 선택된 대안의 가치를 그 기대수익보다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2-1. <보기>의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보기>

2009년 미국경제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특히 2009년에는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고,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에 부가혜택이 거의 없는 일자리였다. 한편 ㉠ 2009년 미국의 대학교에는 지원자가 급증하였다.

2-2. 미국인들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기>와 같은 복권 구매 행동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0자 이내) [30점]

<보기>

미국에서는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과 같은 복권의 인기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뉴욕주의 복권 판매량은 약 97억 달러였다. 복권은 당첨자에게 순위에 따라 최저 50달러에서 최고 2억 2,250만 달러까지 상금을 준다. 1등의 당첨확률은 0.00000034%인데 이는 매년 미국에서 개인이 번개에 맞아 사망할 확률보다도 낮다. 아래의 [표]는 4등까지 상금이 지급되는 파워볼의 각 순위별 상금과 당첨확률이다. 파워볼의 구매가격은 2달러이다.

[표] 복권의 당첨확률과 상금

등수	상금 (달러)	당첨확률 (%)	기대수익* (달러)
1등	222,500,000	0.00000034	0.76
2등	500,000	0.00000856	0.04
3등	25,000	0.00010951	0.03
4등	50	0.00273784	0.00

* 기대수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함.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척박한 곳에서 풍요로운 곳으로, 전쟁이나 재해가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왔다. 개인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거주 국가를 탐색한다. 즉 개인들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투자하듯이 이주에 투자하며, 이주로 인한 비용과 기대수익을 계산하여 순이익이 큰 쪽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민 시장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고 다양한 선택지가 비교된다. 이러한 이민 시장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개인들은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세계의 여러 지역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이 자연스레 사람들의 이동을 불러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주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저개발 지역과 개발 지역 간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저개발 지역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개발 지역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종국적으로 임금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 간 경제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인구이동 유인이 사라져 이주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나) 국제이주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부유한 나라들의 노동시장은 고임금, 고용안정, 양호한 근무환경으로 특징지어지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불안, 나쁜 근무환경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도시'에는 이러한 이중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난다. 금융, 경영, 연구 등의 부문에 종사하는 1차 노동시장의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와 청소, 시설관리, 돌봄 등 서비스 부문이나 저숙련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절화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국 시민들을 2차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어려워진다. 이에 고용주들은 싼값에 쓸 수 있고 통제와 착취가 용이한 저개발국의 이주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또한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는데, 이러한 노동자 간 분할은 성별, 인종 등 역사적으로 굳어진 여러 사회적 범주에 따른 억압과 차별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와 동일한 정도의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주 수용국의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많은 이주자들은 자신의 숙련 정도에 맞지 않는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인종화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이주자들의 학위, 자격증, 나아가 말씨 등과 같은 문화자본이 저평가되기 때문이다.

(다) 개인이 이주를 감행하는 과정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보통 어떻게 얻을까? 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은 유사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유독 특정 국가로만 이주하고, 이주 후 수용국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하게 되거나 특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이 사회자본인

데, 이주를 시도하고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송출국과 수용국을 연결하는 친족, 친구, 동향인, 나아가 이주알선업체나 이주지원단체 등이 이와 같은 자원으로 기능한다. 이주 목적지를 선택하는 데에는 과거 식민지배 등의 역사적 과정이나 지리적 근접성 혹은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만들어진 인적, 제도적 연결과 언어적, 문화적 익숙함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중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이미 이주해 있는 지역은 아주 매력적인 목적지가 된다. 머무를 곳, 일자리, 그 밖에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 이주로 인해 세계 각 지역 간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가)와 (나) 각각의 입장과 그 근거를 쓰시오. (220자 이내) [30점]

3-2. <보기>의 ㉔와 ㉕에 적절한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 <보기> —

예멘 청년 A씨는 고향의 내전을 피해 2018년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입국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피신해 있던 중 시내 예멘 식당 주인으로부터 제주도는 사증(visa)이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A씨의 이주 과정에서 (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예멘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 교사로 일했지만 체류자격도 불안정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A씨의 그런 경력이나 능력은 소용없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고기잡이배 일자리를 구했지만 한 번도 배를 타본 적 없던 그는 하루 만에 앓아누웠다. 이는 예멘에서 획득한 A씨의 (㉕)이/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3-3. <보기>의 ㉖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시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쓰시오. (100자 이내) [20점]

— <보기> —

한국은 1970년대까지는 인력 송출국가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영세 제조업 인력난이 가시화되면서 인력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1990년대 초부터 외국 인력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으로 부르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해 왔으나 그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 인력난에 놓인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이주노동자를 유치, 관리하는 제도이다.

㉖ 현재 재외동포를 제외한 장기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다. 이 제도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긴 했으나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일상적 성폭력에도 저항하기 어렵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나의 행동이 선행 사건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어떻게 그런 행동이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행동일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인간의 많은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이로부터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어딘가에 나의 행동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가령 ㉠ 매일 성실하게 학교에 나오던 학생이 어느 날 집을 나선 후 자유를 찾으려는 충동에 홀연히 어디론가 떠났다면, 이는 그가 인과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탈에의 충동이라는 또 다른 원인에 의해 떠밀려졌음을 의미할 뿐이다. 게다가 과학의 발전은 점차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두뇌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과학은 우리의 행동의 원인을 낱알이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결코 이를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조차 나는 원인에 떠밀려 불가피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자유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이는 아직 우리가 복잡한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마치 우리가 어떤 복잡한 자연 현상의 원인을 몰랐을 때 신의 의지에 호소해서 이를 설명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며 사라져야 할 신화와 같은 것이다.

(나) 나의 행동이 선행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보자. 이는 그 행위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앞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차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원인 없이 그저 무작위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라 미치광이일 뿐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행동에 충분한 원인이 있다는 결정론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론을 전제한다. 물론 어떤 원인을 가지고 발생한 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자유로운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또는 누군가가 나의 몸에 물리적 힘을 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자유의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안에 있는 경우, 이는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행동이다. ㉡ 콜라를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콜라병을 입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로운 행동이란 원인이 없는 행동이 아닌, 내적인 원인을 가진 행동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인과적 결정론이 자유의지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을까? 이는 인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흔히 원인이 결과가 발생하도록 '강제'하고,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는 그에 '떠밀려'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인과 관계는 현대 과학에서 필요하지도 용인되지도 않는다. 인과는 그저 사건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발생함을

의미할 뿐이다. 예를 들어 콜라를 마시고 싶은 나의 욕구가 어떤 행동을 야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현대 과학이 용인하는 인과적 결정론은 자유의지와 양립 가능하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4-1. (가)의 입장에서 <보기>의 핵심 논지를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음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되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곧 문밖으로 나가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문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함으로써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나는 문밖으로 나가기로 함으로써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2. (가)의 입장에서 ㉢이 자유로운 행동인지 여부를, 또 (나)의 입장에서 ㉣이 자유로운 행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각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4-3. <보기>의 주장이 ㉢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한다.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계단을 오를지 엘리베이터를 탈지 등등. 이런 선택에 직면해서 나는 선택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예측이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욕구로부터 나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 행동이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은 하나의 축제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잔치국수를 먹다 보면
외로운 이웃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하고 싶네
우정의 길이를 더 길게 늘려서
넉넉한 미소로 국수를 삶아
대접하고 싶네

쫄깃쫄깃 탄력 있는
기쁨과 희망으로
이웃을 반기며
국수의 순결한 길이만큼
오래오래 복을 빌어주고 싶네

- 이해인, <잔치국수>

(나)

불같이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는데
칼국수만한 게 어디 있을까
밀가루를 얇게 반죽을 해서
칼로 죽죽 찢어 한 냄비 끓이면서
굵은 바지락 몇 개 집어넣고
파 송송 잘라넣고
잘게 썰은 매운 고추에
붉은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풍덩 빠뜨린 다음에
흐물흐물해진 칼을 후후 불면서
방금 버무린 김치와 엮어
입안으로 넘기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인데
굳었던 혀가 얼얼해지고
뻗뻗한 뒷목이 허물어지면서
얼굴에 땀방울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릇을 통째 들고
뜨겁게 달아오른 저 붉고 푸른 국물을
목구멍으로 한 모금 넘기면
눈앞이 환해지면서
온몸에 칭칭 감긴 쇠사슬이 풀어지는데
뼈가 나긋나긋해지고
눈물이 절로 나는 것인데
칼국수 다 비우고
뜨거워진 마음을
빈 그릇에 떡 하니 올려놓는 것이다

- 김종제, <칼국수>

(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5-1. (가)에서 화자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국수의 특성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10점]

5-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 (다) 화자들이 국수를 대하는 가장 두드러진 태도는 각각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30점]

<보기>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쾌락주의, 영양주의, 영성주의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쾌락주의에서는 음식 그 자체를 통해 얻는 감각적 쾌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반면, 영양주의에서는 음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인체에 공급되는 영양을 중시한다. 이와 달리 영성주의는 음식에 담긴 도덕이나 공감의 마음 등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향한다.

5-3. (가)와 (다)의 화자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20점]

2022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인문계열)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인문계열 1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언어의 전복을 사용하였다’, ‘(다)에서는 암호화된 언어(우회적 표현법)를 사용하는 언어 규칙을 사용하였다’. (각 15점) -일부 내용만 기술할 경우에 5점씩 감점. • ‘언어의 전복’, ‘암호화된 언어’, ‘우회적 표현법’, ‘언어 규칙’ 등 용어의 개념을 풀어서 정확히 제시할 경우에 정답 인정. • ‘유희의 방식을 사용한다’ 등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적으면 10점씩 감점. 	30점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사회적 의미 회복’만 들어가면 10점. ‘타인의 입장 고려’만 들어가면 10점 인정. -일부 내용만 기술할 경우에 누락된 항목 당 5점씩 감점. 	20점

2. 예시 답안

1-1. (나)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언어의 전복을, (다)에서는 암호화된 언어(우회적 표현법)를 사용하는 언어 규칙을 사용하였다.

1-2. 언어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회복하여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다.

(혹은) 언어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를 회복하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인문계열 2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의 미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근로자들의 보수의 하락은 비용-수익 분석의 틀에서 보면 대학진학의 기회비용의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이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서술하면 24점 ▷ 주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제시문의 문구만을 반복하여 서술하면 감점 (-3점)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5점 이내) ▷ 기회비용의 개념외에 취업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취업 시 받는 보수를 실제 보수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가점 (+3점) 	30점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 구매의 수익을 기대값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대수익으로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싫어할수록 선택된 대안의 가치를 그 기대수익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지를 고려. 이 둘을 다 적으면 24점 ▷ 문제에 주어진 파워볼의 각 순위별 당첨금액과 확률을 이용하여 파워볼의 기대수익을 계산하여 이것이 파워볼의 비용인 2달러보다 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가점 (+3) ▷ 반대로 파워볼 기대수익을 계산할 때 1등의 상금과 파워볼의 비용만을 비교하는 것은 감점 (-2) ▷ 주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제시문의 문구만을 반복하여 서술하면 감점 (-3점) ▷ 기대수익과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중 하나만 적으면 감점 (각 -3점)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5점 이내) 	30점

2. 예시 답안

2-1. 지원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학 진학의 암묵적 비용인 직장인 급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을 떨어뜨렸다.

2-2. 파워볼의 기대수익은 0.83달러이다. 그런데 복권의 가격은 2달러로 이는 기대수익을 넘어선다. 또한 미국인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권의 가치는 이보다 더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복권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인문계열 3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이주가 지역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와 (나)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이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뒷받침하였는지 평가함. ▶ (가), (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채점 (각각 15점씩)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함.	30점
3-2	제시문 (나)와 (다)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보기>에 적절한 단어를 넣었는지 평가함. ▶ ㉠, ㉡ 각각 5점씩	10점
3-3	이주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제시문들의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이를 <보기>의 밑줄 친 현상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나) 제시문을 정답으로 선택했다더라도, 그 이유를 이주 발생 요인의 측면에서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제시문의 특정 부분을 군데군데 찾아 쓴 경우는 대폭 감점함.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함.	20점

2. 예시 답안

3-1. (가)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주가 일어나면 노동력의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 지역 간 임금 수준이 같아질 것이고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나)는 부국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력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착취함으로써 부유한 나라 기업의 이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3-2. ㉠ 사회자본 ㉡ 문화자본

3-3. (나),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부유한 나라들의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로 인해 촉발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4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제시된 반론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채점. - <보기>에서 화자가 예측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원인(가령, 자신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이려는 욕구)을 정확히 지목하여 <보기>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구성한 경우. (20점) - <보기>에서 화자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고 모종의 원인(가령, 일탈에 의 충동, 두뇌에서의 원인)이 있음을 가정해서 <보기>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구성한 경우. (15점) - <보기>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가)의 요지를 반복해서 자유로운 행동이 없음만을 진술한 경우. (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점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에서 제시된 견해를 주어진 사례에 적절히 적용했는지에 따라 채점. - (가)에 따르면 ㉠의 행동이 원인에 의해 이끌린 행동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님을, (나)에 따르면 ㉡의 행동이 내적 원인을 갖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임을 둘 다 적절히 적은 경우. (20점) - 둘 중에 하나를 잘못 파악한 경우. (10점) - “(가)에 따르면”, “(나)에 따르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처리.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점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내용과 <보기>의 주장을 적절히 연결시켜 답안을 구성했는지에 따라 채점. - 현대 과학이 허용하는 인과적 결정론에 따르면 행동이 규칙성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는 것과, <보기>는 행동의 예측 가능성과 자유의지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한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하여 둘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반론을 구성한 경우. (20점) - 현대 과학이 허용하는 인과적 결정론의 핵심 내용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한 채, 행동의 예측 가능성과 자유의지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만을 지적해서 답안을 구성한 경우. (1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10점

2. 예시 답안

4-1. <보기>의 나의 행동은 상대방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행동이다. (가)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원인에 떠밀려 행동한 것이므로 자유의지를 증명하지 못한다.

4-2. ㉠은 욕구에 의해 야기되었으므로 (가)에 따르면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다. ㉡은 내적인 충동에서 야기되었으므로 (나)에 따르면 자유로운 행동이다.

4-3. 현대 과학이 용인하는 인과적 결정론은 행위가 규칙성에 의해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행위는 자유의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인문계열 5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와 탄력을 정확히 적시하면 10점 (각 5점) - 길이의 경우에 “길다”, “길게” 등, 탄력의 경우에는 “쫄깃쫄깃”도 정답으로 인정 ▷ 국수의 특성을 찾아쓰라 했으므로 길이와 탄력이 상징하는 순결, 희망, 기쁨 등을 제시한 답안은 0점 ▷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면 감점(-3점)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3점 이내) 	10점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다)는 영성주의, (나)는 쾌락주의임을 정확히 제시하고 각각 그 이유를 밝히면 30점 ▷ 각각의 태도(“-주의”)를 제시하면 (가), (나), (다) 각 5점 ▷ 태도에 알맞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 (가), (나), (다) 각 5점 ▷ 그 이유가 부정확하면 감점(각 이유당 -5점 이내)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7점 이내) 	30점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화자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으면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풀다, 음식 대접, 즐거운 마음, 기쁨 등의 표현 ▶ (다)의 화자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으면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함께 먹는다, 외로움을 나눈다, 있는 그대로 대한다, 화자와 동등하다 등의 표현 ▷ 문장의 완성도와 맞춤법에 따라 감점 (-7점 이내) 	20점

2. 예시 답안

5-1. 길이, 탄력(혹은 쫄깃쫄깃)

5-2. (나)에서는 국수로부터 얻어지는 감각을 중시하여 쾌락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가)와 (다)의 화자는 국수를 통해 타자들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영성주의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5-3. (가)의 화자는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다)의 화자는 같은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사람들과 외로움을 나누고자 한다.

(혹은) (가)의 화자는 외로운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지만, (다)의 화자는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혹은) (가)의 화자는 외로운 사람들을 즐겁게 대접하고자 하지만, (다)의 화자는 있는 그대로 외로운 사람들을 대한다.

인문계열 6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개입에 대한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20점) -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점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들어갈 내용을 제대로 추론하여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근거와 주장을 모두 서술한 경우(20점) - 근거와 주장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 - 근거와 주장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점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 (나)의 입장을 <보기>의 사례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가)와 (나)의 입장을 모두 적절하게 적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경우(20점) - (가)와 (나)의 입장 중에서 한 가지만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10점) - (가)와 (나)의 입장을 모두 적절하게 적용하여 서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점

2. 예시 답안

6-1.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방어 전쟁과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국제적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는 정치 공동체의 보존을, (나)는 개인의 권리(인권, 자유권) 보호를 국제적 개입의 주요 정당화 근거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6-2. 개인과 국가는 유사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추에 근거하여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3. (가)와 (나) 모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는 자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하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식적 말하기의 상황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격식 있는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한편 내용을 구성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표나 연설을 하는 상황이라면 도입부에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전개부에는 중간중간 요점을 정리해 주면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을 넣고, 결론부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 주고 인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준언어란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그 예이다. 같은 언어적 표현이라도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준언어적 표현 이외의 방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말하는 이가 나타내는 시선, 얼굴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 표현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0과 1로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터는 제한된 수의 글자가 할당된 자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니터를 출력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입력과 출력 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또한 기존의 글쓰기가 대체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더욱 절실하였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소통 맥락은 새로운 화법과 문자 사용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 통신 언어이다.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온라인 매체로 이동 통신의 문자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최근 다양한 스마트폰의 문자 응용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문을 주고받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특히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 받지 않고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되었다. 하지만 숫자판을 전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불편함도 많았다. 이러한 단점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언어 표현 방식을 찾게 하였다.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입력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겹받침의 사용을 자제하고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다. 문자 메시지는 대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대화에 가깝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중요한 소통 정보인 억양이나 표정 등의 맥락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메시지인 '긍정', '부정'의 정보

가 잘못 전달될 여지가 있다. 이에 ㉡ 문자 메시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내용 뒤에 '^^'을(를), 부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ㅠㅠ'을(를) 덧붙이곤 한다. 또한 그림말을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1. ㉠을 위해 온라인 매체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글쓰기 방식을 (나)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70자 이내) [20점]

1-2. (가)에서 설명한 세 가지 표현 방식 중 ㉡에 가장 가까운 표현 방식을 찾아 쓰고, 그것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50자 이내) [20점]

1-3.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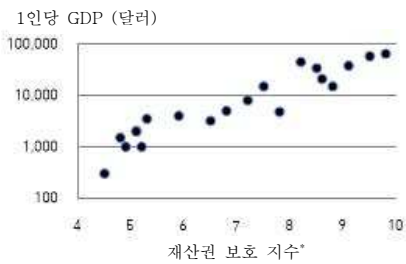
— <보기> —

최근 전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온라인 매체 또는 뉴 미디어라고 부른다.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온라인 매체에서는 기존의 독립적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정보 전달의 방식 역시 새롭게 변화하였다. 개방된 형태의 누리 소통망을 떠올려 보자. 최초의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익명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 최초 게시자가 답변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매체는 ㉢와(과) ㉣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매체의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경제제도의 차이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지를 얻고 있다. 경제제도 중에서도 특히 재산권 제도가 중요한데 [그림]은 재산권 보호 정도가 높은 국가가 소득이 높은 국가임을 보여준다. 재산권 보호 정도가 소득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중요한데,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재산권 보호와 1인당 소득



*관련 법령과 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0에서 10까지 점수화한 지수임

그렇다면 저개발국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선진국처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 사회갈등론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사회갈등론에 따르면 정치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제도를 선택한다. 정치권력이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특권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착취가 용이한 경제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특권층의 착취가 심할수록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자본 축적 의지가 약해져서 경제발전이 지체된다. 또한 특권층은 착취를 통해 부를 독점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강화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더욱 착취가 용이한 경제제도를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저개발국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제도 선택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은 경제학자 ㉡ 코즈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반박할 수 있다. 코즈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둘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여 농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표]에서 공장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면 공장의 이익은 크지만 농민의 이익은 작다. 반면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공장의 이익이 작고 농민의 이익은 크다. 이때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총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장으로서는 굳이 이익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정화시설을 설치할 유인이 없다.

[표] 공장과 농민의 이익

정화시설	공장의 이익	농민의 이익	총이익
미설치	60	30	90
설치	40	70	110

이때 정화시설을 설치하되 이로부터 농민이 얻는 이익의 ㉢ 일부를 공장에 지불한다면 공장과 농민의 이익이 모두 커진다. 이처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 <보기>의 ㉣에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35자 이내) [20점]

<보기>

(가)의 [그림]이 반드시 재산권 보호와 소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주장을 살펴 보자. 인류에게 가장 많은 열량을 공급하고 있는 작물은 대부분 온대지방에서 작물화되었다.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에서는 식물들이 열매에 많은 열량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온대지방의 농업 생산성은 열대지방에 비해 30% 이상 높다. 온대지방에서는 농업을 통한 정주 생활 확대 덕분에 분업과 지식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추후 공업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소득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한편 열대지방과는 달리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공동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게 만들어 특권층의 전횡에도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온대지방에서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는 경제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2-2. 저개발국의 경제제도 선택 문제에 ㉤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의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보기>를 활용하여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모든 거래에는 항상 약속 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에서는 한 사람이 먼저 무엇인가를 주고 다른 한 사람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준다. 경우에 따라 주는 시간과 받는 시간의 차이가 매우 작을 수는 있지만 약간의 시간 차이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때 먼저 무엇인가를 주는 쪽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의 위험은 사용자와 노동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처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반대급부를 장시간에 걸쳐 제공할 때 더욱 커진다. 따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속 이행을 강제할 중립적 제3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법-제도를 통한 처벌과 구제라는 방법으로 약속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3. 아래 식은 ㉤의 범위를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의 [표]를 바탕으로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20점]

() < ㉤ <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능력주의란 능력,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이다. 이 이상이 실현되려면 우선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에 걸맞은 일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 장애유무 등 개인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개인을 평가해야 한다. 즉,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면 개개인이 집단의 성과물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 즉,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능력주의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의 작성자이자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혈통에 뿌리를 둔 신분제 사회인 구대륙과 달리 재능에 근거한 새로운 나라를 신대륙에 세우고자 했다. 그의 이상적 국가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 명예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정의롭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민주주의 인권 이념과 함께 봉건제도를 타파하는 혁신적인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 후 능력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일반을 규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분배 정의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까지 계층 간 이동성 강화의 기제로 여겨지고 있다.

더 나아가 능력주의 이념은 역사 속에서 소수자 사회운동의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평등과 보편적 시민권을 선포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성, 노예,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해 왔다. 현실은 언제나 평등한 시민권의 이상에 미달했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려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페미니즘 운동 등은 배제되는 자 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능력을 함양하고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능력주의는 이러한 주장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나) 사실 '능력'은 그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다. 능력은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암기력과 성실성이 학생의 중요한 능력이던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은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 자질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실은 능력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되기도,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볼 건지, 해당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결정하는 과정은 언제나 정치적인 과정이며, 인간의 편향이나 사회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 속도와 효율성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비장애인 위주의 가치체계이다. 비장애인이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평가 기준이 상식적으로 느껴질 뿐이다.

능력주의가 애초 대변했던 근대적 객관성과 민주적 가능성은 능력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에 근거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매력적인 이념으로 기능하며 우리에게 능력주의를 벗어나서 사고하기 어렵게 한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사람들은 현재 자신

의 위치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능력주의를 조직 운영 원칙으로 내세우는 기업일수록 역설적으로 인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에 의거한 결정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사람들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본인의 평가가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믿으며 그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듯 능력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견고하고 대중적인 믿음은 능력주의를 자기 배반의 이념으로 만들었다. 신분제를 타파하는 혁명으로 세워진 미국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현대판 세습 사회가 되었으나 이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당연시된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자연스러운 형태는 평등이 아니라, 경쟁과 차등적 대우가 되었다.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승자만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 체제는 절대다수의 패자를 이등 시민으로 낙인찍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모욕마저도 온전히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모욕 사회로 만들고 있다.

3-1. 능력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가)와 (나) 각각의 입장과 그 근거를 쓰시오. (150자 이내) [20점]

3-2. 흔히 임금 격차는 능력주의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의 입장에서 <보기>의 ㉔를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한 경제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A국 상위 350개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동일 산업 노동자의 평균 연봉에 비해 1965년에는 약 20배 수준이었지만 90년대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무려 400배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A국에서는 ㉔ 기업 최고경영자 연봉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3-3. <보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공적 공간에 진출해서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획득한다고 해도 노동에 있어서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증명되어 왔다. 즉, 성별분업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사적 공간에서의 돌봄 노동은 여전히 무임금으로 수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 역시 저임금 직종으로 유지되고 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을지 말지의 선택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 증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당신은 심판의 날에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으로 드러날 세계를 놓고 도박을 벌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동전의 앞면, 즉 신의 존재에 가진 돈을 모두 건다면, 당신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라.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즉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 당신이 진다고 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 신이 존재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가진 돈을 신에게 거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절차에 의해 당신이 유한한 손해를 입을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무한한 이득을 얻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가?

(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사악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과학의 위대한 체계로 관심을 돌려서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심 없이 피땀 흘려 기울인 노력이 그 토대에 놓여 있는 것을 상기해 보면,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감상주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경멸스러운가? 개인의 위안과 기쁨을 위해서 증명되지 않고 도전받지 않은 진술들에 믿음을 부여할 때, 믿음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 외에 다른 요소에 기반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이지 않다.

(다) 진리를 믿어야 하고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적 의무이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의 명령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아니고 두 가지 별개의 의무이다. 진리의 추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오류를 피하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류를 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진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어떤 물음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해야 한다는 태도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떤 문제의 본성상 증거를 획득하기 힘든 경우에, 오류를 피하려는 태도를 고수하면 이 문제에 관한 진리를 획득할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게 된다. 어떤 믿음을 갖는지가 자신에게 긴급하고 중대한 함축을 갖는 문제일 경우, 또 증거가 한쪽 믿음을 확실하게 결정해주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이익이나 감정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 선택을 결정하는 정당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종교적 문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와 진리를 믿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한쪽 믿음을 갖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 진정한 의미의 관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4-1. <보기>가 (가)의 논증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되도록 ㉠와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0점]

— <보기> —

(가)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과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령,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신이 아니라 '질투의 악령'이 존재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 손해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질투의 악령이 존재할 확률이 ㉡고 가정하지 않는 한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반드시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4-2. (다)에 따르면, (나)는 자신이 주장한 합리적 믿음의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3. (다)의 관점에서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 <보기> —

- 신을 믿는 것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합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증거와 상관없이 믿음을 갖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던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신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합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을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에, 걸인 하나가 나에게 모자를 내밀었다. (중략)

㉠ 나는 지체 없이 내 눈앞의 거지에게 덤벼들었다. 단 한 번의 주먹질로 그의 눈을 들이박았더니, 그게 한순간에 공처럼 부풀었다. 그의 이빨 두 개를 부러뜨리느라고 내 손톱 하나가 깨졌는데, 나는 태생이 연약하고 주먹질 연습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늙은이를 당장에 때려눕힐 만큼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던지라, 한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목살을 움켜쥐어, 그의 머리를 벽에다 세차게 부딪치기 시작했다. (중략)

오, 기적이며! 오, 제 이론의 탁월함을 확인하는 철학자의 기쁨이여! 갑자기 나는 저 해묵은 해골이 몸을 뒤집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으며, 그토록 형편없이 망가진 기계 속에 들어 있으리라곤 상상할 수도 없던 정력으로, 그리고 나에게 좋은 전조라고 여겨지는 증오의 시선을 들고, 이 늙어빠진 불한당은 나에게 덤벼들어 내 두 눈을 멍들게 하고, 내 이빨 네 개를 부러뜨리고, 나뭇가지로 나를 훑가루가 되도록 후려팠다. 내 막강한 치료술로, 나는 그에게 이렇듯 금지와 생명을 되돌려준 것이다. (중략)

“여보시오. 당신은 나와 평등한 인간이요! 부디 나에게 내 돈지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주시고, 또한 당신이 정말로 박애주의자라면, 당신의 동업자들이 당신에게 적선을 바랄 때, 내가 당신의 등 위에서 그토록 힘들어 시도했던 이론을 그들 모두에게 적용할 것을 잊지 마시오.”

그는 자기가 내 이론을 이해했으며, 내 권고를 따르겠노라고 나에게 확실히 맹세하였다.

- 보들레르, <가난뱅이들을 때려눕히자!> 중에서

(나)

길을 걷고 있었다.... 노쇠한 거지가 나를 멈춰세웠다. 눈물 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헤진 누더기 옷, 더러운 상처.... 아, 가난은 어쩌면 이다지도 처참히 이 불행한 인간을 잡아먹었던 것일까!

그는 빨갭게 부푼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듯 적선을 부탁한다.

나는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없다, 시계도 없다, 손수건마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거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내민 그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나는 힘없이 떨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 덥석 움켜잡았다....

“용서하시오, 형제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려.”

거지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파리한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대로 나의 싸늘한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습니다, 형제여.”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 역시 적선이니깐요.”

나는 깨달았다. 나도 이 형제로부터 적선을 받았다는 것을.

- 투르게네프, <거지>

(다)

나는 고개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쇠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털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 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질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 윤동주, <투르게네프의 언덕>

*통조림통의 일본말

5-1. (가)의 화자가 ㉠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5-2. (나)에서 ㉡은 화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 이와 대조적인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화자의 행동을 찾아 쓰시오. (30자 이내) [10점]

5-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에서 거지를 대하는 화자들의 태도를 비교하고 두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흔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욕구와 도울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한계를 이해하는 대신에 우리만의 판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 또한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동정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만 중요한 서로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우리와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감각 능력을 갖고 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들의 유사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고려하기를 요구한다. 인종주의자는 자기 인종과 다른 인종 사이에 이익 충돌이 있을 때 자기 인종의 이익을 더 중시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 마찬가지로 종족주의자는 자기 종족과 다른 종족 사이에 이익 충돌이 발생할 때 자기 종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인간 종족주의자들은 소나 돼지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처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동물의 고기가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일 때 더욱 그렇다. 이누이트 부족민들은 동물을 죽여 음식으로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육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식단을 옹호할 수 없다. 산업화된 사회의 사람들은 동물의 고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적합한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육식이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육식은 열량을 섭취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도 아니다. 우리가 곡물을 동물에게 먹일 때 단지 열량의 10%만이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고기로 전환된다. 동물 고기는 단지 그 맛 때문에 좋아하는 일종의 사치품이다. 특히 공장식 농장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사육 과정에서 커다란 고통을 당한다. 좁은 사육장에서 길러지며, 거세, 어미와 새끼의 분리, 낙인, 수송, 도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는 동물도 고통을 받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유류, 조류와 같은 척추동물의 신경 체계는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굴, 조개와 같은 연체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은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경우에 자극 반응 연구를 통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식물의 경우에는 고통을 느낀다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나) 어떤 동물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우리에게 강한 도덕적 의무를 부여한다. 소나 돼지를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때 근본적으로 그러된 것은 소나 돼지를 사육하고 도살하여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동물들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즉 동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태도이다.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한 존재에는 포유동물이 포함된다. 조류나 연체류와는 달리 중추신경계가 매우 발달한 포유동물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일련의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그 동물들은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욕구를 갖고 있고 자신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그 가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 존재에는 도덕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도덕적 무능력자도 포함된다. 도덕적 행위자는 자율적 존재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능력이 있는 성인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유아나 포유동물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서 그러한 의무를 이해하거나 자율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들은 도덕적 무능력자이기에 의무를 갖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

6-1. (가)와 (나)는 모두 육식을 반대하지만 그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다.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㉔에 대한 비판을 (가)와 (나)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1가지씩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보기>

벤저민 프랭클린은 ㉔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때 채식주의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생선의 배를 갈랐을 때, 그 생선 속에 더 작은 생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서로 잡아먹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한 후부터 동물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6-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0점]

- <보기>
- ① (가) 주장을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형태의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주의를 해야 하는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 ② (가) 논리를 따른다면 자연의 생존 과정에서 동물의 권리와 식물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③ (나) 주장을 따른다면 조류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 ④ (나) 입장은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간주함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 ⑤ (나) 논리를 따른다면 자연에서 포유동물이 연체동물을 잡아먹을 경우에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⑥ (나) 주장은 (가) 주장에 비해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2021학년도 논술(AAT) 고사(인문계열)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인문계열 1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겹받침 사용을 자제한다’,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간다’. (각 5점)• 일부 내용만 기술할 경우에 한 항목 당 5점씩 감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언어적 표현’만 들어가면 5점.•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만 들어가면 5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방향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 모두 있는 경우 20점, 한 가지만 있는 경우 각 10점 -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10점 인정.	20

2. 예시 답안

<정답 예시>

1-1.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겹받침 사용을 자제하고,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간다.

1-2.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한다.

1-3.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

인문계열 2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기후라는 제3의 원인이 재산권과 소득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 자연환경 등 기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도 정답인정 기후, 재산권, 소득수준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제3의 요인”, “공통의 원인”이라는 단 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였으면 정답으로 인정 표현과 단어 선택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20
2-2	*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1. 특권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2. 약속 이행을 강제할 3. 독립적 제3자가 없다 * 요소 중 한 가지가 빠지면 5점, 두 가지가 빠지면 10점 감점. * 표현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20
2-3	(a) 10점 (b) 10점	20

2. 예시 답안

2-1.

기후가 재산권 보호와 소득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쳤기

2-2.

거래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 이행을 강제할 독립적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저개발국의 경우 특권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2-3.

(20) < ⊕ < (40)

인문계열 3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능력주의와 평등한 사회와의 관계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서술하였는지를 평가함.</p> <p>▶ (가), (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채점 (각각 10점씩)</p> <p>-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p>	20
3-2	<p>(가)에 서술되어 있는 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분배에서는 기여와 보상의 비례성이 중요하다. 이를 <보기>의 최고 경영자 연봉 문제에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평가함.</p> <p>▶ 최고경영자가 기여(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상(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여(능력)과 보상(연봉)의 대비를 통해 서술하였으면 20점</p> <p>▶ 예시 답안에 괄호 부분 (기여와 보상의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분은 생략 가능</p> <p>-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 경우 감점.</p>	20
3-3	<p>(나)에서의 능력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기>의 현상을 해석하는 데 적절히 적용시켰는가를 평가함.</p> <p>-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 경우 감점.</p>	20

2. 예시 답안

3-1.

(가)는 능력주의가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본다. 반면 (나)는 능력주의가 능력의 규정과 평가가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은폐하고 우리 사회에서 평등보다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고 본다.

(가)는 능력주의가 소수자 사회운동에 활용되면서 평등을 증진시켰다고 본다. 반면 (나)는 능력주의가 불평등한 사회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경쟁과 차등적 대우를 당연시하게 만들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3-2.

(기여와 보상의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그 기여에 비해 보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3-3.

((나)의 관점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력을 덜 가진 사회에서 능력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남성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적 일로 규정된 노동이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4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보기>에 제시된 반론을 정확히 이해하여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의 경우 '무한한' 또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썼을 경우 10점을 부여함. - 이외의 답('큰', '막대한' 등 포함)은 모두 0점 처리함. - b의 경우: '0이라', '없다', 또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썼을 경우 10점 부여. - 그 외의 답은 0점 처리함.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비판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와 그 논거를 제대로 제시했느냐에 따라 채점. - “증거 외의 다른 요소에 기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 자체는 증거에 기반하기 보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증거 외적인 요소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 20점. -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두려움”, “감정”을 쓴 경우에도 20점 부여. - (나)의 주장이 증거 외의 요소에 기반한다는 것은 제대로 지적했으나, 어떤 요소인지(두려움, 또는 감정) 지적하지 않으면 15점 부여.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 	20
4-3	<p>‘진정한 의미의 관용’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보기>의 태도가 어떤 점에서 이와 다른지를 파악했느냐에 따라 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의미의 관용’이 어떤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모두를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해당하는 반면, <보기>의 두 입장은 한 쪽 입장만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런 의미의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 20점. - ‘진정한 의미의 관용’의 의미를 파악했으나, <보기>의 태도가 이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10점. - <보기>의 태도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했으나, 이를 ‘진정한 의미의 관용’으로 파악한 경우 5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20

2. 예시 답안

4-1. a: 무한한, b: 0이라

4-2. (나)는 증거 외에 다른 요소에 기반한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 자체는 증거 외적인 요소, 즉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한다는 것이 (다)의 주장이다.

4-2. (다)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용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는 자신의 믿음만이 합리적이고 다른 쪽 믿음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가정한 채, 그것을 용인하는 태도이다.

인문계열 5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거지 역시 화자와 동등한 인간임을 깨달도록 의도된 행위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20점 (가)의 제시문 상에서도 “금지과 생명”, “평등한 인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는 경우 감점. -2.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감점. -3~-5점.	20
5-2	“만지작만지작” 혹은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모두 10점. 이외의 다른 답은 0점.	10
5-3	(가)의 화자가 거지를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7점 (다)의 화자가 거지를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7점 (가)와 (다)화자들의 거지를 대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없으면, -6점. 문장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 -5점 이내. 핵심어나 도식으로만 작성하면 -5점.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감점. -3~-5점.	20

2. 예시 답안

5-1.

거지의 금지와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함이다.

거지 역시 화자와 평등한 인간임을 깨달도록 하려는 것이다.

5-2.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다.

만지작만지작

5-3.

(가)의 화자는 거지를 가르치고 통제하려 하는 반면, (다)의 화자는 거지를 동정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려한다. 두 화자 모두 거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가)는 거지를 깨우쳐줘야 할 대상으로 보고, (다)는 동정의 대상으로 본다. 모두 상대방의 개별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거지를 대하고 있다.

인문계열 6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가)와 (나)의 육식 반대 이유와 관련하여 그 핵심적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가)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보며 (나)는 동물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본다.</p> <p>- (가), (나)의 이유 각각 <u>10점씩</u> 부여함.</p> <p>-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2	<p>▶ ㉔ 주장에 대한 비판을 (가), (나)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1가지씩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됨.</p> <p>답안: 동물의 육식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인간의 육식은 사치이다. 그리고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없지만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본받아 육식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p> <p>- (가), (나) 각각의 내용에 의거한 비판 각각에 <u>10점씩</u> 부여함.</p> <p>-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3	<p>▶ <보기>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모두 선택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①, ②, ③, ④</p> <p>- 옳은 선택지 한 개 당 <u>5점씩</u> 부여하고, 틀린 선택지 한 개 당 <u>5점씩</u> 감점함.</p>	20

2. 예시 답안

6-1. (가)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보며 (나)는 동물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본다.

6-2. 동물의 육식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인간의 육식은 사치이다. 그리고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없지만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본받아 육식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6-3. ①, ②, ③, ④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r> </table>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3.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4.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5.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술의 주체를 높여서 표현하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라 한다.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에서 집에 오신 행위를 한 주체인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격 조사로 ‘이/가’ 대신 ‘께서’를 쓰고 서술어의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여 표현하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 한다. “영수는 할머니께 진지를 차려 드렸다.”에서 ‘할머니’는 영수가 진지를 차려 드린 대상이므로 문법적으로 객체가 된다. 이 문장에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밥’ 대신 ‘진지’를,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객체 높임법은 대개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조사 ‘에게’ 대신 ‘께’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을 상대 높임법이라 한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에 대한 높이거나 낮춤의 정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학교에 갑니다.”는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고, “집에 빨리 가라.”는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방을 낮추고 있다.

대화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가 지나쳐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 과도한 높임 표현은 특히 고객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요구하는 업종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신상품이세요.”나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때 ㉡ 각 문장의 주체인 ‘제품’이나 ‘음식’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제품은 신상품입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나)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적 통합 체계로 보고, 사회를 이루는 사회 제도나 집단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인도 사회 질서를 위하여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 기능론에서는 구성원 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한 가치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한다. 또 사회문제나 갈등은 각 구성 요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기능론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면 사회는 다시 안정을 이룬다고 본다.

갈등론은 한 사회에서 희소가치를 많이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론은 한 사회의 재화, 권력과 같은 희소가치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의 안정과 유지의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을 통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라는 것이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대하여 피지배 집단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 현상을 보는 관점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회는 일상생활을 하는 개인들이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여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곳이다. 상징은 사물이나 인간의 동작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몸짓이나 기호, 언어, 문자, 옷차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농담을 이해하고 웃거나, 교통 신호를 어긴 사람이 경찰관을 보고 놀라는 것은 언어나 옷과 같은 상징을 공유하기에 가능하다.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 상황 정의를 통해 행동한다고 본다.

1-1. 아래의 <보기>는 (가)에서 제시된 ㉠의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가)에서 찾으시오. [20점]

— <보기> —

“이 제품은 신상품이세요.”와 같은 문장은 높임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물을 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법적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화자가 실제로 높이려는 대상은 ‘음식’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청자(듣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사용자들이 문법을 파괴하거나 무시했다기보다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선어말 어미 ‘-(으)시-’의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용법을 창출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기능이 (㉣) 높임법에서 (㉤) 높임법으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1-2. (나)에서 제시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는 관점들 가운데에 기능론을 바탕으로 ㉡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20점]

1-3. (나)를 참고하여 ㉢을 개인 간에 상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특정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에 따른 결과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상황을 <보기>에서 찾아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입장을 구별하여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언어의 변화 과정이며, 더 공손하게 들리는 표현이 나뉘는 건 없다는 긍정론도 없지 않지만 엉터리 존댓말로 덧칠된 사물존칭 현상이 고유한 우리 문법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쨌든 서비스 업계 직원들은 사물존칭이 잘못된 표현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런 표현을 써야 격식 있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란단다. 만에 하나 직원이 공손하지 않다면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가뜰이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원 입장에서 표현 문제로 자칫 고객의 심기를 거스를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제도는 국가마다 다른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차이가 발전된 제도와 뒤떨어진 제도의 차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은 뒤쳐진 국가들은 앞선 국가의 경제제도를 모방하는 정책을 써야 하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경제제도의 차이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분히 성숙한 경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자금조달, 직업훈련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성숙한 시장경제는 제도의 차이와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기업들이 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등 시장에 공개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윤 변화에 민감하다. 자유시장경제 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단기적 이윤에 연계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은 최고경영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이윤이 떨어질 경우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반대로 투자 기회가 있을 경우 신규 채용에도 부담이 적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과 신규 창업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노동자의 재배치, 해고와 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윤율이 낮은 산업에서 실직과 퇴직이 많으나 이윤율이 높은 산업으로 금융자원이 신속히 이동하여 신규 채용하므로 실업률은 낮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는 주식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고 자금 조달은 기업들끼리 서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한다.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주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깊숙한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고,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노동조합과 최고경영자가 합의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직업안정성은 높으나 노조와의 갈등이 신규 채용에는 부담이 되어 실업자가 신속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투자자도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고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 네트워크 내에서 장기적인 평판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은 드물다.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하여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산업·기업 간 임금격차가 작기 때문에 이직이 적고 노동자들의 학습 의욕 또한 높은 편이다.

각국의 제도가 하나로 수렴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것은 제도적 상호보완성 때문이다. 어떤 두 제도가 서로를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줄 때 두 제도 사이에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 덕분에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 반대로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원이 신속히 이동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함에

도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금융시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봤지만 실제로는 복지제도, 교육·훈련 제도, 정부의 시장정책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개선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제도들의 집합으로서 두 가지 유형의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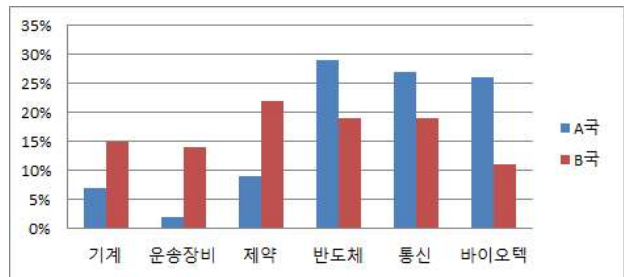
2-1. 조정시장경제에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시오. (120자 이내) [30점]

2-2. [그림]의 A국과 B국은 서로 다른 유형의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A국과 B국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60자 이내) [30점]

<보기>

숨페터는 혁신이란 기존의 지식을 재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존의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계속해서 대체되는데 이러한 “창조적 파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후일 숨페터는 정반대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거대한 연구·훈련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누적적인 기업 내 지식 축적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번 앞서나간 기업은 계속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따라서 숨페터는 시장의 독점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후세 경제학자들은 숨페터의 두 가지 혁신 중 한 가지가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자가 중요한 산업을 숨페터 마크 I 산업이라고 부르며 반도체, 통신, 바이오텍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가 중요한 산업을 숨페터 마크 II 산업이라고 부르며 기계, 운송장비, 제약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분야별 특허 비율



A국: _____

B국: _____

이유: _____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은 모두 각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나는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종이를 보고 있다. 내가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 이 머리는 잠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의도적으로 손을 뺀어 보고, 또 느끼고 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런 것은 이처럼 판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속은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 줄 어떤 징표(徽標)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이런 놀라움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빠져 들게 된다.

- 데카르트, <성찰> 중

(나) 우리의 전 생애가 꿈이며, 그 꿈속에서 나타난 모든 대상들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에 대한 지식이 확실성을 결여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가정은 우리의 상식적인 가정, 즉 우리의 감각을 유발시키는 대상들이 우리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마리의 고양이가 어느 한 시점에 방 한구석에 나타났다가 다른 시점에 다른 구석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양이는 한 장소에서 중간 위치의 장소를 지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그러나 만약 고양이가 단순히 감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면, 내가 고양이를 보지 못한 장소에는 고양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셈이 된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보지 못한 동안에는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장소에 갑자기 불쑥 나타났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같은 증거를 설명하는 두 가정이 있을 때, 보다 더 자연스럽고 단순한 가정이 선호된다는 원리에 따라, 우리의 상식적 가정을 믿을 좋은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 데카르트의 '꿈의 논증'은 현대에 '시뮬레이션 논증'으로 진화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어떤 시대의 역사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고 또 빈번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오늘날처럼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닐 것이다. 엄청난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로 인해, 미래의 시뮬레이션은 극단적으로 세밀해서, 모든 건물, 지리적 지형, 개인들조차도 시뮬레이션 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개인들은 살아 있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능력, 복잡성, 지능, 심지어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가짜 세계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사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시뮬레이션 된 사람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 계산은 간단하다. 2020년에 대략 60억 명의 생물학적 인류가 존재한다고 하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2020년도를 시뮬레이션 한, 거의 수조 명의 소프트웨어 인류가 살게 될 것이다. 이들 모두는 현재의 우리들처럼 자신들이 생물학적인 인류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대다수의 이들 개인들은 사실 진짜는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물학적 존재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3-1. 내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서, 나는 실제로 내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 (나), (다)가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쓰시오. (각 30자 이내) [20점]

3-2.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기억에 기반한다. 그러나 기억이 과거에 대한 "징표"라는 견해에 대해서 <보기>와 같은 반론이 있다. (나)의 논리를 적용하여 이를 비판하시오. (140자 이내) [20점]

<보기>

세계가 5분 전에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 같은 기억들을 그대로 가진 채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징표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3-3. ㉠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을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5자 이내) [10점]

내가 시뮬레이션 된 사람일 확률
= $\frac{\text{㉠}}{\text{시뮬레이션 된 사람의 수} + \text{실제 생물학적 사람의 수}}$

㉡: _____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작품은 인간의 계몽이나 도덕적 고양과 같은 다른 목적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도 옳지 않은가. 미적인 대상에 사회적 유용성의 기준을 들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술과 윤리는 서로 다른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가치의 영역이며 윤리적 기준이 미적 영역에 적용될 수 없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도덕적인 작품, 혹은 비도덕적 작품이라는 것은 없다. 잘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와 성직자의 일이지, 예술가의 목표는 아니다. 예술가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것을 생기 있게 하고, 모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길 뿐이다. 요컨대 예술가는 선과 악,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 예술의 목적을 예술 바깥에서 찾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목적은 예술 창작과 감상을 변질시킬 수 있다.

(나) 예술의 가치는 미적 가치 외에도 공공성 구현에 있다. 공공성의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이다. 예술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가치규범을 내재해야 한다. 물론 창의적 예술의 발전을 위해 표현·창작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 나오게 된 예술이라면 사회 내 대다수 구성원이 따르는 가치체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물론 가치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규범을 정면으로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해야 한다. 자신 이외의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예술은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의 효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의 존재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당장의 가치만 따져서는 곤란하며 먼 장래에 기대되는 효용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는 불분명하며,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평가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할 때, 그리고 어떤 의견이 최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할 때, 최종 결정은 보통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예술에 대한 평가 역시 마땅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예술은 개념적 사고와 이성적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한다. 사람은 계몽주의적 지식에 감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 작품을 통한 감동으로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종종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은 인간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내고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선을 제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윤리적 전환의 계기, 새로운 시민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기능적이고 산업적인 접근법을 통해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술의 사회적 기여는 비가

시적이고, 물리적이기보다 화학적이며, 그 사회의 체질을 형성하면서 발현된다.

현대 문화행정은 과거 엘리트 중심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예술을 민주화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예술은 다수의 선호를 대변하는 것으로 종종 단순화된다. ‘국민수요’, ‘국민체감’과 같은 행정 조어들이 예술의 영역까지 비집고 들어왔다. 국민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공공재원을 투여한 사업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예술의 민주화도 실현된다는 논리가 완성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술 향유자는 소비자와 동일시되고 향유자의 당장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행정의 목표가 된다. 국민의 기호는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나 평균적이고 안전한 미적 취향으로 박제되고, 기존의 사고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계기로서의 예술은 부정된다.

유럽에서는 절대주의 정치 체제에 맞서 시민세력이 부상하면서 예술이 근대사회의 공론장을 주도했다. 독자나 관람객과 같은 예술의 향유자는 공중이라고 불렸다.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이러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즉 서로 다른 개인들이 예술을 매개로 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 삶의 문제들을 성찰케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술이 가진 힘이다.

4-1. (가),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보기>의 ㉠에 대해 평가하시오. (220자 이내) [30점]

<보기>

A시가 주최하고 지원하는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예술’을 주제로 한 전시가 예정 중이다. 전시 담당 큐레이터에 의해 전시에 참여할 작가들과 작품들이 모두 선정되어 전시 준비가 진행되던 중, 프로젝트 주관을 맡은 미술협회와 전시감독은 ㉠ 선정된 몇몇 작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작품을 변경 혹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A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해당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비판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전시되면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시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논리였다. 해당 작가들은 이를 사전 검열로 규정하고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작가들과 연대하여 전시 참여를 거부하였다.

4-2. (다)의 관점에서 ㉠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160자 이내) [3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전…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괜찮으니 앉으시다. 공연이나 계속 보시지요.”

체르바코프는 어쩔 줄 몰라 어색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보긴 보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온통 불안할 뿐이었다. 막간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즈잘로프에게 다가가서, 그의 주위를 잠시 맴돌다가, 아주 조심하게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말했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장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 그런…”

“아,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중략]

다음 날 그는 또 해명하려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어제 찾아뵈었던 건, 장관님” 장관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을 때 그는 조심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전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놀리다니요,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놀린다는 건 단지,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을 때나…”

“당장 나가!” 격노한 장관이 몸을 떨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체르바코프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장 나가!!” 장관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다.

체르바코프의 뺨속에서 땀이 끓어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는 뒷걸음쳐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었다…. 기계적으로 집에 도착해 제복도 벗지 않고 그는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어렵게 장만한 외투를 도둑맞은 하급관리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절차만 복잡할 뿐 결국 찾지도 못할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대신 유력 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오?” 그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각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때 그는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각하께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하는 것은 사실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뿔이 어찌고 어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가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이미 오십 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일흔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자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자네는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자네 앞에 누가 있는지 이해는 하는가?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만일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되었으며 결눈질로 사무실에 와있던 자신의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뒷부분의 줄거리: 호된 질책으로 고통받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추운 거리를 헤매다 결국 후두염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 죽고 만다. 이후 시내에서는 외투를 뺏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돈다.]

(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하급관리들은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자동인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독자들의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 하급관리들은 ㉠ 외계적 질서의 포로가 되거나 혹은 ㉡ 스스로 위계적 원리를 체현한다. 전자는 자의식을 잃고 위계적 질서에 공포감을 느끼면서 주위의 일상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하는 관료사회의 희생자이다. 이러한 부류의 관리는 문학 작품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된다. 반면 후자는 자기 비하와 굴종을 받아들여 인간적 가치와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관료사회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 나아가 자신은 이 관료제 안에서 승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물은 작품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비웃음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5-1. 하급관리인 (가)와 (나)의 주인공이 불안해하는 공통된 이유를 관료제의 한 특성을 밝힌 <보기>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보기>

관료제 안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둔다. 따라서 그는 모든 타인과 똑같아지고, 타인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똑같아진다. ‘나’와 외부 세계의 차이는 사라지고, 주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자동인형과 똑같기 때문에 관료제 안에서는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일 관료인 그가 관료제의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관료로서의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5-2. ㉠과 ㉡에 해당하는 하급관리는 누구인지 (가)와 (나)에서 찾고,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유를 (다)의 구별법에 따라 각각 서술하시오. (180자 이내) [3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에는 '자유주의적 사회'와 '적정 수준의 사회'가 포함되는데 그러한 사회는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도 않는다. 적정 수준의 사회는 자유주의적 사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정 수준의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고통받는 사회'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여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회인데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지는 않다. 이런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무법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도 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인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체제를 확립하여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 때까지만 부과된다. 만약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사회 제도가 개선된다면 더 이상 그 사회에 원조를 해야 할 의무는 없게 된다. 원조의 의무에는 일정한 차단점이 있는 것이다. 기근의 문제는 대체로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가난한 국가라도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보장된다면 빈곤으로 인한 고통은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각 사회에서 요구되는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준화할 필요도 없다. 풍족하지 않더라도 일을 적게 하고 여유롭게 사는 삶을 선호하는 사회도 있고, 힘들지만 일도 많이 하고 저축도 많이 해서 풍요롭게 사는 삶을 선호하는 사회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방식의 차이를 굳이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가난한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나)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란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이며 이때 좋은 결과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더 좋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빈곤으로 인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경우에 그들이 입는 손실은 별로 크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크다. 기부금은 부자에게 작은 돈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할 때 그 범위에는 자기 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자국민을 넘어 인류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쾌락의 총량은 증가시키고 고통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된다. 기아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그들을 폭력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동거나 의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모두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음으로써 고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거나 나와 인종, 국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적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원조에서 국가의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에 나서야 한다.

6-1. 해외 원조에 대한 제시문 (가), (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보기>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에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소속 국가 등은 우연인데 그러한 우연적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우연적인 여건을 모른다고 가정할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분배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 자신의 여건이 가장 불리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여 그러한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분배 원칙이다.

6-3.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지구상에서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은 기부만으로는 세계 전체의 커다란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것은 마치 '대양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부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2021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1-1.

a. 주체, b. 상대

1-2.

예1) 과도한 높임 표현을 교정하는 것은 구성 요소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여 안정을 이루는 일에 해당된다.

예2) 과도한 높임 표현은 규범을 어긴 행위로서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1-3.

화자인 직원은 고객들이 공손하지 않다며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청자인 고객들은 과도한 높임법을 예의와 격식 있는 대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정답을 정확히 기술해야 함. - ㉠와 ㉡에 각각 10점씩 배점 - ‘주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 등과 같이 문제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면 각 5점씩 감점 - 정답 이외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기술이 추가되면 5점 감점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론에서 가치나 규범의 혼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 구성 요소의 기능 회복을 제시한 점을 높임법에 적용시켜 서술해야 함. - 높임법의 오류를 사회질서 파괴의 원인으로 서술할 경우 0점 - 높임법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동일시 한 경우 0점 - 사회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기능론의 특성만 기술할 경우 10점 - 높임법과 사회 규범의 유사성만을 기술할 경우 10점 - 높임법의 오류와 사회적 문제나 갈등의 유사성만 기술할 경우 10점 - 전반적으로 예시 답안이나 부분 답안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각 서술의 명확성이나 논리 구조가 허술한 경우 5점 감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인 직원과 청자인 고객의 입장이 분명히 구분이 되며 사물존칭을 사용하게 되는 각각의 원인을 정확히 서술해야 함. - 청자와 화자의 입장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0점 - 청자나 화자의 입장 가운데에 하나만 정확히 서술할 경우 10점 - 화자의 입장을 청자로, 청자의 입장을 화자로 서술한 경우 각 10점 감점 - 전반적으로 예시 답안이나 부분 답안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각 서술의 명확성이나 논리 구조가 허술한 경우 5점 감점 	20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강한 노동조합 덕분에 이직률이 낮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드물어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가능하다. 반대로 장기적 관점의 금융시장 덕분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

2-2.

A국: 자유시장경제

B국: 조정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는 인수합병, 노동자의 재배치, 채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에 기존 지식을 재조합해야 하는 슈퍼 마크 I 산업에 특화할 것이다. 조정시장경제는 노동자들이 장기고용되기 때문에 누적적인 기업 내 지식 축적이 중요한 슈퍼 마크 II 산업에 특화할 것이다.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제도와 금융시장제도의 상호보완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함. - 노동시장제도 덕분에 금융시장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5점 - 금융시장제도 덕분에 노동시장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5점 -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5점 감점 -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이 매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10점 감점 -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각 0점 - 전반적으로 두 방향 상호보완성을 설명하였으나 표현 등이 부족한 경우 5점 감점 	3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국과 B국의 제도형태를 제대로 적고, 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술의 특징을 제대로 연결시켜 서술해야 함. - A국과 B국의 제도형태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0점 - A국과 B국의 제도형태를 제대로 적었으나 그 이유를 적지 않거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경우 0점 - 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술의 특징을 제대로 연결시켜 서술한 경우 각 15점. - 경제체제의 특징이나 기술의 특징만 서술하거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5-10점 감점. - 전반적으로 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술의 특징을 연결시켜 서술하였으나 예시답안과 같이 명확하게 각 기술에 맞는 특징을 열거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30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확실성을 결여한 믿음이다.

(나) 확실성은 없지만 그것을 믿을 좋은 근거가 있다.

(다) 내 앞에 실제 종이가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또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믿음이다.)

3-2.

내가 기억하는 대로 과거가 존재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세계가 5분 전에 지금 가진 기억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가정보다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따라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과거가 존재했다고 볼 좋은 근거가 있다.

3-3.

시물레이션 된 사람의 수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 (가), (나), (다)에 제시된 견해가,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에 어떤 함축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p>- 내 앞의 종이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합당한 근거를 갖는지에 대한 각 견해의 함축을 정확히 파악하고 쓴 경우. (20점)</p> <p>- 세 견해의 함축 중 일부만을 정확히 적은 경우 (각 6점)</p> <p>- “내 앞의 종이는 있다(없다)”, 또는 “내 앞의 종이가 있다고 믿을 것이다” 등과 같이, 믿음이 합당한(올바른, 적절한) 근거(이유)를 갖는지에 대한 언급을 누락한 경우. (각 4점)</p> <p>- 그 외의 경우 (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3-2	<p>▶ (나)에서 제시된 논리를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p>- (나)에서 감각에 기반한 물리적 대상에 대한 지식에 적용한 논리(상식적 가정의 “단순성”이나 “자연스러움”에 호소하는 논리)를, <보기>의 기억에 기반한 과거에 대한 지식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적은 경우 (20점)</p> <p>- (나)의 논리를 제대로 적용했으나, 두 대비되는 가정(즉, “세계가 5분 전에 창조되었다”는 가정과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과거가 존재했다”는 가정)을 잘못 파악한 경우 (10점)</p> <p>- (나)에 제시된 논리를 이해했으나, 그 논리를 단순히 반복하고 <보기>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 (5점)</p> <p>- 그 외의 경우 (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3-3	<p>▶ (다)에서 제시된 논리를 확률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p>- “시물레이션 된 사람의 수” 또는 “소프트웨어 인류의 수,”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사람의 수,” “스스로 생물학적 존재라 믿지만 시물레이션 된 사람의 수” 등의 경우 (10점)</p> <p>- “생물학적 인류의 수,” “생물학적 인류라고 믿는 사람의 수” 등, 그 외의 경우 (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10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4-1.

(가)는 ㉠와 같이 예술을 미적 가치 외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논리에 반대한다. (나)의 입장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오게 된 예술은 공익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공익은 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에 동의할 수 있다. (다)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에 반대할 것이다.

4-2.

예1) (다)에서 예술의 공공성은 우리 삶의 윤리적 전환이나 새로운 시민성 습득의 계기를 만드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있다. 즉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꺼내놓고 논의하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럼 현재 시점의 다수의 기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2) (다)가 주장하는 예술의 공공성은 다수결이 아닌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에 있는데 ㉠은 공공성을 단순히 다수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관과 기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가 동의하기 어렵다.

예3) (다)에서의 예술의 공공성은 ㉡이 주장하듯 단순히 다수의 현재 가치관과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 있다.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다)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여야 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가), (나), (다) 각 입장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틀렸을 경우 각 10점씩 감점 - (가), (나), (다) 각 입장에 대한 서술이 올바르더라도 ㉠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가 없을 시 5점씩 감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3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 주장의 차이를 명확하고 이해하고 (다)의 입장에서 비판하여야 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다)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공공성의 특징을 다양한 표현들로 풀어 쓸 수는 있지만 예술이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포함되면서 ㉡ 주장과 차이가 드러나야 온전하게 이해한 것으로 평가함. - 단순히 ㉡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0점. -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이자 공론장으로서의 예술을 특징을 서술하지 않고, 기능적이고 산업적인 접근법의 문제만을 서술하며 ㉡ 주장을 반박할 경우 15점 감점. - 현재로부터의 변화의 의미를 담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게 하는 것’으로 예술의 특징만을 서술한 경우, 10점 감점. - (다)에서의 공공성과 ㉡이 주장하는 공공성의 특징의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은 채, (다)에서의 주장을 요약, 정리해서 ㉡ 주장을 반박할 경우, 관련 내용 서술의 적실성에 따라 5~15점 감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30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두 주인공은 장관의 질책을 받아 관료제 안에서 자신들의 관료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존재 역시 부정될 것을 두려워하여 불안을 느낀다.

5-2.

㉠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이고 ㉡은 체르바코프이다.

체르바코프는 스스로 위계적인 원리를 체현하는 인물로 장관의 미움을 사면 관료사회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죽음에 이르렀지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관료적 위계질서의 희생자로서 장관을 두려워하고 그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위층 관리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는 하급관리의 심리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두 하급관리 모두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0점 - 관료제 안에서 자신의 지위가 위협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5점 - 관료제 밖으로 내몰리면 두 하급관리는 존재조차 위협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5점 - 강한 ‘질책’은 두 하급관리가 장관에게 실수했다는 점 혹은 관료로서 위계적 질서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하지 않으면 5점 이내의 감점 -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답안 문장의 완결성에 따라 5점 이내의 감점 	30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두 하급관리의 비참한 최후를 (다)에 따라 명확히 구별하여 서술하여야 함. - ㉠과 ㉡이 누구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면 10점 - 체르바코프는 위계적 원리를 체현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혹은 자신의 잘못을 계속 사과하는 그의 비굴한 태도 등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있으면 10점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관료제의 희생자임을 드러내는(혹은 장관의 고압적인 자세 등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있으면 10점 - 답안 문장의 완결성에 따라 3점 이내의 감점 -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이내의 감점 -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5점 이내의 감점 	30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를 주장하지만 그 목적이나 대상에 차이가 있다. (가)는 정치 체제의 개선을 위해 가난한 국가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하며, (나)는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지구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6-2.

제시문 (가)는 국제적 분배에서 우연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차등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원조를 해야 하는데 제시문 (가)는 원조에 의한 정치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적 방식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6-3.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부의 효과가 큰지 작은지가 아니라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기부로 조금이라도 빈곤을 막아서 그들의 고통을 약간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기부를 해야 한다.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원조에 대한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20점) -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비판적 주장과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한 경우(20점) - 비판적 주장과 그 근거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 - 비판적 주장과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나)의 입장과 <보기>에 대한 비판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20점) - (나)의 입장과 <보기>에 대한 비판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 - (나)의 입장과 <보기>에 대한 비판 내용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준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주체가 되고, 다른 존재들은 객체이자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로서 '나'의 이성이지 객체로서 자연이 아니다. 이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을 명백하게 별개로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이며, 주체인 인간에게 객체인 자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이는 인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심화되고 있는 생태 위기는 인간 본위의 근대적 패러다임이 인류의 생존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은 현대 문명의 여러 문제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안이 아니며, 이 문제의 기저에는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 인식론이 숨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현대 문명이 지닌 문제가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 인식론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생태학적 인식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층생태학은 탈인간중심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생태계를 바라본다. 즉, 모든 존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그러한 전체 속에서만 부분들이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에 속하는 일부로 이해한다. 결국 심층생태학이 추구하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전체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와 깊이 밀착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을 더욱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전체 생태계가 각 부분의 상호작용과 교환에 의해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생태적 자아로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발견한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을 존중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 전체 생태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나)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 이문재, <사막>

(다)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크짱 아랑곳없이
가르마 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 준다는 것도 알겠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

-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1-1. ㉠과 관련된 역설적 깨달음을 담은 시어를 (나)와 (다)에서 각각 한 단어씩 찾고, 깨달음의 공통된 내용을 (가)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5자 이내) [20점]

1-2. ㉡에 나타난 화자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가)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20점]

1-3. (다)의 제목에서 '덜 미안'하다고 한 이유 두 가지를 해당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지 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예산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생활수준에 상관없는 국가의 지원으로서 여기에는 아동수당, 노인수당,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등이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 제도의 비중과 운영 원리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A형은 평등주의를 지향해서 정부의 개입이 가장 많고, 복지 지출의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서 전 국민이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하게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비중은 작은 편인데, 이는 국민층의 처지 개선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보험과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 덕에 국민층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한편 높은 세율과 관대한 실업급여로 인해 노동의욕이 낮아서 창업이나 신규 고용을 많이 유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A형이 경제 성장에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B형은 가족 중심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를 목표로 한다. 복지 지출의 규모는 비교적 커서 재분배 효과는 큰 편인데 복지 제도 중 사회보험의 역할이 압도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이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덜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더 받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직업별 사회보험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정규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노동자 가족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고용보호가 강한 편이며 직업별 사회보험이 발달하여 중산층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낮다. 그러나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나 실업자,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극빈층이 받는 복지 혜택은 적은 편이다. 또한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업과 신규 고용을 유인하기 어렵다.

C형은 타인의 간섭과 강제로부터의 자유, 특히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 규모도 가장 작다.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극빈층만 정부의 선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다. 빈곤층 대상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반면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덜 발달되어 있다. 복지 제도가 충분치 않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취업 욕구가 강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고가 용이하고 사회보험 부담이 크지 않아 신규 고용에 적극적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창업도 활발하다. 따라서 C형이 경제 성장에 가장 유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창업과 고용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세 유형 중 가장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C형 국가가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1. 아래 [표]의 가, 나, 다 세 국가는 각각 다른 복지국가 유형을 채택하고 있고, 다른 모든 요인은 동일하다. 가, 나, 다는 제시문의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 가까운지 쓰시오.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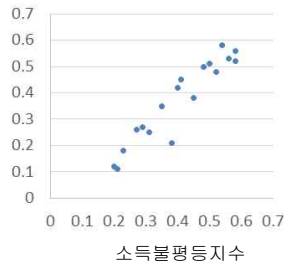
[표]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소득분위	가		나		다	
	시장소득	조정가처분소득	시장소득	조정가처분소득	시장소득	조정가처분소득
1분위	15	18	15	22	15	19
2분위	30	39	30	37	30	30
3분위	55	43	55	41	55	51

- * 소득분위: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가구 수로 상등분한 등급. 예를 들어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3에 해당함.
- * 시장소득=근로소득+자본소득.
- * 조정가처분소득=시장소득+사회보험 혜택+국가로부터 받은 소득과 서비스-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2-2. 다음은 A, B, C형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세대 간 소득상관계수의 산포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35자 이내) [20점]

세대 간 소득상관계수



- * 세대 간 소득상관계수: 부모의 40세 때 소득과 자식의 40세 때 소득의 상관관계로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
- * 소득불평등지수: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2-3. 다음 [표]와 [그림]은 가상의 18개 국가에 대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50자 이내)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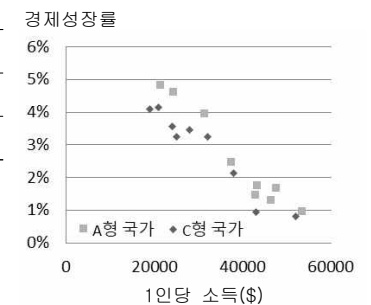
<보기>

한 학자는 아래 [표]를 보고 이 통계자료가 제시문의 ㉠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C형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은 반드시 C형 제도가 경제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을 보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 경향이 있고, (㉡) 때문이다.

[표] 평균 경제성장률

복지국가유형	평균 경제성장률
A형 국가 (9개국)	2.54%
C형 국가 (9개국)	2.85%

[그림]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애를 이해하는 모형에는 개인 모형과 사회 모형이 있다. 개인 모형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며 치료 모형 또는 개인 중심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 모형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며 사회행동 모형 또는 환경 중심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및 건강 조건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 개인 모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문제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는 개인에게 발생한 끔찍한 불행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관점은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와 재활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대개 별도의 특수 시설이나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는 비극적 처지에 놓인 개인을 돕기 위해 보상 정책과 치료적 개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장애라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 사회 모형은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성된 조건들의 복합체로 본다. 사회 모형에 따르면 장애란 장애인의 사회적 삶을 제한하는 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 교육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까지 그 모두를 포괄한다. 즉, 장애는 장애인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패 결과는 사회 내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차별을 통해 장애인 집단에게 전달된다. 사회 모형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이의 실천 역시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은 치료 받고, 개선되고, 수혜받는 무기력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일원으로 자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나) 개인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은 젠더, 인종, 장애/비장애, 계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권력 작동과 함께 분석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차별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떠올려 보자. 그녀가 경험하는 차별이 과연 그녀의 인종·민족적 차이 때문인지, 여성이라는 젠더 때문인지 뚜렷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혹은 그녀가 경험하는 차별이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해도 이주자 남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 교차성은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풀어나가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의 경험은 흑인 남성과도 다르고, 백인 여성과도 다른 고유한 특질을 지닌다. 이 경험은 흑인과 여성, 두 정체성의 총합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마치 흑인 여성이 어느 순간에는 흑인으로만 또 다른 순간에는 여성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교차성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단일한 축으로 특정 집단을 설

명하면서 부지불식간 배제해왔던 다양한 소수자들의 고유한 경험을 발견해낼 수 있다. 주변화되었던 목소리가 사회적 담론이 되고 정치적 힘을 얻게 될 때, 우리 사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1. ㉠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장이나 태도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20점]

- <보기>
- A. 노동자들은 장애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
 - B.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 버스를 도입하자.
 - C. 각 지역마다 재활원을 더 많이 설치하자.
 - D.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 E. 장애인도 스스로 노력한다면 비장애인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다.
 - F. 그 집 애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니? 성금이라도 보내자.
 - G. 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 사업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

3-2. ㉡의 입장에서 <보기>의 ㉢를 비판하시오. (160자 이내) [20점]

<보기>

“장애인보호시설을 나와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사회에 덜컥 나오면 큰일이예요. 우리 애는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오면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도 없고……. 장애인을 혼자 두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시설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우리 부모도 나이가 들어서 생계도 어렵고 몸도 아파서 아이를 돌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 탈시설 운동을 반대합니다.”

3-3. ㉢의 입장에서 ㉢을 고려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을 드러내는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인격을 가진 컴퓨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연 나의 정신을 물려받은 그 컴퓨터가 나와 동일한 인격체일까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인 '사람의 동일성' 문제와 연관된다. 이는 한 시점의 사람과 다른 시점의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기억 이론과 두뇌 이론이 있다.

(나) 기억 이론에 따르면 한 시점의 나를 다른 시점의 나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기억에 의한 연결이다. 가령 현재의 내가 과거 10세의 나와 동일한 사람인 것은 바로 10세의 내가 경험했던 바, 느꼈던 바, 행동했던 바 등을 지금의 내가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직관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기억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나는 3세 때의 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3세 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인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수정된 기억 이론은 한 시점의 사람과 다른 시점의 사람이 기억의 사슬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다면 동일한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현재의 나는 3세 때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지만, 6세 때의 나는 3세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나는 6세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나와 3세 때의 나는 기억의 사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 이론이 옳다면, 사람의 생물학적 육체가 기능을 정지한 후 그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 컴퓨터가 나의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이기 때문이다.

(다) 두뇌 이론은 사람의 동일성의 기준을 생물학적 두뇌에서 찾으려 한다. 이 견해는 기억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조명 받았다. 기억이란 일종의 데이터로서 복사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나의 기억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두 대의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두 대의 컴퓨터를 각각 A, B라 부르자. 기억 이론에 따르면 $A = A$, $A = B$ 이므로,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A = B$ 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결이다. A와 B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는, 엄연히 다른 독립적인 두 인격체일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나의 기억을 3대, 4대, 심지어는 1,000대의 컴퓨터에도 업로드할 수 있지 않은가? 기억 이론을 가정했을 경우 이런 불합리한 귀결이 따라 나오므로 기억 이론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기억이 사람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복제 문제의 교훈은 기억 자체가 아닌 기억의 매체, 즉 두뇌 역시 사람의 동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억을 가진 존재가 지속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의 생물학적 두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기능해야지만 나는 생

존할 수 있다. 나의 두뇌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변화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나의 두뇌의 일부분이 사고로 손상되거나 두뇌의 세포 일부가 다른 세포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나의 두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두뇌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바꾼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두뇌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나의 정신이 업로드되는 컴퓨터는 나의 두뇌라고 할 수 없다. 나의 두뇌가 소멸하고 컴퓨터에 나의 정신을 업로드한다면 나는 나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인격체를 남기고 죽는 것일 뿐이다.

4-1. ㉠의 입장에서 <보기>의 ㉡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철수는 어제 낮에 친구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기분이 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한 철수는 모욕을 당한 것을 잊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다음 날 철수는 경찰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철수는 모욕을 당한 기억만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므로, ㉡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2.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원격운송장치'는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D가 C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사람 C가 지구에 있는 챔버에 들어가면, C의 두뇌를 포함한 온몸을 세포 단위로 스캔하고 그 스캔된 정보를 화성으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C의 몸은 파괴된다. 화성에는 또 다른 챔버가 있어서 지구에서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유기물을 재료로 C의 복제물을 만들어낸다. 이 복제된 사람 D는 마치 자신이 방금 전에 지구를 출발해 화성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으로 챔버에서 걸어 나온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두뇌 이론을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사람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 뇌가 없어도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고로 한쪽 뇌를 잃은 사람은 원래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두뇌 이론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지만 뇌사에 이르지 않은 사람 E의 좌뇌와 우뇌를 분리하여, 심폐기능은 정상이지만 뇌사한 다른 두 사람의 두개골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식 수술 후에는 하나의 뇌를 나누어 가진 두 사람 F와 G가 살게 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주의 사막에서 트리니티 실험으로 불린 최초의 핵실험이 실행되었다. 실험 결과 예상보다 3배 이상의 위력을 보인 핵무기의 살상력에 충격을 받은 ㉠ 과학자들은 다음 날인 7월 17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송하였다. 이들의 요구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었다. 우선 최근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부터 원자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였지만 독일의 패배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원자폭탄에 의한 공격은 전쟁을 신속히 끝내기 위한 최후의 확실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태평양 지역 전황은 나쁘지 않아 보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원자폭탄의 살상력을 고려할 때 전후 일본에게 부과될 세부적인 조건들이 공개되고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했음에도 일본이 항복을 거부할 때에 한해 원자폭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이 여전히 도덕적 책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미래에 원자폭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파괴력에는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새롭게 발견된 자연의 힘을 파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례를 세우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 이들은 만약 전후에 경쟁국들이 이 새로운 파괴수단을 아무런 통제 없이 소유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국의 도시들도 절멸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은 도덕적, 물질적 자원들을 동원해 이런 상황의 도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과 도덕적 의무에 비추어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호소하였다.

(나) 미 육군은 1945년 가을에 일본 본토의 규슈 섬에 상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계획이었고, 우리는 전투가 치열하고 인명 손실이 막대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원자폭탄의 사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폭탄이 군사적 무기라고 생각했고 신속한 종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직속 고위 군사자문단도 원자폭탄의 사용을 추천했고, 처칠도 이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폭탄을 사용하면 그것을 전시국제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그 폭탄을 군사적 중요성이 큰 군수용품 생산 중심지에 최대한 가까이 투하해야 함을 의미했다. 스티븐 장관의 참모들은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일본 도시들의 목록을 준비해왔다. 이들 도시의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졌지만, 공격 승인은 폭격 당시의 날씨 상황에 맞게 될 것이었다.

- 미국 ㉡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1955) 중 일부 요약

(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망설이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냉전이 진행되던 1970~1980년대에 군비 경쟁의 실무를 담당했던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등 미국 국무부 출신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전쟁억제용 무기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 ‘전쟁억제론’이다. 경쟁국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해도 상대방이 남아 있는 핵전력으로 보복공격을 하게 되어 양쪽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전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 때, 그 경우를 ‘상호확증파괴’ 상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핵무기 사용은 전략적 선택사항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론적으로 상호확증파괴 상황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핵전쟁이 억제된다고 주장하였다.

5-1. ㉢이 ㉠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유를 (나)에서 찾고, 여기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래 연표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태평양 전쟁 연표>

- 1945. 5. 8.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 전쟁이 종결되었다.
- 1945. 6. 22. 미군이 오키나와 섬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 공격의 최전선 거점을 확보하였다.
- 1945. 7. 26. 연합국 정상들은 포츠담에서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 조건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 1945. 7. 28. 일본은 도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였다. 일본 내각은 포츠담 선언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 1945. 8. 6.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 1945. 8. 9.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하였다.

5-2. ㉢의 입장에서 ㉡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80자 이내) [10점]

5-3. <보기>의 입장에서 ㉢의 한계를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이른바 명중탄은 발사된 수많은 탄환들 중 하나일 뿐이다. 수없이 탄환이 빗맞은 후에야 우리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게 된다. 사소한 일에서는 낮은 확률의 성공을 위해 많은 실수를 용납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 파괴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종류의 불안과 위험을 산출하지만, 그 엄청난 발전 속도는 자기 수정의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낙관적 기대보다 실패가 가져올 불행의 가능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확률에 맡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 결코 내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 국가 지도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영광스러운 미래의 유혹에 빠져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최고의 선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최대의 악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나 동물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생명권의 침해, 삶의 욕구의 좌절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감각적 능력을 지닌 존재가 겪게 될 쾌락의 감소를 그 이유로 제시한다. ㉠ 공리주의는 쾌락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면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란 사회 전체 또는 세계에서 순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순쾌락이란 쾌락의 양에서 고통의 양을 뺀 것을 가리킨다. 만약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순쾌락의 총량이 양(+)의 값이면 그것은 좋은 행위이고, 음(-)의 값이면 나쁜 행위이며, 0이면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이러한 윤리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 존재가 죽지 않았다면 느끼게 될 쾌락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위가 된다.

세계에서 쾌락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즐겁게 살고 있는 존재의 삶에서 쾌락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줄어든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쾌락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존재하는 존재들의 쾌락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존재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만약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쾌락의 감소 때문에 나쁘다면, 즐거운 삶을 살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은 쾌락의 증가 때문에 좋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윤리적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체적 견해'이다. 이 견해는 순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그러한 증가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의 쾌락을 늘렸기 때문이든 즐거운 삶을 살 존재의 수를 늘렸기 때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사전 존재적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하기로 결정된 존재들의 순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존재를 만들어내어 순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6-1.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어에서 고르시오. (중복 선택 가능) [16점]

▶ 제시어: 좋은 행위, 나쁜 행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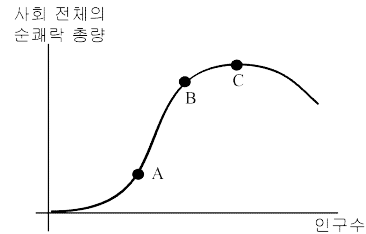
병에 걸려 쾌락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삶을 사는 물고기를 고통 없이 죽이고 대신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물고기 한 마리를 부화시켜 키우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전 존재적 견해'는 (㉠)라고 평가할 것이며, '전체적 견해'는(도) (㉡)라고 평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질병을 지니고 있지만 고통보다는 쾌락이 더 많은 삶을 사는 물고기를 고통 없이 죽이고 대신에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물고기 두 마리를 부화시켜 키우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전 존재적 견해'는 (㉢)라고 평가할 것이며, '전체적 견해'는(도) (㉣)라고 평가할 것이다. 단, 이러한 행위들이 앞에서 언급한 물고기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6-2.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어에서 고르시오. (중복 선택 가능) [24점]

▶ ㉠, ㉡, ㉢에 해당하는 제시어: 증가, 감소, 불변
 ㉣, ㉤, ㉥에 해당하는 제시어: 긍정적, 부정적, 가치중립적

<보기>

평균 공리주의는 제시문에서 설명한 공리주의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두고 공리주의와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한다. 평균 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갖게 될 순쾌락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때 평균적인 순쾌락의 양은 사회 전체의 순쾌락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아래 그림에서, A에서 B로 변화하면 순쾌락의 총량이 증가하므로 공리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순쾌락의 평균이 (㉠)하므로 평균 공리주의는(도) (㉡)으로 평가한다. B에서 C로 변화하면 순쾌락의 총량이 (㉢)하므로 공리주의는 (㉤)으로 평가하고, 순쾌락의 평균이 (㉣)하므로 평균 공리주의는(도) (㉥)으로 평가한다.



6-3. <보기>를 바탕으로 ㉦의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보기>

- A 주장: 갑수와 영호는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이다. 그런데 갑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호를 모욕하는 험담을 하고 다녔다. 영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쾌감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갑수의 그런 행위는 우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쁘다.
- B 주장: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주권자이므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020학년도 논술(AAT) 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 1-1. ① 시어 : 사이, 죽음
 ② 깨달음의 내용 :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 1-2. 잔디의 죽음을 단절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 1-3. ‘덜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언젠가는 인간도 자연을 위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시어 : 사이, 죽음(각 5점) • ② 깨달음의 내용 :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10점) 모든 존재는 유기적인 전체성을 이루고 있다. <p>-① 사이, 죽음 각각 5점, 모두 있을 경우 10점, 한 단어로 답하지 않은 경우 3점씩 감점</p> <p>-② ‘관계성’, ‘연결성’, ‘유기적’, ‘상호작용’의 의미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p> <p>- 깨달음의 공통된 의미라고 하였으므로 어느 한 작품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경우는 오답</p> <p>-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 핵심어만 쓴 경우 5점 감점</p> <p>-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3~5점)</p> <p>- ‘밀착된 관계이다’는 오답.</p>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의 죽음을 단절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 자연을 대상과 객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존재(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 <p>-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 핵심어만 쓴 경우 5점 감점</p> <p>-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3~5점)</p>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①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②언젠가는 인간도 자연을 위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p>- ①, ② 모두 있는 경우 20점, 한 가지만 있는 경우 각 10점</p> <p>- ①에서 : 잔디의 죽음(훼손)에 대한 해석이 들어 있어야 함. 단순히 ‘인간에게 길(활력, 생명력)을 내어주었고’ 등만 있는 경우는 오답 처리</p> <p>-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 핵심어만 쓴 경우 5점 감점</p> <p>-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3~5점)</p>	20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가: B형 나: A형 다: C형

2-2.

예1) 제시문은 C형이 재분배효과는 낮으나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여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림에서 소득 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가 세대 간 계층 이동도 어려우므로 제시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예2) C형이 소득 불평등도는 높으나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여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림을 보면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가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제시문의 주장은 맞다고 볼 수 없다.

2-3.

㉠ 낮아지는

㉡

예1) C형 국가들이 대체로 A형 국가보다 1인당 소득이 낮기

예2) 1인당 소득이 비슷할 때 A형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기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셋 다 맞으면 10점. 하나만 맞으면 5점. 셋 다 틀리면 0점 • A, B, C 중 하나라도 중복해서 쓰면 무조건 0점	10
2-2	1)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 10점. 2) 제시문에서 주장을 제대로 찾아 서술: 10점. • 1)과 2) 모두 제대로 서술하면 20점 부여 • 1)을 제대로 서술하였으나 2)를 잘못 서술하면 10점 부여 • 2)를 제대로 서술하였으나 1)을 잘못 서술하면 0점 부여 • 2)를 찾은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서술하지 않으면 1-5점 감점 • 전체적인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각 1-5점 감점.	20
2-3	㉠ 10점 낮아지는, 감소하는, 저조해지는 등 뜻만 통하면 10점 부여 ㉡ 20점. • 예2)에서 “1인당 소득이 비슷할 때”, “1인당 소득이 같을 때” 등이 빠지면 0점 • 예2)에서 “1인당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소득의 동일 구간에서” “1인당 소득 별” 등 이해한 것으로 보이나 표현이 애매하면 1-5점 감점 • 내용은 맞으나 괄호 안에 넣었을 때 문장이 안되면 1-2점 감점 • 전체적인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30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A, C, E, F, G

3-2. 장애를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를 잘 못 이해하는 것이다. 장애는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이므로 탈시설 후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차별적 제도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

3-3.

예1) 여성 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남성 장애인과 다를 수 있는데 그 복합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모든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사회 모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예2) 한국인 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사회 환경 개선을 고려한다면 베트남 이주민 출신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장애인이 사회 내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힘들다.

예3) 가정폭력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장애 여성이 겪는 문제와 가족의 유대가 강한 중산층 장애 여성의 경험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모형은 소외되는 사람을 만든다.

예4)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각각 가진 경우와는 다른 차별을 경험하므로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만을 별개로 고려한 사회모형은 모든 장애인의 고유한 경험을 포괄하지 못해 한계를 지닌다.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 E, F, G 5개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20점 (각 4점* 5 =20점) - A, C, E, F, G 하나당 4점 - B, D 썼을 경우 -4점 - 합계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0점 처리 	20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의 탈시설 반대 주장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실패이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서술하며 비판한 경우 20점 - 장애인 역시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이며 사회 내 격리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일원으로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는 진술만 있고, 위의 내용이 없을 경우 -10점 -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2-5점 감점.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감점. 	20
3-3	<p>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채점 (각각 10점씩 나눠서)</p> <p>1) 예시의 적절성: 반드시 장애에 기반한 예시를 들어야 함. 예시에서 장애와 다른 축의 사회적 범주가 하나 이상 교차하며 (예: 여성 장애인,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비교를 통해 (예: 남성 장애인, 남성 이주민 장애인/여성 선주민 장애인 등) 전자가 복합성, 고유성이 있다고 설명해야 함.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성의 예시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경우 0점 * 비교를 통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5점 * 지금까지 주변화되어 왔던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지 않고 교차성을 마치 서로 다른 정체성의 차이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개념인 것처럼 서술한 예시는 0점 <p>2) 앞서의 교차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사회모형이 목표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한다(주변화,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의 내용일 경우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 “모든” 혹은 “주변화, 배제” 등 * “사회 내 복잡한 여러 차별과 배제의 구조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체성의 소수자들을 포괄할 수 없다” 식의 서술도 10점 처리 * 교차성을 단지 정체성의 더하기 개념으로 이해하여 “그 중 어떤 정체성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식으로 답변했을 경우 0점 * 교차성을 고려한 사회모형을 단지 개별 장애인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맞추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술할 경우 0점 <p>-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2-5점 감점</p>	20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 4-1. 술에 취한 철수는 모욕당한 철수를 기억하고, 술에서 깨어난 철수 역시 모욕당한 철수를 기억하므로, 술에서 깨어난 철수와 술 취한 철수는 기억의 사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둘은 동일인이다.
- 4-2. D는 C의 기억을 갖고 있으므로 (나)에 따르면 D와 C는 동일인이다. D의 두뇌는 C의 두뇌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에 따르면 D와 C는 동일인이 아니다.
- 4-3. 두뇌 이론은 F와 G를 각각 E와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F=G$ 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별개의 인격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귀결이다.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수정된 기억 이론’이 기억의 사슬에 의한 간접적인 연결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파악한 것을 주어진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채점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술에 취한 철수] --> B[모욕당한 철수] A --> C[술에서 깨어난 철수]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술에 취한 철수’(또는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모욕당한 철수’ 사이의 기억에 의한 연결 및 (ii) ‘술에서 깨어난 철수’와 ‘모욕당한 철수’ 사이의 기억에 의한 연결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서 (iii)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술에서 깨어난 철수’ 사이의 간접적 연결을 추론하고 이로부터 (iv) 둘 사이의 동일성을 결론내리는 경우 20점 부여.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술에서 깨어난 철수’ 사이에 ‘기억에 의한 간접적인 연결’만 지적한 경우 10점 부여. ‘기억에 의한 간접적인 연결’은 지적했으나, 연결 고리들을 잘못 파악한 경우 5점 부여.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20
4-2	<p>‘기억 이론’과 ‘두뇌 이론’을 <보기>에 주어진 사례에 정확히 적용했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 대해서 두 사람(C와 D) 사이의 기억에 의한 연결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두 사람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점 부여. (다)에 대해서 두 사람(C와 D)이 동일한 두뇌를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또는 C의 두뇌가 파괴 되었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두 사람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점 부여.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20
4-3	<p>본문에서 소개된 ‘기억 이론’에 대한 ‘복제 문제’가,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두뇌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두뇌 이론에 따르면 원래의 사람(E)가 뇌를 나누어 가진 두 사람(F와 G)과 각각 동일함을 지적하고, (ii) 이로부터 $F=G$임을 추론하고, (iii) 이것이 불합리한 귀결임을 지적하면 20점 부여. 두뇌 이론에 따르면 $F=G$임은 바르게 추론했지만, 이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않으면 15점 부여. 자세한 설명 없이 복제 문제가 두뇌 이론에서도 발생함을 지적하면 10점 부여.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20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㉞은 신속한 종전을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는 일본이 결사항전을 결의하여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항복조건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5-2.

경쟁국들이 서로 핵무기를 소유하면 선제공격해도 자신도 핵무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5-3

핵무기 보유 같이 중대한 일에는 낙관적 기대보다 불행의 예측을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확률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p>▶ (나)의 내용을 보고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이유를 찾아내고, <태평양 전쟁 연표>에서 과학자들이 제기한 원자폭탄 투하의 요건이 해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① ㉞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히 종전하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했음을 파악한 경우 (10점) ② 1945.7.28. 일본이 본토 결사 항전을 선언해 전쟁 장기화 예상됨을 파악한 경우 (5점) ③ 1945.7.28. 일본 내각이 포츠담 선언 수용을 거부해 항복 기회를 거절한 것 파악한 경우 (5점)</p> <p>* 밑줄 친 핵심 표현이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5-2	<p>▶ (다)에 나오는 '전쟁억제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의 과학자들이 주장한 내용(㉞)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함</p> <p>① ㉞전쟁억제론의 주장: 경쟁국들이 서로 핵무기를 소유해도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5점) ② 위 주장의 근거: 선제공격을 해도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5점)</p> <p>* 위의 내용 대신 "상호확증파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쓰면 3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10
5-3	<p>▶ <보기>의 주장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㉞전쟁억제론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함</p> <p>① <보기>의 주장1: 핵무기 보유 같이 중대한 일은, 불행의 예측을 중시해야 한다 (10점) *핵무기 보유가 <보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일(혹은 파괴적 변화 가져오는 일)임을 언급해야 함. 생략시 3점 감점 ② <보기>의 주장2: ㉠ 자신과 타인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확률에 맡겨서는 안된다.(10점) * ㉠에 대체 가능한 표현: '인류의 생존에 관한 결정을', '타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안을' * ㉡에 대체 가능한 표현: '내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 '위험받을 가능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 ㉡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만 쓸 경우 5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㉔: 좋은 행위, ㉕: 좋은 행위, ㉖: 나쁜 행위, ㉗: 좋은 행위

6-2. ㉘: 증가, ㉙: 긍정적, ㉚: 증가, ㉛: 긍정적 ㉜: 감소 ㉝: 부정적

6-3.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니는데 공리주의는 쾌락만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권리)가 있는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리주의는 쾌락 이외에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㉔~㉗에 들어갈 말을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㉔: 좋은 행위 ㉕: 좋은 행위 ㉖: 나쁜 행위 ㉗: 좋은 행위</p> <p>- 해당하는 말을 기입했으면 1개당 4점씩 부여함.(총 16점)</p> <p>- 오자, 탈자, 답안 일부 기입 등은 모두 오답 처리함.</p>	16
6-2	<p>▶ ㉘~㉝에 들어갈 말을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㉘: 증가 ㉙: 긍정적 ㉚: 증가 ㉛: 긍정적 ㉜: 감소 ㉝: 부정적</p> <p>- 해당하는 말을 기입했으면 1개당 4점씩 부여함.(총 24점)</p> <p>- 오자, 탈자, 답안 일부 기입 등은 모두 오답 처리함.</p>	24
6-3	<p>▶ <보기>를 바탕으로 ㉞의 문제점 두 가지를 제대로 서술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니는데 공리주의는 쾌락만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권리)가 있는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p> <p>(공리주의는 쾌락 이외에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p> <p>- 2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서술했을 경우에 1가지당 10점씩 부여함.(총 20점)</p> <p>-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p>- <보기>와 관련되지 않은 공리주의의 일반적 문제점만을 서술한 경우에는 오답 처리함.</p> <p>* 오답 사례</p> <p>공리주의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동기를 간과하고 있다.</p> <p>공리주의는 쾌락(고통)의 총량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p>	20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이 남의 생명을 빼앗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행을 징계하겠다.” 세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빛을 띠자 처녀가 말했다. “만약 오라비가 멀리 피해 스스로 누우친다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모두 기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며 도망갔다. 처녀가 김현에게 돌아와 말했다. “처음에 낭군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짐짓 사양하고 거절했으나 이제는 숨김없이 감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낭군은 비록 유(類)는 다르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 그 의리가 부부의 정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 오빠의 악은 이제 하늘이 미워하시니 저희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려 하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날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街)에 들어가 사람을 해치면 나라 사람들로서는 저를 어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금께서 높은 벼슬로써 사람을 모집하여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낭군은 겁내지 말고 저를 따라 성의 북쪽 숲까지 오시면 제가 낭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현은 말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함은 떼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종류의 사귀는 대개 떼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정을 맺은 것은 진실로 다행한 일이외다. 그런데 어찌 차마 아내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구할 수 있겠소.” 그러자 여자는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이제 제가 죽게 됨은 하늘의 명령이며 또한 제 소원입니다. 낭군께서는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가지의 이로움이 오는데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중략)… “어젯밤 낭군이 저와 마음 깊이 정을 맺던 일을 그대로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흥륜사의 장(醬)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소리를 들으면 이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찌르자 곧 범이었다. …(중략)… 김현이 죽을 때 지난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 일을 붓으로 적어 전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이 일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전한다.

(나) ‘인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심리적 조건이다. 인정의 형태는 사랑, 권리부여, 사회적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사랑은 상대를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지닌 자연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욕구와 감정을 정서적으로 배려하는 행위이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인정될 때, 자신감이라는 긍정적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권리부여는 상대를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우하는 인지적 존중의 행위이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정당한 요구 충족을 바로 나의 의무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셋째,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상대의 능력과 업적을 공동체의 가치와 연계하여 그 존재 가치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 사회적 인정을 통해 실현되는 성공적 자아실현이 사회적 가치의 일방적 실현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가치에 대한 자아의 일방적 복종과 동일하게 된다. 즉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은 기존 사회에서 인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생활방식과 인간상에 복종하여 자신을 형성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배치되는 삶의 가능성은 포기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자기 스스로가 부합하는 존재임을 극단적으로 증명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자아실현이 개인의 창조적 자아실현으로 이해된다면 사회적 인정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창조적 자아실현이란 기존의 가치질서에서 요구하는 자아상에 대한 거부이며 기존 질서에서 인정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회적 인정을 요구와 투쟁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기존 가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변동을 가속화시키는 변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정개념이 전제하는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내용은 확장되고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개성적인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하에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1. (가)에 나타난 김현의 역할을 (나)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각 40자 이내) [30점]

인정의 형태	김현의 호녀에 대한 인정 행위
정서적 배려	정을 맺었다.
인지적 존중	㉠
사회적 존재 가치 부여	㉡

㉠: _____

㉡: _____

1-2. ㉠과 관련하여, 호녀의 죽음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나)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160자 이내) [3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쟁력은 본래 기업을 평가하는 개념이었다. 경쟁 기업들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시장 점유율과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기업을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개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면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이므로 국가경쟁력이란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오늘날 여러 단체들이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경쟁력 순위 향상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 '경쟁력'은 서로 경쟁하는 비교 대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주체여야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경우 시장 경쟁의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고 패자는 손실을 보거나 시장에서 퇴출된다. 다른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개념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국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가 아니고 해당 국가의 절대적 생산성 자체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1%이고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3%라면 이는 일본의 생활수준이 미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지 미국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활수준은 절대적 생산성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생산성 증가율의 국가 간 격차는 생활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경쟁력 개념은 무의미할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한다면 그것은 무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국가 간의 무역은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호혜적인 행위이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활동이다. 무역 상대국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피해가 될 일은 없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수입 제한이 그 수단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세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나) 무역이 호혜적인 행위라고 하여 국가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승자와 적은 이익을 얻는 패자가 나뉘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IT제품의 예를 들어보자. 두 국가가 서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에 특화하고 그 결과물을 교역하면 두 국가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 하지만 농업은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 속도가 느린 반면 IT산업은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농업에 특화한 국가는 생산성이 정체하는 반면 IT산업에 특화한 국가의 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무역을 통해 양국이 모두 혜택을 얻겠지만 어떠한 산업에 특화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이다.

(다) 국가경쟁력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 분석 범위와 분석 단위를 동일시하는 오류이다. 국가의 생활수준은 국가의 절대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의 생산성은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높아진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뿐 아니라 여러 국가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가적 차원의 요인이라 함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정치 제도, 사회 안전망, 교육 제도, 국가 R&D 투자 등을 포괄한다. 국가가 실제 경쟁하는 주체로서 분석 단위가 아니더라도, 경쟁 주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가 차원에서 존재한다면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분석 범위로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경쟁력 수준 역시 국가 별로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산업의 중요성은 '첨단산업', '성장산업' 등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술적 특성이 아니라 개별 산업에서 한 국가가 달성하고 있는 경쟁력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국가경쟁력은 의류, 신발산업 등 '전통산업'에서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나고, 독일의 경우에는 자동차, 광산기계 산업과 같은 '성숙산업'이 국민들이 누리는 높은 생활수준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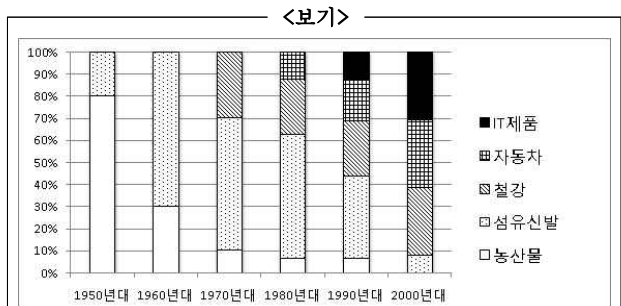
2-1. (가)에서 ㉠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100자 이내) [20점]

2-2. <보기>의 주장을 (가)와 (나)의 입장에서 평가하시오. (180자 이내) [20점]

<보기>

최근 A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AI 로봇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A국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AI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2-3. <보기>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A국의 수출품목 구성표와 A국 정부 정책의 특징에 대한 서술이다. A국의 정책에 대해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A국은 정부의 산업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이다. A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을 배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지 않고 일부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철학자 존 설(John Searle)은 다음과 같은 사유실험을 통해서 디지털 컴퓨터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당신이 어떤 방에 갇혀있다고 해 보자. 당신의 임무는 중국어로 쓰인 질문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매뉴얼을 찾아 중국어로 쓰인 답변지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당신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에게는 중국어 문자들을 조작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매뉴얼이 주어진다. 가령, 규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러이러하게 생긴 기호를 첫 번째 바구니에서 꺼내어서 두 번째 바구니에 있는 저러저러하게 생긴 기호 옆에 위치시킬 것.” 이제 방으로 어떤 중국어 문자열이 전달된다고 하자. 당신은 규칙을 사용해서 만든 다른 중국어 문자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방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 전체가 중국어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 중국어 문자를 조작하고 있는 당신은 여전히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방 전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며, 매뉴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 기호를 조작하는 당신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몸소 수행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중국어를 이해하게 될 수 없다면, 어떤 컴퓨터도 단순히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어를 이해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기호 조작으로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알파고와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호 조작을 통해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인 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철학자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생각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두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일이다. 각 신경세포가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역할은 비교적 간단한 컴퓨터 장치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두뇌 신경세포 중 몇 개를 적절히 프로그래밍 한 인공 신경세포로 대체한다고 하자. 이것이 당신의 사유 능력과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개의 신경세포를 인공 신경세포로 대체한다고 하자. 이 역시 당신의 사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당신의 신경세포 모두를 인공 신경세포로 대체한다면, 당신은 인공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컴퓨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생각하는 컴퓨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도 이 정도로 뇌를 모사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두뇌에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두뇌를 세포 수준에서 분해서 만든 컴퓨터가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3-1.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바탕으로 하여 (가)에 나타난 논증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십시오. (100자 이내) [20점]

일반적으로 부분이 어떤 특성을 결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전체 역시 그 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가령, 수소와 산소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불을 끌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오류이다.

3-2. (나)의 논증이 옳다고 해도 알파고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가)와 (나)를 참고해서 서술하십시오. (80자 이내) [20점]

3-3. 아래를 읽고 (가)와 (나)는 각각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볼지 서술하십시오. (300자 이내) [20점]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구분한다.
○ 약한 인공지능: 실제로 사유와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
○ 강한 인공지능: 진정한 의미에서 사유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이동성을 분석할 때, 직업에 영향을 받는 사회 계층적 지위의 변화에 주목해서 세대 간 계층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계층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사회구조에 보다 많은 기회가 존재하거나 기회에 대한 접근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간 비교에서 어느 사회가 계층이동이 더 자유로운 사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대 간 총 일자리 수의 증가/감소, 산업 구조의 변동과 같은 요인들을 통제 한 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정도를 통해 결정되며, 부모와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를수록 계층이동이 유동적인 사회라 볼 수 있다.

교육은 이러한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과거에는 토지나 여타 재산이 중요한 지위 세습의 요인이었지만 업적주의(meritocracy)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직업을 얻는데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이동 혹은 지위세습의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기능주의적 입장은 개인의 학력 성취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며, 그 결과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점진적인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그 논거를 산업 사회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즉, 국가에 의해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세습에 의해 직업과 계층이 결정되지 않는 현대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교육은 하류계층 출신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대중교육 혹은 공교육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 계층적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나아가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기회가 확대되면 특히 하층민들에게 상승이동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 교육은 사회계층의 종속변수이기보다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독립변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개방적 성취사회의 이상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선진 산업사회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낙관적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즉, 사회 계층에 따라 교육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그 결과 -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 사회이동은 상당히 제약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근대교육체제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 즉 ㉡ 해방이 아니라 예측,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다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향후 사회에 진출해 부모와 비슷한 상위계층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적 분화와 고착화는 세습이 아니라 업적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되면서, 교육은 그 어떤 사회 불평등화 기제보다도 정당성을 갖춘 불평등 기제가 되는 것이다.

4-1. 아래 A 사회와 B 사회 중 어느 사회가 더 개방적 사회인지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A 사회> (단위: 명)

	자녀의 직업		계
	단순노무직	전문직	
부모의 직업	단순노무직	전문직	계
	120	280	400
	30	70	100
계	150	350	500

<B 사회> (단위: 명)

	자녀의 직업		계
	단순노무직	전문직	
부모의 직업	단순노무직	전문직	계
	140	260	400
	10	90	100
계	150	350	500

4-2. <보기>는 ㉠, ㉡ 중 어느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문과 <보기>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학교는 지배계층의 문화적 상징이 제도화된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의 선발 및 평가는 지배적 상징을 체화하고 문화자본을 소유한 계급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문화자본이란 취향, 지식, 언어, 학위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자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의 비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특정 계급의 취향과 가치관으로 체화되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보와 지식 역시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 특히 학력자격시장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학력을 획득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 학력자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부모의 정보통신 기술 능력 및 독서량, 외국어 의사소통과 같은 '인 지적 능력' 역시 문화자본으로서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3. 아래 그래프는 C국의 세 시기에 걸친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각각에 대한 세대 간 상관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시기에서 3시기로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이동성의 변화를 그래프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240자 이내) [20점]



* 상관계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
 ** 시기별 상관계수는 각각 아버지, 본인, 아들이 35세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인들은 주민들의 합의에 기초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자치를 누리고 있었다. 7년 전쟁(1756~63)이 끝나고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식민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뿐 아니라,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당한 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주장은 이런 생각을 대변하였다. 영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영국정부에 저항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1774년 소집된 대륙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한 ㉠ 독립파는 이러한 사상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 자연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는데, 이 평등에서 불신이 생겨난다.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가지려 한다면, 그 둘은 서로 적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키려 하게 된다. 또한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정(正)과 사(邪)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의 지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뿐이다.

이런 비참함을 극복하고자 설립하는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권리 전체를 양도하는 주권 설립 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여 주권을 선포한 이상, 주권 설립에 반대한 자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발적으로 설립 집회에 참가했다면, 이로써 그는 다수의 결정을 준수할 의지를 충분히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권리는 만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주권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주권의 상실을 주장하거나 복종 의무의 파기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권력 행사의 과정에서도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권리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원을 파악하려면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처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자연상태란 평등 상태이다. 인간은 모두 종(種)과 신분이 같은 채로 평등하게 태어나 자연의 같은 이점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살아가므로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의 지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연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성 은 전 인류에게 누구도 나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본래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향유할 수 있다.

인간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고 공동체 바깥의 침탈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합의를 이루어 공동체를 결성하는 계약을 맺는다.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의 범죄를 징벌하는 권력이 없는 어떤 정치사회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위임해, 누구나 어떤 경우라도 사회가 제정한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치사회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동의에 따라 단일한 정부 아래 주권이 설립되면 그 공동체는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권력을 가지며,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에 속한 개인들의 동의뿐이다. 그렇게 한 몸이 되면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 즉 다수의 결정이라는 큰 힘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몸, 한 공동체로서 행동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5-1. ㉠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5-2. 자연상태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0자 이내) [20점]

5-3. 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2020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1-1.

㉑: 아내로 인정하였다.

(혹은) 아내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㉒: 호녀와의 일을 붓으로 적어(글을 써서) 세상에 전하였다.

1-2.

호녀의 죽음은 자신이 인간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의리)’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는 극단적인 희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가치를 더욱 고착화할 뿐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없다.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인정의 세 가지 형태에 맞추어 김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p> <p>-㉑는 아내로 인정하였다는 내용, ㉒는 호녀와의 일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려 전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각각 15점씩</p> <p>-㉒ : 붓으로 적었다. 혹은 세상에 전하였다만 서술된 경우 1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30
1-2	<p>▶ 호녀의 죽음에 대해 ‘인정을 통한 자아실현의 방식’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서술할 것</p> <p>-의미와 한계 각각 15점씩 부여</p> <p>-호녀의 죽음 :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에 자신이 부합하는 존재임을 극단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임. 일방적 희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방식임.</p> <p>-한계 : 역설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됨, 창조적 자아실현이 아님. 기존의 가치를 고착화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없음.</p> <p>-극단적 희생의 방식,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함. 바람직한 자아실현으로서 한계를 지적해야 함.</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30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경쟁력’은 서로 경쟁하는 비교대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국가 경쟁력이 의미 있으려면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2-2.

(가)는 무역을 호혜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진에 의해 AI 로봇에 특화된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는 첨단산업인 AI 로봇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2-3.

A국 정부는 기술발전과 시장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나)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입장에서는 투자 당시 A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답안에 있는 문장을 찾아 써야 함 - 예시 답안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같은 취지면 감점 없음 - 다른 내용이지만 관련이 있는 것이면 5점 -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0점 	2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무역이 호혜적이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10점), (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점을(10점) 명확히 서술해야 함 - (가)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 속도와 교역 상대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쓰면 2점 감점 - (나)에서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쓰지 않고 승자와 패자가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2점 감점 - 그 밖에 논리적 구성이나 표현 등을 감안하여 1-3점 감점 -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은 있으나 답이 아닌 것을 쓴 경우 기본점수 각 3점 부여 -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썼거나 쓰지 않았을 경우 각 0점 부여 	2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발전, 시장성장이 빠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으므로 (나)의 주장에 부합하나(10점), 투자 결정 당시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10점) 점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 - (가)에서 기술발전, 시장성장이 빠른 산업을 쓰지 않으면 5점 감점 - 둘 중 하나만 쓰거나 같은 취지여도 인정 - (다)에 대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첨단산업에 투자했다고 써도 인정 - (다)의 주장은 제대로 이해하였으나 A국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했다고 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쓰면 5점 감점 -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은 있으나 답이 아닌 것을 쓴 경우 기본점수 각 3점 부여 -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썼거나 쓰지 않았을 경우 각 0점 부여 	20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방 안에 사람이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는 것으로부터, 전체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는 방 전체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3-2.

알파고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뇌를 본떠서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기호 조작을 통해 작동하는 컴퓨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3.

(가)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약한 인공지능을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기호 조작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은 배제한다. 따라서 (가)는 강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부정할 것이다. 반면 (나)는 인간의 두뇌 전체가 컴퓨터로 모사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런 경우에 인간과 똑같은 사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약한 인공지능 역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 제시된 오류(“분해의 오류”)의 사례로 여겨지는 바를 (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전체 관계(방 안의 사람-방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부분의 의미 이해 능력 결여가 전체의 의미 이해 능력 결여로 이어지지 않음을 파악한 경우 (20점) - 문제가 되는 부분-전체 관계를 CPU와 컴퓨터 사이의 관계로 본 경우 (15점) - 그 외의 경우 (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3-2	<p>▶ (가), (나)의 논증이 알파고 사례에 갖는 함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고가 신경세포 수준에서 뇌를 본떠서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 (이와 더불어 알파고가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는 점을 추가적인 이유로 제시해도 감점 없음) (20점) - 알파고가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는 점만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 (10점) - 그 외의 경우 (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3-3	<p>▶ (가), (나)로부터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유추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각각에서 약한/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이유를 덧붙인 경우 (20점) - (가), (나) 중 하나에서 약한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10점) - 그 외의 경우 (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4-1. A 사회가 더 개방적이다.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을수록 개방적인 사회인데, A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직종에 있는 경우가 B 사회보다 많다.

4-2. <보기>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3. 2시기는 3시기에 비해 아버지와 본인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가 낮지만 3시기가 되면서 세대 간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사회이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한 분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한다.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로 주어진 표를 분석하여 제시문에 주어진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설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개방적 사회를 직업(계층)의 세습 정도(혹은 부모와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정도)로 정의하고, A 사회가 그 정도가 더 큼을 서술한 경우(20점) - 위와 동일한 논증을 폐쇄적 사회를 기준으로 진행한 후, A 사회가 더 개방적이라고 서술한 경우(20점) -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정도만 추상적으로 설명한 경우(13점) - 종합적인 진술 없이 부모와 자녀 세대의 단순노무직-전문직 / 전문직-단순노무직 (혹은 단순노무-단순노무 / 전문직-전문직) 중 한 가지의 차이만 서술한 경우(10점) - A 사회라고 답했으나 근거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계산 오류 포함)(3점) - B 사회라고 답한 경우(0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입장을 근거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 성취(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의 입장임을 뒷받침한다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경우(20점) - ‘문화자본’이 답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10점 감점) - ‘문화자본’(혹은 부모의 능력/배경)이 학업 성취(학습,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성이 서술되지 않은 경우(10점 감점) - 교육이 불평등 재생산 기제라는 추상적 설명만 있는 경우(5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4-3	<p>(1)그래프 독해를 통한 사회이동성 변화 설명과 현상에 대한 (2)해결방안을 각각 10점씩 나누어서 평가</p> <p>(1) 10점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상의 변화를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각 시기별 세대 간 상관관계를 정확히 독해하고 3시기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면서 세대 간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화되어 사회이동성이 저하되었다고 서술한 경우(10점) - 세대 간 상관관계 변화에 대한 언급 없는 경우(5점 감점) - 3시기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사회이동성이 저하되었다는 서술이 없을 경우(5점 감점) - 그래프 독해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0점) 	20

	<p>(2) 10점 배점</p> <p>▶ 사회이동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교육 기회의 대중적) 확대에 대한 주장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술이 들어갈 경우(10점) - 제시문에 근거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의 답변일 경우 감점 -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의 답변일 경우 감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	---	--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정당한 권력의 행사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유래해야 하며,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

5-2.

(나)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전쟁으로 보고, (다)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로 파악한다. 이는 평등과 자연법에 대한 양자의 견해 차이 때문이다.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평등하지 만 그것에서 불신이 생겨나고, 또한 그곳에 법의 질서가 없다고 본다. 반면 (다)는 인간이 평등 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며,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5-3

(나)는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만, (다)는 공동체가 다수의 결정에 의해 권 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p>▶ 보기의 내용 속에서 독립파가 공유한 사상 중 (나)의 내용과 상충하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권력 행사에 대한 독립파의 비판이 (나)의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충돌함을 파악한 경우 (10점)</p> <p>-㉡자연권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하는 독립파의 사상이 (나)의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주권 상실 주장하거나 복종 의무 파기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과 충돌함을 파악한 경우(10점)</p> <p>-㉠, ㉡ 중 하나만 설명하면 (10점)</p> <p>-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5-2	<p>▶ (나), (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입장을 대표하는 표현을 찾아내고, 이런 차이가 평등과 자연법 개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함</p> <p>-(나)의 입장: ‘만인에 대한 전쟁’ (이외 전쟁, 투쟁, 싸움 등 유사표현 적절히 점수부여, 4점)</p> <p>-(다)의 입장: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 (이외 유사표현 적절히 점수부여, 4점)</p> <p>-(나) 평화와 자연법에 대한 입장(6점):</p> <p>*㉠인간이 평등하나 평등이 불신을 일으킴</p> <p>*㉡자연 상태에 자연법의 지배가 없음</p> <p>*㉠, ㉡ 중 하나만 설명하면 (3점)</p> <p>-(나) 평화와 자연법에 대한 입장(6점):</p> <p>*㉠인간이 평등하고 이 평등으로 평화를 누림</p> <p>*㉡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음</p> <p>*㉠, ㉡ 중 하나만 설명하면 (3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5-3	<p>▶ (나), (다)가 국가 설립 이후 권력행사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각각 가진 견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나):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권력 행사 (10점)</p> <p>-(다): 공동체가 다수의 결정에 따라 권력 행사 (1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가)와 (나)는 낙태에 대해 찬성하지만 그 근거는 서로 다르다. (가)는 태아가 인격체라고 할지라도 임신부의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나)는 태아를 인격체로 보지 않으며 공리의 증진을 위해 낙태가 허용된다고 본다.

6-2.

(1) ㉠: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2) 살생이 금지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자의식이라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상에는 물고기, 나무, 바위 등 독특성을 지닌 존재가 많지만 그러한 독특성이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를 죽이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낙태에 대한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모두 서술한 경우(20점) -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2	<p>(1)번 (10점 배점)</p> <p>▶ ㉠에 들어갈 대전제를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10점) - 대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p>(2)번 (20점 배점)</p> <p>▶ ㉠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음.(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이 금지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자의식이라는 특성을 지녀야 함. 그런데 독특성은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를 죽이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음.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30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td> </tr> </table>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경비원의 전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의가 느껴지는 전언이었다. 게다가 드르륵드르륵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젠 한판 싸워 보자는 애긴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 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 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더러 어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뻘뻘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 잦아. 소리 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중략)

지난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 폭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십 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 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뿜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을 꼭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나) 엮어질 듯 앞마당에 뛰어들어 허겁지겁 샘물을 찾았지만 좀처럼 샘은 보이지 않았다. 친구가 허둥거리는 내 어깨를 건드리더니 손가락으로 마루를 가리켰다.

깨끗한 마루 위, ㉢ 주전자와 스테인리스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흰 수건이 접혀 있었다. 마루 끝에 걸터앉기도 전에 주전자에 손이 갔다. 주전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주전자 주둥이에 입을 대고 마시는 무례를 막아 주었다. 떠다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차갑고 신선한 물을 그릇에 따라 양껏 마셨다. 자연스럽게 집어 든 수건은 잘 말라서 뽕뽕송송한 것이 물걸레처럼 젖어버린 내 손수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기갈을 채우고 땀을 닦은 뒤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늘 우리가 보시를 받았구나. 무상(無償)의 무상(無上)한 선의를 마셨구나. 보시를 베푸는 당사자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하계는 빛 속에 찬란했다.

그 뒤로 한밤중이 되면 궁중암이 있는 곳을 자주 바라보게 된다. 어느 때는 흰 수건 빛깔 같은 불빛이 비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우연히 내 곁을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좋은 방법은 모르고 있지만.

- * 기갈(飢渴):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무상(無償):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 * 무상(無上): 그 위에 더할 수 없음.

(다) 박수근 회화의 예술적 관심사는 사물, 관념, 자연 형상 등 ‘다른 것’보다는 인간 존재 즉 ‘다른 이’들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그가 만난 타자들은 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향유와 주거, 노동과 소유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었다.

그의 예술은 노점상, 아기 보는 소녀, 실직자 등 고통받는 타자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했다. 그의 회화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위해 거리로 나온 <시장의 여인들>을 비참함의 대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그의 회화는 또한 <아기 보는 소녀>를 불쌍한 아이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회화는 <놀고 있는 아이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아기 보는 소녀>의 응시로 그들의 결핍을 드러낼 뿐이다.

박수근 회화가 주목한 타자는 ‘그 당시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존재들이었다. 그는 폐허의 도시, 상실의 거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와 <아기 보는 소녀>를 마주했다. 이웃들과 마주하면서 그가 경험한 마음의 불편함은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그가 타자들로부터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면 이런 불편함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굶주림과 불안함에 고통받는 타자를 충격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지는 않았다. 타자를 회화적 주체 앞에 세워두고 재현할 수 있는 일방적인 시선의 객체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화적 주체가 타자를 재현을 통해 포획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나)의 화자가 ㉡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30점]

1-2. ㉢의 ‘나’는 타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목적이 저소득층의 복지와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변화하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그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팔려는 사람(노동자)과 사려는 사람(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제도는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따라서 기업은 고용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이 장애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생산성이 더 높은 사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고용될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이 더 이상 이들을 고용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하는 반면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가의 이윤은 줄어들 것이다. 이때 대체로 노동자는 저소득층이고 기업가는 고소득층이므로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기업가 집단의 총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 .

(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한 연구자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의문을 품고 ○○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량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10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인 ○○국은 각 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8년 5월 1일 ○○국의 A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15% 인상하였다. 그런데 2018년 1월과 12월의 취업자 수를 조사해 보니 2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량을 증가시킨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고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이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생산 규모를 조정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생산량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용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은 증가하고, 기업가 집단의 총소득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제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

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변화량이 같다면 그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고소득층 소비 변화량보다 저소득층 소비 변화량이 (⊙) .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업은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2-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에 들어갈 말을 (가)에 근거하여 쓰시오. (20자 이내)

(2)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0자 이내)

2-2. (가)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들 중 (나)에서 반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10점]

2-3. <보기>에서 밑줄 친 ‘다른 주’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쓰시오. (60자 이내) [20점]

<보기>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A주의 사례는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최저임금만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을 증가시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와 고용량 변화를 비교해야 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전자 슈퍼마켓’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을 활용하면 국가와 같은 중앙 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아이의 유전적 형질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려는 ‘유전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적, 지적 능력을 더 우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전학적 강화’도 허용되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을 ‘신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류는 자연이 부여한 능력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활용과 같은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 도전에 의해 변화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삶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능력만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적, 미술적 재능과 같은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체력, 기억력과 같은 일반적 능력만을 유전학적으로 강화시킨다면 그것이 아이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이 장차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존재가 유전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조립 부품처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식이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것이다. 유전학적 개입을 통해 제 3자의 의도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저자로서 온전한 자율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유전자 조작은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성인이 되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치료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사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강화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기억력과 같은 일반적 능력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력의 강화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은 일을 오래 기억하게 함으로써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아이의 유전적 형질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이 없다면 아이가 유전적 형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유전학적 강화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에게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나 재능이 있다.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유전적 특성을

우연히 주어진 ‘선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렇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나 재능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 태도는 잘못이다. 유전학적 강화가 그릇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 대한 대안은 (⊖)가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선물, 즉 타고난 본성이나 자연적 재능을 경외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유전자 조작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학적 개입은 인간의 자연적 재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3-1. 유전학적 강화에 대한 (나), (다)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10자 이내) [20점]

3-2. ㉠,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한 개씩 쓰시오. [20점]

<보기>

자율적 아이, 유전적 제비뽑기에 맡겨진 아이
유전 공학적 아이, 유전적 질병을 지닌 아이

㉠ _____ ㉡ _____ ㉢ _____

3-3. 아래의 사례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20점]

- ㉠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 그 아이의 유전자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로 변형한 경우
- ㉡ 합리적 판단 능력을 지닌 성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유전자 조작을 요구한 경우
- ㉢ 부모가 혈우병을 지닌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의 유전자 조작을 시도한 경우

- ① (가)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자발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겠군.
- ② (나)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어렵겠군.
- ③ (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군.
- ④ (다) 입장에서는 ㉢이 자연에 도전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시도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겠군.
- ⑤ (다) 입장에서는 ㉢이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겠군.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의 약화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적 이익과 당파적 이익에 치우침으로써 갈등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아래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사례들이다.

(가) A국의 대학교 신입생 선발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정시 전형으로 정원의 30%를 선발하고, 수시 전형으로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입시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지난 수 년 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현행 유지'가 40%였고 '정시 확대'가 4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A국 정부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는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501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공론조사를 진행하였다.

- 1단계(1차 설문조사):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501명의 시민 위원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행 유지'와 '정시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각각 40%와 43%로 나타났다.
- 2단계(토론 진행): 시민 위원들에게 각 안의 입장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자료집이 제공되었다.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시민 위원들을 10개 조로 나누어서 분임 토의를 진행하였다. 분임 토의에서 시민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쟁점들에 대해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민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토론을 실시하였다.
- 3단계(2차 설문조사): 시민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한 문항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현행 유지' 안이 40%에서 35%로 감소하였고 '정시 확대' 안이 43%에서 51%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는 시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최종 토론을 통해서 '정시 확대' 안을 권고안으로 결정하였다.

(나) B국은 화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의 60%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40%를 충당하고 있다. B국에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기 오염과 원전 안전성 문제의 정책적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서 현행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자고 맞섰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최근 발전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체 유권자의 65%가 참여한 국민투표 결과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을 지지한 시민은 총투표자의 40%로 나타났고 현행 유지를 선택한 시민은 5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행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C국의 선거제도는 전체 300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제도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소선거구제가 대표자들의 책임성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국은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학계, 시민단체, 정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C국의 지난 선거의 경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나라들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선거제도개편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형태를 고려할 때, 현행 선거제도가 C국의 정치 발전에 더 나은 제도라고 권고하였다.

4-1. (가), (나), (다)의 의사 결정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170자 이내) [45점]

4-2. <보기>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15점]

<보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칠판에 길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선이 그려져 있다. 흰색 카드에는 칠판에 그려진 세 개의 선 중 하나와 길이가 같은 선이 그려져 있다. 실험에는 1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칠판에 그려져 있는 세 가지 선 중에서 흰색 카드의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을 골라야 한다. 참여자 중에서 한 사람은 피실험자이고 나머지 9명은 실험 조력자이다. 피실험자는 맨 끝에 앉는다. 실험 조력자 9명은 모두 동일한 틀린 답을 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피실험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실험이 진행되자 맨 앞에 앉은 실험 조력자부터 순서대로 약속된 오답을 크게 외쳤다. 맨 끝에 앉은 피실험자는 자신의 순서가 되자 선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선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했다. 결국 피실험자는 실험 조력자들이 먼저 답한 오답을 외쳤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 집이다.” (중략)

내가 영희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영희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시멘트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써어져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다. 영희가 웃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저었다.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여러 힘든 일을 못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중략)

아주머니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동네를 보았다. 우리 집이, 이웃집들이,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방죽도 없어지고, 벽돌공장의 굴뚝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어졌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부인, 난장이의 두 아들, 그리고 난장이의 딸이 살아간 흔적은 거기에 없었다. 넓은 공터만 있었다.

(나) 소설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무대로 잘 알려진 ○○시 △△동 일대는 개항과 더불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지역이다. 이웃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다닥다닥 붙은 집들, 한 사람만 들어서도 꽉 차는 비좁은 골목길……. 어려웠던 시대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시는 이 일대를 개항 이후 서민들의 주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는 자연 지형과 골목길 등 정감 어린 마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낡은 집은 개량하는 동시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어 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형과 주변 환경에 맞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형태의 저층 주거 단지를 지어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설의 탄생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공동 빨래방, 공동 창

고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다) 도시 재개발 논의는 장소가 지닌 의미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장소는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점유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장소는 그 구성성과 가시성 그리고 안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곳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인간이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애착을 갖는 대상이다. 즉 어떤 장소가 그 물리적 특성이나 상상력 혹은 실제적이든 신화적이든 의미 있는 사건이나 인물과 연결되면, 특징적이고 기억될 만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이 된다. 또한 장소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여 애착이 생길 수 있는 곳이다. 애착은 장소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장소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는 표준화된 가치와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고, 자본주의 정치권력과 상품화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경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하거나 장소에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장소에 대한 추상적인 기하학적 견해를 갖게 하거나 장소로부터 인간적 의미를 박탈한다. 결국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5-1. (가)에서 진행된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3가지를 (나)와 (다)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5-2. (나)에서 ○○시가 계획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보기>의 ㉔와 ㉕로 볼 수 있는 각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0점]

<보기>

도시 재개발은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면 재개발은 낡은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㉔ **소복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 기능과 환경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수리·정비하는 방식이다. ㉕ **보존 재개발**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이 많은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방식이다.

(1) ㉔로 볼 수 있는 근거 (70자 이내)

(2) ㉕로 볼 수 있는 근거 (70자 이내)

5-3. (다)의 관점에서 ㉔의 화자에게 ‘집’이 중요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30자 이내) [1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에 따라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시인과 역사가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산문을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헤로도토스의 작품도 운문으로 고쳐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임에 틀림 없다. 오히려 근본적인 차이는 역사가는 저절로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반면,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 역사는 특수한 것을 말하고,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따라서 역사보다 ㉡ 시는 더 학문적이다. 또한 시인이 비극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연속적인 결합, 즉 플롯이다. 플롯을 훌륭하게 구성하려면 아무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된다. 작품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제재로 다룰 때에도 시인은 개연성과 가능성의 규칙에 합치하도록 그 사건을 기술해야 한다. 최악의 플롯은 사건들을 일화처럼 상호 간에 규칙성도 없이 산만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역사이다. 역사가는 특정한 시대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할 때조차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치 통일된 목표를 가진 것처럼 꾸민다. 살라미스 해전과 시칠리아의 카르타고 전쟁은 동일한 시기에 잇달아 일어난 것이지만 통일된 목표를 갖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나) 나는 웅변을 아주 존중했고, 시를 매우 사랑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학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정신적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는 사람은 수사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감미로운 착상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시학을 모르더라도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나는 고전어를 공부하고 옛 서적을 탐독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게 된다. 대체로 역사란 유명한 인물과 사건만을 그럴듯하게 꾸며 기술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학문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오류에 빠져 곤혹스러웠다. 책 속에 있는 학문들은 증명할 수 없는 개연적인 근거에 따르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조금씩 구성되고 불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들보다 나는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직접 증명이 가능한 확실성과 분명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학 중에서 기하학은 추리의 긴 연쇄를 통해 물리학의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 ㉢ 모든 사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하학의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자연의 진리가 아무리 깊숙이 숨겨져 있다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은 특수한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을 위한 원리가 된다.

(다)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빛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원리는 우리 인간 자신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원리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사에 대한 학문

을 무시하고 자연에 대한 학문만을 중시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할 것이다. 자연을 창조한 것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는 신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 즉 문명사회를 만든 것은 인간이므로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도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만든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이 어떠한 점에서 항상 일치해 왔으며 지금도 일치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일치하고 있는 것, 즉 공통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인식이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도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하학자는 점, 선, 면, 입체와 같은 요소를 가진 크기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탐구한다. 그러나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기하학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도출된 인식은 기하학의 공리처럼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문들이 다루는 대상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심지어 역사학은 기하학자가 만든 세계보다 더 많은 실재성을 가지는 인간의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6-1. ㉠을 (다)의 관점에서 반박하시오. (65자 이내) [20점]

6-2. (나)의 관점에서 ㉡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학문의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20점]

6-3. ㉢에 대해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80자 이내) [20점]

2019학년도 논술(AAT) 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 1-1. (가)의 ㉠은 ㉡에서처럼 대가없는 **베짱이 아니라**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 1-2. '나'는 타자와 마주하고 그와 정서적으로 연결하되, 타자를 일방적인 시선의 객체로 인식하거나 포획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가)의 ㉠이 ㉡과 달리 대가 없는 선의가 아니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었음을 파악했는지를 평가함.</p> <p>▶ 채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의 의미를 무상의 보시(대가 없는 선의, 대가 없는 베짱, 타인에 대한 배려)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에 비해 ㉠은 그렇지 않음(10점) • ② ㉠은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가(20점) <p>- ①과 ② 모두 충족, 30점</p> <p>- ①만 있는 경우 10점</p> <p>- ②만 있는 경우 20점(②에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함 20점 부여, 메시지 전달만 있는 경우 10점만 부여)</p> <p>- 핵심어가 서로 비교되어 서술했으나 문맥이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2~5점 감점</p> <p>-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p> <p>▶ 예시답안 (가)의 ㉠은 ㉡에서처럼 대가없는 베짱이 아니라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p>	30 점
1-2	<p>▶ 박수근 회화의 타자 이해 방식이 마주함, 정서적 연결, 타자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데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의 ㉡ '나'의 타자이해방식의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① '나'는 타자와 마주하고(만나고), 혹은(or) 그에 대해 정서적으로 연결해야 함을 언급하고,</p> <p>② 타자를 일방적인 시선의 객체로 인식하거나 포획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함을 언급해야 함.</p> <p>-①과 ②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 경우 30점</p> <p>-①만 있는 경우 10점</p> <p>-②만 있는 경우 25점</p> <p>-문맥이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2~5점 감점</p> <p>-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p> <p>▶ 예시답안 '나'는 타자(타인, 이웃)와 마주하고 그와 정서적으로 연결하되, 타자를 일방적인 시선의 객체로 인식하거나 포획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p>	30 점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1) 고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 크기 때문이다.

2-2. 사회적 약자를 생산성이 더 높은 사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2-3.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변동이 없으면서 다른 조건들이 A주와 가장 비슷해야 한다.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만 맞으면 인정 - “고용량” 대신 “노동자 (총)수”를 써도 인정 -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 마침표를 썼는지 여부는 반영하지 않으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적절히 감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때문이라는 의미만 맞으면 10점 - “많기 때문이다” 등 다른 표현도 가능하나 “<u>높아질 것이다</u>” “<u>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u>” 등 문장 안에 넣었을 때 의미가 성립하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 마침표를 썼는지 채점에 반영하지 않으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 적절히 감점.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을 찾아 쓰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볼 수 있다는 의미인 경우 10점 -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변동이 없음 ② 다른 조건이 가장 비슷함 - ①, ② 각 요소 당 10점 - ①에서 연월일 대신 “동 기간” 등의 표현도 가능 - ②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식으로 표현해도 감점 없음. - ①에서 기간 표현이 없으면 3점 감점. - ①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작다”, “최저임금 변화는 다르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5점 감점. - 전체적인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20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유전학적 강화를 비판하지만 그 근거는 서로 다르다. (나)는 유전학적 강화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다)는 자연적 본성(재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3-2.

㉠ 유전 공학적 아이, ㉡ 자율적 아이, ㉢ 유전적 제비뽑기에 맡겨진 아이

3-3. 부적절한 것은 ㉠, ㉢이다. ㉠에서 ㉠은 아이의 특수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에서 ㉢은 유전학적 치료이므로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 동의할 것으로 보아 (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다.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 유전학적 강화에 대한 (나), (다)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20점) -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10점) -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혀 서술하지 못한 경우 (0점) <p>(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3-2	<p>▶ ㉠,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고 있는지를 평가함.(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말을 3가지 모두 쓴 경우 (20점) - 적절한 말을 2가지만 쓴 경우 (10점) - 적절한 말을 1가지만 쓴 경우 (5점) - 적절한 말을 전혀 쓰지 못한 경우 (0점) 	20
3-3	<p>▶ 사례에 대한 평가로 부적절한 것(정답지)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까지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예시 답안 참조)</p> <p>정답지(㉠, ㉢)를 선택하고 그 이유까지 맞으면 한 개 당 10점을 가산하고, 오답지(㉡, ㉣, ㉤)가 포함되면 한 개 당 10점을 감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만을 모두 선택하고 그 이유까지 맞은 경우 (20점) - ㉠, ㉢ 중에서 한 개만을 선택하고 그 이유까지 맞은 경우 (10점) - ㉠, ㉢ 중에서 한 개도 선택하지 못한 경우 (0점) - 오답지(㉡, ㉣, ㉤)가 포함되면 한 개 당 10점을 감점함. <p>(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4-1

(가)는 시민들이 직접 심의과정/토론을 통해서 대표성 또는 갈등조정기능을 보완한다. (나)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또는 갈등조정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다)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 또는 갈등조정 기능의 문제를 보완한다.

4-2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특정 집단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4-1	<p>(가) 공론조사로서 대표되는 심의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보여줌</p> <p>평가기준 :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공론조사(심의/숙의/토론)과정을 통해서) 어떤 점을 (대표성 또는 갈등조정 기능을 보완한다)</p> <p>-위의 두 부분을 모두 제대로 쓴 경우 (15점) -위의 두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7점) -두 부분의 의미를 적절히 표현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 -(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문성'을 썼을 경우 표현에 따라서 적절히 감점(3~4점) -위의 두 부분을 전혀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p> <p>(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파트 별로 1~7점 적절히 감점함)</p> <p><예시 답안> (가)는 (무작위로 선출된)시민들이 직접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과정/토론을 통해서 대표성과 갈등조정기능을 보완한다.</p>	15
	<p>(나) 국민투표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보여줌.</p> <p>평가기준 :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어떤 점을 (대표성 또는 갈등조정 기능을 보완한다)</p> <p>-위의 두 부분을 모두 제대로 쓴 경우 (15점) -위의 두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7점) -두 부분의 의미를 적절히 표현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문성'을 썼을 경우 표현에 따라서 적절히 감점(3~4점) -위의 두 부분을 전혀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p> <p>(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파트 별로 1~7점 적절히 감점함)</p> <p><예시 답안> (나)는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하여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갈등조정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p>	15

	<p>(다)는 전문가주의/엘리트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평가기준: 어떻게 (전문가/엘리트 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점을 (전문성 또는 갈등조정 기능을 보완한다)</p> <p>-위의 두 부분을 모두 제대로 쓴 경우 (15점) -위의 두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7점) -두 부분의 의미를 적절히 표현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 -(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표성'을 썼을 경우 표현에 따라서 적절히 감점(3~4점) -위의 두 부분을 전혀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파트 별로 1~7점 적절히 감점함)</p> <p><예시답안> (다)는 전문가/엘리트들이 (위원회를 통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또는 갈등조정 기능의 문제를 보완한다.</p>	15
문항 4-2	<p>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심의 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평가기준: 어디에서 ('시민들이 (공론화 위원회) 토론(심의) 과정에서') 5점 어떤 문제점이 ('특정 집단에 의한 영향') 10점</p> <p>-두 부분 다 정확히 쓰면 (15점)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잘못 쓰고 문제점을 정확히 쓰는 경우는 (10점) -문제점을 잘못 쓰면 (0점) -두 부분을 나타내는 유사한 표현은 답으로 인정함</p> <p><예시답안> 시민(대표)들이 토론(심의)을 통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외부로부터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p>	15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며, 장소(집/지역/마을)로부터 인간적 의미(애착 부여 대상)를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2.

- ① 낡은 주택을 개량하고, 주변 환경 및 지형 등 기존 도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② 소설의 탄생 배경이 된 장소를 기념하고 서민들의 주거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을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5-3. 살면서 애착을 갖게 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p>5-1의 핵심 평가 요소는 원주민 재정착 문제, 지역 공동체의 해체, 장소로부터 인간적 의미의 박탈임</p> <p>원주민 재정착 문제: ‘입주권이 있어도 살지 못하는 문제’/‘정착할 것이 없어짐’/‘삶의 터전 상실’/ ‘경제적인 문제로 살 수 없음’ 등은 동일한 의미로 간주</p> <p>지역 공동체의 해체: ‘지역사회 붕괴’/‘공동감 파괴’ 등은 동일한 의미로 간주</p> <p>장소로부터 인간적 의미의 박탈: ‘장소와의 인정한 관계’/‘공간/장소 파괴’/‘장소의 상징성 파괴’/‘추상적이고 기하학적 공간 형성’/‘애착의 대상 상실’ 등은 동일한 의미로 간주</p> <p>‘도시가 지닌 가치’/‘일자리’/‘주거문화’/‘자연환경 파괴’/‘문학적 가치’/‘역사적 의미’/‘빈부격차’/ ‘인간 정체성’ 등은 제시된 소설 내용 속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님</p> <p>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30점)</p> <p>두 요소만 포함하면 (20점)</p> <p>한 요소만 포함하면 (10점)</p> <p>한 요소도 포함하지 않으면 (0점)</p> <p>표현의 완결성과 명확성에 따라 1~5점을 감점할 수 있음</p>	30
5-2	<p>(1)의 중요 평가 요소는 낡은 주택의 개량과 주변 환경 및 지형을 유지(기능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점임</p> <p>신규 개발 내용은 정답이 아님.</p> <p>두 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10점)</p> <p>한 가지 평가 요소만 포함하면 (5점)</p> <p>(예시): 낡은 집을 개량하였기 때문이다.</p> <p>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 (0점)</p> <p>표현의 완결성과 명확성에 따라 1~2점을 감점할 수 있음</p> <p>(2) 중요 평가 요소는 ‘소설의 탄생 배경이 된 장소를 기념’하고 ‘주거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을 유지’하는 것임.</p> <p>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10점)</p> <p>한 요소만 포함하면 (5점)</p> <p>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 (0점)</p> <p>표현의 완결성과 구체성에 따라 1~2점을 감점할 수 있음: ‘문학적 가치’/‘역사적 가치’만을 포함한 경우 구체성이 부족한 진술로 간주</p>	20

5-3	<p>5-3 평가의 핵심 용어는 <u>일상생활의 경험</u>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혹은 ‘거주하면서’와 같은 표현과 <u>의미부여</u>를 의미하는 ‘애착을 갖게 된 장소(곳)’이라는 점임. ‘상징적 의미’/상징성’ 등은 정답이 아님 경험과 의미부여(애착)가 모두 포함하면 (10점) (예시): 살면서(이용하면서/추억이 깊은/경험/거주하면서/일상생활을 하면서) 애착을 갖게 된(의미를 부여한/애착이 형성된) 장소(곳/공간)이기 때문이다. 경험 혹은 의미부여 중 하나만 포함한 경우 (5점) (예시): 애착을 갖게 된 장소(곳)이기 때문이다/추억이 깊은 곳이다/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경우 (0점) (예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이다 표현의 완결성과 명확성에 따라 1~2점을 감점할 수 있음</p>	10
-----	--	----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역사는 보편적인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세계에는 모든 인간이 일치하는 것(공통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6-2.

시는 증명할 수 없는 개연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어서 학문적이지 못하다. 학문은 이성을 통해 직접 증명이 가능한 확실성과 분명함의 조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6-3.

자연의 진리는 그것을 만든 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수학의 진리를 통해 파악된 자연의 진리는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역사가 특수한 것을 말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역사가 ‘보편적인 것’을 다루며, 그 내용으로 ‘인간의 세계에는 모든 인간이 일치하는 것, 즉 공통관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p>- ‘역사가 보편적인 것을 다룬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진술이 있을 때 10점 부여.</p> <p>- ‘인간이 만든 세계’ (또는 ‘인간의 세계’(5점)에는 ‘모든 인간이 일치하는 것’ (또는 ‘공통관념’)이 있다(5점)는 내용을 진술할 때 10점 부여. (주요개념 및 내용이 빠진 경우 5점씩 감점)</p> <p>- 개념의 적합성과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정합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p>	20
6-2	<p>▶ ‘시가 더 학문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시가 ‘증명되지 않은 개연적인 근거’ 또는 ‘타고난 정신의 재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서 ‘이성을 통해 직접 증명이 가능한 확실성과 분명함’이라는 학문의 조건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p>- 시가 ‘증명되지 않은 개연적 근거’ (또는 ‘타고난 정신적 재능’(5점)에 기초하고 있어 ‘학문적이지 못하다’(5점)는 평가적 진술이 있을 때 10점 부여. (주요개념 및 내용이 빠진 경우 5점씩 감점)</p> <p>- ‘이성을 통해 직접 증명이 가능한’(5점) ‘확실성과 분명함’이라는 학문의 조건(5점)을 진술하고 있을 때 10점 부여. (주요개념 및 내용이 빠진 경우 5점씩 감점)</p> <p>- 개념의 적합성 및 논리적 연결과 표현의 정합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p>	20
6-3	<p>▶ 수학과 자연과학적 진리의 확실한 연관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인간이 만든 수학 또는 기하학을 통해 파악된 자연의 진리가 부분적이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자연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만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제시하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p>- ‘자연의 진리는 그것을 만든 신만이 알 수 있다’는 진술이 있을 때 10점 부여.</p> <p>- ‘인간이 만든 수학’ (또는 ‘기하학’(5점)을 통해서 파악된 ‘자연의 진리는 부분적인 것이다’(5점)라는 내용으로 진술할 때 10점 부여. (주요개념 및 내용이 빠진 경우 5점씩 감점)</p> <p>- 개념의 적합성과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정합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p>	20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 온
청년 넷이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다가
저녁 무렵 도심 지하보도에서
처음 한국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공연 준비를 마쳤다
노인네들이 몰려와 둘러섰다

기타는 스리랑칸 베이스는 비에트나미즈
드럼은 캄보디아인 신시사이저는 필리피노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연주자들은
낡은 악기로 로큰롤을 연주했다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고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됐다

막춤을 신나게 추던 노인네들은
연주자들이 브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얼떨떨해하다가
노인 한 분과 노파 한 분
다른 노인 한 분과 다른 노파 한 분
양손으로 살포시 껴안고
양발로는 엇박자가 나도 들었다

미소 짓던 ㉠동남아 청년 넷은
저마다 고국에 계신 노부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정성껏 연주하고
㉢노인네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이 없었다 싶으니
더 흥겹게 춤을 추었다

(나) 구미호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이야기 소
재이다. 현대에 와서도 구미호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주
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 드라마에서 ㉡구미호는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인으로 변신하여 나무꾼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한 혹독한 시련을 견뎌나. 여기서
드라마는 ㉠'구미호의 인간되기 과정'을 특히 강조하여 보여준
다.

구미호는 원래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인간
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금기를 지키는 동안 구미호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극도로 쇠
약해진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돌보는 커녕 샅바느질과 집안
일에 매달린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시어머니의 냉대 또한 묵묵히 견뎌낸다. 이처
럼 드라마는 구미호가 인간과 어울려 살기 위해 자신의 정체
성을 제거하고, 착한 아내와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인간보다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적
이다. 구미호는 스스로 금기를 지키고 인간의 경계 안으로 들
어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과의 신뢰를 지켜 줄 인간을 만
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미호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집
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구미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은 결코 구미호 자신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질서로 편입되지
못한 구미호는 경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 초기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에 근거했다. 동화주의는
각 문화를 존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 간의 우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즉,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그 목
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 문화 구성원이 다수 집단이라는
커다란 사회 속으로 융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주류 문화에 융해되어
소외된 존재가 되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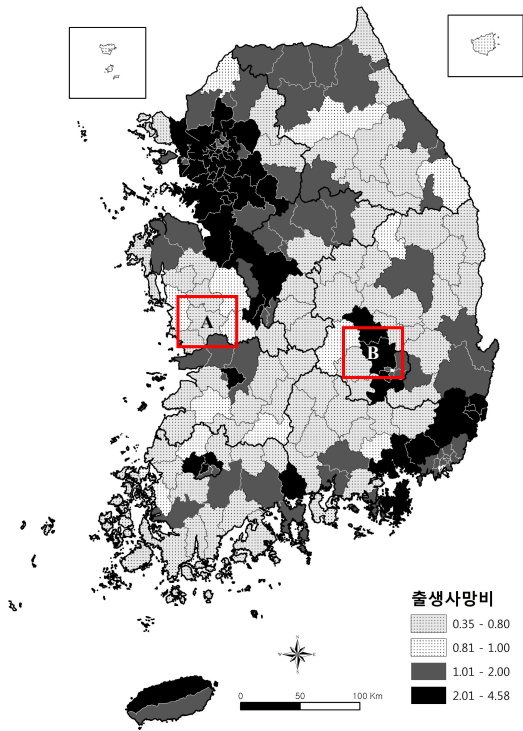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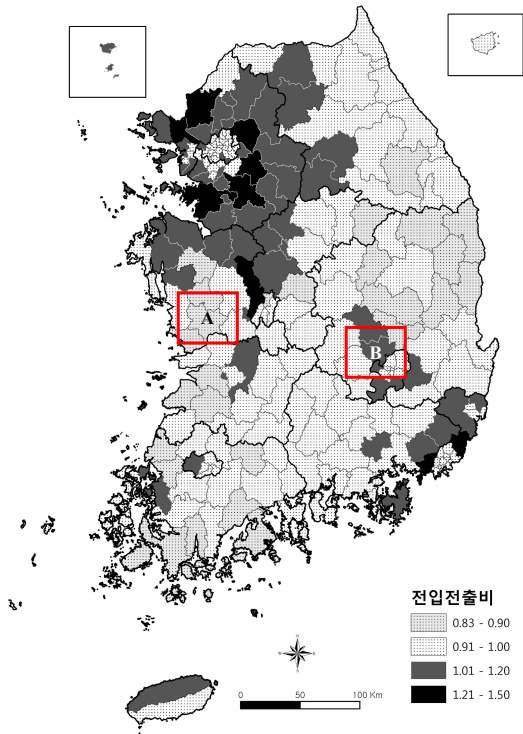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한 국가 내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불가피해
졌다.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 안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을
권유한다. 이러한 맥락 위에 다문화주의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나라 안에 혼재된 문화의 공존을 위해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도일 뿐 아니라 상생의 의미를 내포한다.
소수의 이주자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
고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시각은 한 사회 내의 차이를 지닌 소수자 및 소외된 계
층에게도 확장하여 적용 가능하다.

1-1. 위의 ㉠, ㉡, ㉢가 지닌 공통된 의미에 근거하여, (가)의
주제를 (다)의 단어를 활용하여 쓰시오. (40자 이내) [20점]

1-2. (다)를 바탕으로 밑줄 친 ㉠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
시오. (150자 이내) [4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도는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의 시군구별 전입전출비 및 출생사망비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전입전출비 = 전입인구/전출인구, 출생사망비 = 출생자수/사망자수).



(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상점의 상권 범위는 상품 가격과 상품(재화 혹은 서비스)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상점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교통비가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상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수요는 줄어들고, 어느 지점을 지나면 수요는 0이 된다.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는 않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한편, 상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 해당 상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상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수요수준을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 한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권 내 수요량이 최소 요구치 수준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2-1. 2001년 (가) 지도의 A와 B 지역에서 ○○ 유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상점의 수가 각각 10개씩 조사되었다고 하자. (나)를 바탕으로 2015년에 조사된 동일 유형의 상점 수가 200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 혹은 ‘감소’로 추정하시오. 단, 상점의 규모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점]

① A지역 상점 수: _____, ② B지역 상점 수: _____.

2-2. (나)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용하여 ‘100원 택시’가 읍내에 있는 상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근거를 들어 추론하시오. 단, 상점의 수를 포함하여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120자 이내) [30점]

<보기>

2012년 △△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주민이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내려주는 ‘100원 택시’라 불리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했다. 택시기사 3km 이내 버스정류장에 주민을 내려주고 요금 100원을 받는다. 차액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한다.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 버스정류장에 가야 했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읍내와 시장을 오갈 수 있게 됐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서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체제이다. 대의 민주주의 옹호론자에 따르면 현대 정치체제로서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불가피하고 우월하다. 먼저, 규모의 제약을 고려하면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완전한 정부의 이상적 형태’는 대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둘째, 복잡한 현대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경쟁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으로 대표되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나)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대리인이 가진 전문성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혹은 기준에 미달하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대리인이 하는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완벽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인은 약속과는 달리 위임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다) 인민주권은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는 “나는 우리의 정부 조직이 이웃 국가들의 체도를 모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본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시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라고 역설하였다.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기관이었던 민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법률제정과 과세와 같은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핵심 기관인 500인 평의회는 민회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의 행정을 처리하는 기구였다. 평의회 구성원은 아테네 전역에서 매년 추첨을 통해서 선발되었다.

3-1. (나)에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가)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40점]

3-2. (다)의 관점에서 (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각각 50자 이내) [20점]

<보기>

- ㉠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도입한다.
- ㉡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 ㉢ 국민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평등의 근거는 ‘도덕적 인격’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도덕적 인격이란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평등한 존재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평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감의 능력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특성을 평등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영역 성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의 내부에 들어 있는 점들은 그 좌표나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원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는다. 원의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은 원의 내부에 있는 다른 점보다 더 내부에 있거나 덜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게 된다. 원의 내부에 있는 점과 원의 외부에 있는 점만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영역 성질 개념을 인간 평등 문제에도 적용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어떤 최소치만 만족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도덕적 인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최소치조차 갖고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정의감의 능력을 잠재적이라고 할지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능력이 개발되어 실제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아와 어린이도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능력의 가능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평등한 존재로 간주된다.

(나) 평등의 근거를 지성, 도덕성, 정의감, 합리성과 같은 자연적 특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적 특성을 동등한 수준으로 갖고 있지 않기에 합리성, 도덕성 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의 근거를 이익, 즉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하여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존재를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여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권리가 인간 이외에 동물에게도 있음이 인정되는 날이 올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함부로 고통을 줘도 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다리의 숫자, 피부에 털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각이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방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날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성의 능력인가, 혹은 의사소통의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하루나 1주일이나 1개월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 벤담(J. Bentham)은 한 존재가 평등한 고려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결정적 특징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능력에서 찾고 있다. 지능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감각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된다.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가지는 데 충분조건이 된다. 돌맹이는 이익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쥐는 때면때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갖는다.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이처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4-1. (가), (나) 주장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30점]

4-2. (나)의 입장에서 (가)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비판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30점]

<보기>

- 갑: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두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 을: 정의감의 능력은 타고난 자연적 특성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평등의 근거로 삼는다면 인종 차별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겠군.
- 병: 감각은 있지만 정신적 장애가 심해서 정의감을 영구적으로 갖지 못한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에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겠군.
- 정: 유아는 동물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아에게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
- 무: 많은 동물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동물들을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별 임금격차란 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임금 차이를 말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이미 19세기부터 논의가 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은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권의 신장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가 점차 완화되어왔지만 여전히 믿음만한 통계가 작성되는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4.1%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에서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5% 가량 낮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직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거의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유사한 직무를 하는 노동자라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에게 이와 같은 원칙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면 임금격차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직업은 한 쪽 성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경우 남녀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나아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이란 서로 직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직무의 유사성과는 상관없이 직무의 난이도, 필요한 교육수준, 중요성 등이 비슷하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기업의 성차별이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현실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기업의 성차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녀 간의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남녀 간의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력, 교육년수, 가사 및 육아노동에 대한 부담 등 사회적 차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통계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경력이 많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적게 진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에 잠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부담이 덜해졌을 때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복귀가 되더라도 경력 면에서 뒤떨어져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남녀임금 격차는 기업의 성차별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차별적 현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①사회적 성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다.

5-1. <보기>의 주장이 기초로 삼고 있는 원칙을 제시문에서 찾으시오. [10점]

<보기>

우리 병원의 간호사와 전산관리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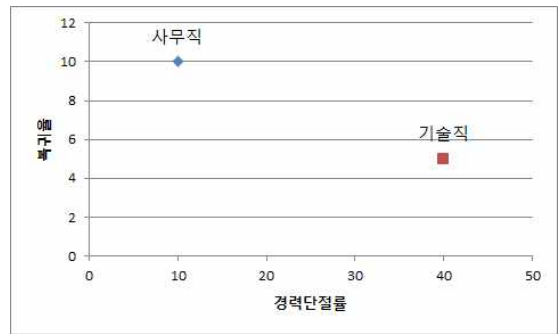
_____ 원칙

5-2. ㉠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5-3. 다음 그래프는 A국의 여성 경력단절률과 복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과 다음의 그래프에 근거하여 <보기>의 ㉡를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반드시 제시문과 그래프에서 찾은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50자 이내) [30점]

<보기>

나는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 A국의 통계를 보면 기술직의 임금이 사무직보다 훨씬 높아. 그런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비슷한 성적으로 졸업하더라도 기술직보다는 사무직을 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거든. 여성들이 스스로 임금이 낮은 직종을 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별 임금격차는 성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해.



• 경력단절률:

$$\frac{25 \sim 29\text{세 여성 취업자 수} - 30 \sim 34\text{세 여성 취업자 수}}{25 \sim 29\text{세 여성 취업자 수}} \times 100$$

• 복귀율:

$$\frac{40 \sim 44\text{세 여성 취업자 수} - 35 \sim 39\text{세 여성 취업자 수}}{40 \sim 44\text{세 여성 취업자 수}} \times 100$$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문과 예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타락했다. 우리의 쓸모없는 호기심 때문에 야기된 불행은 아주 오래되었다. 대양의 조수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비춰주는 천체의 운행에서 영향을 받지만, 풍속과 정직성이 학문과 예술의 진보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덜하다. 우리는 우리의 지평선에 학문과 예술의 빛이 떠오름에 따라 미덕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학문과 예술의 원초적 결합은 그 목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즉, 학문과 예술은 그 자신에게 양식이 되는 사치를 추구한다. 사치는 인간의 무위도식과 허영심의 성격을 가진 죄악으로서 풍속을 해치고 인간을 불성실하게 만든다.

선량한 풍속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 초기의 페르시아는 쓸모없는 지식의 오염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찍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덕과 정직함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이 시대의 씩은 풍속에 대해 미래의 세대들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영혼의 지배자인 신이시여, 선조의 유해한 예술과 지식에서 저희를 해방시켜주소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저희의 무지와 순진을 되돌려 주소서. 이것만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루소, 「학문예술론」)

(나) 루소는 ㉠자연의 상태를 선호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인류가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술과 학문을 통해 고도로 문화화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예의범절에 관한 한 과도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명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미 도덕적으로 성숙해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심성에 기초하지 않은 문화와 문명은 걸만 번지르르할 뿐이며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사고방식을 계몽시키기 위해 도덕성의 성숙을 위한 ㉡내적 교육에 힘써야 한다. (칸트,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회 이념」)

6-1. ㉠과 ㉡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각각 60자 이내) [20점]

‘자연의 상태’란 _____

‘내적 교육’이란 _____

6-2. (가)와 <보기>에 나타난 예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보기>

음악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교양과 해박함을 표현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지적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 과시에는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만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분류 기준도 없다. 이러한 미적인 구별짓기는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혐오와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한 혐오는 드러나지 않게 계급적인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미학적 느낌이라는 개인적 취향의 결과가 아니라 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1>

【1-1】(20점)

○ 모범답안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소외된 존재(계층)들 간의 연대와 공존(상생)

혹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계층)들의 공존과 상생의 가능성

○ 채점기준

- ▶ ㉠, ㉡, ㉢의 공통된 의미인 ‘소외된 존재(계층)’가 언급되어야 하고, 상생과 공존, 연대 등의 의미가 들어 있으면 20점을 부여한다.
- ▶ ‘소외된 존재(계층)’ 대신 ‘소수자’, ‘비주류’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 정답의 내용이 들어 있으나, ‘소외된 존재(계층)’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 10점 감점한다.
- ▶ 상생과 공존, 연대의 의미 대신 다문화주의 등의 포괄적 단어를 쓴 경우 5점 감점한다.
- ▶ 어법 및 문장 오류 3점 감점, 맞춤법 오류 2점 감점한다.

【1-2】(40점)

○ 모범답안

㉠ ‘구미호의 인간되기 과정’은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일방적 희생을 통해 주류사회에 편입해야 하는 동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수자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어렵게 한다.

○ 채점기준

- ▶ ㉠에 대한 의미해석과 비판적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40점을 부여한다. 의미만 해석하거나 비판만 한 경우 20점 감점한다.
- ▶ 의미 해석
 -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 소수자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소수자의 주류사회로의 일방적 동화를 의미한다.
- ▶ 의미에 대한 비판
 -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어렵게 한다.
 - 소수자를 소외시킨다.
- ▶ 어법 및 문장 오류 3점 감점, 맞춤법 오류 2점 감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2>

【2-1】 (20점)

○ 모범답안

A 지역: 감소, B 지역: 증가

○ 채점기준

- 두 지역 모두에 대하여 인구 변화에 따른 상점 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였으면 20점,
- 두 지역 중 하나의 지역에 대한 상점 수 변화만 정확하게 추정하면 10점,
- 두 지역 모두 잘못 추정하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 0점

【2-2】 (30점)

○ 모범답안

100원 택시의 도입으로 상점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낮춰** 줌으로써 **재화의 도달 범위가 늘어나 상권이 확대**되었고, 상권이 넓어지면서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 **상점의 매출액(이윤)의 증가**하였을 것이다.

○ 채점기준

답안 작성에서 핵심은 **교통비 절감에 따른 재화의 도달 범위(상권) 확대(근거) → 소비자 수 증가에 따른 상점의 매출액(이윤) 증가(결과)**.

-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경우 30점
- 근거의 한 요소만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한 경우 혹은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결과의 일부만 제시한 경우 25점
- 근거만 제시한 경우 혹은 원인만 제시된 경우 20점
- 근거는 맞는데 반하여 결과가 모호한 경우 20점
- 근거는 모호하지만 결과가 맞는 경우 20점
- 근거 혹은 결과의 일부만 제시한 경우 15점
- 근거는 맞지만 결과가 틀린 경우 15점
- 근거는 틀리지만 결과는 맞는 경우 15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3>

【3-1】 (40점)

○ 모범답안

역선택에 따르면 주인인 인민이 대리인인 대표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자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에 따르면 대리인인 대표자가 선출된 후에 원래 약속했던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 채점기준

▶ 역선택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① 행위자: 인민과 대표자 또는 유권자와 후보자와 같이 대의제에서 주인과 대리인을 나타내는 행위자가 둘 다 들어가야 함.

② 행위 :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은 답으로 인정함.

유사답안

-인민이 대표자를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잘못된 후보자를 뽑을 수 있다.

부분점수

-인민과 대표자를 인민과 대리인, 주인과 대표자로 쓰고 행위 부분을 정확히 쓰면 10점

-인민과 대표자를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쓰면 0점(사실상 동어반복)

▶ 도덕적 해이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① 행위자: 대표자 또는 국회의원

② 행위: 약속 또는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 인정

유사답안

-대리인인 국회의원(대표자)이 선출된 후 공약(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원(대표자)이 선출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

부분점수

-대표자를 대리인이라고 쓰고 행위 부분을 정확히 쓰면 10점

-대표자가 부패할 수 있다와 같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관련이 있는 행위를 서술하면 10점

【3-2】 (20점)

○ 모범답안

㉠. 탄핵 요건 완화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대표자)의 권한을 강화한다.

㉡.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 채점기준

㉠ 직접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의제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함(다양한 표현 인정)

㉡ 만 쓰고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0점

㉢을 쓰고 직접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의제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5점

㉣ 대의제의 한 행태로서 직접민주주의 혹은 인민주권의 강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다양한 표현 인정)

㉤ 만 쓰고 이유를 쓰지 않으면 0점

㉥을 쓰고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의제를 강화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직접민주주의/인민 주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 5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4>

【4-1】 (30점)

○ 모범답안

(가)는 평등의 근거를 정의감의 능력(도덕적 인격)에서 찾고 있지만 (나)는 쾌고 감수 능력(감각 능력,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는 평등의 대상(범위)을 인간으로 한정하지만 (나)는 인간을 넘어서 동물까지 확대하고 있다.

○ 채점기준

- ▶ 평등의 근거에서 (가), (나)의 차이점, 평등의 대상(범위)에서 (가), (나)의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위의 두 가지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30점)
- 위의 두 가지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5점)
- 위의 두 가지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도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앞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4-2】 (30점)

○ 모범답안

(병, 무)

○ 채점기준

- ▶ 맞는 선택지(병, 무)를 고르면 한 개 당 15점을 가산하고, 틀린 선택지(갑, 을, 정)가 포함되면 한 개 당 10점을 감점함.
- 병, 무만을 모두 고른 경우(30점)
- 병, 무 중에서 한 개만을 고른 경우(15점)
- 병, 무 중에서 한 개도 고르지 못한 경우(0점)
- 틀린 선택지(갑, 을, 정)가 포함되면 한 개 당 10점을 감점함.
- (예) 갑, 병, 무를 고른 경우(20점)
 - 갑, 병, 정, 무를 고른 경우(10점)
 - 갑, 병을 고른 경우(5점)
 - 갑, 을, 병, 정, 무를 고른 경우(0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5>

【5-1】 (10점)

○ 모범답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채점기준

▶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

【5-2】 (20점)

○ 모범답안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한다.

○ 채점기준

▶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20점.

방안이 제시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 5점 감점

문법, 문장의 논리적 구성 등을 감안해 1-5점 감점

【5-3】 (30점)

○ 모범답안

그래프를 보면 기술직은 경력단절률이 높고 복귀율이 낮은 반면, 사무직은 경력단절률은 낮고 복귀율이 높다.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임신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술직이 실제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차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채점기준

▶ 그래프를 통해 기술직의 경력단절률을 사무직보다 높고, 복귀율은 사무직보다 낮음을 지적하고, 경력단절이 주요한 임금 격차의 원인이기 때문에 기술직은 사무직보다 여성에게 불리함을 서술해야 함.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을 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기 보다는 성차별로 인한 결과임을 밝혀야 함.

- 그래프를 통해 기술직의 경력단절률이 사무직보다 높고, 복귀율은 사무직보다 낮음을 지적하지 않으면 5점 감점

- 임신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임을 밝히지 않으면 5점 감점

-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을 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 기술직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임을 밝히지 않으면 5점 감점

- 논의를 종합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차별 때문임을 밝히지 않으면 5점 감점

“사회적인 성차별” 외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처한 차별적 현실” 등 같은 의미의 단어일 경우 점수 부여.

지문과 그래프에 의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출제의도에 벗어나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그 외 문법, 논리적 구성 등을 감안해 1-5점 감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6>

【6-1】 (20점)

○ 모범답안

유해한 예술과 지식에서 벗어나 무지, 순진함, 가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쓸모없는 지식의 오염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덕과 정직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 채점기준

▶ 제시문 (가)에서 “자연의 상태” 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할 경우 10점 부여, 단 주요개념이 빠졌을 경우 2점씩 감점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2점 감점함.

▶ 제시문 (가)에서 “내적 교육” 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할 경우 10점 부여, 단 주요개념이 빠질 경우 2점씩 감점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2점 감점함.

【6-2】 (40점)

○ 모범답안

예술을 무위도식과 허영심에서 생기는 사치 추구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은 예술이 사회의 풍속과 인간의 정직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기며, 예술을 자신과 다른 집단을 구별 짓는 지적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예술이 다른 삶의 양식을 혐오하는 계급적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

○ 채점기준

▶ 제시문 (가)와 <보기>에서 각각 예술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각각 기술하여 그 차이점을 모두 드러낼 경우 40점 부여

▶ (가)와 <보기>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주요개념이 빠질 경우 2점씩 감점하고, 두 입장을 차이점을 드러내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2점씩 감점함.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성장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크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축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 소득 불평등이 20세기 전반기에는 완화되었다가 20세기 후반기에는 심화되었다. 역사적 추세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종래의 견해는 성과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어야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실증 연구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견해의 설득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간에 축적되는 생산적 자원이다.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속성 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확산될수록 인적 자본의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를 기초로 이들은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빈곤층의 인적 자본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인적 자본 형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가상의 국민 경제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부터 나열하면 (1, 2, 8, 9)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자.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자 3만큼의 고정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빈곤층은 금융 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국민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6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은 20으로 동일한 가운데 소득 분배가 (2, 4, 6, 8)과 같이 더욱 평등하게 바뀌면 인적 자본에 대한 총 투자는 9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불평등의 완화는 분배 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1-1. ㉠을 근거로 할 때 ㉡에 의하면 20세기 중엽과 20세기 말엽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떠할지를 추론하시오. 단,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고 가정한다. (60자 이내) [20점]

1-2. <보기>는 윗글을 읽고 갑, 을, 병이 나눈 대화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보기>

갑 : 마지막 문단의 예는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볼게. 가령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이 각자에게 3이 아니라 7이라면 소득 분배가 (1, 2, 8, 9)인 경우 총 투자가 (ㄱ) 인 반면, 소득 분배가 (2, 4, 6, 8)로 바뀌면 총 투자가 (ㄴ) 이(가) 되어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을 :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교육을 못 받는 것도 실제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7이라는 교육비용 가정은 지나친 것 같아. 오히려 윗글에서 (ㄷ) (라)고 가정한 것에 더 주목해야 해. 그 가정을 다르게 바꾸면 빈곤층도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 꼭 불평등 해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것이지.

병 :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보다는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공적 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가 교육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듯해. ㉣ 그래야만 경제 성장이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① 빈 칸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ㄱ) _____ (ㄴ) _____

② 빈 칸 (ㄷ)을 채우시오. (30자 이내)

③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 관점은 ㉡에 나타난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유현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자 사씨는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유연수는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이에 교씨는 문객(門客) 동청 등과 짜고 사씨를 모해하고자 한다.

장주가 죽은 것을 알고 ㉠ 교씨가 대성통곡하였다. 동청이 쓴 계책을 알았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때를 타 계책을 이루기 위해 한림[유연수]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는 분명 지난번 우리 모자를 저주한 사람이 한 것이니, 하 인들을 심문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림이 즉시 하인들을 큰 곤장으로 엄하게 심문했다. 교씨의 시녀인 납매가 말했다.

“제가 문밖을 지나다 보니 사부인의 시녀인 춘방과 설매가 난 간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러고 오래지 않아 이러한 변이 생겼으니,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납매와 입을 맞춘 설매가 말했다.

“사부인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장주를 죽 인다면 마땅히 크게 상을 내리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마침 장주가 홀로 자고 있기에 춘방이 비로소 손을 썼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씨가 방으로 들어가 수건으로 목을 매니, 시비가 급히 구해 냈다. 이에 교씨가 말했다.

“첩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만, 투기하는 부인에게 정부(情夫)가 있으니 상공에게 독수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다시 목을 매니 한림이 급히 구하고서 말했다. “장주의 죽음은 실로 천지간에 있을 수 없는 변고다. 투기하는 부인을 집안에 둔다면 반드시 조상님께서 제사상을 받지 않으시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다음날 한림이 유씨 집안의 친족들을 맞아들여 사씨의 전후 죄상을 모두 말하고 쫓아낼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씨는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중략)

㉡ 임씨는 사씨의 추천 아래 상서[유연수]의 첩으로 유씨 문중에 들어온 뒤에는 선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상서는 목종조(穆宗朝)에 각로(閣老) 자리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황후가 사씨의 어진 덕행을 듣고 자주 불러 보니 궁궐 안 여인들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 사씨와 임씨가 친자매 같이 우애 있게 지내니 집안이 화평하였다. 상서와 사씨는 해로하다가 팔십에 이르러서 함께 세상을 떠났으며, 임씨 역시 무궁한 복을 누렸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2-1. <보기>의 ㉠에 주목하여 윗글에서 ㉠과 대조되는 ㉡이라는 인물을 설정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4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과 세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특정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 『사씨남정기』는 조선 후기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2-2. <보기>의 ㉡에 주목하여 『사씨남정기』를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할 때, 윗글의 ‘사씨’, ‘교씨’, ‘유연수’는 각각 <보기>의 누구에 대응하는가를 밝히시오. [3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간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김만중이 지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김만중은 이와는 ㉡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씨의 모습은 보편적 윤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숙한 숙녀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긴 김춘택도 사씨의 현숙함은 초(楚)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의 충절처럼 군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윤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시기는 숙종 재위 시에 남해의 섬에 유배 중일 때였으며, 이때 김만중은 자신이 반대당파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사씨 : _____, 교씨 : _____, 유연수 : _____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 삶의 토대인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각각의 문화는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존재하는 분리된 개체이며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한 실체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개별 문화 현상이나 특징이 해당 문화의 전체 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각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문화의 독자적 가치나 의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시각에서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문화의 구성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개인'에는 구체적인 문화의 특수한 환경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른 개별적인 문화 속에서 개인이 지니는 의미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들에서만 요청되는, 내용 없는 개념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문화 속 개인의 자율성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문화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개별 문화의 특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줄 것, 즉 '차이의 인정'을 요구한다. 차이의 인정을 위해서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넘어 개인과 집단 각각의 자아정체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내적 가치'를 그 자체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만 그 문화 속의 개인이 지닌 자유와 자율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한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 전통의 온전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그 문화권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이의 인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 평가되고 인정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개별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통과 삶의 양식의 보호는 오직 그 구성원들의 인정에 기반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개별 문화 특히 소수 문화의 생존은 생물종의 보존과 다르며, 그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변형의 힘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그 구성원이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다면, 그 문화는 자기변형을 통한 문화 유지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를 가져야 한다. 또한 소속된 집단의 문화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통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와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3-1. <보기>의 ㉠와 ㉡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40점]

<보기>

㉠ 개인의 자율성, ㉡ 차이의 인정

3-2. <보기>에서 말하는 '히잡'과 '명예 살인'이 문화적 차이로 관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윗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히잡(hijab)은 이슬람에서 여성의 신체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쓰는 가리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히잡을 강요받지 않았던 서유럽이나 미국의 이슬람 여성은 "히잡을 쓰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명예 살인(honor killing)은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 살인의 피해자는 국제연합의 통계에서 연간 5,000명 이상에 달한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영업자 A는 2017년 3월경 화가 B로부터 벽화 1점의 값을 모두 지급하고, 벽화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의 카페 내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카페의 고객들이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A는 설치 1개월 후 벽화를 철거, 소각하였다. 아래의 (나)는 B가 주장하는 글이고, (다)는 A가 주장하는 글이다.

(나) A는 위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벽체에서 벽화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고, 철거 과정에서 벽화를 훼손하였으며, 이후 이를 소각하였다. 이러한 벽화에 대한 철거, 훼손, 소각의 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저작권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권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권이라 하고, 이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파괴한 경우 저작자가 갖는 보존의 이익과 소유권자가 갖는 파괴의 이익을 비교하고 저울질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일반규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A는 B의 벽화를 떼어 내어 폐기함으로써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벽화를 영구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떼어내는 데 대하여 화가 B의 암묵적 양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A가 벽화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이루어진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자 A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능에는 저작물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되며, 벽화의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가 벽화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은 이상, 벽화의 소유권자인 A의 그 벽화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중 경제적 자유로서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재산권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며 이는 우리 민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4-1. 윗글은 A와 B가 각각 헌법에 명문화(明文化)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충돌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A와 B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30점]

A: _____

B: _____ , _____

4-2. <보기>는 (나)의 입장에서 (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다)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220자 이내)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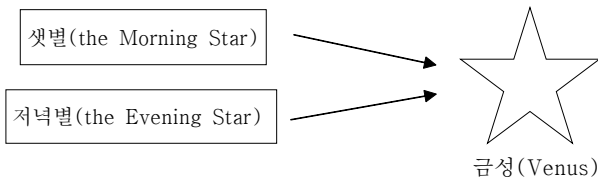
<보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저작권권을 가진다. 벽화에 대한 철거, 소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저작권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해 보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레게는 ‘의미(意味, meaning)’에는 ‘의의(意義, sense)’와 ‘지시(指示, reference)’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셋별은 저녁별이다(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라는 명제를 예로 들면서 단어나 구가 지니는 언어 내적 의미인 ‘의의’와 단어나 구가 언어 외적으로 지시하는 ‘대상(對象, referent)’을 구분하였다. ‘셋별(the Mor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새벽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의를 지녔으며, ‘저녁별(the Eve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저녁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두 표현의 ‘의의’는 다르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즉 아래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듯이 ‘셋별’과 ‘저녁별’은 ‘금성(Venus)’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이다.

<그림 1>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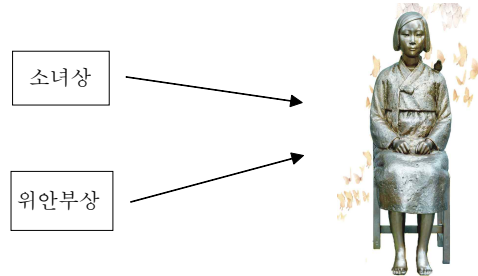


(나)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은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불려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불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물에 있는 액체를 가리키면서 ‘물’, ‘water’, ‘eau’, 혹은 ‘shui’ 등과 같이 언어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의성’은 프레게의 이론에서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지시 관계만을 고려한 용어이다. 즉 단어나 구의 언어 내적 ‘의의’ 차원에서의 차이는 무시된 것이다. 여기서 ‘의의’ 차원의 차이는 무시되어도 좋은 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의 차이가 ‘물’, ‘water’, ‘eau’, 혹은 ‘shui’에서와 같이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인 차이일 때는 무시되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는 ‘의의’ 차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 가령 어떤 독재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거나 혹은 ‘극악무도한 독재자’로도 부른다면 여기서 두 구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인이지만 두 구는 매우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되며 그 차이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가끔씩 개명을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의의’ 차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그림 2>의 상이 세워졌다. 일본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매주 수요일 열어왔으며 1,0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리던 2011년 12월에 세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을 ‘평화의 소녀상’ 혹은 줄여서 ‘소녀상’이라

고 부르지만 일본 정부는 굳이 ‘위안부상’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그림 2>의 상을 놓고 한일 간에는 ‘소녀상’이나, ‘위안부상’이나는 ‘명칭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2>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5-1. (가)를 바탕으로 다음에 답하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소녀상은 위안부상이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② “소녀상은 위안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5-2. (다)의 ‘명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나)에서 찾고,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명칭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_____

② _____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과학의 탄생 이후 많은 학자들은 올바른 탐구의 기준을 과학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적 지식이 엄밀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하나의 사실에 동일한 조건만 주어지면 누가 관찰하고 실험하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과학은 개인의 감정, 가치판단, 선입견 또는 지적 배경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가치중립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과학은 개별적인 것에 관한 탐구로부터 출발하지만 개별적인 것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일반법칙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적 방법은 자연과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 윤리학, 신학 등과 같은 학문의 대상에도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간의 정신 활동과 역사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과 같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은 물론, 초자연적인 힘 또는 형이상학적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설명, 기술, 예견 등이 가능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시 또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법칙을 통한 인과적 설명과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일반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내용이 훼손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작자와 독자는 작품 하나하나의 고유한 의미에 더 관심을 가진다. 작품은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 체험을 통해 더 잘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다. 문학과 다른 영역에 속하는 역사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역사적 사건도 일회적이며 특수한 것이므로 그것을 어떤 일반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사건이 지니는 특성은 오히려 간과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혁명의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자체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 자체가 지니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성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배제된 과학적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관찰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 활동이 투영된 작품이나 인간 삶의 역사를 파악하는 학문은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주관의 체험을 넘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6-1. ㉠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법칙을 통해 어떤 사건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험펠(C. Hempel)은 <보기>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기호 E, C, L을 ()에 넣어 설명을 완성하시오. [20점]

— <보기> —

설명은 언제나 두 전제, 일반법칙과 초기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사건(E)에 대한 설명은 초기조건(C)과 경험적으로 검증된 어떤 일반법칙(L)을 말하는 진술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터졌다’는 사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라디에이터에 물이 들어있었다’, ‘기온이 0°C 이하로 내려갔다’와 같은 초기조건과 그와 관련된 ‘물은 0°C 이하에서 언다’, ‘물이 얼 때 압력이 증가한다’와 같은 일반법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건을 일어나게 한 과거의 원인을 알려면 ㉡(), ()로부터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알고 있는 ㉣(), ()로부터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 (), () ㉢ ()
 ㉣ (), () ㉤ ()

6-2.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각 110자 이내) [50점]

① (가)와 (나)는 학문의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한다. ‘개별적인 것’ 혹은 ‘일회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로부터 연고자 하는 것이 (가)와 (나)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시오.

② (가)와 (나)는 ‘가치중립’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나)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항카드(인문계열)

[문제 1]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 성장, 소득 분배, 불평등, 인적 자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경제 성장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크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축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 소득 불평등이 20세기 전반기에는 완화되었다가 20세기 후반기에는 심화되었다. 역사적 추세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종래의 견해는 성과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어야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실증 연구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견해의 설득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간에 축적되는 생산적 자원이다.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속성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확산될수록 인적 자본의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를 기초로 이들은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빈곤층의 인적 자본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인적 자본 형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가상의 국민 경제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부터 나열하면 (1, 2, 8, 9)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자.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자 3만큼의 고정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빈곤층은 금융 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국민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6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은 20으로 동일한 가운데 소득 분배가 (2, 4, 6, 8)과 같이 더욱 평등하게 바뀌면 인적 자본에 대한 총 투자는 9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불평등의 완화는 분배 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

1-1. ㉠을 근거로 할 때 ㉡에 의하면 20세기 중엽과 20세기 말엽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떠할지를 추론 하시오. 단,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고 가정한다. (60자 이내) [20점]

1-2. <보기>는 윗글을 읽고 갑, 을, 병이 나눈 대화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보기>

갑 : 마지막 문단의 예는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볼게. 가령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이 각자에게 3이 아니라 7이라면 소득 분배가 (1, 2, 8, 9)인 경우 총 투자가 (ㄱ) 인 반면, 소득 분배가 (2, 4, 6, 8)로 바뀌면 총 투자가 (ㄴ) 이(가) 되어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을 : 그렇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교육을 못 받는 것도 실제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7이라는 교육비용 가정은 지나친 것 같아. 오히려 윗글에서 (ㄷ) (라)고 가정한 것에 더 주목해야 해. 그 가정을 다르게 바꾸면 빈곤층도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 꼭 불평등 해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것이지.

병 :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보다는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공적 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가 교육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듯해. ㉢ 그래야만 경제 성장이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① 빈 칸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ㄱ) _____ (ㄴ) _____

② 빈 칸 (ㄷ)을 채우시오. (30자 이내)

③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 관점은 ㉢에 나타난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3. 출제 의도

-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경제 성장, 소득 분배 등의 개념을 제재로 하는 제시문의 글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독서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과 <보기>의 글에 담긴 경제 성장, 인적 자본 형성, 교육비용, 소득 불평등, 금융 기회 사이의 연관 관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p>(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p> <p>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p> <p>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61쪽)</p> <p>○ 사회 교과서 '삶의 질과 복지' 단원에서 경제 성장의 개념, 경제 성장과 교육 투자의 관계, 공정한 분배 등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p>	<p>문항 1-1,</p> <p>문항 1-2</p>
2.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p>(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p> <p>(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37쪽)</p> <p>○ 경제 교과서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경제 목표로서 형평성과 경제 성장 등이 제시되어 있고, 경제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언급되어 있음.</p>	<p>문항 1-1,</p> <p>문항 1-2</p>
성취 기준 2	<p>(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p> <p>(라)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 등을 추구)을 이해한다.(137쪽)</p> <p>○ 경제 교과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단원에 경제 성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진술되어 있음.</p> <p>○ 동 단원에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논의하면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함.</p> <p>○ 동 단원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논의하면서 소득 재분배가 진술되어 있으며 재정 활동의 결정에 있어 형평성의 고려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아울러 재정의 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의 촉진, 교육 부문 육성 등이 제시되어 있음.</p>	<p>문항 1-1,</p> <p>문항 1-2</p>
성취	(4) 국민 경제의 이해	문항

	<p>기준 3</p> <p>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순환과 함께 경기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가)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138쪽)</p> <p>○ 경제 교과서 ‘국민 경제의 이해’ 단원에는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 요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진술되어 있음. ○ 동 단원에는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으로서 인적 자본이 제시되어 인적 자본과 경제 성장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의 교육, 교육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 정부가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인적 자본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음.</p>	<p>1-1, 문항 1-2</p>
	<p>성취 기준 4</p> <p>(6) 경제 생활과 금융 개인은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 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 현대 경제 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저축, 투자, 부채, 신용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139쪽)</p> <p>○ 경제 교과서 ‘경제 생활과 금융’ 단원에는 금융과 금융 시장의 의미가 소개되어 있으며 금융 거래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음.</p>	<p>문항 1-2 ②</p>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83~87	문항 1-1, 문항 1-2	○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6	32~33, 51, 74, 78, 140, 142~143, 213~214	문항 1-1, 문항 1-2	○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6	42, 73, 76~77, 80, 82, 131~133, 136~139	문항 1-1, 문항 1-2	○

5. 문항 해설

- 제시문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종래의 견해와 이와는 달리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대비시키면서 후자의 견해가 인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음.
- 문항 1-1은 제시문의 첫 단락에서 소개한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불평등 양상이라는 역사적 사실 관계에 종래의 견해를 적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양상을 추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불평등이 20세기 전반기에 완화되었다가 후반기에 심화되었다면, 불평등의 정도가 20세기 중엽 경에 가장 낮았을 것이고 20세기 말엽 경에는 높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음. 여기에 불평등과 성장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종래의 견해를 적용하면, 20세기 중엽에는 성장 속도가 빨랐고 20세기 말엽에는 성장 속도가 느렸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음.
- 문항 1-2의 ①은 제시문의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 소득 분배와 인적 자본 투자 사이의 간단한 수치 예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 문항 1-2의 ②는 제시문 네 번째 단락의 수치 예에서 금융 기회에 대해 가정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 문항 1-2의 ③은 제시문의 새로운 견해와 보기 글의 ㉠에 나타난 관점을 불평등과 성장 사이의 인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운 견해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 인과의 방향이 분배(원인)로부터 성장(결과)으로 향하는 반면, ㉠에서는 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향이 성장(원인)으로부터 분배(결과)로 향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속도가 20세기 중엽에는 느렸고 20세기 말엽에는 빨랐을 것이다” 혹은 “20세기 중엽에 비해 말엽에 성장 속도가 더 빨랐을 것이다”는 내용을 서술했다면 20점으로 평가함. * 단, 전반기/후반기라는 기간에 걸친 변화(상승, 하락, 완화, 심화, 느려짐, 빨라짐)와 중엽/말엽이라는 일정 시점의 수준(느리다, 빠르다, 심하다, 약하다)를 구분하지 않고 답안을 서술한 경우에는 제시문의 전반적인 요지를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소폭 감점함. 예를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속도가 20세기 중엽에는 느려지고 말엽에는 빨라진다” 1-2점 감점 - “성장 속도가 20세기 전반기에는 느리고 후반기에는 빠르다” 1-2점 감점 - “성장 속도가 20세기 전반기에는 느려지고 후반기에는 빨라진다” 2-3점 감점 -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4-5점 감점 * 호응 관계를 비롯한 문장 표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1-5점 감점함. 예를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이 촉진된다,” “경제가 저해된다” 등 다양한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감점 	20
문항 1-2 ①	(ㄱ), (ㄴ) 모두 맞으면 5점, 틀리면 0점.	10
문항 1-2 ②	제시문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서 답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면 10점으로 평가함. 호응 관계를 비롯한 문장 표현을 감안하여 1-2점 감점. 단, “빈곤층은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없다”는 답은 제시문이 아니라 <보기>의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므로 0점으로 평가함.	10
문항 1-3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불평등을 성장 저해의 원인으로 보지만 ㉡는 불평등을 성장이 초래하는 결과로 보고 있음. 이와 같은 차이를 정확히 진술한 경우 20점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부진한 성장을 불평등의 결과로, ㉡는 성장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 - “㉠은 불평등 완화가 성장의 원인이라고 보고 ㉡는 성장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본다” 등과 같은 	20

	<p>답안도 20점으로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에 대한 진술과 ㉡에 대한 진술 가운데 한 가지만 정확하면 10점으로 평가함. *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 대신에 "... 저해한다고 본 반면, ... 초래한다고 본다" 등과 같이 서술한 경우에는 1-2점 감점. * 단, "㉡와 달리 ㉠은 ..."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인과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으면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고 ㉠에 대한 진술만 채점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호응 관계를 비롯한 문장 표현을 감안하여 1-2점 감점. 	
--	--	--

7. 예시 답안

1-1. 경제 성장 속도가 20세기 중엽에는 느렸을 것이고 20세기 말엽에는 빨랐을 것이다.

1-2.

① (ㄱ) 14, (ㄴ) 7

② 빈곤층은 금융 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③ ㉡에 나타난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 성장이 초래하는 결과이지만 ㉠의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 2]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사씨남정기,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처첩 제도, 김만중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유현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자 사씨는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유연수는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이에 교씨는 문객(門客) 동청 등과 짜고 사씨를 모해하고자 한다.

장주가 죽은 것을 알고 ㉠ 교씨가 대성통곡하였다. 동청이 쓴 계책을 알았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때를 타 계책을 이루기 위해 한림[유연수]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는 분명 지난번 우리 모자를 저주한 사람이 한 짓이니, 하인들을 심문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림이 즉시 하인들을 큰 곤장으로 엄하게 심문했다. 교씨의 시녀인 납매가 말했다.

“제가 문밖을 지나다 보니 사부인의 시녀인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러고 오래지 않아 이러한 변이 생겼으니,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납매와 입을 맞춘 설매가 말했다.

“사부인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장주를 죽인다면 마땅히 크게 상을 내리리라.’ 하였습시다. 오늘 마침 장주가 홀로 자고 있기에 춘방이 비로소 손을 썼습시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씨가 방으로 들어가 수건으로 목을 매니, 시비가 급히 구해 냈다. 이에 교씨가 말했다.

“첩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만, 투기하는 부인에게 정부(情夫)가 있으니 상공에게 독수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다시 목을 매니 한림이 급히 구하고서 말했다.

“장주의 죽음은 실로 천지간에 있을 수 없는 변고다. 투기하는 부인을 집안에 둔다면 반드시 조상님께 서 제사상을 받지 않으시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다음날 한림이 유씨 집안의 친족들을 맞아들여 사씨의 전후 죄상을 모두 말하고 쫓아낼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씨는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중략)

㉡ 임씨는 사씨의 추천 아래 상서[유연수]의 첩으로 유씨 문중에 들어온 뒤에는 선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상서는 목종조(穆宗朝)에 각로(閣老) 자리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황후가 사씨의 어진 덕행을 듣고 자주 불러 보니 궁궐 안 여인들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 사씨와 임씨가 친자매 같이 우에 있게 지내니 집안이 화평하였다. 상서와 사씨는 헤로하다가 팔십에 이르러서 함께 세상을 떠났으며, 임씨 역시 무궁한 복을 누렸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2-1. <보기>의 ㉔에 주목하여 윗글에서 ㉑과 대조되는 ㉒이라는 인물을 설정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4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과 세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특정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㉔ 『사씨남정기』는 조선 후기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2-2. <보기>의 ㉓에 주목하여 『사씨남정기』를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할 때, 윗글의 ‘사씨’, ‘교씨’, ‘유연수’는 각각 <보기>의 누구에 대응하는가를 밝히시오. [3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간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김만중이 지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김만중은 이와는 ㉓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씨의 모습은 보편적 윤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숙한 숙녀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긴 김춘택도 사씨의 현숙함은 초(楚)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의 충절처럼 군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윤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시기는 숙종 재위 시에 남해의 섬에 유배 중일 때였으며, 이때 김만중은 자신이 반대당파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사씨 : _____ , 교씨 : _____ , 유연수 : _____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현실을 찾아보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와 관련하여 작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 작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비교하여 작품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p>과목명: 국어 1(문학), 문학</p> <p>성취기준 1</p> <p>(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치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나 형상화 방법에서도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난다. 작품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여 작가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하며, 나아가 이를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학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77쪽)</p>	<p>관련</p> <p>문학 2-1, 2-2</p>
	<p>성취기준 2</p> <p>(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137쪽)</p>	<p>문학 2-1, 2-2</p>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이상구 외	비상교육	2014	47	제시문	○
문학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4	38	문학 2-1 보기	○
문학	김운식 외	천재교육	2014	233	문학 2-2 보기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64-157	제시문	○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 전변의 한 국면	류준경	국문학회	2015	7-38	문학 2-2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이상구 외	비상교육	2014	47-55	제시문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4	192-198	제시문	
문학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4	227-233	제시문	

5. 문항 해설

제시문인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 김만중(金萬重)에 의해 창작된 고전소설로 처첩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림 유연수는 아내 사씨가 늦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교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고, 이어 사씨도 아들을 낳는다. 장래에 불안을 느낀 교씨는 동청·냉진 등과 짜고 사씨에게 부정(不貞)의 누명을 씌운다. 동청과 설매가 장주를 죽여 사씨의 짓이라 모함하니, 한림이 사씨를 내치고 교씨를 정실로 삼는다. 쫓겨난 사씨는 술한 시련을 겪은 뒤 수 월암에 거처한다. 한림이 승상 업승과 갈등을 빚고, 집에 머물면서 사씨의 억울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를 눈치 챈 동청의 무고(誣告)로 한림은 유배되고, 교씨는 동청을 따라 유씨 집안을 떠난다. 특사로 풀려난 한림이 설매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어 사씨와 상봉한다. 왕이 업승 일파를 내치고 한림 일파를 등용하니, 동청은 처형되고 교씨는 냉진을 따라간다. 한림이 사씨를 정실로 복위시키고 교씨를 잡아 처형한 뒤, 첩 입씨를 얻어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간다.

이 작품은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당쟁의 정치적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유가적 이념성을 재현하고 당대인의 보편적 기대지평에 일치되는 결말 등으로 인하여 사대부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다양한 남녀 독자층에게 폭넓게 읽혔다. 처첩 갈등형 가정소설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2-1. 이 문제는 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처첩 제도를 형상화한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제시된 두 인물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악한 인물로 설정된 교씨가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선한 인물로 설정된 입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씨남정기』는 처첩 제도로 인한 갈등을 개인의 성품에 근거한 것으로 돌림으로써, 처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2-2. 이 문제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가가 『사씨남정기』를 창작한 의도를 새롭게 분석해 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그간,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돌리고자 지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렇다면 작품 속 사씨는 인현왕후에, 교씨는 장희빈에, 유연수는 숙종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 『사씨남정기』 속의 사씨가 단순히 현숙한 여성이 아니라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김춘택 등도 사씨를 굴원(屈原)에 빗대어 사대부의 충절에 대응되는 보편적 윤리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시기가 남해의 섬에 유배 중일 때였으며, 이때 자신이 반대당파에 의해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씨가 간특한 교씨에 의해 모함을 당해 유연수에게 쫓겨난 일은 김만중이 반대당파에 의해 모함을 받고 숙종에 의해 유배당한 일과 대응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성이 입을 그리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미인곡」 등의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처럼, 사씨는 작가인 김만중에, 교씨는 반대당파에, 유연수는 숙종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2-1	<p>-설정 이유(20점) : 임씨를 설정한 이유로 악한 교씨가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선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추론하면 20점을 준다. *설정 이유를 정답처럼 길게 서술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표현이 달라도, 악한 교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선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20점을 준다.</p> <p>-한계(20점) : 『사씨남정기』가 조선 후기 처첩 제도로 인한 갈등을 개인의 성품(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 20점을 준다. * 개인의 성품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낸다는 내용이 빠진 채로(5점 감점), 처첩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15점을 준다. *한계로 처첩 제도를 쉽게 용인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하면 10점을 준다. / 한계로 순종적인 여인을 통해 처첩 제도를 용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율성을 저해(침해)하게 된다는 내용을 쓰면 10점을 준다. * 이밖에는 정답과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점수를 준다. * 문장구성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감점한다.</p>	40
문항 2-2	<p>김만중, 반대당파(혹은 김만중의 반대당파), 숙종 세 개의 항목에 각각 10점씩 배정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외의 답은 오답으로 간주한다.</p>	30

7. 예시 답안

2-1. 임씨를 설정한 이유는 악한 교씨가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선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사씨남정기』는 조선 후기 처첩 제도로 인한 갈등을 개인의 성품(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2-2.

김만중, 반대당파(혹은 김만중의 반대당파), 숙종

[문제 3]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사회)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다문화, 차이의 인정, 관용, 보편적 인권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 삶의 토대인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각각의 문화는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존재하는 분리된 개체이며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한 실체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개별 문화 현상이나 특징이 해당 문화의 전체 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각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문화의 독자적 가치나 의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시각에서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문화의 구성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개인’에는 구체적인 문화의 특수한 환경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른 개별적인 문화 속에서 개인이 지니는 의미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들에서만 요청되는, 내용 없는 개념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문화 속 개인의 자율성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문화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개별 문화의 특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줄 것, 즉 ‘차이의 인정’을 요구한다. 차이의 인정을 위해서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넘어 개인과 집단 각각의 자아정체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내적 가치’를 그 자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만 그 문화 속의 개인이 지닌 자유와 자율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한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 전통의 온전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그 문화권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이의 인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 평가되고 인정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개별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통과 삶의 양식의 보호는 오직 그 구성원들의 인정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문화 특히 소수 문화의 생존은 생물종의 보존과 다르며, 그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변형의 힘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그 구성원이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다면, 그 문화는 자기변형을 통한 문화 유지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를 가져야 한다. 또한 소속된 집단의 문화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통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와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3-1. <보기>의 ㉠와 ㉡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40점]

<보기>

㉠ 개인의 자율성, ㉡ 차이의 인정

3-2. <보기>에서 말하는 ‘히잡’과 ‘명예 살인’이 문화적 차이로 관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윗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히잡(hijab)은 이슬람에서 여성의 신체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쓰는 가리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히잡을 강요받지 않았던 서유럽이나 미국의 이슬람 여성은 “히잡을 쓰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명예 살인(honor killing)은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 살인의 피해자는 국제연합의 통계에서 연간 5,000명 이상에 달한다.

3. 출제 의도

- [문제 3] 을 출제한 의도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공존을 바라보는 균형되고 올바른 시각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차이는 어떤 근거에서 어느 선까지 관용의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보기 위함이다.
- 사회와 도덕 교과 내에서 문화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차이의 인정 그리고 그 차이의 인정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모든 개개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관용’에 입각한 생각은 인간 보편윤리를 부정하는 불가치적인 관점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인간 보편윤리에 입각해서 관용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문화가 유지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항의 두 지문은 문화적 상대성에서 비롯되는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이 타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는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

관련 성취기준	1.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나) 다양성과 관용 ①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를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과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③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60쪽)	문제 3
	2.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5) 문화와 윤리 (라) 다문화 사회의 윤리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의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즉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 다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①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보편 윤리의 문제 ② 다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용과 한계 ③ 다문화의 문화적 정체성 (41-42쪽)	문제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67	3-2 보기	0 (일부 인용)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267	3-2 보기	0 (일부 인용)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우리 속의 타자	조효래	창원대 출판부	2017	112-139	제시문(가), (나)	0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60-73	제시문 (가), (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264-275	제시문 (가), (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6	264-275	제시문 (가), (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210-223	제시문 (가), (나)	0

5. 문항 해설

문항[3-1]은 문화 상대주의의 일반적인 입장과 개별 문화 간 차이에 근거해서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의 자유와 자율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와 문화의 차이는 자칫 개별 문화 속의 개인들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제시문 (나)를 읽고, 그 시각의 차이점을 찾아본 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차이의 인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기술하는 문항임.

문항 [3-2]는 <보기>에서 제시된 ‘히잡’과 ‘명예 살인’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정의 한계를 가늠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문 (가)와 (나)에서 찾아서 서술하는 문항임. 특히 히잡의 경우에는 그 문화의 내적 가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적 양식이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자율성의 제약으로 보일 수 있다. 설사 일부의 시선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 양식이 그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구체적 저항을 억압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이 문화적 특징은 관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 살인의 경우는 그 어떤 내적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들더라도 인간의 보편적 윤리의 측면에서 관용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은 주로 제시문 (나)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은 다문화 사회의 바라보는 문화상대주의, 문화 간 차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화 다원주의적 입장, 공동체주의적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을 바탕에 두고 제시한 내용이다. 다문화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며,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등의 교과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그 이유로 문화적 상대성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관용이 무조건적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문화적 차이가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넘어선 맹목적 윤리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철학적, 이론적 근거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문항은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 현상을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가)와 (나)가 드러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가)와 (나)에서 어떤 관련성 속에서 해명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함】	40

	<p>▶ 제시문 (가)와 (나)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대립 쟁점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함</p> <p>▶ 요구하는 정답 문장이 <보기>에서 제시하는 구절이 답안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히 단순한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요소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장이 다른 요소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해준다는 점이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단순히 어느 요소가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가(와 나)의 지문을 파악한 답안은 어느 정도 감점 요소가 있음.</p> <p>▶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은 예시 답안 참조.</p>	
3-2	<p>【제시문 (가)와 (나)에서 주로 (나) 지문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로, 관용의 인정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임】</p> <p>▶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인정의 범위에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일 수는 없다는 것임.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관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임.</p> <p>▶ ‘히잡’은 비록 개별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해 다소 억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개인들의 자율적 선택의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거부하는 도전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명예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문화적 관습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임. <보기>속의 설명도 이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둘다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둘 다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주어진 지문에 근거해서 답변한다면 감점 요소가 있는 답변임.</p> <p>▶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은 예시 답안 참조.</p>	30

7. 예시 답안

문항 3-1

(가)는 문화의 내적 가치에 대한 차이의 인정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의 개인의 자율성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는 구성원들의 개인의 자율성을 먼저 보장하는 경우에만 그 내적 가치에 대한 차이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항 3-2

히잡은 구성원들의 인정과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관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예 살인은 그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화적 차이이므로 관용될 수 없다.

[문제 4]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재산권,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 기본권 충돌, 기본권 제한과 한계, 소유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자영업자 A는 2017년 3월경 화가 B로부터 벽화 1점의 값을 모두 지급하고, 벽화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의 카페 내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카페의 고객들이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A는 설치 1개월 후 벽화를 철거, 소각하였다. 아래의 (나)는 B가 주장하는 글이고, (다)는 A가 주장하는 글이다.

(나) A는 위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벽체에서 벽화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고, 철거 과정에서 벽화를 훼손하였으며, 이후 이를 소각하였다. 이러한 벽화에 대한 철거, 훼손, 소각의 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 하고, 이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파괴한 경우 저작자가 갖는 보존의 이익과 소유권자가 갖는 파괴의 이익을 비교하고 저울질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일반규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A는 B의 벽화를 떼어 내어 폐기함으로써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벽화를 영구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떼어내는 데 대하여 화가 B의 암묵적 양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A가 벽화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이루어진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자 A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능에는 저작물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되며, 벽화의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가 벽화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은 이상, 벽화의 소유권자인 A의 그 벽화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중 경제적 자유로서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재산권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며 이는 우리 민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

	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가족 및 재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 관계를 탐구한다. (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나) 일상생활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146쪽)	
성취기준 3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나)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58쪽)	제시문 (가),(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판결문	대법원	대법원	2015	전체	제시문 및 보기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2012	전체	제시문 및 보기	○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2012	전체	제시문 및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원리 Ⅳ. 개인 생활과 법)	김왕근 외 5인	천재교육	2016	100-109, 125, 128-131, 138-142, 159,	제시문	○
	박영경 외 5인	비상교육	2016	84-93, 115-116, 112-125	제시문	○
	손병로 외 6인	금성출판사	2016	98-111, 136-140, 146-150	제시문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6	44-52,	제시문	○

5. 문항 해설

- 제시문 4의 (가), (나), (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 및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와 그 한계라는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것임. 설문은 양쪽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도출한 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 4-1은 실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판결문을 기초한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

- 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 시 그 충돌하는 명문화된 헌법상 기본권이 무엇인지 확인함.
- 4-2는 헌법상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하고, 어느 한 쪽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도출한 결론을 위해, 제시된 <보기>에서의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의 능력을 평가함.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1) 채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상 명문화 된 권리인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면 각각의 권리마다 10점 부여함. - 각 권리가 누락될 때 마다 10점씩 감점함. - 유사한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분 점수 5점 부여함. - 정확한 답과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1~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p>(2)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에 “A와 B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으며, “헌법에 명문화(明文化)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충돌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A와 B를 바꾸어 서술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 - 항목에 대한 답을 누락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 - 요컨대 지문은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그 충돌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기본권에 대응되는 개별법(민법, 저작권법)상의 권리만을 적은 경우 상당한 감점 내지 0점으로 처리함. 	30
4-2	<p>(1) 채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에서 제시된 (나)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의 입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하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지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논거의 핵심을 220자 이내로 제시문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여 서술하면 40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유사한 취지의 논거를 제시한 경우 ±5점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부여함. -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닌 이유”로서 아래 <예시>로 든 것들이 들어간다면 최대 5점을 더 부여할 수 있음.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함으로써 벽화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 벽화를 영구적으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폐기에 암묵적 양해가 있었다. : 소유권자가 갖는 파괴의 이익이 저작자가 갖는 보존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철거나 소각행위는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p>(2)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다)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핵심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다)에서의 표현 그대로만 인용하여 서술하거나, 상식적 차원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같은 표현을 중언하거나 부언하는 답안 등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비추어 차등적으로 감점 처리함. -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제시문 중 (다)와 (나)를 반대로 제시하면 0점 부여함 	40

7. 예시 답안

- 4-1.
A: 재산권
B: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

4-2.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의 내용에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능이 있다. 그 권능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하므로, 벽화 폐기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23조 제1항 및 민법 제211조 등을 고려해 보면, 재산권 중 소유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B가 양도한 이상 A의 벽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문제 5]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언어의 자의성, 의미, 단어의 의미관계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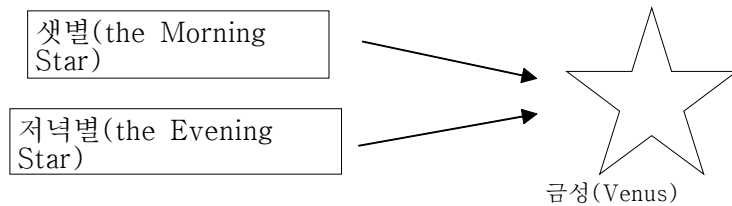
2. 문항 및 제시문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프레게는 ‘의미(意味, meaning)’에는 ‘의의(意義, sense)’와 ‘지시(指示, reference)’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새별은 저녁별이다(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라는 명제를 예로 들면서 단어나 구가 지니는 언어 내적 의미인 ‘의의’와 단어나 구가 언어 외적으로 지시하는 ‘대상(對象, referent)’을 구분하였다. ‘새별(the Mor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새벽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의를 지녔으며, ‘저녁별(the Eve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저녁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두 표현의 ‘의의’는 다르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즉 아래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듯이 ‘새별’과 ‘저녁별’은 ‘금성(Venus)’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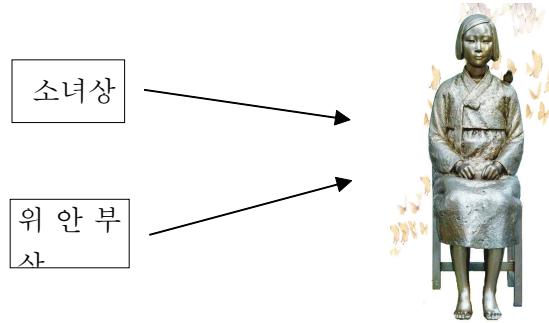
<그림 1>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나)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은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불러야할 필연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물에 있는 액체를 가리키면서 ‘물’, ‘water’, ‘eau’, 혹은 ‘shui’ 등과 같이 언어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의성’은 프레게의 이론에서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지시 관계만을 고려한 용어이다. 즉 단어나 구의 언어 내적 ‘의의’ 차원에서의 차이는 무시된 것이다. 여기서 ‘의의’ 차원의 차이는 무시되어도 좋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의 차이가 ‘물’, ‘water’, ‘eau’, 혹은 ‘shui’에서와 같이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인 차이일 때는 무시되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는 ‘의의’ 차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 가령 어떤 독재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거나 혹은 ‘극악무도한 독재자’로도 부르다면 여기서 두 구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인이지만 두 구는 매우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되며 그 차이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가끔씩 개명을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의의’ 차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그림 2>의 상이 세워졌다. 일본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매주 수요일 열어왔으며 1,0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린 2011년 12월에 세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을 ‘평화의 소녀상’ 혹은 줄여서 ‘소녀상’이라고 부르지만 일본 정부는 굳이 ‘위안부상’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그림 2>의 상을 놓고 한일 간에는 ‘소녀상’이나, ‘위안부상’이라는 ‘명칭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2>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5-1. (가)를 바탕으로 다음에 답하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소녀상은 위안부상이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② “소녀상은 위안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5-2. (다)의 ‘명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나)에서 찾고,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명칭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_____

②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언어의 특성>과 <단어의 의미> 부분에 나오는 ‘언어의 자의성’과 ‘단어의 의미와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함.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호-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기준 1	(4) 언어가 갖는 특성인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중략> 언어의 기호성은 언어가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라는 특성이며, 이때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119쪽)	문제 5-1-① 문제 5-2-①
	성취기준 2	(10) 단어의 의미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글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와 같은 단어의 의미 관계를 비롯하여 다의어,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121쪽)	문제 5-1-② 문제 5-2-②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윤여탁 외	미래엔	2016	384	42-51, 112-121	재구성
독서와 문법	이삼형 외	지학사	2016	408	42-53, 180-187	재구성
독서와 문법	이도영 외	창비	2016	398	44-51, 116-123	재구성
독서와 문법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6	352	18-41, 82-88	재구성
독서와 문법	한철우 외	교학사	2016	383	42-51, 108-119	재구성

5. 문항 해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언어의 특성>과 <단어의 의미> 부분에 나오는 ‘언어의 자의성’과 ‘단어의 의미와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문제 지문의 (가)에서는 의미가 언어 내적 ‘의의’와 언어 외적 ‘지시물’로 구성된 양면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문의 (나)에서는 ‘자의성’이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지시 관계만을 고려한 용어이며 언어 내적 ‘의의’ 차원에서 차이는 무시된 것임을 지적하고 ‘의의’ 차원의 차이도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는 ‘의의’ 차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가)에서 보여준 ‘셋별’과 ‘저녁별’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한 명칭 문제를 소개하였다.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①	‘두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함에 대한 주장’의 이해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5-1-②	‘두 표현의 의의 차이에 대한 주장’의 이해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5-2-①	자의성 때문에 복수의 이름이 허용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이해하는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5-2-②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이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7. 예시 답안

% 5번 채점 시 참고 사항

- (1) 예시 답안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핵심 내용임
- (2) 예시 답안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예, 표현/단어/구)은 동일한 정답으로 인정함

문제 5-1-①: ‘소녀상’과 ‘위안부상’이라는 표현/단어/구가(이) 지시하는/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므로 위의 주장이 성립된다.

문제 5-1-②: ‘소녀상’과 ‘위안부상’이라는 표현/단어/구의 언어 내적 ‘의의’가 다르므로 ‘위안부상’의 의의를 부정하는 위의 주장이 성립된다.

문제 5-2-①: 언어가 지닌 자의성 때문에 언어마다/사람들이 대상에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 것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상에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 것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신 ‘대상을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 정답 처리함)

문제 5-2-②: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므로 더 선호하는/유리한 표현을 쓰길 원하기 때문이다. (‘더 선호하는/유리한 표현을 쓰길 원하기 때문이다’ 대신 ‘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짐’도 정답 처리함.)

[문제 6]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생활과 윤리)/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의 객관성, 일반법칙, 문학, 역사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근대 과학의 탄생 이후 많은 학자들은 올바른 탐구의 기준을 과학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적 지식이 엄밀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하나의 사실에 동일한 조건만 주어지면 누가 관찰하고 실험하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과학은 개인의 감정, 가치판단, 선입견 또는 지적 배경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가치중립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과학은 개별적인 것에 관한 탐구로부터 출발하지만 개별적인 것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일반법칙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적 방법은 자연과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 윤리학, 신학 등과 같은 학문의 대상에도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간의 정신 활동과 역사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과 같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은 물론, 초자연적인 힘 또는 형이상학적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설명, 기술, 예견 등이 가능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시 또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법칙을 통한 인과적 설명과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일반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내용이 훼손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작자와 독자는 작품 하나하나의 고유한 의미에 더 관심을 가진다. 작품은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 체험을 통해 더 잘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다. 문학과 다른 영역에 속하는 역사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역사적 사건도 일회적이며 특수한 것이므로 그것을 어떤 일반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사건이 지니는 특성은 오히려 간과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혁명의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자체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 자체가 지니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성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배제된 과학적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관찰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 활동이 투영된 작품이나 인간 삶의 역사를 파악하는 학문은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주관의 체험을 넘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

6-1. ㉠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법칙을 통해 어떤 사건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험펠(C. Hempel)은 <보기>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기호 E, C, L을 ()에 넣어 설명을 완성하시오. [20점]

<보기>

설명은 언제나 두 전제, 일반법칙과 초기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사건(E)에 대한 설명은 초기조건(C)과 경험적으로 검증된 어떤 일반법칙(L)을 말하는 진술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터졌다'는 사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라디에이터에 물이 들어있었다', '기온이 0°C 이하로 내려갔다'와 같은 초기조건과 그와 관련된 '물은 0°C 이하에서 언다', '물이 얼 때 압력이 증가한다'와 같은 일반법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건을 일어나게 한 과거의 원인을 알려면 ㉡(), ()로부터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알고 있는 ㉣(), ()로부터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 (), () ㉢ ()
 ㉣ (), () ㉤ ()

6-2.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각 110자 이내) [50점]

- ① (가)와 (나)는 학문의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한다. '개별적인 것' 혹은 '일회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가)와 (나)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시오.
- ② (가)와 (나)는 '가치중립'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나)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과학과 인문학의 방법과 목적을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음. 이를 위해 가치중립성을 추구하는 과학의 객관성과 일반법칙을 이끌어내는 과학의 특성, 그리고 체험과 공감, 그리고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의 특성을 제시하여 양자의 핵심적인 차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 특히 역사학의 관점에서 과학적 사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p>성취기준 1</p> <p>(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가) 과학 기술과 윤리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와 과학 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본질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요구되는 과학 기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탐구한다.</p> <p>① 과학 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 ②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 ③ 과학 기술의 윤리적 과제와 책임 윤리 (38쪽)</p>	<p>이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1-3학년 도덕과 교육 과정과 관련된다.</p> <p>(4)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다) 과학기술과 도덕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인식하며, 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 기술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p> <p>①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끼친 영향 ② 과학 기술과 과학자의 가치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인식 ③ 생명 과학의 윤리적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p>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역사철학(번역자료)	W.H.윌쉬	서광사	1990	30-62	제시문(가) “역사와 과학”	○
역사철학의 이해	남청	한길사	2002	26-30, 116-118	제시문(나) 및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6인	교학사	2013	112-121	제시문(가)	○
생활과 윤리	손동현 외 6인	(주) 미래엔	2011	178-180	제시문(나)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11인	(주) 미래엔	2013	110-112	제시문(가)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과학과 인문학의 학문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문학, 특히 역사학의 관점에서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해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두 입장을 나타내는 글이 제시되었다.

(가)의 제시문은 과학적 객관성과 이를 위해 과학이 적용하는 방법 및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다른 학문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나)는 문학과 역사와 같은 인문학이 다루는 대상의 특징 및 접근방식, 그리고 과학적 객관성과 다르게 이러한 학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6-1>의 문제는 역사적 사건도 인과적 관계를 통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역사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제시한 사례에 따라 일반법칙과 현재 사건으로부터 초기사건, 즉 과거를 이끌어내고, 초기사건과 일반법칙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추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6-2-1>의 문제는 과학과 인문학의 방법론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와 그 접근방식, 그리고 그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논술하는 것이다.

<6-2-2>의 문제는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대해 역사학의 관점에서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과학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설명 방법을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는 추론능력에 따라 채점기준이 정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들의 연결이 괄호 안에 기호를 넣어 정확하게 제시되면 각 20점이 주어진다. - ㉠, ㉡, ㉢, ㉣에 각각 5점이 배정됨 - 두 개의 괄호가 있는 ㉠과 ㉢의 경우에는 괄호 하나 당 2.5점이 배정됨. 	20
6-2-1	<p>제시문 (가)와 (나)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한 태도 및 접근방식과 목적의 차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개별적인 것을 한 사례로 보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일반법칙>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에는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에는 2점씩 감점) - 제시문 (나)에서 <개별적인 것 자체에 대한> <주관적 체험을 통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얻고자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에는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에는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이 잘 드러날 경우에는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2점씩 감점 	25
6-2-2	<p>제시문 (가)와 (나)에서 가치중립에 대해 두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후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는가를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가)는 가치중립을 주장하지만 (나)는 가치중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10점을 준다. 그렇지 않고 한 입장만 맞을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함 -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인간이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10점을 준다.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내용과 관련된 비판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이 잘 드러날 경우에는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2점씩 감점 	25

7. 예시 답안

6-1.

㉠ (E) , (L) ㉡ (C) ㉢ (C) , (L) ㉣ (E)

6-2-1

(가)는 개별적인 것을 한 사례로 보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일반법칙을 이끌어내고 (나)는 개별적인 것 자체에 대한 주관적 체험을 통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6-2-2

(가)는 가치중립을 주장하지만 (나)는 가치중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은 그가 속한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가) 근대 사회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 특히 텔레비전의 출현으로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방식인 시놉티콘(synopticon)이라는 것도 등장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다수의 시선이 더욱 확장되고, 소수 권력의 노출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시놉티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놉티콘에서 감시 대상이었던 다수가 오히려 '감시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각종 댓글과 SNS들은 감시 주체로서의 다수가 소수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함으로써 역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즉 인터넷의 발달은 시놉티콘의 역감시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오늘날 감시는 정보처리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일상 활동 속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점검과 시험을 받고, 평가되며, 값이 매겨지고 판정받는 것을 허용한다. 사람들은 감시되는 환경 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혜택, 예컨대 신용카드의 편리함, CCTV의 안전성, SNS의 정보와 재미 때문에 그것이 초래하는 감시의 위험을 허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시 권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쉽게 순응하고 감시를 받아들인다.

(다) 오늘의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보여준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는 반대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네트워크화되어 서로 맹렬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니라 현대 사회 사람들의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권력에게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선을 보장해준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노출함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놉티콘적 시장에 전시한다. 노출증과 관음증이 디지털 파놉티콘인 인터넷을 살찌운다. 주체가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발전적인 욕구에 의해서, 즉 자유로운 주체의 선택이라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노출할 때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통제사회는 완성된다.

1-1. 현대 사회에서 ⊙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30점)

1-2. 현대 인터넷 사회속의 '대중'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가)와 (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체'와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10자 이내) (30점)

Π28 년 도학 교경 대년복 논) 술(A

(가) 남곽자기(南郭子綦)가 책상에 기대 앉아 하늘을 우러르며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멍하니 있는 모습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잊은 것 같았다. 안성자유(顔成子游)가 그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마른 나무 같아지고, 마음은 불 꺼진 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신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남곽자기는 대답했다.

“ⓐ지금 나는 나 스스로를 잊어버렸다. 너는 그걸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땅과 하늘의 통소 소리에 취해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너는 사람의 통소 소리는 들어봤을 테지. 그러나 땅의 통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혹시 땅의 통소 소리는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늘의 통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안성자유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땅의 소리에 대해 알려주마. 대지가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이것이 일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그 큰 바람이 한번 일었다 하면 지상의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린다. 숲속의 나무들이 뒤흔들리는데, 아름드리나무들이 송송히 구멍이 나 있어서 제각기 다르게 생겼다. 거기서 온갖 소리들이 나는데 바람이 멎으면 모든 구멍이 다시 고요해진다.”

안성자유가 말했다.

“땅의 통소 소리는 여러 구멍의 소리이고 사람의 통소 소리는 피리 소리군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통소 소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곽자기가 대답했다.

“한 줄기 바람이 대지에 불면 대지상의 모든 구멍은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인 것이다. 땅과 하늘의 통소 소리는 자연만물의 소리이지. 나는 지금 그 소리에 흠뻑 취해 있단다.”

- 장자, 「제물론(齊物論)」

(나)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이 거처하는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피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두기가 어렵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이다. 어렸을 때에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 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새재를 넘어 아득한 유배지인 바닷가의 대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곳에 이르러서야 나는 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는데, 뒤돌아보니 내가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오고 있었다. -<중략>- 나는 나를 간신히 붙잡아 이곳에서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언제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를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2-1. (가)의 ㉠과 (나)의 ㉠은 그 표면적 의미는 유사한 듯하나, 그 실제적 의미는 매우 다르다. ㉠과 ㉠이 어떤 의미인가를 각각 80자 이내로 기술하십시오. (50점)

㉠

㉠

2-2. (나)의 ㉠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을 <보기>의 시에서 직접 찾아 쓰시오. (20점)

고사모의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 — 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달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쩍섭섭하오

- 이상, 「거울」

1제 8 년 도 학 교 경 대 년 북 논 술 (A)

(가) 과학이 전문적인 학문분야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기존의 불합리한 사고와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지식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강조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계몽주의는 무지한 인간이 성숙한 이성을 통해 구습에 사로잡힌 미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적 탐구는 오늘날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넘어 인간의 삶의 세계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모든 이해는 선입견을 내포한다. 선입견 또는 편견이 없는 순수한 중립적 관찰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전통의 산물인 개념과 가치체계를 포기하고 관찰 대상에 순수하게 접근할 수 없다. 선입견은 우리 자신을 역사적 전통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지식을 얻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권위와 전통을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배척하는 계몽주의는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권위는 명령이나 맹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성적 판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통도 권위의 한 양태이다.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타성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인정되고 배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성찰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다. 전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범례이고, 우리 자신의 인식이다. 이성은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권위나 전통과 대립관계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탄생한다.

(다) 실증과학은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몰역사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현대 실증주의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맥락조차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실들의 탐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는 눈앞에 있는 사실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점에서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에 몰두하게 한다. 다른 한편 이해의 선입견을 강조하는 것도 보수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이성의 역사성을 내세워 전통을 절대화하는 것은 비판적 성찰의 힘을 약화시킨다.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판단기준이 허용될 수 없다. 전통과 권위에 기초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은연중에 지배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계몽주의가 전통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대한 도전의 역사이었으며, 계몽주의는 이성의 비판능력을 보여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다.

3-1. (가)의 ㉠에 대해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 (나)와 (다)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35점)

3-2. (가)의 ㉡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은 다르다. (나)와 (다)의 입장(비판 또는 옹호)이 무엇인지 이유를 들어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5점)

3-3. (다)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80자 이내) (20점)

‘음운’, ‘음운자질’ 그리고 ‘음절’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다. 국어의 ‘물’, ‘불’, ‘풀’, ‘빨’은 단어의 초성인 ‘ㄹ’, ‘ㅂ’, ‘ㅍ’, ‘ㅃ’만 달라 뜻이 구별된다. 이렇듯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각 음운은 ‘음운자질’ 혹은 ‘변별자질’로 불리는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들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ㄹ’, ‘ㅂ’, ‘ㅍ’, ‘ㅃ’은 모두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로 ‘순음성’이라는 음운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ㄹ’과 ‘ㅂ’, ‘ㅍ’, ‘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ㄹ’은 ‘울림성’과 ‘비음성’이라는 음운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ㅂ’, ‘ㅍ’, ‘ㅃ’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전자는 목청의 진동이 동반되는 ‘울림소리’이며 코로 공기를 내 보내면서 내는 ‘비음’이지만, 후자는 ‘안울림소리’이며 코가 아닌 입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구강음’이다. ‘ㅂ’, ‘ㅍ’, ‘ㅃ’도 ‘기식성’*과 ‘긴장성**’이라는 음운자질상의 차이에 의해 예사소리, 거센소리 및 된소리가 된다. ‘잇몸소리’인 ‘ㄴ’과 ‘ㄷ’, ‘ㅌ’, ‘ㅍ’, 그리고 ‘여린입천장소리’인 ‘ㅇ’과 ‘ㄱ’, ‘ㅋ’, ‘ㄴ’간에도 동일한 음운자질상의 차이가 있다.

‘음절’은 화자가 쉽게 독립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언어 단위인데 중성인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 혹은 뒤에 초성, 혹은 중성인 자음이 올 수 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발음의 단위까지 고려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썼다. 이렇게 모아 쓴, 즉 합자한 각 덩어리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문자(syllabary)’이다. 가령 *경-북-대-학-교*는 다섯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덩어리가 음절을 나타내므로 다섯 음절로 구성된 단어이다.

‘음운’, ‘음운자질’, ‘음절’은 언어학자가 이론을 만들기 위해 역지로 만든 개념들이 아니라 화자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즉 ‘심리적 실체성’이 있는 개념들이다. ‘심리적 실체성’이 있는 개념이란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적용 내지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영어화자들은 종종 두음전환이라는 말실수를 범하는데 ‘츄스키와 할리’라는 학자들의 이름을 ‘흙스키와 찰리’로 단어의 첫 자음을 전환할 때가 있다. 자음 ‘ㅈ’과 ‘ㅎ’을 ‘ㅎ’과 ‘ㅈ’으로 바꾼 말의 실수는 화자가 ‘ㅈ’과 ‘ㅎ’를 독립된 음운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프로이드는 가난한 환자가 의사에게 *pill*(알약)이라는 단어 대신 *bill*(계산서)을 잘못 쓴 실수를 보여주었다. 이 실수는 ‘안울림소리’인 [p]를 ‘울림소리’인 [b]로 교체하였는데 음운자질인 ‘울림성’을 독립된 음운자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네티즌들이 *지못미*(시켜주지 제해 직안해)와 같이 각 단어의 첫 음절을 모아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은 각 단어의 첫 음절인 *지-못-미*를 각각 독립된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기식성(氣息性): 두 성대를 멀리 떨어뜨려서 목청을 통과하는 기류의 양이 많은 소리가 갖는 특성
 ** 긴장성(緊張性): 목청의 긴장을 동반하며 만들어지는 소리가 갖는 특성

※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이 ‘심리적 실체성’이 있는 개념 들임을 보여주는 예들은 위 마지막 단락에서 보인 예들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이나 언어놀이에서도 발견된다. 아래 제시된 세 문제에서 괄호 속에 제시된 ①, ②, ③ 중에 적절한 하나를 고르고, 그것을 고른 이유를 밑줄 친 부분에 적으시오.

4-1. 다음 문장에서 *복문*을 실제 발음상으로는 [봉문]으로 발음 한다. (20점)

경대 *복문*[봉문]이 어느 쪽입니까?

위의 현상은 ① 음운, ② 음운자질, ③ 음절이 실제로 화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보인다. 왜냐하면 _____ (50자 이내) _____ 때문이다.

4-2. 다음 예들 중에서 (가)와 (다)에는 발음상의 변화가 없지만 (나)와 (라)에서는 유음 [ㄹ]이 탈락하여 실제 발음상에는 나타나 지 않는다. (20점)

- (가) 울--+다 > [올다]
- (나) 울--+는 > [우느]
- (다) 살--+다 > [살다]
- (라) 살--+시다 > [사시다]

위의 현상은 ① 음운, ② 음운자질, ③ 음절이 실제로 화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보인다. 왜냐하면 _____ (50자 이내) _____ 때문이다.

4-3. [가]의 동요 <산토끼>의 가사를 [나]처럼 바꿔 부른 적이 있을 것이다. (20점)

[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나]
 키토산 야끼토 룰디어 나느냐?
 총깡 총깡 서면뛰 룰디어 나느냐?

위의 [가]를 [나]로 바꾸는 언어놀이는 ① 음운, ② 음운자질, ③ 음절이 실제로 화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보인다. 왜냐하면 _____ (50자 이내) _____ 때문이다.

1월 8년 도학 교경 대년복 논) 술(A

가계의 경제 활동에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 국민 경제의 차원에서는 국민 모두의 소득을 더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의 총액 또한 증가한다. 그런데 이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는 대개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늘어난 소득 가운데 일부는 소비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국민소득 가운데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소비성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가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가 국민 경제를 하나의 전체로 보면 경제 안에서 어떤 이가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해 자신의 소득을 지출할 때 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에게 소득이 생긴 이유는 대장장이가 생산한 칼을 목공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요'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 ㉠ 예컨대 정부가 100억원을 들여 공공 시설물을 건립한다면, 정부가 지급하는 100억원은 결국 정부에 시설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의 근로자와 주주 등에게 나누어져 그들의 소득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 100억원 가운데 일정 부분은 소비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소비성향이 0.8이라면 이들은 80억원을 소비에 지출할 것이다. 그러면 이 80억원은 다시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된다. 여기까지 보면 100억원의 정부 지출로 국민소득이 180억원 발생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편 케인스는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성향도 서로 다르며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성향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누구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케인스의 견해가 옳다면, 계층에 따른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형평성을 개선하는 외에 추가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가령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각각 0.6과 0.9이고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로 100억원을 확보하여 이를 저소득층의 지원에 쓴다고 하자. 이 경우 고소득층은 소득이 100억원 줄어들어 원래 소비에 썼을 60억원을 지출하지 못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 10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새롭게 소비에 지출한다. 즉 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가 3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소득 재분배를 통해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국민소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5-1. <보기 1>은 ㉠에 대한 진술이다. (ㄱ)과 (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점)

교사모 0의

여기서 우리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폭과 비교하면 그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이 (ㄱ) 점과, 소비성향이 클수록 이러한 효과가 (ㄴ)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ㄱ) 더 크다는 / 더 작다는
- (ㄴ) 더욱 확대되는 / 더욱 축소되는

5-2. <보기 2>에 나타난 주장을 비판하되, ㉢을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하시오. (80자 이내) (40점)

교사모 1의

가계나 기업이 먼저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는 오직 정부만 남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댓글, 유언비어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정당화하게 되므로 악의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표현물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악성 댓글 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한편 악성댓글 등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비도덕적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성 댓글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인터넷상 '본인확인제'라 할 수 있다.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러한 제도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개방성', '공개성', '파급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지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①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즉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익명표현의 자유에서 오는 순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공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럴 경우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양심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보복당할 위험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6-1. 다음은 ㉠의 판단이유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다. 빈칸 (㉡)과 (㉢)을 채워 넣시오. (20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하려는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을 /를 제한하고, 동시에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그 밖에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을/를 제한한다.

(㉡) _____
 (㉢) _____

6-2. <보기>의 ㉠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밑글에서 찾았다면 (가)와 (나) 가운데 어느 것을 논거로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논거의 핵심을 각각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50점)

고사모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이나 게임산업법 등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 과몰입(게임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게임 이용자의 실명과 연령,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우려해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한다.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면 실명 인증이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법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학부모 단체 등이 이 제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 이용자와 게임산업협회 등은 게임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 찬성론의 논거: (가) / (나)

(2) 반대론의 논거: (가) / (나)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1]

출제의도

[문제 1] 을 출제한 의도는 정보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한 이해를 질문하고자 출제된 것이며, 이 문제의 지문은 정보화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권력을 감시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화가 제공하는 편익에 주목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이 거대한 감시권력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정보화가 지닌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많이 지적하고 논의하고 있으나 이 질문에서는 단순한 이분법적 비교가 아니라, 정보화의 긍정성 속에 부정성이 출발할 수 있다는 정보화 사회의 측면을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의도임.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두 편의 글(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을 읽고, 그 차이점을 찾아본 후, 그런 시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원인을 제시문 (나)와 연관 지어 찾아보고자 하는 문항임.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은 정보화 사회의 성격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벤담의 패놉티콘에서 전자시놉티콘까지”에서 정리한 내용이며, 이 부분은 전자감시사회와 패놉티콘은 정보화 사회를 다룬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어서 고등학생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주제임.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화 사회의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한병철의 글을 제시문(다)에서 제시함으로써 정보 사회 속에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시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하는 문항임.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1-1.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는 원인을 제시문 (나)에서 찾기】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에서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 중 제시문 (다)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 요구하는 정답 문장이 제시문 (나)에 주어져 있으므로 예시 답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0
1-2	<p>1-2. 【제시문 (가)와 (다)에서 ‘주체’와 ‘권력’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비교】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권력을 감시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듯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화가 제공하는 편익에 주목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이 거대한 감시권력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 존재함을 이해해야함. ▶ ‘주체’와 ‘자유’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려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질문의 내용에서 ‘대중’과 ‘권력’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으므로 이 용어도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 ▶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은 예시 답안 참조. 	30

예시답안

문제 1-1 :

사람들은 감시되는 환경 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혜택 때문에 그것이 초래하는 감시의 위험을 허용한다.

문제 1-2 :

(가)는 대중이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적인 존재이고 (다)의 대중은 스스로 자유롭다는 착각 속에서 권력이 감시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존재이다.

[문제 2]

출제의도

‘국어’와 ‘도덕’ 교과와 내용을 접목시킨 통합교과형 문제로, 장자의 「제물론」, 정약용의 「수오재기」, 이상의 「거울」에서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함축적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고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해설

(가)는 장자의 「제물론」으로, 땅과 하늘의 소리에 취해 자신을 잊은 남곽자기의 모습을 통해 자타의 구분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자는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과 대립, 편견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으며,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 속에서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 자신을 잊는다는 것 즉 망아(忘我)의 상태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만물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정약용의 「수오재기」로, 작가의 큰형님이 자기 서재에 ‘수오재’라고 이름붙인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가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잃기 쉬우므로 잘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간 눈앞의 현실적 이익과 명예에만 매달려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 즉 ‘현실적 자아’의 욕망에만 힘쓰느라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매달려 본질적 자아(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보기>는 이상의 「거울」로, 현실적 자아(일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내면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자의식의 분열을 드러낸 작품이다. ‘거울 밖의 나’는 현실적 자아이며, ‘거울 속의 나’는 본질적 자아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괴리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다. ‘거울 속의 나’는 본질적 자아라는 점에서 「수오재기」의 잃어버린 나와 대응된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과 ㉡을 각각 25점씩 채점한다. ㉠에서 스스로를 잊은 상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연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5점)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혹은 ‘자타의 구분에서 벗어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12점) -‘자연(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 혹은 ‘물아일체가 된 경지’라는 내용이 있으면 (13점) ㉡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관련하여 눈앞의 현실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5점) -‘눈앞의 현실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혹은 ‘현실적 자아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등의 내용이 있으면 (12점) -‘본질적 자아(참된 자아, 내면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있으면 (13점) *문장 표현의 수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50
2-2	‘거울속의나’ 혹은 ‘거울 속의 나’만 정답으로 간주한다.	20

예시답안

- ㉠ : 스스로를 잊은 상태란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연(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 즉 물아일체의 경지를 말한다.
㉡ :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매달려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 거울속의나

[문제 3]

출제의도

이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정신과학의 한계도 함께 사유하도록 함으로써 학문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과학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적 지식이 사회적이고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선입견을 가진 것이며, 객관적 지식만을 강조할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이고 역사적 배경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전통과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지배이익을 은연중에 대변하는 보수적인 권위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의 태동과 연관된 계몽주의에 대한 대립적 태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알도록 제시문을 제공하였다. 관련 주제는 과학적 지식의 특성에 대해서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다루어졌고, 계몽주의 및 비판적 이성과 연관된 논의는 근대 사상과 현대 사상을 다루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문항해설

이 문항은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적 지식이 순수한 중립적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입견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과 객관적 지식의 탐구를 삶의 영역에 적용할 경우 경험적 관찰과 계량적 탐구를 위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실증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이론이 될 수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정신,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정신과학 또는 인문학도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보수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띠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적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제시문에서 비판적 이성 보다는 이성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성 및 과학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과학이 무엇인지를 계몽주의와의 연관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시문 (나)는 과학의 객관적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논거로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이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객관적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허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에서 나오는 핵심적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서 과학이 자연 및 인간 사회를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것에만 의존하게 할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해의 선입견을 강조할 경우 전통과 권위를 숭상함으로써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형태를 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계몽주의의 비판적 이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항 3-1은 제시문 (가)에서 기술된 과학의 “객관적 지식”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사물에 대한 순수한 관찰로부터 객관적이며 중립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은 이미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 선입견을 가진 것이며, 과학의 실증적 지식을 자연 및 사회 영역에까지 확대할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항 3-2는 권위와 전통에 대한 계몽주의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나)는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기 위해 계몽주의가 선입견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성의 역사성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전통과 권위를 선입견으로서 인정할 경우 지배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의 비판능력을 강조하는 계몽주의를 옹호한다.

문항 3-3은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차이를 확인한 후 (다)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다)는 이성의 비판능력을 무시하고 이해의 선입견을 내세워 전통과 권위를 절대화할 경우 지배이익을 은연중에 대변하는 보수적 권위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입장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가)의 “객관적 지식”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제시문 (나)의 비판과 (다)의 비판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점기준이 정해진다. - 제시문 (나)의 비판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5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제시문 (다)의 비판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5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 5점	35

3-2	<p>권위와 전통과 관련하여 계몽주의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의 차이를 파악한 내용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에서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제시문 (다)에서 계몽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 5점 	25
3-3	<p>위의 문제에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차이를 확인한 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는 내용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5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 5점 	20

000

예시답안

1. 모든 이해는 선입견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순수한 중립적 관찰에 입각한 과학의 객관적 지식은 불가능하며, 객관적 지식의 강조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에 몰두하게 한다.
2. (나)는 이해의 선입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는 계몽주의를 비판하지만 (다)는 전통과 권위에 대적하는 이성의 비판능력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를 옹호한다.
3. (나)는 전통과 권위를 절대화함으로써 비판적 성찰의 힘을 약화시켜 은연중에 지배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띌 수 있다.

[문제 4]

출제 의도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에 나오는 기본용어인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 그리고 ‘음운변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함.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함.

문항 해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에 나오는 기본용어인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 그리고 ‘음운변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음운변화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주어진 변화가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상에서 어떤 단위의 변화인지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4 - 1	각 문항에서 선택형이 맞으면 5점, 틀리면 0점	15
4 - 2	각 문항에서 이유 설명이 우수하면 15점	45
4 - 3	각 문항에서 이유 설명이 보통이면 10점	
	각 문항에서 이유 설명이 미흡하면 0-5점	

문항 해설

- 1-1. ② 음운자질, 왜냐하면 ‘ㄱ’이 ‘울림성’과 ‘비음성’이 있는 ‘ㄹ’을 닮아 ‘ㅇ’으로 바뀌는 음운자질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1-2. ① 음운, 왜냐하면 음운 ‘ㄹ’을 ‘ㄴ’이나 ‘ㄷ’ 앞에서 탈락시키는 음운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1-3. ③ 음절, 왜냐하면 각 단어 내에서 각 음절의 순서를 역순으로 하는 음절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제 5]

출제 의도

-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국어 및 일반사회 교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AAT라는 시험 형식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출제하였음.
- 국민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정부의 지출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낳는 효과를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문항해설

- 문항 1은 국민소득의 개념,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 소비성향의 개념, 수요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원리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에 기초하여 정부 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성향과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음. 즉 제시문 두 번째 단락의 예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정부 지출의 증가 폭과 이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 폭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문항 2는 소비성향과 소득 수준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에 기초하여 소득 재분배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성향과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음. 즉 제시문 세 번째 단락의 예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수요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가)에 10점 배점 (나)에 10점 배점	20
5-2	- 정부 지출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분배만으로 수요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논리적 완결성이 있게 서술하면 최대 4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15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언급은 하되 서술이 논리적인 완결성이 없는 경우 최대 2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15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 <보기2>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문과 연결시켜 제시하지 못하면 0점으로 처리함. 제시문과 <보기2>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지출이나 정부 개입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 정답은 정부 지출 확대만이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진술에 대한 비판이어야 함.	40

예시답안

3-1. (가) 더 크다는, (나) 더욱 확대되는

3-2. ㉠이 타당하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순수한 재분배만으로도 수요가 변동해 국민소득의 증가가 가능하므로 <보기>의 주장은 옳지 않다.

[문제 6]

출제 의도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등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헌법상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그 한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특히 본인확인제(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의미와 관련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결합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안으로 등장한 ‘게임 섯다운제’에 그 논의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시물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현대 정보통신사회의 문제점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사고력과 추론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문항해설

- 제시문 6의 (가), (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그 한계라는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것임. 설문은 양쪽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도출한 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 6-1은 실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제(이른바 인터넷실명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의 응용능력과 이해도를 묻고자 함. 또 6-2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섯다운제’가 관련 법제도의 전체적인 면에서 본인확인제(이른바 인터넷실명제)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게임 섯다운제’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하고 그 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의 도출과 적절한 표현을 측정하고자 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1) 채점기준 -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면 각각 10점 부여함 - 유사한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분 점수 5점 부여함 - 정확한 답과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1~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2) 유의점 - (가)와 (나)를 바꾸어 서술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 - 항목에 대한 답을 누락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	20
6-2	(1) 채점기준 - ‘게임 섯다운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지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논거에 대한 제시문 섯택과 관련하여 (가)와 (나) 중 정확히 제시하면 각각 5점을 부여함. - 논거의 핵심을 100자 이내로 제시문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여 서술하면 20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유사한 취지의 논거를 제시한 경우 ±5점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부여함 (2) 유의점 - ‘게임 섯다운제’에 대한 찬반론의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지 않고, 6-2 <보기>에서의 표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거나, 상식적 차원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같은 표현을 중언하거나 부언하는 답안 등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비추어 차등적으로 감점 처리함. -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제시문 중 (가)와 (나)를 반대로 제시하면 0점 부여함	50

예시답안

6-1.

- (ㄱ) 익명표현의 자유
- (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2.

(1) 찬성론의 논거

: (나) / 섯다운제는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2) 반대론의 논거

: (가) / 섯다운제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므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블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과 '안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심화된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학, 정치, 언론, 경제, 법 심지어 군대조차도 위험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불확실한 위험의 영향에 대해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인화의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개인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 확장과 자기실현 가능성의 확장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의 확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나) 현대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험에 관한 미디어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디어는 위험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정확히 알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는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가 언제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도 위험에 관한 판단을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문 의견을 알리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 질병이나 질환은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개인이 바람직한 행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은 일종의 도덕적 성취로 해석되고, 질병은 도덕적 실패로 간주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은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그려낸다. 건강한 삶은 각자가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순전히 개인적인 목표로 설정된다.

1-1. 위험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100자 이내) (20점)

1-2. <보기>를 읽고, '비만'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다)를 참고해서 제시하고, 그런 인식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40점)

<보기>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기존에 '성인병' 또는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불려온 것들을 '생활 습관병'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습관병'이라는 용어의 채택은 과식,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사람들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인의 소유권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정당화함으로써 공동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항상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행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는 그가 처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절대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며, 서로 다른 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들이 창출되고 채택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고려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강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나)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은 각자가 자신의 심신에 대해 지닌 절대적 '자기 소유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나의 심신상의 자질과 재능 역시 나의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나의 심신상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내 소득과 재산 역시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심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러한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만약 국가가 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여 타인의 생계보장과 의료지원, 장학금 보조 등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지출한다면, 이는 나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2-1. (가)와 (나)는 소유권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①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50자 이내) (20점)

②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시오. (50자 이내) (20점)

2-2. <주장>에 따라 밑줄의 ⓐ를 반박하시오. (130자 이내) (30점)

<주장>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에 국한된다. 각자의 자질과 재능의 상당 부분은 선천적으로 우연히 갖고 태어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협력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대화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조리 있고 간결하게 주고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 정보를 제공하라.
- 질의 격률: 증거가 있거나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라.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라.
- 태도의 격률: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협력의 원리'뿐만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공손하지 못한 표현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의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라.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되는 표현은 늘려라.
- 칭찬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은 줄이고 칭찬은 늘려라.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비방은 늘려라.
- 동의를 격률: 상대와의 의견 차이는 줄이고 의견 일치는 늘려라.

3-1. 다음 대화에서 형규의 응답이 위반하고 있는 '협력의 원리'의 격률 두 가지를 적으시오. (①, ② 각 5점)

수진: 형규야, 요즘엔 무슨 음악 들어?
 형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열심히 듣고 있어. 그 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영화에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거 말이야. 음악이 깔리면서 눈 내리던 장면 진짜 멋있었잖아. 주인공 표정도 압권이었고. 역시 거장이 만든 영화는 달라. 올 봄에 나올 그 감독의 새 영화에도 기대가 커.

- ① _____
 ② _____

3-2.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과 수진이 준수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의 격률을 각각 한 가지씩 적으시오. (①, ② 각 5점)

선생님: 수진이가 노력을 많이 하더니 요즘 글쓰기 실력이 엄청 늘었구나.
 수진: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잘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① 선생님: _____
 ② 수진: _____

3-3. '공손성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를 위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잘 차린 식사자리에 손님들을 초청한 집주인이 "차린 건 없지만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공손성의 원리'의 두 가지 격률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의 한 가지 격률을 위반하였다. 위반된 '협력의 원리'의 한 가지 격률과 준수된 '공손성의 원리'의 두 가지 격률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오. (각 이유 50자 이내) (각 격률 5점, 각 이유 10점)

위반한 격률: _____
 이유: _____

준수한 격률1: _____
 이유: _____

준수한 격률2: _____
 이유: _____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래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운애에게 말하고 있다. 운애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¹⁾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돌이 안고 텅골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텅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²⁾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³⁾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뒤로 돌아 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택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 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최인훈, 『광장』

- 1) 콜호스: 옛 소련의 집단농장
- 2)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 3) 마스트: 배의 갑판 중심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문학 작품을 섬세하게 읽기 위해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비평 자료들은 『광장』의 결말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읽게 되면 이명준의 죽음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비평 자료 1>

신화 비평은 작품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과 모티프에 관심을 가진다. 이명준이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행위에는 신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바닷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또 은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생명의 어머니’로 그려져 있으며 종종 바다의 이미지와 연관되기도 한다. 『광장』의 결말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신화적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삶과 죽음, 창조와 파멸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한데 뒤얽혀 있다.

<비평 자료 2>

심리주의 비평은 작중 인물들의 심리적 동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광장』은 이명준의 자살을 걸음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유토피아의 꿈을 상실한 이명준은 부채의 사복 자리,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심표를 자주 사용하여 문장의 호흡을 가파르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한 문장 안에 넣어 표현함으로써, 작품은 자살 직전 이명준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4-1. <비평 자료 1>의 관점에서 ㉠에 담긴 상징과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4-2. <비평 자료 2>의 관점에서 ㉡에 표현된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당사자의 '숨겨진 행동'이 다른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입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격적인 운전은 사고가 날 확률을 높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공격적인 운전인지 다른 원인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격적인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대개의 경우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한다. 만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운전자 자신이 보상해야 한다면 운전자는 더 방어적으로 운전하겠지만,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면 운전자가 방어적으로 운전할 유인이 적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종업원의 태만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좋은 예이다. ㉡종업원이 태만하더라도 회사가 알아채기 어렵다면 자신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이윤 감소 대부분을 종업원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정보를 가진 쪽(즉, 숨겨진 행동을 하는 쪽)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라고 부르는데,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주인이고 정보를 가진 쪽이 대리인이다. 다시 말해 ㉢주인이 대리인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계약을 설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설계한다면 보험 가입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1. ㉠에 대한 ㉡의 사례가 ㉢인 것과 같이, ㉣에 대한 ㉡의 사례가 <보기 1>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적으시오. ((가), (나) 각 30자 이내, 각 20점)

<보기 1>

1914년에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 종업원의 일일 임금을 \$2에서 \$5로 인상하였다. 다른 회사들의 일일 임금이 여전히 \$2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였던 헨리 포드가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훗날 포드 자신은 이 조치가 "자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임금 인상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인데, 태만한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때 잃게 되는 것을 크게 하는 효과도 그 중 하나였다.

	자동차 보험 사례	포드 자동차 회사 사례
숨겨진 행동	운전자의 공격적 운전	종업원의 태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	공격적 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 증가	(가)
계약 설계로 제공된 유인 금액	공격적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잃게 되는 보험료 할증액	(나)

(가) _____

(나) _____

5-2. <보기 2>는 ㉣에 대한 ㉡의 사례인 '성과급'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① ~ ④ 가운데 [문제점] (1)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20점)

<보기 2>

[성과급]

성과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리인의 노력은 '숨겨진 행동'이어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성과에 기초하여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한 고용 계약.

[자료]

회사의 주가를 반영하여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지급했더니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다.

- ①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
- ②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 ③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계 정보가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었다.
- ④ 세계 경제의 변화로 주가가 상승한 산업의 기업들과 주가가 하락한 산업의 기업들 사이에 최고경영자들의 연봉 격차가 커졌다.

[문제점]

벵트 홈스트롬은 다음과 같은 성과급의 문제점을 밝힌 공헌을 인정 받아 201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 (1) 대리인에게 다양한 노력이 요구될 경우에는 성과급 방식의 계약이 대리인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 (2) 대리인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그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가 운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대리인에게 전가된다.

(1) _____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칸트에 따르면 계몽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미성년 상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이성을 사용하고 판단하려는 결단과 용기를 내지 않는 데 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다.

이성의 사용은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대중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을 넘어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명령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의 장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상관의 명령이 적절한지 유용한지에 관해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나 군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는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대중 앞에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예루살렘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평범함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했다. 이 점은 그의 언어 사용에서 드러난다. 그는 일상어로 대화하는 데 아주 서툴렀고 관청에서 통용되는 표현과 어투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없었기에 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몰랐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법정에서 그는 전쟁 중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고,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으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이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1. 아이히만의 '평범함'은 (가)에서 말하는 '미성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그의 세 가지 무능력함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①, ②, ③ 각 25자 이내, 각 10점)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6-2. (나)의 ㉢을 (가)를 참고하여 반박하시오. 단, (가)의 ㉠과 ㉡을 사용하시오. (100자 이내) (35점)

1. 논술(AAT)전형 인문계열 문항카드

일반정보		문항카드 1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대중매체, 개인과 사회, 현대 사회, 사회 변동

문항 및 자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과 ‘안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심화된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학, 정치, 언론, 경제, 법 심지어 군대조차도 위험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불확실한 위험의 영향에 대해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인화의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개인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 확장과 자기실현 가능성의 확장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의 확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나) 현대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험에 관한 미디어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디어는 위험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정확히 알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는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가 언제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도 위험에 관한 판단을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문의견을 알리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 질병이나 질환은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개인이 바람직한 행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은 일종의 도덕적 성취로 해석되고, 질병은 도덕적 실패로 간주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은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그려낸다. 건강한 삶은 각자가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순전히 개인적인 목표로 설정된다.

1-1. 위험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100자 이내) (20점)

1-2. <보기>를 읽고, ‘비만’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다)를 참고해서 제시하고, 그런 인식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40점)

<보기>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기존에 ‘성인병’ 또는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불려온 것들을 ‘생활 습관병’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습관병’이라는 용어의 채택은 과식,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사람들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출제 의도

매스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특히 현대 사회의 개인화의 문제가 매스 미디어의 작용과 함께 어떤 부정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현대 사회의 개인화에 대한 이해와 결합시켜서 이해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사고력과 추론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 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p>성취기준1</p> <p>(2)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해한다. (바) 개인, 집단 및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 행동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① 사회구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일상 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이 사회 구조와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한다. ②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p>	<p>관련</p> <p>제시문 (가), (다)</p>
<p>성취기준2</p> <p>(5) 일상 생활과 사회 제도 ⑥ 대중 매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⑦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이해하고, 대중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p>	<p>제시문 (나)</p>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6	71-73	제시문(가),(다)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6	218-223	제시문(나)	○

문항해설

- 제시문 1의 (가), (다)는 <사회·문화>의 ‘개인과 사회구조’의 내용 중에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리고 (나)와 (다)는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의 내용 중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비판적 수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번 문항에서는 매스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지적해야함
- 1-2번 문항에서는 현대 사회의 개인화의 문제가 매스 미디어의 작용과 함께 어떤 부정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주어진 <보기>를 참고로 그 부정적 효과의 내용을 지적할 수 있어야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에서 주어진 매스 미디어의 순기능(위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줌)과 역기능(전문가 정보에 의지해서 오히려 위험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20점, 그 중 하나만 제시하면 10점. 모두 제시하지 못할 시 0점 처리	20
1-2	1. 비만에 대한 인식의 원인(비만은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경우, 10점 2.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평가에 대한 지적(비만은 도덕적 실패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10점 3. 현대 사회의 위험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할 경우, 10점 4. 불확실한 위험의 영향에 대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의 확장으로 이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10점	40

예시답안

- 1-1. 미디어는 위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편, 전문가들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다.
- 1-2. 비만은 잘못된 행동이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도덕적 실패로 간주된다. 이런 인식은 위험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 간과하고 불확실한 위험의 영향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정보 **문항카드 2**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2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소유권, 공동선, 공동체주의, 사회 정의
예상 소요 시간	15	

문항 및 자료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인의 소유권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정당화함으로써 공동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항상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행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는 그가 처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절대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며, 서로 다른 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들이 창출되고 채택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고려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강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나)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은 각자가 자신의 심신에 대해 지닌 절대적 '자기 소유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나의 심신상의 자질과 재능 역시 나의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나의 심신상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내 소득과 재산 역시 절대

문항해설

- 문항 2는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동체주의와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후자의 주장 중 일부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지문 (가)는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강조는 공동선의 추구를 소홀히 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개인의 행위가 서 있는 역사적 맥락 및 사회적 가치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지문 (나)는 각자가 자신의 심신 및 심신활동에 대해 갖는 절대적 ‘자기 소유권’을 논거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옹호하면서 사회적 가치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 문항 2-1은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고(①번) 또한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도록 하여(②번) (가)와 (나)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문항 2-2는 <주장>에 기술된 사회 정의론의 관점을 토대로 (나)의 주장 중 일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개인 소유권에 대한 사회 정의론적 이해도 및 논리적 추리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① : (1) 채점기준 개인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절대적 소유권의 옹호/소유권의 절대적 옹호)가 공동선(사회적 가치)을 소홀히 할 수 있다(사회통합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가의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2) 유의점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한 것이므로, 답안 내용 중 (가)의 입장을 나타내는 ‘공동선’/‘사회적 가치’/‘사회통합’, (나)의 입장을 나타내는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옹호’/ ‘절대적 소유권의 옹호’ 등이 등장하고 있는가에 유의함.	20
	② : (1) 채점기준 공동선(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명분으로(이유로) 개인의 절대적 자기 소유권(자신의 심신에 대한 절대적 자기 소유권)에 토대를 둔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가의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2) 유의점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한 것이므로, 답안 내용 중 (나)의 입장을 나타내는 ‘절대적 자기 소유권’/‘자신의 심신에 대한 절대적 자기 소유권’/‘절대적 소유권,’ (가)의 입장을 나타내는 ‘공동선’/‘사회적 가치’/‘사회통합’ 등이 등장하고 있는가에 유의함.	20
	(1) 채점기준 나의 자질과 재능의 상당 부분은 내가 우연히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내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이 아니므로 나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소득과 재산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절대적인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내용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가의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2) 유의점 1) 답안 내용 중 ‘자질과 재능’, ‘상당 부분’, ‘우연히 선천적으로’, ‘노력’, ‘절대적으로 나의 것’/‘절대적 소유권’이 등장하고 있는가에 유의함. 2) 문항의 <주장>은 개인의 자질과 재능의 ‘상당 부분’은 우연한 선천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도출 가능한 결론은 개인이 자신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소득과 재산의 전부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일 뿐 그러한 소득과 재산이 아예 그의 것이 아니라거나 아예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에 유의함.	30
2-2		30

예시답안

2-1.

- ①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동선을 소홀히 하고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
- ② 공동선의 명분으로 자기 소유권에 기반을 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2-2. 나의 자질과 재능의 상당 부분은 내가 우연히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에 기반이 있고 내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이 아니므로 나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소득과 재산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정보 **문항카드 3**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고등 국어 I
	핵심개념 및 용어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격률
예상 소요 시간	15분	

문항 및 자료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협력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대화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조리 있고 간결하게 주고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 정보를 제공하라.
- 질의 격률: 증거가 있거나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라.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라.
- 태도의 격률: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협력의 원리’뿐만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공손하지 못한 표현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의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라.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되는 표현은 늘려라.
- 칭찬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은 줄이고 칭찬은 늘려라.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비방은 늘려라.
- 동의의 격률: 상대와의 의견 차이는 줄이고 의견 일치는 늘려라.

3-1. 다음 대화에서 형규의 응답이 **위반**하고 있는 ‘협력의 원리’의 격률 두 가지를 적으시오. (①, ② 각 5점)

수진: 형규야, 요즘엔 무슨 음악 들어?
 형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열심히 듣고 있어. 그 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영화에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거 말이야. 음악이 깔리면서 눈 내리던 장면 진짜 멋있었잖아. 주인공 표정도 압권이었고, 역시 거장이 만든 영화는 달라. 올 봄에 나올 그 감독의 새 영화에도 기대가 커.

- ① _____
- ② _____

3-2.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과 수진이 준수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의 격률을 각각 한 가지씩 적으시오.
(①, ② 각 5점)

선생님: 수진이가 노력을 많이 하더니 요즘 글쓰기 실력이 엄청 늘었구나.
수진: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잘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① 선생님: _____
② 수진: _____

3-3. ‘공손성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를 위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잘 차린 식사자리에 손님들을 초청한 집주인이 “**차린 건 없지만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공손성의 원리’의 두 가지 격률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의 한 가지 격률을 위반하였다. 위반된 ‘협력의 원리’의 한 가지 격률과 준수된 ‘공손성의 원리’의 두 가지 격률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오. (각 이유 50자 이내) (각 격률 5점, 각 이유 10점)

위반한 격률:

이유:

준수한 격률1:

이유:

준수한 격률2:

이유:

출제 의도

고등국어 1의 화법과 작문에서 상황에 맞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협력의 원리’의 4가지 격률과 ‘공손성의 원리’ 5가지 격률을 잘 이해하고 실제 예들에 적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임.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호-14호 [별책 5]		
관련 성취기준	1. 화법		
	과목명: 국어 1		
	성취기준1	‘협력의 원리’의 4가지 격률을 잘 이해하고 실제 예들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	관련
	성취기준2	‘공손성의 원리’ 5가지 격률을 잘 이해하고 실제 예들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	
성취기준3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협력의 원리를 위반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실제 예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 국어 1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6	132-141		○
고등 국어 1	윤여탁 외	미래엔	2016	68-79		○
고등 국어 1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6	62-73		○
고등 국어 1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6	54-70		○

문항해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협력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대화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조리 있고 간결하게 주고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제시문에 제시된 네 가지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협력의 원리’뿐만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공손하지 못한 표현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제시문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본 문항은 이러한 대화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격률의 이름이 맞으면 각 5점, 틀리면 0점	10점
3-2	격률의 이름이 맞으면 각 5점, 틀리면 0점	10점
3-3	격률의 이름이 맞으면 각 5점, 틀리면 0점, 격률을 위반하였거나 준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10점, 부분적으로 틀리면 5점 감점	45점

예시답안

- 3-1. 유의 사항: 이 문항에서는 ①, ②번 답을 적을 때 순서에는 상관이 없음
 ① 양의 격률 ② 관련성의 격률
- 3-2. ① 선생님: 칭찬의 격률 ② 수진: 겸양의 격률
- 3-3. 유의 사항: 이 문항에서도 ‘준수한 격률1’과 ‘준수한 격률2’를 적을 때 순서에는 상관이 없음
 위반한 격률 질의 격률 차린 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
 준수한 격률1 겸양의 격률 차린 것이 없다고 부정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였기 때문에 겸양의 격률을 준수했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였기 때문’ 대신에 ‘자신에 대한 비방을 늘렸기 때문’도 정답 처리함)
 준수한 격률2 요령의 격률 많이 드실 것을 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렸기 때문에 요령의 격률을 준수했다. (여기서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렸기 때문’ 대신에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였기 때문’도 정답 처리함)

일반정보

문항카드 4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4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국어 /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다양한 관점, 섬세한 읽기, 비평적 이해
예상 소요 시간	20분	

문항 및 자료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운애에게 말하고 있다. 운애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¹⁾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프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텅골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텅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²⁾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룬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³⁾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북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 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충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킨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 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최인훈, 『광장』

- 1) 콜호스: 옛 소련의 집단농장
- 2) 사북: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들썩거리처럼 쓰이는 물건
- 3) 마스트: 배의 갑판 중심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문학 작품을 섬세하게 읽기 위해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비평 자료들은 『광장』의 결말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읽게 되면 이명준의 죽음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비평 자료 1>

신화 비평은 작품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과 모티프에 관심을 가진다. 이명준이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행위에는 신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바닷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또 은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생명의 어머니’로 그려져 있으며 종종 바다의 이미지와 연관되기도 한다. 『광장』의 결말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신화적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삶과 죽음, 창조와 파멸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한데 뒤얽혀 있다.

<비평 자료 2>

심리주의 비평은 작중 인물들의 심리적 동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광장』은 이명준의 자살을 걸음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유토피아의 꿈을 상실한 이명준은 부채의 사북 자리,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심표를 자주 사용하여 문장의

호흡을 가파르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한 문장 안에 넣어 표현함으로써, 작품은 자살 직전 이명준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 4-1. <비평 자료 1>의 관점에서 ㉠에 담긴 상징과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 4-2. <비평 자료 2>의 관점에서 ㉡에 표현된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출제 의도

문항은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II ‘문학’ 그리고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 중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등과 관련되어 있다. 관련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어 II ‘문학’

-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형상화한다.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인물, 집단, 세계와 충돌하며 갈등에 빠지기도 한다. 작가들은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나 모순을 폭로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문학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문항은 최인훈의 <광장>의 결말부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비평 자료를 제시한 후, 수험생이 비평 자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섬세하고 읽고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국어 II], [문학]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문학	관련	
	성취기준1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제시문과 비평자료
	성취기준2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제시문과 비평자료
성취기준3	[문학]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과 비평자료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4	296-302	제시문	×
고등학교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14	273-280	제시문	×
고등학교 문학	권영민 외	지학사	2014	393-397	제시문	×
고등학교 문학	우한용 외	비상교과서	2014	262-269	제시문	×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4	226*232	제시문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김옥동	문학과 지성사	1996	177-219	비평자료2	○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김옥동	문학과 지성사	1996	265-300	비평자료1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4	304	비평자료	○

문항해설

문항의 제시문으로 최인훈 소설 <광장> 결말부를 제시하였다. <광장> 결말부는 풍부한 상징과 신화적 모티프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 이명준이 처한 상황을 그의 내면 시점을 따라 보여주고 있어 섬세한 읽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장면이 암시하는 이명준의 죽음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에 따라 결말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문항은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담은 비평 자료를 제시하였다. 비평 자료는 각각 신화 비평과 심리주의 비평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김옥동의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문학과지성사, 1996)의 ‘제4장 심리주의 비평 방법’과 ‘제6장 신화 비평 방법’에서 참고하여 출제자가 문항의 초점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두 비평자료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제시문 중 일부를 밑줄 ㉠, ㉡으로 표시하였다. 이 두 구절은 각각 신화적 상징과 모티프,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준다. 이 문항은 수험생이 비평 자료가 담고 있는 신화적 상징과 모티프, 심리적 동기 등 각 관점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밑줄로 표시한 ㉠, ㉡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비평자료의 관점에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섬세하고 이해하고 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므로, 난이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의 상징과 모티프	상징	두 마리 새는 은혜와 딸을 상징	10	40
		모티프	은혜와 딸을 죽음을 이긴 신화적 존재로 표현	10	
	죽음의 의미 해석	신화적 의미 1	생명의 근원으로의 회귀	10	
		신화적 의미 2	죽음을 통한 재생	10	

- * 각 항목에 핵심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을 경우 10점,
- * 유사한 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부분 점수 5점,
- * 항목에 대한 답을 누락한 경우 0점으로 채점.
- * 각 항목을 논리적으로 연관 지어 서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5점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4-2	㉠의 심리 상태	심리 상태	죽음 직전 이명준은 환각 상태에 있음	10	40
		환각 내용	두 마리 새를 고운 각시들의 손짓으로 환각	10	
	죽음의 의미 해석	심리의 원인	사랑하는 이의 죽음, 유토피아의 꿈 상실	10	
		결과의 의미	심리적으로 무너진 이의 허무한 죽음	10	

- * 각 항목에 핵심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을 경우 10점,
- * 유사한 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부분 점수 5점,
- * 항목에 대한 답을 누락한 경우 0점으로 채점.
- * 각 항목을 논리적으로 연관 지어 서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5점

예시답안

- 4-1. ㉠에서 두 마리 새는 즉 은혜와 딸을 상징한다. 이들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여자의 용기’ 등에서 보듯 죽음을 이긴 신화적 존재(신화적 모티프)로 표현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명준이 두 마리 새를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든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의 회귀, 또는 죽음을 통한 재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2. ㉠에서 이명준은 두 마리 새의 움직임에서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르는 것을 본다. 이로 보아 죽음 직전 이명준은 환각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명준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유토피아의 꿈을 상실하여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허무한(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정보 **문항카드 5**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5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경제, 사회,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도덕적 해이, 보험, 유인
예상 소요 시간	15	

문항 및 자료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당사자의 ‘숨겨진 행동’이 다른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입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격적인 운전은 사고가 날 확률을 높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공격적인 운전인지 다른 원인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격적인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대개의 경우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한다. 만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운전자 자신이 보상해야 한다면 운전자는 더 방어적으로 운전하겠지만,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면 운전자가 방어적으로 운전할 유인이 적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종업원의 태만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좋은 예이다. ㉡종업원이 태만하더라도 회사가 알아채기 어렵다면 자신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이윤 감소 대부분을 종업원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정보를 가진 쪽(즉, 숨겨진 행동을 하는 쪽)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라고 부르는데,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주인이고 정보를 가진 쪽이 대리인이다. 다시 말해 ㉠주인이 대리인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계약을 설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설계한다면 보험 가입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1. ㉠에 대한 ㉡의 사례가 ㉢인 것과 같이, ㉣에 대한 ㉡의 사례가 <보기 1>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적으시오. [(가), (나) 각 30자 이내, 각 20점]

<보기 1>

1914년에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 종업원의 일일 임금을 \$2에서 \$5로 인상하였다. 다른 회사들의 일일 임금이 여전히 \$2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였던 헨리 포드가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훗날 포드 자신은 이 조치가 “자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임금 인상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인데, 태만한 노동자가 해고 되었을 때 잃게 되는 것을 크게 하는 효과도 그 중 하나였다.

	자동차 보험 사례	포드 자동차 회사 사례
숨겨진 행동	운전자의 공격적 운전	종업원의 태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	공격적 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 증가	(가)
계약 설계로 제공된 유인 금액	공격적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잃게 되는 보험료 할증액	(나)

(가) _____

(나) _____

5-2. <보기 2>는 ㉣에 대한 ㉡의 사례인 ‘성과급’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 ~ ㉣ 가운데 [문제점] (1)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20점)

<보기 2>

[성과급] 성과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리인의 노력은 ‘숨겨진 행동’이어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성과에 기초하여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한 고용 계약.

[자료] 회사의 주가를 반영하여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지급했더니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다.

㉠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

㉡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계 정보가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었다.

㉣ 세계 경제의 변화로 주가가 상승한 산업의 기업들과 주가가 하락한 산업의 기업들 사이에 최고경영자들의 연봉 격차가 커졌다.

[문제점] 벤트 홈스트롬은 다음과 같은 성과급의 문제점을 밝힌 공헌을 인정 받아 201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 대리인에게 다양한 노력이 요구될 경우에는 성과급 방식의 계약이 대리인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그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가 운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대리인에게 전가된다.

(1) _____

출제 의도

도덕적 해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에 대한 글을 읽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개념적으로 파

약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성취기준 • 성취수준: 고등학교 사회』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경제, 사회		관련
	성취기준1	경1212-2. 선택의 과정에서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보기 1> <보기 2>
	성취기준2	경1234-1. 시장 실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보기 1> <보기 2>
	성취기준3	경1263. 자산 관리의 원칙을 이해하고 예 • 적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5-1
성취기준4	사1225-2. 사회 조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유형에 따른 특징을 비교 • 분석할 수 있다.	제시문 <보기 2>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Ⅲ. 시장과 경제 활동 4. 시장의 실패;	김중호 안병근	씨마스, (교학사)	2016	135-139		○
고등학교 경제 VI. 경제생활과 금융 3. 금융 상품의 이해	김중호 안병근	씨마스, (교학사)	2016	271-272		○
고등학교 사회 • 문화 2. 개인과 사회 구조 2)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③ 사회조직과 관료제	김중호 안병근	금성출판사	2016	72-76		○

문항해설

- 문항 5-1은, 제시문에 제시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두 가지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의 설계에 대한 개념과 한 가지 사례에 기초하여 <보기 1>에 제시된 임금 인상 조치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의 설계로 해석할 때 자동차 보험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즉, 자동차 보험의 사례에서 ‘숨겨진 행동’과 그로 인한 ‘비용’, 이를 줄이기 위한 ‘유인’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비하여 종업원의 사례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문항 5-2는, 성과급의 개념과 사례, 문제점을 정리한 <보기 2>를 읽고, 종업원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약 설계 방식의 사례로서 성과급이 초래한 변화들 가운데에서 문제점 (1)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가) ‘태만으로 인한 자동차 회사의 이윤 감소’라는 내용을 제대로 서술하면 2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5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윤 감소’라는 내용만 포함하여 답하면 1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2~3점을 감점할 수 있음.	20
	(나) ‘태만으로 해고되었을 때 잃게 되는 임금 인상분’이라는 내용을 제대로 서술하면 2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5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태만으로 해고되었을 때 잃게 되는’이라는 설명이 없이 ‘임금 인상분’이란 내용만 포함하여 답하면 1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2~3점을 감점할 수 있음.	20

5-2	②와 ③을 모두 고르면 20점, ②와 ③ 가운데 하나만 고르면 10점, ②와 ③ 가운데 하나와 ①과 ④를 고르면 5점, ②와 ③ 가운데 어느 것도 고르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함.	20
-----	--	----

예시답안

- 5-1.
 (가) 태만으로 인한 자동차 회사의 이윤 감소
 (나) 태만으로 해고되었을 때 잃게 되는 임금 인상분
- 5-2. (1) ②, ③

일반정보 **문항카드 6**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윤리와 사상) / 6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이성의 공적 사용, 이성의 사적 사용, 미성년, 평범함
예상 소요 시간	15분	

문항 및 자료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칸트에 따르면 계몽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미성년 상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이성을 사용하고 판단하려는 결단과 용기를 내지 않는 데 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다.

이성의 사용은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대중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을 넘어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명령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의 장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상관의 명령이 적절한지 유용한지에 관해 따지는 것은 운당치 않다. 그러나 군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는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대중 앞에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예루살렘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평범함**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했다. 이 점은 그의 언어 사용에서 드러난다. 그는 일상어로 대화하는 데 아주 서툴렀고 관청에서 통용되는 표현과 어투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없었기에 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몰랐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법정에서 그는 전쟁 중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고,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으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 그는 자신이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1. 아이히만의 ‘평범함’은 (가)에서 말하는 ‘미성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그의 세 가지 무능력함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 ㉡, ㉢ 각 25자 이내, 각 10점)

6-2. (나)의 ㉢을 (가)를 참고하여 반박하시오. 단, (가)의 ㉠과 ㉡을 사용하시오. (100자 이내) (35점)

출제 의도

인간 이성의 비판적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러한 능력이 자유롭게 사용되지 않을 때 현실 속에서 어떤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함. 이를 위해 칸트의 계몽사상에서 제시된 미성년 상태의 개념과 이성의 공적 능력과 사적 능력의 구별을 이해하고 사적 능력에만 집중될 때 맹목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이히만의 사례와 연결시켜 확인하도록 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12 - 1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아) 의무론적 윤리와 칸트주의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을 파악하고 칸트의 윤리 사상에서 도덕 법칙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칸트주의와 현대 칸트주의를 조사하고, 칸트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삶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칸트의 계몽주의와 이성에 대한 이해를 탐구한다. ①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 ② 칸트의 윤리 사상과 도덕 법칙의 의미 ③ 칸트의 계몽사상과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에 대한 이해 ④ 현대 칸트주의와 그 의미	

2.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번역자료)	칸트	서광사	2009	13-22	제시문(가)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번역서)	한나 아렌트	한길사	2006	36-39	제시문(나)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9인	천재교육	2014	168-173		제시문(가)	○
	윤리와 사상	김선욱 외 7명	금성	2014	172-178		제시문(가), 제시문(나)	○

문항해설

6번 문항은 이성의 비판적 사용과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현실 속에서 어떤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칸트의 『계몽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계몽주의적 이성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칸트는 이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과감하게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또한 칸트는 그 이성을 집단이나 조직의 체계와 이익을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적 사용에 대해 인류를 위해 그 조직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대중 앞에서 공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구별하고 이를 위한 자유를 강조한다. 제시문 (나)는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서 아이히만을 관찰하면서 군인 장교로서 보여준 그의 맹목적 복종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규정한 한나 아렌트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한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을 따른 것이라며 강변한다. 본 문항은 아이히만이 보여주는 “평범성”이 칸트가 말하는 “미성년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의 주장이 칸트의 가르침과 어떻게 대치되며,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해석의 능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하위 문항 6-1은 제시문 (가)에서의 “미성년 상태”와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아이히만의 ‘평범함’을 연결

시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맹목적으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한 아이히만의 평범함은 스스로 사유하고 결단하지 못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즉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지도에 의존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미성년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하위 문항 6-2는 칸트가 구별한 “이성의 사적 사용”과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반인류적 범죄를 초래하고도 법정에서 칸트를 인용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아이히만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칸트의 가르침을 조직을 위해 전문적이며 맹목적인 이성의 사적 이용으로만 간주한 그의 주장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비판적 이성의 공적 사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칸트가 말하는 “미성년 상태”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아이히만의 “평범성”과 연관된 무능력함을 제시문 (나)에서 파악하는 추론능력이 채점 기준임. 1. 세 가지 무능력함을 정확하게 기술했을 경우 각기 10점씩 부여함 (10 * 3 = 30점) 2. 답안에서 주요개념(예, 사유, 결단, 타인 또는 다른 사람)이 빠져있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2점 감점	30
	아이히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에 대한 구별 및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이히만이 그것들을 어떻게 왜곡 또는 오해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논술능력이 채점 기준임. 1.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별하는 내용 (10점) 2. 아이히만의 주장에 담긴 오해 또는 왜곡에 대한 반박 내용 (10점) 3-1. 이성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맹목적임, 무비판적임, 기계적임 등) (5점) 3-2. 이성의 공적 사용의 긍정적 측면 강조(비판적임, 인류 공동체를 위함, 대중 앞에서 공표함 등) (5점) 4. 문장 구성 및 표현 능력(5점)	35

예시답안

6-1.

- ① 스스로 사유할 수 없음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함)
- ② 스스로 결단할 수 없음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함)
- ③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도 알지 못함)
- * ()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으로 인정함
- * ()에 있는 답이 다른 답으로 나올 경우에는 중복으로 판단하여 하나만 맞는 것으로 채점(예를 들어, ‘스스로 사유할 수 없음’과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함’이 따로 있을 경우)
- * 하나의 답 안에 두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는 하나로 인정함

6-2. 아이히만은 자신의 맹목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성의 사적 사용만을 주장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무시(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고 교 명	고등학교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고교명,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4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은 권력에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하는 것을 써먹고 있다. ... (중략) ...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억압된 욕망은 그것이 강력하게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곁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1. (가)의 밑줄 친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30점)

㉠ ----- ㉡ -----

1-2. (가)의 관점에서 (나)의 의의를 밝힌 글을 쓰고자 한다. 다음 주제문에 이어 이 글을 완성하시오. (150자 이내) (40점)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부정적 힘의 정체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개조의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이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능력 또는 지식은 실제 경험 여하 또는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주로 후천적인 언어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견해를 ‘후천성 가설’이라 부른다. 한편 이성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후천적 경험이 아니라 선천적 능력 또는 이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인간 언어 속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요인들이 있으며 아이들은 보편적 요인들을 갖고 태어나므로 모국어를 매우 어린 나이에, 매우 빠르게, 특별한 노력도 없이 습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선천성 가설’이라 부른다.

예를 들자면 어휘가 지닌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은 ‘후천성 가설’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어휘와 그 어휘가 가리키는 지시물 간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휘와 지시물 간의 이러한 관계를 ‘자의성’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우물 속에 있는 액체를 ‘물’이라고 부르지만 ‘물’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우물 속의 액체’ 간에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의성은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어휘가 언어마다 다른 것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water,’ 불어에서는 ‘eau,’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shui’라고 부른다. 어휘가 지닌 자의성에도 불구하고 여섯 살 무렵의 아이들이 평균 1만 4천개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모국어의 어휘를 습득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런데 어휘가 지닌 ‘음운의 제한성’은 ‘선천성 가설’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여러 언어들이 지닌 어휘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언어들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어휘들은 제한된 숫자의 음운(音韻)들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은 인간 언어에 쓰이는 음, 즉 자음과 모음을 일컬으며 그 수는 제한되어 있다. 국제음성학기구에서 만든 자, 모음 표에 따르면 음운의 수는 80여개로 제한되어 있다. 언어학자 Harrison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7,000종이 넘는 다양한 언어들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쓰이고 있지만 각 언어에 쓰이는 음운들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위에서 지적한 자음과 모음 중의 일부이다.

2-1. “어휘가 지닌 ‘자의성’은 ‘후천성 가설’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둘째 단락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7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30점)

2-2. “어휘가 지닌 ‘음운의 제한성’은 ‘선천성 가설’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셋째 단락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7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동물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 관계로 간주하면서, 3 가지 종류의 자극을 구분한다. 우선 개는 고기만 보면 무조건적으로 침을 흘린다. 이에 고기를 “무조건적 조건”이라고 하고 침을 “무조건적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소리만 들려주었을 때엔 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어떠한 반응도 야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극을 “중립자극”이라고 한다. 파블로프는 배고픈 개에게 고기를 주면서 종소리를 동시에 들려주었다. 그러다가 나중엔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종소리를 “조건자극”이라고 하고 이때의 침을 “조건반응”이라고 한다. 이제 개는 무조건자극(고기) 없이 조건자극(종소리)만으로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경험을 중시하는 학습이론을 지지하는 토대가 되었다. 예를 들자면, A)_____.

2. 스킨너는 인간의 행동이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단순한 생리적 또는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교실에서 일어나는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문제 풀기 등과 같은 복잡한 행동은 고전적 조건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행동(반응)의 유발 요인으로 자극보다는 보상에 강조를 둔다. 이러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사실 고전적 조건화 이론보다 학습 이론에 더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자면, B)_____.

3. 반두라는 조작주의 이론이 지나치게 행동의 결과에만 집착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학습이론을 주장한다. 반두라에 따르면,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경향을 가진다. 타자의 행동이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학습은 사회라는 전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모방하려는 주체의 자발적인 의도이다. 이러한 입장을 정당화해 줄 예들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C)_____.

3-1. 위 글의 A, B, C에 들어갈 적절한 예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30점)

A: _____ B: _____ C: _____

<보기>

- 가) 시험을 잘 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 나) 저속한 말과 공격적 행동을 많이 포함하는 만화나 영화를 많이 본 아동은 대체로 저속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 다) 시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는 아이에게 충분히 쉬운 문제를 주어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시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다.
- 라) 학생들로 하여금 필기시험보다는 실기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폭력성을 줄인다.

3-2. 선영이는 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선영이가 가지게

된 개에 대한 공포증을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위 <제시문 1>과 연관지어 <무조건, 중립, 조건> 중에서 골라 넣으시오. (30점)

개가 고기를 보자마자 침을 흘리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생리적 인과관계는 (a)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리적 차원과 다른 심리적 차원의 반응은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것이다. 학습한 적이 없지만 모종의 자극을 보자마자 필연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때의 자극은 (b)자극이며, 그 결과는 (c)반응이다. 선영이는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다. 물린 경험을 갖기 이전의 개는 선영이에게 (d)자극이다. 그러나 선영이는 개에게 물린 사건을 갖게 된 이후로 이제 개만 보면 공포감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후의 개는 (e)자극이며 이때 발생하는 공포감은 (f) 반응이다.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f. _____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집트의 왕 타무스는 발명의 신 테우트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테우트는 최초로 수와 계산을 발견하고 기하학과 천문학을 창시했으며, 더 나아가 장기와 주사위 놀이, 더군다나 글자까지 발명했다. 테우트는 타무스왕에게 가서 자신의 기술들을 보이고는, 다른 이집트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무스는 그 기술 하나하나가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물었고, 테우트가 세세히 설명을 해 나가는 사이에, 타무스는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좋은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평가했다. 글자의 경우에 이르러 테우트가 말하길, “왕이시여, 이 글자는 이집트 사람들을 더 지혜롭고 더 잘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기억의 약이자 지혜의 약을 발명했다는 말씀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타무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술이 출중한 테우트여, 어떤 사람들은 기술에 관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게 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해로운 몫과 이로운 몫을 갖는지 분간할 수 있소. 그리고 지금 그대는 글자의 아버지로서, 글자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글자가 발휘하는 능력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소.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것은 기억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 하게 함으로써 배운 사람들의 혼에 망각을 제공할 것이니, 그들은 글쓰기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외부로부터 남의 것인 표시에 의해 기억을 떠올리지, 내부로부터 자신들에 의해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오. 사실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 환기의 약을 그대가 발명한 것이오. 다른 한편 그대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워 보이는 의견을 제공하지만 참된 모습, 즉 진상(眞相) 그대로를 제공하지 않소. 왜냐하면 그대 덕에 많이 듣게 되어 그들은 가르침이 없어도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대개의 경우 사실은 그들은 무지하며 함께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니, 지혜로워지는 대신 지혜로워 보이게 된 탓이오.”

- 플라톤, 「파이드로스」

4. 위의 제시문에서 볼 때, 발명의 신 테우트는 자신의 발명품인 문자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타무스 왕의 말을 참조하여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200자 이내) (7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 빈민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자의 불행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택지개발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이나 정책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 개발사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만약 이때의 ‘책임’이 법적 책임을 말한다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일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가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법적 책임 개념하에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는 불행에 대해 책임질 누군가를 특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불행이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과 무관한 자연현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불행은 정책과 제도라는 구조적 현상의 산물이며, 정책과 제도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택지개발정책 입안자를 임명한 시장이나 정책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도 사람들이 선출한 것이다. 또한 자칫 불행과 부정의를 낳을 수도 있는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대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지나치거나 저항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역시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결국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은 우리가 행한 일련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책임과 구분된 ‘정치적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의 초점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를 지목하고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다. 정치적 책임에서는 구조적 불행과 부정의에 대한 우리의 간접적 책임을 인식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정치적 책임은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 제3국의 어린 소녀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한 운동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없다. 운동화를 사서 신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우리는 소녀들의 처지에 안타까워하고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운동화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국내 판매업자에게 압력을 넣어 회사의 고용방향을 바꾸도록 할 수도 있다. 각 개인이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고 대처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불행과 부정의를 시정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다.

.....

5-1. 제시문을 참조하여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80자 이내) (55점)

5-2. 제시문과 아래 지문을 참조하여 빈 칸을 채우시오. (40자 이내) (15점)

히틀러는 1933년 당시 독일의 제1당이었던 나치당의 당수로서 총리에 임명되었고, 1934년에는 국민투표 결과 대통령직을 겸하는 총통에 취임했다.

히틀러 치하에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당시 일반 독일국민들도 그 학살에 일말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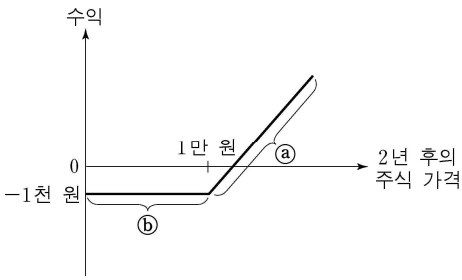
‘옵션(option)’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어서 (a) 임대료가 (b) 임대료 수준보다 낮아지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A]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가가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1만 5천 원에 팔아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c)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d)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

6-1. (a) ~ (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각각 하나씩 고르시오. (40점)

- (a) 새로 형성된, 계약한
- (b) 새로 형성된, 계약한
- (c) 상승시킬, 하락시킬
- (d) 상승시킬, 하락시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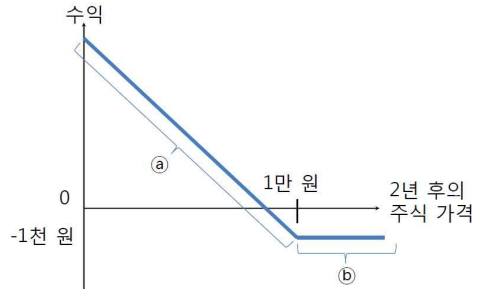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6-2. 위글의 그래프는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보기>의 그래프는 [B]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A]의 밑줄 친 부분들을 참조하여 [B]의 빈칸 (가)~(다)를 각각 30자 이내로 채우시오. (30점)

<보기>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가),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 [B]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나)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다),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1]

- 출제의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비평문의 관점에 따라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적절히 이해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음

(1-1) (30점)

- 모범답안: ㉠ 난쟁이 일가(혹은 난쟁이) (15점)
㉡ 철거계고장 (15점)

- 채점기준: ㉠의 경우 '다섯 식구', '우리 다섯 식구', '어머니', '아버지' 등 부분 점수 부여

(1-2) (40점)

- 모범답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쟁이와 그의 가족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산업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해 준다. (150자 이내)

- 채점기준: '억압당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을 억압하는 '부정적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품이 지닌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난쟁이 일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를 겪고 있다는 점, 그것이 '산업사회의 모순'에 따른 것이라는 점, 이 작품이 '산업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등의 구절이 포함되면 정답으로 간주함
(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가)의 관점만 반복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문제 2]

- 출제의도: (2-1) 어떤 개체 혹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를 어휘가 지닌 임의성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사회 내에서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출제되었음
(2-2) 어휘가 지닌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휘를 일찍, 빠르게, 그리고 쉽게 배우는 이유를 간파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출제되었음

(2-1) (30점)

- 모범답안: 그 이유는 어휘가 어떤 지시물을 가리키는지는 언어가 쓰이는 사회 내에서 정해지므로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없는 혹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70자 이내)

(2-2) (30점)

- 모범답안: 그 이유는 아이가 언어에 쓰이는 음운들을 알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일찍, 빠르게, 그리고 쉽게 습득하는 것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70자 이내)

- 채점기준: 70자에서 +/-20을 넘으면 1점 감점

무응답: 0점

26~30 점: 내용을 잘 이해한 우수한 답안으로 판단

23~25 점: 내용을 이해했으나 부족한 답안으로 판단

20~22 점: 내용의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15~19 점: 내용의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거나 엉뚱한 대답으로 판단

[문제 3]

- **출제의도:** 본 문제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예시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 이에 정답률은 약 70% 정도 예상된다.

(3-1) (30점)

- **모범답안:** A: 다, B: 가, C: 나

- **채점기준:** A, B, C 각 10점씩

(3-2) (30점)

- **모범답안:** a: 무조건, b: 무조건, c: 무조건, d: 중립, e: 조건, f: 조건

- **채점기준:** a, b, c, d, e, f 각 5점씩

[문제 4]

- **출제의도:** 문자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지문을 토대로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사용이 우리에게 초래할 부정적 방향을 유비적으로 추리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60점)

- **모범답안:** 첫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타인의 기억들을 보기만 할 뿐 그 정보를 자신이 참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며 자신의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지 못한다. 둘째, 인터넷의 정보는 선별적이고 주관적이라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정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아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200자 이내)

- **채점기준:** 문제에서 첫째와 둘째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다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55점 안팎의 점수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주어진 범위를 넘어선 핵심 개념어를 구사하여 응답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점수를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 가지 측면 중 한 측면만 제시하고 있다면 35-40점 내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마저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 5]

- **출제의도:** 제시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5-1) (55점)

- **모범답안:** "법적 책임에서는 고의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치적 책임에서는 정책과 제도가 야기하는 개인적 불행에 대한 사람들의 간접적 책임이 부각된다. 정책과 제도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련의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에서는 구조적 불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채점기준:** 총 55점을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45점, 구성의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0점으로 배분하여 채점했다. 내용의 충실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음 항목들이 고려되었다.

- 1) 법적인 직접적 책임과 정치적인 간접적 책임을 대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2) "정책과 제도는 사람들(=우리, 사회 구성원 일반)의 선택과 결정의 산물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3) "정치적 책임은 정책과 제도로 인한 불행이나 부정의에 관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4) "정치적 책임에서는 구조적 불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5-2) (15점)

- 모범답안: 1) “왜냐하면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히틀러를 국민투표에 의해 총통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또는 “왜냐하면 히틀러를 국민투표에 의해 총통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2) “왜냐하면 히틀러를 총통으로 선출했고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보기>를 참조하여 문장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국민투표에 의한 히틀러의 총통 선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15점, 비문이거나 문장 내에서 내용상 충돌이 있거나 제시문의 일반적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는 적외 감점했다.

[문제 6]

- 출제의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국어 및 일반사회, 수학 교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AAT라는 시험 형식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출제하였음. ‘옵선’의 정의와 연원, 그 가운데 ‘콜옵선’의 작동원리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첫째 제시문의 흐름에 비추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둘째 제시문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소개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선’의 작동원리를 응용하여 <보기>에 그래프와 함께 소개된 “팔 수 있는 권리”인 ‘푹옵선’의 작동원리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설계하였음. 제시문은 고등학교 『일반사회』 Ⅲ. <합리적 선택과 삶>에서 ‘금융과 합리적 소비’ 관련 소재로서, 사회탐구 교과목 가운데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는 교과과정에 소개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고, 2006학년도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 ‘언어영역’의 지문을 활용하였음. 또한 콜옵선과 푹옵선에 대한 설명에서 그래프를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경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기초적인 수학적 사고능력과 언어적 능력을 결합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음

(6-1) (40점)

- 모범답안: (a) 새로 형성된, (b) 계약한, (c) 상승시킬, (d) 하락시킬
- 채점기준: 모범답안과 같이 적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점을 부여함
각 항에 들어갈 말을 각각 두 개씩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는 문항이므로 모범답안과 다른 내용을 적었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띄어쓰기나 철자 등이 틀렸을 경우에는 틀린 사항 하나당 1점씩 깎는 방식으로 채점
예를 들어 “새로 형성된”을 “새로 형성한”으로 답한 경우에는 8점을, “계약한”을 “계약된”으로 답한 경우에는 9점을 부여함

(6-2) (30점)

- 모범답안: (가) 1만 원에 못 미치면
(나) 5천 원이라면 5천 원에 사서 1만 원에 팔아
(다) 1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 채점기준: 모범답안과 같이 적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점을 부여함
문두에서 제시문의 “[A]의 밑줄 친 부분들을 참조하여” 빈칸 (가)~(다)를 채우라고 명시함으로써 [A]와 [B]의 차이를 이해하여 [A]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같아도 모범답안과 다른 형식으로 답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 2~5점씩 감점을 부과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나)의 경우, “5천 원이라면 5천 원에 사서 1만 원에 팔아” 대신 “5천 원이라면”과 같이 답한 경우에는 5점을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팔아 5천 원에 사서”와 같이 답한 경우에는 8점을 부여함
또한 제시문과 <보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이므로 띄어쓰기와 철자 등의 오류에 대해서도 1~2점씩 감점함
예를 들어 “1만 원” 대신 “1만원”으로 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1점을 감점함
이외에 “1만 원에 못 미치면”을 “1만 원보다 적은 경우” 등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감점이 없음

